

연구보고 2016-21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문무경 조숙인 김정민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우리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응정책은 주로 일·가정 양립, 고용, 주거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사회의 부모됨과 자녀양육의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는데는 소홀한 편이다. 특히, 보편적 유아교육과 보육을 달성하는 획기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은 여전하며 오히려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저하 문제가 야기된 실정이다. 만혼, 비혼, 이혼 등의 증가와 의도적 무자녀가구의 증가는 결혼과 가족, 자녀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기존의 가치가 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자녀양육을 주로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해 왔으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거와 현재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형태 및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상대적으로 간과된 문화적 요인인 부모됨과 양육가치관을 파악하고자 기초연구로서 수행되었다. 특히,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도에 수행한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의 주요결과와 2016년 현재의 부모됨 인식 및 자녀양육관을 비교하여 변화 양상 및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남녀 1,000여명을 성별, 세대별 등으로 표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한부모 가구와 의도적 무자녀가구를 별도로 포함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신 부모들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한국인의 자녀양육관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녀양육관 정립을 위한 담론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6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내용	19
3. 연구방법	19
II. 연구의 배경	30
1. 부모됨	30
2. 자녀양육관	33
3. 가족·육아지원 정책 현황과 특징	46
III. 한국인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요구	50
1. 자녀에 대한 인식	50
2. 부모됨에 대한 인식	62
3. 부모됨 준비 관련 요구	79
IV.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실제와 요구	86
1. 양육 신념 및 정서	86
2. 양육 시간 및 비용	101
3. 양육 정보와 매체의 영향	118
4.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관심 이슈	129
5. 양육지원 요구	136
V.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자녀양육관	149
1. 한부모가족	149
2. 의도적 무자녀 가정	188
3. 한자녀와 다자녀 가족: 포커스집단 면담을 중심으로	216
VI.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특징	222
1. 2016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	222

2. 자녀양육관의 변화	232
VII. 결론 및 제언	241
1. 결론	241
2. 제언	244
참고문헌	250
부록	256
부록 1. 설문지	257

표 차례

〈표 I-3- 1〉 전문가 협의회 자문자 및 자문내용	20
〈표 I-3- 2〉 20~50대 성인 조사대상 표집	20
〈표 I-3- 3〉 의도적 무자녀 조사대상 표집	21
〈표 I-3- 4〉 설문조사 내용	22
〈표 I-3- 5〉 조사표 문항	23
〈표 I-3- 6〉 20~50대 성인 조사 응답자 특성	24
〈표 I-3- 7〉 한부모 조사 응답자 특성	25
〈표 I-3- 8〉 의도적 무자녀 조사 응답자 특성	25
〈표 I-3- 9〉 포커스 집단 면담 대상 표집 설계	26
〈표 I-3-10〉 포커스 집단 면담 공통 질문	26
〈표 I-3-11〉 집단 특성별 포커스 집단 면담 질문	27
〈표 I-3-12〉 기혼 부모집단 면담자 특성	28
〈표 II-2- 1〉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및 실제 관련 출연기관 연구	35
〈표 II-2- 2〉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및 실제 관련 학술연구	36
〈표 II-2- 3〉 세대별 주요 양육 이슈 및 해결과제	43
〈표 II-3- 1〉 연도별 주요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	49
〈표 III-1- 1〉 자녀의 필요성	51
〈표 III-1- 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52
〈표 III-1- 3〉 자녀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54
〈표 III-1- 4〉 형제·자매의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56
〈표 III-1- 5〉 아들에 대한 기대	57
〈표 III-1- 6〉 딸에 대한 기대	59
〈표 III-1- 7〉 부모가 기대하는 아들의 장래 직업	60
〈표 III-1- 8〉 부모가 기대하는 딸의 장래 직업	61
〈표 III-2- 1〉 부모됨에 대한 동의 정도	63
〈표 III-2- 2〉 부모 주도성에 대한 인식	65
〈표 III-2- 3〉 자녀 보답에 대한 인식	66
〈표 III-2- 4〉 자녀성장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	68

〈표 III-2- 5〉 부모의 자녀지원 시기(1): 정서적 지지	69
〈표 III-2- 6〉 부모의 자녀지원 시기(2): 경제적 지지	70
〈표 III-2- 7〉 자녀 성장시기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71
〈표 III-2- 8〉 자녀 성장시기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영유아 자녀	72
〈표 III-2- 9〉 자녀 성장시기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초등자녀	73
〈표 III-2-10〉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덕목	74
〈표 III-2-11〉 좋은 부모가 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점	76
〈표 III-2-12〉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77
〈표 III-2-13〉 부모역할이 가장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점	78
〈표 III-3- 1〉 생애주기별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1순위	80
〈표 III-3- 2〉 생애주기별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1+2순위	80
〈표 III-3- 3〉 부모됨 준비교육 시작 적정시기	81
〈표 III-3- 4〉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변화 가능성	82
〈표 III-3- 5〉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반	83
〈표 III-3- 6〉 보육료·교육비 수혜 부모 대상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반	84
〈표 IV-1- 1〉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의 중요도	87
〈표 IV-1- 2〉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 정도	89
〈표 IV-1- 3〉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91
〈표 IV-1- 4〉 0-2세 영아자녀를 둔 전업 주부에게 하루에 필요한 자녀돌봄 지원 시간	93
〈표 IV-1- 5〉 하루에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하는 최소 시간	94
〈표 IV-1- 6〉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이혼 시, 적합한 자녀양육의 주체	95
〈표 IV-1- 7〉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	97
〈표 IV-1- 8〉 자녀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점	99
〈표 IV-1- 9〉 자녀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	100
〈표 IV-2- 1〉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	102
〈표 IV-2- 2〉 자녀양육 활동에의 참여시간	103
〈표 IV-2- 3〉 자녀와 주로 대화하는 시간	104
〈표 IV-2- 4〉 자녀와의 대화 주제: 1순위	106
〈표 IV-2- 5〉 자녀와의 대화 주제: 1+2+3순위	107
〈표 IV-2- 6〉 자녀가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의 부모 행동	109

〈표 IV-2- 7〉	지난 3개월 간 양육행동 빈도	110
〈표 IV-2- 8〉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 지출비용 비율	112
〈표 IV-2- 9〉	양육지출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113
〈표 IV-2-10〉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 제공여부에 대한 인식	114
〈표 IV-2-11〉	자녀양육을 위한 최대 지출항목	116
〈표 IV-2-12〉	고가의 육아용품 구입 의사	117
〈표 IV-3- 1〉	양육정보 습득 경로	119
〈표 IV-3- 2〉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정보 제공원	120
〈표 IV-3- 3〉	TV 육아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122
〈표 IV-3- 4〉	TV 육아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	124
〈표 IV-3- 5〉	인터넷 육아정보의 긍정적 영향	125
〈표 IV-3- 6〉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	127
〈표 IV-3- 7〉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인한 양육 가치관 또는 양육행동 변화 경험 여부	128
〈표 IV-4 1〉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1순위	130
〈표 IV-4 2〉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1+2순위	130
〈표 IV-4 3〉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결혼 후 무자녀 시기	131
〈표 IV-4 4〉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임신, 출산기	132
〈표 IV-4 5〉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영유아기	132
〈표 IV-4 6〉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아동기	133
〈표 IV-4 7〉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청소년기	134
〈표 IV-4 8〉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성인 자녀 및 중년기	135
〈표 IV-5- 1〉	가정과 국가의 자녀출산 및 양육책임 분담 비율	136
〈표 IV-5- 2〉	가장 효율적인 양육지원 시기	138
〈표 IV-5- 3〉	육아지원정책 수혜 경험	139
〈표 IV-5- 4〉	육아지원정책별 만족도	139
〈표 IV-5- 5〉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 만족도	140
〈표 IV-5- 6〉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 만족도	140
〈표 IV-5- 7〉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142
〈표 IV-5- 8〉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2순위	143
〈표 IV-5- 9〉	가정양육수당과 0-2세 보육료 지원 중 선호하는 정책	144

〈표 IV-5-10〉 가정양육수당 지원 선호 이유	145
〈표 IV-5-11〉 0-2세 보육료 지원 선호 이유	146
〈표 IV-5-12〉 안심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여건	147
〈표 V-1- 1〉 자녀의 필요성	149
〈표 V-1- 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150
〈표 V-1- 3〉 자녀의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151
〈표 V-1- 4〉 부모됨에 대한 동의 정도	152
〈표 V-1- 5〉 한부모됨의 선택	153
〈표 V-1- 6〉 한부모됨의 선택을 후회한 경험: 1순위	153
〈표 V-1- 7〉 한부모됨의 선택을 후회한 경험: 1+2순위	154
〈표 V-1- 8〉 자녀성장에 미치는 부모 영향에 대한 인식	155
〈표 V-1- 9〉 자녀 지원시기: 한부모	156
〈표 V-1-10〉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덕목: 한부모	156
〈표 V-1-11〉 좋은 부모가 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점: 한부모	157
〈표 V-1-12〉 한부모의 좋은 부모됨에 대한 인식	158
〈표 V-1-13〉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한부모	158
〈표 V-1-14〉 부모역할이 가장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점: 한부모	159
〈표 V-1-15〉 부족한 부모역할 보완을 위한 노력: 한부모	160
〈표 V-1-16〉 한부모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 1순위	161
〈표 V-1-17〉 한부모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 1+2순위	161
〈표 V-1-18〉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 정도	162
〈표 V-1-19〉 영유아를 둔 부모 이혼 시, 적합한 자녀양육의 주체	163
〈표 V-1-20〉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	164
〈표 V-1-21〉 자녀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점	165
〈표 V-1-22〉 자녀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	165
〈표 V-1-23〉 상황별 주된 양육 지원자	166
〈표 V-1-24〉 자녀와 주로 대화하는 시간	167
〈표 V-1-25〉 자녀가 대화를 원치 않을 경우의 부모 행동	168
〈표 V-1-26〉 자녀와 전 배우자 간 소통방법 및 빈도	169
〈표 V-1-27〉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평가	169
〈표 V-1-28〉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 지출비용 비율	170

〈표 V-1-29〉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에 대한 인식	171
〈표 V-1-30〉	전 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 지원 여부 및 월 평균 지원비용	171
〈표 V-1-31〉	양육정보 습득경로	172
〈표 V-1-32〉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정보 제공원	173
〈표 V-1-33〉	TV 육아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174
〈표 V-1-34〉	TV 육아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	175
〈표 V-1-35〉	인터넷 육아정보의 긍정적 영향	175
〈표 V-1-36〉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	176
〈표 V-1-37〉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양육가치관 또는 양육행동의 변화 경험 여부	177
〈표 V-1-38〉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양육가치관 및 양육 행동의 변화 경험	178
〈표 V-1-39〉	육아지원정책 수혜 경험	178
〈표 V-1-40〉	육아지원정책별 만족도	179
〈표 V-1-41〉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180
〈표 V-1-42〉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2순위	181
〈표 V-1-43〉	한부모가정 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지원센터 이용 여부	181
〈표 V-1-44〉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사업의 필요성	182
〈표 V-1-45〉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사업의 필요성: 한부모가정 자조모임	182
〈표 V-1-46〉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사업 필요성: 한부모가정의 구인 및 구직 정보 제공	183
〈표 V-1-47〉	한부모가정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184
〈표 V-2- 1〉	자녀의 필요성	188
〈표 V-2- 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189
〈표 V-2- 3〉	자녀의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190
〈표 V-2- 4〉	형제·자매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191
〈표 V-2- 5〉	부모됨에 대한 동의 정도	193
〈표 V-2- 6〉	부모 주도성에 대한 인식	194
〈표 V-2- 7〉	자녀 보답에 대한 인식	195
〈표 V-2- 8〉	자녀성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정도	196
〈표 V-2- 9〉	자녀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 시기	197
〈표 V-2-10〉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덕목	197

〈표 V-2-11〉 생애주기별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결혼 후 무자녀 시기	198
〈표 V-2-12〉 부모됨 준비교육 시작 적정시기	199
〈표 V-2-13〉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변화 가능성 여부	201
〈표 V-2-14〉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의 중요도	202
〈표 V-2-15〉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 정도	202
〈표 V-2-16〉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204
〈표 V-2-17〉 TV 육아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205
〈표 V-2-18〉 TV 육아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	206
〈표 V-2-19〉 인터넷 육아정보의 긍정적 영향	206
〈표 V-2-20〉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	207
〈표 V-2-21〉 가정과 국가의 출산 및 양육책임 분담 비율	208
〈표 V-2-22〉 가장 효율적인 양육지원 시기	209
〈표 V-2-23〉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211
〈표 V-2-24〉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2순위	211
〈표 V-2-25〉 안심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여건	212
〈표 VI-2- 1〉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점: 아들(1순위)	232
〈표 VI-2- 2〉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점: 딸(1순위)	233
〈표 VI-2- 3〉 부모주도성에 대한 의견	233
〈표 VI-2- 4〉 자녀의 성장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	234
〈표 VI-2- 5〉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시기: 경제적 지지	235
〈표 VI-2- 6〉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235
〈표 VI-2- 7〉 부모역할이 가장 불충분한 점	235
〈표 VI-2- 8〉 2008년과 2016년 연구결과 비교 요약	236
〈표 VI-2- 9〉 과거와 현재의 양육문화 비교: 변화 없는 점	237
〈표 VI-2-10〉 과거와 현재의 양육문화 비교: 변화한 점	239

그림 차례

[그림 II-1-1] 부모됨의 개념 정의	31
[그림 II-2-1] 자녀 양육관 개념 정의	34
[그림 IV-3-1] TV 육아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122
[그림 IV-3-2] TV 육아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	123
[그림 IV-3-3] 인터넷 육아정보의 긍정적 영향	125
[그림 IV-3-4]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	126
[그림 V-2-1] 의도적 무자녀가정에서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	189
[그림 V-2-2] 의도적 무자녀 FGI 키워드	214
[그림 VI-1-1] 성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	224
[그림 VI-1-2] 세대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공통 특징	227
[그림 VI-1-3] 세대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	228
[그림 VI-1-4] 자녀수 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	231
[그림 VI-2-1] 과거와 현재의 양육문화 간 변하지 않은 점	237
[그림 VI-2-2] 과거와 현재의 양육문화 간 변화한 점	239
[그림 VII-1-1]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와의 유대 및 소통	243

요약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인의 부모됨과 자녀양육은 가족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변화,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과 단독가구 및 1세대 가구, 의도적 무자녀 가족이 증가하고, 이혼을 증가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초혼 연령 상승으로 가족생활주기에 변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저출산현상 극복을 위해 다각도의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은 여전하다고 지적됨.
 - 그간의 육아지원은 기관보육 위주로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감 저하의 문제점이 부각됨.
- 본 연구는 성별, 세대별 등의 변인에 따른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의 가치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논의하고자 함. 주요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해결을 비롯한 전반적인 육아지원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의 변화와 주요 내용을 파악함.
- 부모 특성별로 부모됨 및 양육가치관 인식을 분석함.
- 한부모, 의도적 무자녀, 다자녀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부모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 특성을 분석함.
- 2016년 한국인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 특성을 분석하고, 과거(2008년도)와 현재의 변화를 논의함.
- 2016년 한국인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3. 연구방법

문헌연구

설문조사

○ 총 3종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200명이 참여함.

- 전국 20~50대 성인 총 1,000명(미혼, 20, 30, 40, 50대 각 100명씩, 연령대 별 남녀 각 50명씩), 이혼한 한부모 100명(편보 60명, 편부 40명), 의도적 무자녀가정 100명임.

포커스집단 면담

○ 부모됨 및 양육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40명을 심층면담함.

- 자녀수(1자녀와 3자녀 이상)와 가구소득별(300만원 미만과 이상) 어머니 30명(6집단), 아버지 5명, 의도적 무자녀 여성 5명을 대상으로 총 8회 실시함.

전문가 협의회 및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II. 한국인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요구

1. 자녀에 대한 인식

(자녀의 필요성) 응답자의 64.5%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나, 여성의 경우 없어도 된다(없어도 상관없거나,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비중이 약 20%에 육박하며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43.3%) 때문임.

(자녀가치 및 기대) 자녀의 수단적 가치(노후의 경제적 도움, 집안의 혈통 잇기, 출산은 사회적 의무)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수준은 낮으며,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 부부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것으로 인식함(33.3점/4점 만점)

○ 기혼, 유자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자녀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3자녀 이상 부모는 출산이 사회적 의무라는 인식이 유의하게 높음.

(자녀의 형제자매 관계)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부모의 관심과 지원은 크게 분산되지 않으며, 외동을 키우는 것이 형제자매 양육보다 더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함.

2. 부모됨에 대한 인식

- **(부모됨의 가치)** 대체적으로 부모됨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나 경제적, 심리정서적 준비가 필요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반면,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됨(2.2점/4점 만점)에 동의수준이 낮으며, 여전히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여전히 강함.
- **(자녀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기간)**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는 평생동안 언제라도(33.4%)> 대학입학 전까지(19.5%)> 대학졸업까지(17.2%) 순으로 응답됨. 한편, 경제적 지원은 대학졸업까지(49.3%)> 취업할 때까지(23.6%)로 나타남.
- **(자녀연령별 부모의 바람직한 경제활동형태)** 자녀가 영유아기에는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초등자녀부터는 어머니가 시간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인식함.
- **(좋은 부모됨의 조건)** 경제력이 21.8%로 가장 높고, 자녀와의 소통, 인내심 순으로 인식됨.
 - 여성은 남성보다 인내심, 자녀와의 소통, 관심과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김.
 - 고졸이하 학력의 부모는 근면·성실성, 대학졸업 이상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좋은 부모가 되는 걸림돌)** 역시 경제력이 33.1%로 높고, 다음으로 세대차이, 권위적 태도 순임.
 - 경제적 어려움은 40~50대 부모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경제력을 제외하면 20대는 주변의 간섭, 30대는 직장생활로 함께하는 시간 부족, 40대 권위적 태도, 50대는 세대차이 응답이 높음.
- **(부모역할 수행 평가)** 기혼 유자녀 부모의 49.4%는 자신의 부모역할이 보통 수준이라고 인식하며,역할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의 46.1%가 경제적 지원의 부족을 지적함(특히, 40대와 50대). 한편, 30대는 양육지식 부족을 지적함.

3. 부모됨 준비에 대한 인식과 요구

- **(부모됨 준비교육 적정시기)** 교육을 통해 부모됨을 준비하는 적정시기는 예비부모가 42.3%로 가장 높고, 초등·중·고등·대학생 시기에 응답한 비율의 합은 45.6%임.
 - 기혼에서 어린 시기부터 부모됨을 준비해야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이혼, 사별, 별거의 경우, 중·고등학생과 자녀 학령기가 적절하다고 인식함.
- **(생애주기별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부모됨의 의미→자녀의 발달 특성→자녀의 교육·학습지원 방법→자녀의 독립에 대한 준비 및 수용 방법’이며, 청소년기 자녀와의 갈등 해결방법에 대한 교육을 가장 많이 요구함.
-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됨과 자녀양육관 변화)**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절대 다수임(89.9%).
 - 기혼유자녀, 맞벌이, 가구소득 600만 이상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고,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자녀 3명 이상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음.
-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성 응답은 71.5% 수준임.
 - 특히, 보육료·교육비 지원 받는 부모는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의 73.6%가 찬성함.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소득이 낮을수록 의무화에 찬성 비율이 높음.

III.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실제와 요구

1. 양육 신념 및 정서

-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 ‘어른에 대한 존경심’, ‘행복한 생활 추구’,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 ‘자기 일에 대한 성취’가 4점 평균에 3.4~3.5점이었고, ‘봉사정신’ 3.1점, ‘가족 위한 개인 희생’은 2.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 추구는 도시지역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부모 연령대가 낮을수록 강조함.
 -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은 기혼자와 맞벌이에서 강조함.

- **(자녀 양육태도)** ‘자녀의 제멋대로 행동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에 동의 정도가 4점 평균에 2.3점(4점 만점)으로 가장 낮고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버릇 나빠짐’, ‘엄격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음’, ‘잘못하면 매를 들 수 있음’, ‘자녀가 성취한 일에 늘 관심 갖는 편’, ‘안쓰럽지만 힘든일도 혼자서 하라고 함’, ‘부모 말에 자녀는 순종해야 함’은 2.7~3.1점임.
 - 부모 연령대가 높고, 기혼 유자녀, 도시 거주자, 월 가구소득 적을수록, 교육수준 낮을수록 부모가 엄격해야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고 인식하며, 체벌할 수 있다고 인식함.
 - 부모 연령대가 높고, 기혼, 자녀수 많을수록, 교육수준 낮은 경우,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대하여 ‘취업모는 어머니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평균 3.1점(4점 만점)으로 대체로 동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쉽다’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동의함.
 - 부모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의 중요한 역할은 일보다 자녀양육’에 동의함.
-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에게 자녀돌봄 지원이 필요한 시간)**은 1일 평균 3.2시간으로 응답됨.
 - 자녀가 없거나, 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더 많은 돌봄시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하는 최소시간)**은 1일 평균 3.7시간으로 조사됨
 - 여성의 응답이 3.8시간으로 남성(3.5시간)보다 길고, 20대가 4.3시간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길게 나타남.
 - 미혼과 자녀가 없는 기혼자의 경우 기혼 유자녀보다 긴 시간을 함께 보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영유아자녀 양육자)**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1.3%로 가장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 30.2% 순이었음.
 - 40대와 50대 및 읍면지역은 어머니, 20대와 대도시 지역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라는 응답이 높았음.

- **(양육 정서)** 부정적인 양육정서에 대한 동의 정도는 4점 평균에 2.2점~2.4점 정도로 낮고, 긍정적인 정서는 3.1점~3.2점, 자녀양육이 혼란스럽거나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감정은 2.8점으로 보고됨.
 - 부모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이 참고만 산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자녀수가 많고, 맞벌이에서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질 때가 더 있다고 응답함.
 - 부모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이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며 20대 여성이 자녀를 키우며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점**은 응답부모의 57%가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성취감이며, 반면, 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양육비용 부담(33.9%)이 가장 높음(특히, 자녀수 3명 이상, 저소득 부모)
 - 50대 남성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가 높은 점에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경향이 강함.

2. 양육 시간 및 비용

-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 주중(5일 동안)에는 어머니 5.4시간, 아버지 2.9시간, 주말(2일 동안)은 어머니 4.0시간, 아버지 3.7시간임.
 -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챙기는 시간, 학습지도, 등·하교를 돕는 시간은 아버지보다 2배 이상 길었음.
- **(자녀와 대화)** 20, 30대의 경우 자녀와 놀이(학습)하면서, 40, 50대는 식사(외식)하면서가 높게 나타남.
 - **대화주제**는 하루 일상생활 이야기가 가장 큰 비중(38.5%)을 차지함.
 - **자녀가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 응답자의 44.9%는 나중에 자녀가 원할 때 대화하자고 제안, 23.8%는 주제를 바꿔 대화를 시도한다고 응답함.
 - 소득과 학력수준 낮은 부모는 대화를 중단하고 회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난 3개월 간 양육행동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자녀의 잘못을 말로 타이르기', '무슨 일이든 혼자 하게 하기', '올바른 행동에 칭찬하기'와 같은 긍

정적 행동과 '고집 부릴 때 원하는 것 못하게 한다고 겁주기', '잘못에 소리치고 화내기'와 같은 부정적 행동에 20대가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음.

- 자녀수 3명 이상인 경우, 더 적극적으로 자녀가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잘못할 경우 부모가 소리치거나 화내는 경향이 더 있음.
- 부모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의 올바른 행동을 칭찬하고 자녀의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비용

-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은 평균 24.8%이고, 현재 지출하고 있는 비용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59.7%가 부담을 느낀다고 보고함.
 - 40대 부모,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수준 낮을수록 비용 부담을 크게 인식함.
- 응답자의 59.4%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부모 연령이 높고,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부족하다고 인식함. 한편, 20대는 77.3%가 충분하다고 응답함.
-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은 사교육비(46.3%)로,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의 경우 사교육 지출이 1순위라는 응답이 50% 이상임.
 - 20대 부모는 사교육비보다 내구재 소비(27.3%)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고가의 육아용품 구매 의향)** 약 70%가 전혀 구매의사가 없다고 응답함.
 - 부모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고가 육아용품 구매 의사가 없음.

3. 양육 정보와 매체의 영향

- **(양육정보 습득경로)** 주변 지인이 53.1%로 가장 높고, 부모 등 16.9%, 인터넷 15.6% 순임.
- 여성, 20~30대, 자녀 1명, 대도시, 고학력 부모가 상대적으로 부모보다 인터넷을 통해 양육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의 77.2%는 현재 자신이 이용하는 양육정보가 신뢰롭다고 인식함.
-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정보 제공원)** 주변 지인이 46.1%으로 높음. 주변 지인

다음으로 20, 30대는 인터넷, 40, 50대는 부모 등을 높게 응답함.

- **인터넷 육아정보**의 장점은 정보습득의 용이성(45.9%), 최신정보 습득(25.5%) 순이고, 단점은 무분별한 정보로 혼란스러움(31.1%), 비전문적인 육아 정보(20.2%) 순,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17.8% 이었음.
 - 대도시 및 읍면지역 거주, 고졸이하 학력의 부모가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높음.
- **TV 육아프로그램**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쉽게 정보를 얻는 점(31.4%), 보고 배울 수 있는 점(28.2%) 순이고, 부정적 영향은 간접광고 등 과소비 조장(31.6%), 상대적 박탈감(23%) 순임,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21.6%로 높은 편임.
 -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면을 더 지적하는 경향이 있음.
- **매체와 주변지인의 영향**으로 자신의 양육가치관이나 행동이 변화한 경험에 대해 78.1%가 없다고 응답함.
 - 부모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변화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20대 남자의 경우, 매체나 지인의 영향으로 변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함.

4.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관심 이슈

- **(부모의 생애주기별 관심 양육이슈)** '부모됨 의미→자녀돌봄→자녀 학교생활 적응→자녀의 교육·학습지원→자녀의 취업'으로 변화함.
 - 부부중심의 생활에서 취학에 따른 자녀중심으로 관심이 변화함.
 - 가정 내 가사와 양육분담은 영유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청소년기에는 학습지원에 대한 관심이 도시지역 거주 및 고졸이하 학력의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남.

5. 양육지원 요구

- **(자녀출산 및 양육에 가정과 국가의 책임분담 수준)** 5.8대 4.2로 가정의 책임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40~50대는 가정책임에 대한 인식이 20~30대보다 높으며,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자녀수 3명 이상에서 가정의 책임을 높게 인식함.

- **(가장 효율적인 양육지원 시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양육지원 시기는 영유아가 과반이상을 차지함(55.3%).
- **(유자녀 부모가 수혜경험이 있는 육아지원정책)** 보육료·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의 수혜경험이 가장 많으며, 만족도는 가정양육수당이 89.2%로 가장 높고, 방과후 돌봄과 보육료·교육비 지원 순임.
 - 여성과 30대의 만족도가 높고, 고졸이하 학력의 부모가 보육료·교육비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30.7%로 가장 높고,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출산휴가 순임.
- **(0~2세 영아 대상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중 선호도 및 그 이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보육료 지원이 53.4%로 약간 높게 조사됨.
 - 가정양육수당을 더 선호하는 경우, 응답자의 74.1%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영아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반면, 보육료 지원을 더 선호하는 부모들은 어린이집에서의 다양한 경험에 더 의미를 두며, 자녀수 3명 이상인 경우는 어머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으로 사교육비 경감이 32.9%로 가장 높고, 공교육·보육 강화 17.9%,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16.8% 순임.
 - 남성은 교육비·보육료 부담을, 여성은 보육·교육기관의 질과 안전한 환경을 중시함.
 - 고소득 가구에서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과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IV.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자녀양육관

1. 한부모가족

- **(한부모의 자녀 필요성 인식)** 응답자의 82.2%가 자녀가 있는 것을 선호하

고,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 여김. 그러나 자녀가 부부간 관계를 굳건히 해준다는 것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음.

- **(한부모의 부모됨 특징)** 자녀출산 전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며, 한부모가 된 것이 자녀를 위해서도 잘한 선택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초과함(55.1%).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지지 모두 대학 졸업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자녀때문에 한부모가 된 것을 이따끔 후회한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남. 즉, 자녀가 타인을 의식하거나 위축될 때,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혼을 후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모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데에 86.9%가 동의함.
- **(한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됨의 조건)** 자녀와의 소통이 가장 높았으며, 좋은 부모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변의 편견과 간섭이 가장 많이 지적됨. 과반수 이상의 한부모가 한부모라는 사실이 좋은 부모가 되는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한부모의 부모역할 수행 평가)** 기혼 유자녀 부모에 비해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경제적 지원, 정서적지지 부족, 배우자 부재로 인한 성역할 모델링 부족을 보고함.
 - 한부모들은 부모로서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자녀와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부모에게 가장 도움되는 부모교육 내용)** 자녀의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으로 나타남(35.5%). 또한 한부모가 이용가능한 제도와 서비스 안내에 관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음.
- **(한부모의 양육신념)** 자녀의 행동이나 성취에 관심이 많으며, 엄격한 부모상에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모 이혼 시 어머니가 키우거나(38.3%),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키우는 것(35.5%)이 적절하다고 인식함.
- **(한부모의 양육정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함’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고, 한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점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가장 어려운 점

은 양육비용 부담과 일·가사 병행으로 나타남.

□ **(한부모의 양육실제)**

- 모 출근~자녀 등원, 자녀 하원~부모 퇴근까지는 **자녀 혼자 보내는 비율**이 각각 33.6%, 34.6%로 가장 높음.
 -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는 긴급한 상황, 예상치 못한 연장근무 시에는 조부모와 혈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전 배우자와 자녀 간 소통)**이 없는 경우가 49.5%로 절반에 가까움. 전 배우자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29%로 주당 평균 1회도 채 만나지 못하는 것(주당 평균 0.9회)으로 조사됨
 - 한부모 전체의 79.5%가 자녀와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함.
- **(한부모의 양육비용)** 전체 가구소득의 37.9%를 지출하며, 응답자의 64.5%가 양육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81.3%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함.
 - 응답자의 72%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음.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5.9%에 불과하며 한달 평균 61만5천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됨.

□ **(한부모의 양육정보 습득 및 매체 영향)** 주된 양육정보 습득경로는 인터넷이 33.6%이며,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정보원은 부모 및 친인척임(35.5%).

- 한부모의 77.6%가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가치관이나 행동에서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함.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문화시간이 늘어난 등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한부모의 양육지원 요구)** 한부모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으며, 탄력근무제에 대한 요구도 높음.

-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이용 수혜경험 및 요구)** 응답한 한부모의 3.7%에 불과하며,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54.2%에 달함
 -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에서 자녀교육관련 프로그램, 구인 및 구직 정보 제공을 원하며, 편부의 경우는 자조모임에 대한 요구가 높음.

-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문화프로그램에 요구가 높음.

2. 의도적 무자녀 가정

- (의도적 무자녀부부의 자녀에 대한 인식)** 93.3%는 자녀가 없는 것을 선호하며, 부부간 더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29.9%),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26.8%)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선택함.
 - 기혼 유자녀 부부에 비해 의도적 무자녀 부부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며 부부중심적 삶을 선호함.
- (의도적 무자녀가정의 부모됨 특징)** 의도적 무자녀 부부는 자녀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거나, 자녀에게 의지하여 안정감을 갖는데 덜 동의하고, 자녀보답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임.
 -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평생 언제든지 해주어야한다는 응답률이 기혼 유자녀 성인에 비해 높음.
- (의도적 무자녀가정의 부모됨 준비교육)** 46.2%는 예비부모 시기에 부모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의 1순위는 부모됨의 의미임. 부모교육이 가치관 변화에 긍정적이라 인식함.
- (의도적 무자녀가정의 양육신념)**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 추구하고 자기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 자기 일에 대한 성취 등을 다른 가치에 비해 중시하고, 취업모에 대한 인식은 더 20~50대 조사에 비해 유연하고 지지적임.
- (의도적 무자녀가정의 양육지원 요구)**
 - 자녀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 국가보다 가정의 책임을 더 크게 인식함(국가: 가정=3.9: 6.1).
 - 영유아기와 초등학생 시기의 양육지원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탄력근무제(25%), 보육료·교육비 지원(23.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안심하고 출산 및 양육하기 위한 사회여건으로 사교육비 경감(28.8%)을 지적함.

3. 한자녀와 다자녀 가족: 포커스집단 면담을 중심으로

- 공통적 특징

- 자녀연령에 따라 부모의 역할이 변화하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함.
- 매체와 스마트폰의 영향을 크게 인식하며, 정보접근이 수월해져서 과소비 조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부모됨 준비교육은 단계별로 어린 시절의 인성교육→책임감 형성→출산 및 양육정보 제공의 순서를 제안함.
- **(한 자녀 부모 특징)** 자녀의 자신감 신장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 두드러지며, 자녀에게 최선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세 자녀 이상 부모의 특징)** 양육기간이 길어져 육체적 경제적 소진을 경험하며, 자녀간의 터울이 예전에 비하여 길어지는 경향이 있음. 양육지출을 조절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음(대여 서비스 활용, 물려받기 등).

V.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특징

1. 2016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

- **성별에 따른 자녀양육관 특징**
 - **(남성의 자녀양육관 특징)** 남성은 주로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을 하며, 주말에 양육에 참여하며, 양육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이 있음.
 - **(여성의 자녀양육관 특징)** 여성은 양육이 인내를 요구하는 힘든 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경향이 있음. 가정 내에서 자녀교육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교육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능동적 양육정보 수집가임. 가정 내 양성평등을 통한 일 가정양립을 중시함.
- **세대별 자녀양육관 특징**
 - **(공통 특징)** '경제력'이 자녀양육에 가장 큰 이슈. 자녀 영유아가 양육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가족의 원만한 유대관계 및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20대)** 자녀양육 관련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부모역할에 대한 성취감

높고,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양육정보 수집에 개방적이고, 고가육아용품 구매에 관대함.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 가정 양립임.

- **(30대)**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소비비율이 가장 높음. 양육의 국가 책임 강조하고, 비용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음.
- **(40대)** 사교육비 규모 증가로 인한 부모 역할에서 경제적인 한계를 경험하고, 양육의 가정 책임을 강조함.
- **(50대)** 희생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강하며 자녀와의 소통, 자녀로부터 얻는 지지에 기쁨을 느낌. 여성의 자녀양육 역할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젊은 세대의 소비적 양육문화에 대해 비판적임.

자녀수에 따른 자녀양육관 특징

- **(자녀수 1명)**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부모역할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자녀가 많은 부모보다 양육정보 습득을 위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탄력근무제, 육아휴직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 높음.
- **(자녀수 2명)**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 양육비 지출항목 중 가장 높음. 양육에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자녀를 하나 양육하는 부모보다 높은 편임.
- **(자녀수 3명 이상)**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과 양육비 부담이 큼. 여성의 자녀돌봄 역할을 강조하는 등 보수적인 인식이 더 강함.

2. 자녀양육관의 변화

2008년과 2016년 한국인의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비교

- **(자녀에 대한 기대)** 2008년 아들이 성격과 태도(책임감, 성실성)에서 뛰어나길 바라는 부모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2016년에는 사회성(대인관계, 리더십)이 뛰어나길 바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딸의 경우 2008년에는 신체적 조건(용모, 키, 몸매)을, 2016년에는 신체적 조건과, 성격 및 태도를 모두 중시하는 경향이 발견됨.
-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역할)** 자녀에 대한 부모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8년 44.7%에서 2016년에 57%로 증가함.
 - 2008년에 비해 2016년에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오래 해주어야 한다

는 인식이 증가함.

- 2016년 부모들이 자신이 부모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2008년에 비해 높고, 부족한 부분은 2008년, 2016년 공통적으로 경제적 지원임.
- (2016년 현재의 양육문화와 과거 10년 전 또는 부모세대의 양육문화 비교) 변화하지 않은 점으로 교육열(58.5%)>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표현 방법(20%) 등이 가장 많이 응답됨.
- 변화한 점으로 자녀 교육 및 훈육 방식의 다양화(26.8%)와 더욱 과열된 교육열(24.9%)이 가장 많이 응답됨.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 부모로서의 자아 형성, 자아영역, 역할구조 등을 재조명하고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좋은 부모의 우선적인 조건과 좋은 부모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부모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서 모두 '경제력'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사교육비 투자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는 경향임.
- 경제력이외도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경제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음.
- 젊은 세대일수록 가치관이 변하고 있으나, 부모역할, 특히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함.
- 한부모 가족 및 의도적 무자녀 부부의 증가는 표준적인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요구에 부응하여야 함을 시사함.

2. 제언

- 정책 제언

- 기존의 육아지원정책의 수용도와 효과성을 과거와 현재의 한국부모 자녀양육관 및 양육문화의 핵심 키워드인 자녀교육의 관점에서 검토 및 향후 방향성 모색 필요
- 범국민의 좋은 부모되기 1,000일 캠페인 실시
 - －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력 제고의 효과가 낮으므로, 부모됨과 자녀양육의 가치를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총력전 전개
- 첫 임신 및 첫 출산 지원 강화
 - － ‘Lead Mother’ 모델 벤치마킹 및 활용
- 부모특성별 및 가족형태별 지원 방안 다양화
 - － 아버지 양육지원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 어머니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 － 3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
 -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준비 및 여가시간활동 지원
-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극대화 및 문화인프라 확충
 - － 미디어 활용을 통한 공신력있는 육아정보 제공 및 공공기관의 육아지원 서비스 홍보 극대화
 - － 문화인프라 및 놀이공간 확충
- 생애주기별 및 실천중심 부모교육의 지속적 실시
 - － 단계별 부모됨 준비교육 실시
 - － 자녀 출생신고 시에 부모교육 관련 안내 및 정보 제공 제도화
-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 동일연령대 자녀를 둔 세대별 자녀양육관 연구
 -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에 대한 회고적 사례연구
 - 국제비교 연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의 부모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알파맘, 헬리콥터맘, 타이거 맘, 베타맘, 빗자루맘, 스칸디 대디 등이 있다. 이는 부모의 유형과 부모역할을 나타내며, 바람직한 부모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자녀양육관을 반영하고 있다. '알파맘'(Alpha mom)은 탄탄한 정보력으로 자녀에게 체계적인 학습을 시키는 유형의 엄마를, '헬리콥터맘'(Helicopter mom)은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도 헬리콥터처럼 자녀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일에 참견하는 엄마를, '타이거 맘'(Tiger mom)은 글자 그대로 호랑이처럼 자녀를 엄격하고 혹독하게 강압적으로 훈육하는 엄마를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016. 11. 1 인출). 반면, '베타맘'(Beta mom)은 자녀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조언해주는 엄마를, '빗자루맘'은 자녀 스스로 학습 및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최소한의 간섭을 하는 엄마를, '스칸디 대디'(Scandi Daddy)는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녀의 눈높이에서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시하는 자상한 아빠를 뜻한다(네이버 지식백과, 2016. 11. 1 인출). 전자의 부모유형은 자녀가 무조건 부모의 결정에 따르게 하여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심을 저해하기 쉽다는 지적을 받으며, 후자 유형은 자녀의 창의성과 자율성 함양 및 정서적 교감에 유리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스칸디 대디는 2013년도 한국의 주요 사회현상 중으로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김난도 외, 2012).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부모됨과 자녀양육은 가족형태의 변화, 가족 생애주기의 변화, 더 나아가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지난 10여년간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재생산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만혼, 비혼, 이혼 등의 증가로 단독가구 및 1세대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박선영·윤덕경·박복순·김혜경, 2008). 이혼 및 미혼부모 가구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구는 2015년 기준 1,783가구로 전체 가구의 9.5%를 차지하며 소폭이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e-나라지표, 2016. 11. 1 인출). 이혼시 서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 당

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는 경우가 상당하여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자녀양육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불임 등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만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덩크족(DINK), 싱크족(SINK), 싱커족(THINKERS)으로 지칭되는 '의도적 무자녀 가족'(voluntary childless family)(네이버 지식백과, 2016. 11. 1 인출)이 증가하고 있다.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 또한 변화하고 있다. 무자녀 또는 한 자녀 출산,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기는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막내자녀 출산부터 자녀의 첫 결혼까지의 기간과 빈 등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최연실, 2015: 27).

우리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육아지원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관계부처 합동, 2005)를 비롯하여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을 2008년 차상위계층에서 2009년 소득하위 50%, 2011년 소득하위 70%, 2013년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편적 유아교육과 보육을 달성하였다(보건복지부, 2013b). 이러한 획기적인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의 정착은 미흡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 또한 여전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그동안의 육아지원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관보육 위주로 이루어져 '부모로서의 권리' 보장이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감 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었다(보건복지부, 2013b). 일부에서는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 혜택의 반대급부로 영유아를 둔 부모가 올바른 자녀양육관을 정립하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드높다.

본 연구는 가족형태 및 인구학적 변화의 맥락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상대적으로 간과된 문화적 요인인 가족가치 특히, 부모됨과 바람직한 부모상, 자녀 가치와 기대 및 양육가치관에 주목하여 세대, 성별, 자녀유무, 가구소득 등에 따른 부모 대상별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부모됨 인식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해결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의 주요결과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 부모 교육과 참여 관련 정책의 변화와 그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둘째, 부모됨 및 양육가치관에 대한 예비부모 및 변인별 다양한 부모집단의 인식을 분석한다. 즉, 성별, 세대별,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지역규모, 가구소득 및 교육수준, 모의 취업여부 등의 제 변인에 따른 인식과 가치관을 파악한다.

셋째, 다양한 가족의 형태, 즉 한부모 가족, 의도적 무자녀 가족, 다자녀 가족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을 분석한다.

넷째, 2016년 현재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과거와 현재의 부모됨 인식 및 양육가치관의 변화를 논의한다.

다섯째, 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을 고려하여 저출산 해결지원을 비롯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부모됨과 자녀양육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등 가족 가치관 및 자녀양육관 관련 전국단위 실태조사 조사표와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나. 전문가 협의회

가족학, 가족사회학,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방향 및 내용, 조사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 의견을 설문 내용에 반영하였다. 또한 조사 결과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석 내용에 대한 자문과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3-1〉 전문가 협의회 자문자 및 자문내용

형태	자문 대상	내용
회의	관련 공무원 2인	연구방향 및 내용 적절성 검토
서면	학계 전문가 4인	조사표 문항 적절성 검토
서면	관련 공무원 2인	조사표 문항 적절성 검토
회의	학계 전문가 2인	연구방향 및 선행연구 내용 적절성 검토
회의	학계 전문가 2인	결과 분석내용 및 정책제언 의견 수렴
서면	학계 전문가 5인	결과 분석내용 및 정책제언 의견 수렴
서면	관련 공무원 2인	정책제언 검토 및 의견 수렴

다. 설문조사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총 세 종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인의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20~50대 성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인식에 관해 질문하였고, 한부모 100명과 의도적 무자녀 100명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웹조사와 가구조사를 실시하여 총 1,200명 조사를 계획하였다.

20~50대 성인 조사의 대상 표집은 통계청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참고하여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성, 연령, 지역규모를 고려하여 인구구성비에 맞게 비례할당으로 표집하였다(표 I-3-2 참조). 한부모 조사 대상은 이혼으로 인해 현재 자녀를 배우자 없이 양육하고 있는 30~40대 성인이고, 의도적 무자녀 조사는 결혼 후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여 향후에도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30~4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표 I-3-3 참조).

〈표 1-3-2〉 20~50대 성인 조사대상 표집

구분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1,005	112	104	122	119	143	138	132	131
서울	남동	44	5	5	6	6	6	6	5	5
	남서	62	7	7	9	8	8	8	7	8
	북동	64	7	7	8	8	9	9	8	8
	북서	35	4	4	4	5	5	5	4	4
부산	대도시	69	8	7	8	8	9	9	10	10
대구	대도시	49	6	5	5	5	7	7	7	7
인천	대도시	59	7	6	7	7	8	8	8	8

단위: 명

(표 I-3-2 계속)

구분		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광주	대도시	28	3	3	4	3	4	4	3	4
대전	대도시	31	4	3	4	4	4	4	4	4
울산	대도시	23	3	2	3	3	3	3	3	3
경기	동부	214	24	22	27	26	31	31	27	26
	읍면부	40	4	4	5	5	6	5	6	5
강원	동부	19	2	2	2	2	3	3	2	3
	읍면부	11	1	1	1	1	2	1	2	2
충북	동부	18	2	2	2	2	3	3	2	2
	읍면부	11	1	1	1	1	2	1	2	2
충남	동부	19	2	2	3	2	3	3	2	2
	읍면부	19	2	2	2	2	3	2	3	3
전북	동부	26	3	3	3	3	4	4	3	3
	읍면부	9	1	1	1	1	1	1	2	1
전남	동부	16	2	2	2	2	2	2	2	2
	읍면부	19	2	2	2	2	3	2	3	3
경북	동부	28	3	3	3	3	4	4	4	4
	읍면부	21	2	2	2	2	3	3	4	3
경남	동부	43	5	4	5	5	6	6	6	6
	읍면부	20	2	2	2	2	3	3	3	3
세종		8	1	1	1	1	1	1	1	1

〈표 I-3-3〉 의도적 무자녀 조사대상 표집

단위: 명

구분		30~39세		40~49세	
		남	여	남	여
수도권	대도시	7	7	7	7
	동부	5	5	6	6
	읍면부	1	1	1	1
강원권	동부	-	-	1	1
	읍면부	-	-	-	-
부산권	대도시	2	2	2	2
	동부	1	1	1	1
	읍면부	-	-	1	1
대구권	대도시	1	1	1	1
	동부	1	1	1	1
	읍면부	-	-	1	1
광주권	대도시	1	1	1	1
	동부	1	1	1	1
	읍면부	1	1	1	1
대전권	대도시	1	1	1	1
	동부	1	1	1	1
	읍면부	1	1	1	1

2) 조사 내용

설문조사 내용은 부모 역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부모역할의 실제, 자녀 양육 방식 및 지원 요구,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등이다(표 1-3-4 참조). 기혼 무자녀와 미혼자의 경우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의 실제(양육정서, 부모 자녀 관계, 자녀 훈육, 자녀와 보내는 시간, 양육 어려움, 육아지원정책 경험) 관련 문항은 삭제한 별도의 질문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3-4〉 설문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부모됨 인식 및 역할	· 부모됨에 대한 의견: 부모됨 준비 필요성, 부모의 희생 및 의무정도, 부모의 경제능력 및 고용상태, 자녀 지원 시기 등 · 모 취업과 자녀양육: 취업모 역할 한계, 맞벌이가정의 가사와 양육 책임정도, 모 취업의 자녀도움 정도, 일과 양육 중 수월 정도 등
부모역할의 실제	· 맞벌이 여부, 자녀양육 및 가사 분담정도 및 적절수준 의견, 가사활동 및 양육활동별 분담 정도 · 자녀연령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 부모 역할의 충분정도 및 불충분 영역*
자녀가치	· 자녀의 필요성 및 이유 · 자녀 가치에 대한 의견: 부부관계에 도움, 노년에 정서적·경제적 도움 등 · 2명 이상 자녀에 대한 의견: 형제·자매간 의지됨, 사회성 발달 긍정적, 부모의 관심이 분산됨, 외동 양육 수월함 등
자녀기대	· 자녀가 뛰어나기 바라는 것 · 희망 자녀 교육수준 및 직업
자녀양육 가치	·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 및 기술
양육태도 질문	· 자녀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부모의 지나친 관심의 부작용, 엄격함 및 체벌 필요성, 자녀의 행동에 관심정도 및 반응정도, 자녀의 자립지원정도, 자녀의 순종 정도, 자녀행동 관대 정도
양육정서 질문	· 자녀 양육 정서: 혼란스러움, 짜증스러움, 참고만 살고있음, 화풀이 하고싶을 때 많음, 자녀 미래가 걱정됨, 내 자신도 성장함 등* · 양육에서 가장 즐거움 느끼는 측면*
부모 자녀 관계	· 양육행동 빈도: 칭찬, 놀이, 함께 웃기, 자녀가 좋아하는 일 함께 하기, 처벌에 대한 자녀 태도,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모 태도*
자녀 훈육	· 부모의 훈육빈도: 말로 타이름, 타임아웃 줌, 겁을 줌, 이야기 거부 등*
자녀와 보내는 시간	· 부모 주중/주말에 자녀와 보내는 시간* · 양육활동별 부모 참여시간*
양육 어려움	· 항목별 양육 어려움 정도: 일과 육아 병행, 부모역할 자신감, 다양한 육아정보 선택,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기 등*

(표 I-3-4 계속)

구분	내용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기관 이용형태, 이용시기, 이유* ·과목별 학습 적정시기, 예체능 조기교육 필요성
육아지원 정책	·국가와 회사의 양육지원 정도 ·아이기르기 좋은사회 여건을 위한 조건 ·육아지원정책 수혜경험*, 만족도 및 가장 필요한 정책

주: 기혼 유자녀 조사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고, 기혼 무자녀 및 미혼 조사표에는 없는 문항에는 * 표시함.

조사표 문항은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 조사(김은설·최혜선, 2008)에서 사용한 문항을 일부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부모됨 인식 및 자녀양육관 관련된 해외 및 국내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추가하였다(김승권 외, 2012a, 2012b; 문무경·장혜진·김혜원, 2011; 서문희 외, 2012; Holland & Keizer, 2015; Halpenny, Nixon, & Watson, 2010). 또한 부모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구진이 판단하기에 현대사회의 한국인의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문항을 새롭게 추가 구성하였다. 기혼 유자녀 조사표를 기준으로 조사표 문항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3-5>와 같다.

<표 I-3-5> 조사표 문항

구분	계	기존	추가		인용 문항 출처
			제작	인용	
부모됨 인식과 요구					
자녀에 대한 인식	20	14	-	6	·김승권 외(2012a) ·김은설 외(2008) ·Holland & Keizer(2015)
부모됨에 대한 인식	22	1	8	13	·김승권 외(2012b) ·김은설 외(2008) ·문무경 외(2011)
부모됨 준비 인식과 요구	6	-	6	-	
자녀양육관 및 실제와 요구					
양육 신념 및 정서	28	15	6	7	·Halpenny et al. (2010) ·김은설 외(2008)
양육 시간 및 비용	17	8	4	5	·Halpenny et al. (2010) ·김은설 외(2008) ·서문희 외(2012) ·김승권 외(2012a)
양육 정보와 매체 영향	8	-	8	-	
생애주기별 양육 이슈	1	-	1	-	
양육지원 요구	9	1	5	3	·김승권 외(2012a, 2012b) ·김은설 외(2008)
총계	111	39	38	34	

주: 기혼 유자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표의 문항 구성임.

3) 응답자 특성

20~50대 성인 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1,013명으로,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연령대별 부모됨과 자녀양육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응답자 중에는 미혼자 259명과 자녀가 없는 기혼자 57명이 포함되어 있다. 자녀수에 따른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316명, 자녀 1명 169명, 자녀 3명 이상은 7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1-3-6〉 20~50대 성인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 분	백분율(수)	구 분	백분율(수)
전체	100.0 (1,013)	연령대	
성별		20대	21.7 (220)
여성	49.6 (502)	30대	24.0 (243)
남성	50.4 (511)	40대	28.0 (284)
		50대	26.3 (266)
결혼여부		거주지역	
미혼	25.6 (259)	대도시	46.1 (467)
기혼	72.6 (735)	중소도시	40.3 (408)
이혼/사별/별거	1.9 (19)	읍면동	13.6 (138)
자녀유무		교육수준	
미혼	25.6 (259)	고졸이하	38.3 (388)
기혼유자녀	68.8 (697)	대학 재학	13.7 (139)
기혼무자녀	5.6 (57)	대학 졸업 이상	48.0 (486)
자녀수		월 가구소득	
0명	31.2 (316)	300만 미만	17.3 (175)
1명	16.7 (169)	300~450만 미만	42.3 (429)
2명	44.4 (450)	450~600만 미만	24.8 (251)
3명 이상	7.7 (78)	600만 이상	15.6 (158)

한부모 조사에는 총 107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여성이 70명이고, 남성이 37명이다. 대부분 취업 상태이었고, 교육수준은 대졸 미만 42명, 대졸 이상 65명이었다. 월 가구소득은 300만 미만 68명, 300만 이상 39명이었다.

〈표 1-3-7〉 한부모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 분	백분율(수)	구 분	백분율(수)
전체	100.0 (107)	자녀수	
성별		1명	57.9 (62)
여성	65.4 (70)	2명	36.4 (39)
남성	34.6 (37)	3명 이상	5.6 (6)
교육수준		월 가구소득	
대졸 미만	39.3 (42)	300만 미만	63.6 (68)
대졸 이상	60.7 (65)	300만 이상	36.4 (39)
거주지역		취업상태	
도시(동)	72.9 (78)	취업	90.7 (97)
읍면	27.1 (29)	미취업	9.3 (10)

의도적 무자녀 조사 응답자는 총 104명으로, 여성 50명, 남성 54명이다. 대부분 취업중이었고, 대학 졸업 이상이 74명으로 많았다. 월 가구소득은 300만 미만이 7명, 300~450만과 450~600만이 각각 38명이었고, 600만 이상은 21명 이었다.

〈표 1-3-8〉 의도적 무자녀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 분	백분율(수)	구 분	백분율(수)
전체	100.0 (104)	교육수준	
성별		고졸이하	19.2 (20)
여성	51.9 (50)	대학 재학	9.6 (10)
남성	48.1 (54)	대학 졸업 이상	71.2 (74)
연령대		맞벌이 여부	
30대	47.1 (49)	맞벌이	74.0 (77)
40대	52.9 (55)	외벌이	26.0 (27)
취업여부		월 가구소득	
취업	86.5 (90)	300만 미만	6.8 (7)
휴직	1.0 (1)	300~450만 미만	36.5 (38)
미취업	12.5 (13)	450~600만 미만	36.5 (38)
		600만 이상	20.2 (21)

라. 포커스 집단 면담 실시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의 양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녀수와 가구소득별 부모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상 선정의 기준은 자녀수와 가구소득에 따라

양육 가치관과 실제에 차이를 보이는 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며, 면담 그룹의 자녀수 구분은 한 자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소득은 월 소득 500만원 이상과 3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가구소득 기준은 2015년 2/4, 3/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소득 10분위별 가계수지의 각각 3분위, 7분위를 기준으로 하였다(국가통계포털 사이트, 2016. 10. 19 인출).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발적 무자녀 가정의 여성 5명과 기혼 유자녀 아버지 5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그룹 면담을 진행하여 무자녀 결정 동기 및 자녀 양육 가치관, 아버지 양육관과 양육행동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1-3-9〉 포커스 집단 면담 대상 표집 설계

단위: 명

자녀수 가구소득	1명	2명	3명 이상	의도적무자녀	아버지
300만 미만	5	5	5	5	5
500만 이상	5	5	5		

포커스 그룹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특성, 자발적 무자녀와 아버지 그룹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질문과 대상별 추가 질문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보다 상세하고 심화된 인식과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명으로 시작한 그룹을 2~3명 소그룹으로 나누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1-3-10〉 포커스 집단 면담 공통 질문

범주	공통 질문
기본정보	·가구 유형 특성 ·사회 인구학적 배경: 소득 수준, 교육 수준, 부모의 형제자매 여부 등 ·자녀 정보 향 향후 자녀 계획
자녀가치	·희망하는 자녀의 미래 모습 ·자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현재, 앞으로의 생애에서, 노후 시점에서)
부모로서의 정체성	·주 양육자 ·부모로서 나에 대한 평가 ·부모가 된 후 가족 및 자녀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 역할 ·본인의 양육과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양육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바람직한 부모에 대한 인식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되고 싶은 부모상) ·출산 전과 현재의 바람직한 부모상에 대한 생각 차이 ·좋은 부모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정부지원	·수혜 받고 있는 정부 육아지원 정책 ·바람직한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지원, 정책 ·국가와 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책임 부담 비율

(표 I-3-10 계속)

범주	공통 질문
자녀 양육 문화 변화	·현재 양육문화의 경향 ·현재와 과거(10년 전 또는 부모세대)의 양육 문화 비교 ·자녀를 위한 고가의 유아용품 구매 혹은 고가의 사교육 경험, 동기 등
양육정보 출처	·양육 정보를 얻는 경로 및 가장 도움된 정보 ·TV육아 프로그램 시청 경험 및 영향
부모 교육	·부모교육 의무화 필요성 ·가장 좋은 부모교육 시기 ·부모교육 경험 및 기대하는 부분

<표 I-3-11> 집단 특성별 포커스 집단 면담 질문

범주	한자녀 그룹	다자녀 그룹	의도적 무자녀 그룹	아버지 그룹
기본 정보	·한자녀 이유 ·한자녀 장점 및 단점	·다자녀 동기, 본래 출산 계획 등 ·다자녀 장점 및 단점	·무자녀 결정 시기 및 동기 ·주변 반응에 대한 생각 ·무자녀 가정의 장단점 ·부부관계의 특성 ·자녀의 필요성 및 아쉬움 경험 ·한국의 무자녀 증가 관련 생각	·자녀와 주로 함께하는 활동 ·양육 주도성, 부부간 양육 관련 대화 방식 ·아버지 양육 어려움
자녀 가치	·반대 성별 자녀에 대한 생각 ·형제 재매장점 및 보완 노력	·각 자녀 기대의 일치성 및 내용 ·출생 순서에 따른 자녀 가치에 대한 생각 변화	·부모 이미지(부정적 vs 긍정적) 및 영향 미친 경험 ·‘아이’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 ·자녀를 갖는 것의 의미 ·가정생활에서 자녀보다 더 중요한 가치 ·무자녀가 노후에 미치는 영향	·자녀 연령에 따른 아버지로서 태도 변화 및 어려움 등
부모로서 정체성	·다자녀 부모보다 더 나은 양육 제공 가능성	·자녀별 양육방법 차이 ·자녀수 따른 아버지 변화		
좋은 부모 인식		·좋은 부모 되기에 어려움	·좋은 부모에 대한 인식 및 필요한 점	
정부 지원	·가장 도움된 정책 ·무엇이 보완되면 추가출산을 고려할지	·자녀별로 가장 도움 및 수정될 정책 ·다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른 출산 의향, 원하는 지원 종류와 수준 ·자녀양육에 국가와 가정의 적절한 분담 비율 ·무자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희망하는 지원/정책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의 지원경험 ·아버지에게도 지원해주면 좋은 국가적 지원

(표 I-3-11 계속)

범주	한자녀 그룹	다자녀 그룹	의도적 무자녀 그룹	아버지 그룹
자녀 양육 문화 변화	·자녀양육 소비 경향	·자녀별 양육문화 변화 내용		·양육 관련 주 소비자 및 협의 여부 등 ·양육에 아버지의 참여 독려하는 문화체감 정도
양육 정보 출처		·출생 순서에 따른 양육 정보습득방법, 필요 정보 변화		·아버지 육아 다루는 TV 육아 프로그램의 시청 경험 및 생각
부모 교육	·외동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 콘텐츠	·다자녀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 등	·부모교육 경험 및 도움된 부분 ·부모됨에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경험 및 교육, 환경	·근대 부모교육 실시 생각 ·아버지 부모교육

포커스 그룹 면담 면담자는 한 자녀 부모와 세 자녀 이상 부모 각각 10명씩, 의도적 무자녀 여성 5명, 아버지 5명이다. 그 외 면담자 특성은 다음의 <표 I-3-12>와 같다.

<표 I-3-12> 기혼 부모집단 면담자 특성

구분	연령(만)	자녀 수	자녀 연령	작업	가구소득
한 자녀 양육부모	49세	1명	18세	게임회사 사무직	700만원
	42세	1명	13세	모바일 회사	1000만원
	47세	1명	13세	전업주부	500이상
	38세	1명	9세	전업주부	500이상
	45세	1명	13세	옷가게 판매직	500이상
	35세	1명	13, 17, 19세	옷가게 판매직	290만원
	35세	1명	7세 쌍둥이, 10, 14세	전업주부	260만원
	38세	1명	5, 8, 15, 16세	전업주부	290만원
	44세	1명	13, 16, 17세	학교 조리원	280만원
	34세	1명	7, 14, 20세	IT회사	280만원
세 자녀 이상 양육부모	45세	3명	9세	전업주부	550만원
	39세	4명	6세	전업주부	500이상
	45세	4명	5세	병원조리사	500이상
	44세	3명		관리사무소 사무직	500이상
	45세	3명	2세	전업주부	550만원

(표 I-3-12 계속)

구분	연령(만)	자녀 수	자녀 연령	작업	가구소득
세 자녀 이상 양육부모	38세	3명	6, 9, 12세	전업주부	300미만
	46세	3명	10, 16, 19세	전업주부	300미만
	43세	3명	14, 17, 19세	전업주부	300미만
	38세	3명	11세 2명, 14세	장애재활	300미만
	39세	3명	8, 11, 14세	전업주부	300미만
한부모	35세	1명	8세	의류 자영업	-
	39세	2명	4, 8세	학원 사무직	-
	47세	1명	6세	안내데스크	-
	46세	1명	9세	전업주부	-
아버지	34세	1명	8세	게임개발회사	400만원
	38세	2명	5, 7세	교육서비스	550만원
	35세	1명	13세	IT회사	1000만원
	35세	1명	9세	임대업	600만원
	32세	1명	6세	제조회사	450만원
의도적 무자녀	34세		결혼기간 9년	자영업-요식업	700만원
	38세		결혼기간 6년	의류 MD	700만원
	35세		결혼기간 1.6년	인력채용회사	600만원
	35세		결혼기간 4년	전업주부	850만원
	32세		결혼기간 2년	전업주부	7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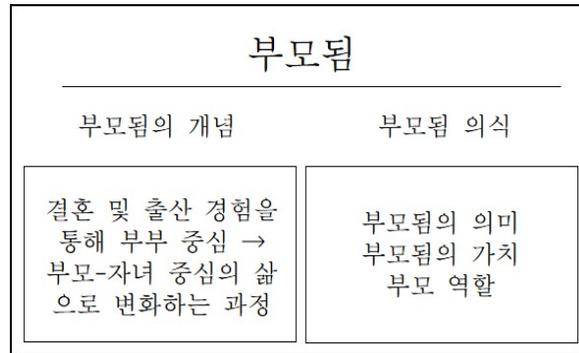
II. 연구의 배경

1. 부모됨

가. 부모됨의 정의

부모됨(parenthood)은 아이를 출산하여 부모가 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자녀 출산 이후, 부부중심에서 자녀중심의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 가정 내 개인 역할과 책임의 변화를 급격하게 경험한다는 점에서 부모됨은 위기로 인식되기도 한다(Lawrence, Rothman, Cobb, Rothman, & Bradbury, 2008: 47; Volling, Oh, Honzalez, Kuo, & Yu, 2015: 191). 구체적으로, 아이 출산 전과 출산 6개월 후를 비교해볼 때 출산 후 남녀 모두 부부관계에서 불안을 경험하며, 부모됨을 통해 경험한 불안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부공동체로의 연합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Bouchard, 2014: 25).

부부가 자녀를 계획하거나, 출산을 기다리는 동안, 부모로서의 정신적, 심리적, 물리적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부모됨의 과정은 임신과 출산 이전에 이미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생을 비롯한 미혼 성인, 예비 부모,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됨의 의미와 가치(김두섭·창승은·송유진·천희란·김정석, 2007; 이삼식 외 2006; 이윤정, 2015), 부모의 역할(김승권 외, 2005; 김승권 외, 2012a; 김승권 외, 2012b; 김은설·최혜선, 2008; 김의철·박영신·권용은, 2005; 김혜영·김상돈·박선애, 2012; 이삼식 외, 2005; 이문옥·심미영, 2011; 이윤정, 2015)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부모됨 개념을 바탕으로, 부모가 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 혹은 부모가 되는 경험을 통해 가지는 부모됨의 의미, 가치, 부모 역할을 조사하여 한국인의 부모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II-1-1] 부모됨의 개념 정의

나. 한국인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

1) 부모됨에 대한 인식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미혼, 기혼자들은 부모가 되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2%가 부모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고(이삼식 외, 2006: 171), 2015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부모됨의 동기가 5점 중 4.46점으로 높은 편이었다(이윤정, 2015: 8). 이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점차 낮아지는 데 반해 부모됨 가치는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김두섭 외, 2007: 54).

부모 역할에 대해서는 보답이 필요 없는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69.9%로 높았으며, 20대와 저소득 집단에서 보답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김은설·최혜선, 2008: 89).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은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에서 보통 수준을 보였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부모됨에 대한 높은 동기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역할 자신감은 3.16점으로 중간수준 이었고(이윤정, 2015: 8),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역시 44.6%가 부모 역할이 보통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취업모와 낮은 소득의 가구에서 더욱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 역할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이 46.4%로 높게 나타났다(김은설·최혜선, 2008: 115-116).

부모로서의 희생에 대한 의견에는 세대별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 어머니가 유아 어머니보다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지원하려는 각오

가 높게 나타났고(김의철 외, 2005: 109), 20-30대와 고학력의 부모가 자녀를 위한 희생은 필요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김은설·최혜선, 2008: 87).

2)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

취업모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 내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여성의 가사와 양육 부담 과중 및 각종 사회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2005년에는 20-44세 미혼남성의 67.1%, 미혼여성의 51.0%가 여성의 역할은 가정을 돌보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으나(이삼식 외, 2005: 169), 2012년에는 미혼남성의 52.1%, 미혼여성의 45.4%으로 낮아졌다(김승권 외, 2012a: 594-595).

세대 뿐 아니라 학력에 따라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아내보다 남편 경력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문항도 교육수준에 따라 반비례하는 유사 경향을 보였고(김승권 외, 2012b: 236, 김승권 외, 2012a: 593), 여성은 자녀 양육하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는 점에 20-30대의 반대 비율이 높은 점(김은설·최혜선, 2008: 73) 역시 젊은 세대와 고학력 여성의 가정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자녀가 어릴 때에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는 93.3%가 동의하였고(김은설·최혜선, 2008: 71), 부나 모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직접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9.5%로 절반 정도이었다. 이는 영아기의 자녀 양육은 부모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김은설·최혜선, 2008: 76).

아버지의 양육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맞벌이라도 가족 생계는 남편이 책임진다는 의견에 미혼남성의 66.3%, 미혼여성 45.7%가 동의하여 남성은 여전히 경제적 활동과 가족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삼식 외, 2005: 174-175).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 및 실제에 대한 부분도 점차 사회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남정은·정정희, 2012: 116).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은 1998년부터 2010년의 사회조사 비교 결과 크게 변화하였는데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비율이 44.9%였던 1998년에 비해 2010년에는 6.4%에 불과하여 38.5%p 감소하였다. 반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견해는 5.7%에서 36.8%로 31.1%p 증가하였고(김혜영 외, 2012: 119-120), 2008년에는 91.9%가 이에 동의하였다(김은설·최혜선, 2008: 75).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

할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무엇이든 함께 해야 한다는 예비 부모의 평등한 성 역할 인식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갖는다(이문옥·심미영, 2011: 275).

2. 자녀양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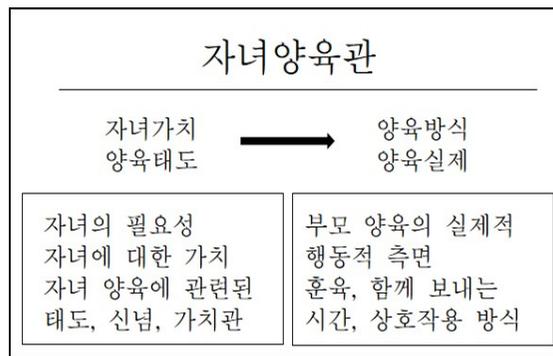
가. 자녀양육관의 정의

한국인의 양육관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양육관”의 개념을 자녀관, 자녀 가치(관), 양육 태도, 양육 신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김은설·최혜선, 2008). 자녀관 혹은 자녀 가치(관)은 자녀를 갖는 것의 필요성(김승권 외, 2012a; 김승권 외, 2012b; 김은설·최혜선, 2008; 제남주·최소영, 2014),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김미예·송영숙, 2012; 남정은, 2013; 신호영·방은령, 2007; 이윤정, 2015) 혹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관(김승권 외, 2012a; 문무경 외, 2011)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어왔다. 양육 태도와 양육 신념은 자녀 양육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및 생각과 관련된다. 즉, 자녀를 다룰 때 중심이 되는 부모의 원칙, 자녀를 엄하게 다루어야 하는지, 자녀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같이 자녀 훈육 방향에 근거가 되는 부모의 생각을 포함한다(김신정·김계숙·김영희, 2007; 김영희·김신정, 2008; 김은설·최혜선, 2008; 김승권 외, 2012b; 문무경 외, 2011; 박영애·나중혜, 2003; 이정립 외, 2015). 부모가 가지는 양육 태도와 신념은 상황과 맥락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 부모의 실제적 양육 행동으로 이어지고 표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양육관을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박성연·박응임·한세영, 2009: 22; Schaffer, 2006: 191).

자녀 가치 및 양육 태도와 더불어 양육관을 반영하는 행동 지표로는 양육 방식과 양육 실체가 있다. 양육 방식은 부모가 자녀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동적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양육행동유형이나 양육행동차원을 세분화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박성연 외, 2009: 21; 이종욱·최한희·박병기, 2012: 277). 양육방식을 분류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표는 애정(온정)과 통제로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애롭고 민주적인가, 통제적이고 엄격한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종욱 외, 2012: 277).

양육 실체는 자녀와 보내는 시간, 훈육 방법, 자녀 교육, 육아지원서비스의 이용 등과 같이 부모 자녀 상호작용과 관련된 실질적이고 행동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양육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참여하고 있는 양육 활동 종류, 시간, 사용하는 훈육방식, 이용하는 교육, 보육 시설 등의 정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부모됨과 양육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개념(가치관, 양육태도, 양육방식, 양육실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양육관”을 정의하고자 한다.



[그림 II-2-1] 자녀 양육관 개념 정의

나. 한국인의 자녀양육관과 양육실제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실체에 대한 연구는 정부출현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주제별 현황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출연기관에서 수행한 연구는 가족·육아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6개) 혹은 2차 분석(3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연구 주제별로 자녀 양육관(6개)과 양육 실체를 분석한 연구(8개)가 다수 이었다.

〈표 II-2-1〉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및 실제 관련 출연기관 연구

연구명(연구자)	조사 대상자	연구 방법	연구주제			
			자녀관 양육관	양육 태도	양육 방식	양육 실제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김두섭 외, 2007)	전국 출산력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등	2차자료분석	X			X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외, 2012a)	전국 14,970 가구	설문조사	X	X		X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김승권 외, 2012b)	전국14,970가구 기혼여성4,762명 미혼남녀3,477명	설문조사	X			X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김은설 외, 2008)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총 3,747명	설문조사	X	X		X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연구 (문무경 외, 2011)	재외동포 부모 총 1,034명	설문조사	X	X		X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가구조사 (서문희 외, 2012)	2,528 가구 (영아 1,802명, 유아 1,541명)	설문조사				X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신윤정 외, 2014)	통계청 시간 활용 조사 자료	2차자료분석				X
한국아동패널2015 (이정립 외, 2015)	패널 1,620명	설문조사		X	X	X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 (최인희 외, 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등	2차자료분석	X			

학계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설문조사, 2차 통계자료 분석 뿐 아니라 면담과 문헌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10~20년의 신문기사 분석 혹은 그림책 내용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진 점이 특징적이다. 연구 대상은 무자녀 부부, 예비부모, 여대생, 영아 양육모, 학령전기 아버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연구 주제는 주로 자녀관, 양육관 등 가치관에 대한 연구가 많은 반면 실제에 양육 실제, 방식 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는 학술연구에서 전국 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지기에는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1-2-2〉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및 실제 관련 학술연구

연구명(연구자)	조사 대상자	연구 방법	연구주제			
			자녀관 양육관	양육 태도	양육 방식	양육 실제
미혼 및 기혼 무자녀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사 고찰과 미래 예상 출산 자녀수 관련 변인 탐색(권영인, 2014)	30-45세 미혼남녀 64명, 무자녀 기혼남녀71명	설문 조사	X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 가치관에 관한 연구(김미예 외, 2012)	대학생 366명	설문 조사	X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김신정 외, 2007)	학령전기 어머니 103명	설문 조사		X		
여대생의 자녀 양육관(김영희 외, 2000)	여대생 137명	설문 조사	X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이용한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김영희 외, 2008)	학령전기 아버지 84명	설문 조사		X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김정미 외, 2013)	무자녀가족15명 (여성11명, 남성4명)	질적 연구	X			
무자녀를 변화 추세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1990~ 2010 (김한곤, 2014)	보건복지통계 연보 등	2차 자료 분석	X			
젊은 세대의 양육과 관련된 가치관에 관한 연구 (남정은, 2013)	2000~2010년 사이 조선일보 기사 414건	문헌 분석	X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양육관에 대한 내용분석 2000년~2010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남정은 외, 2012)	2000~2010년 사이 조선일보 기사 669건	문헌 분석	X			
자녀양육 양상을 통해 본 저출산 문제의 이해-1980년대 중반~ 2000년대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남정은 외, 2013)	1980~2000년 사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 683건	문헌 분석	X			
영아기 자녀 양육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노희연, 2008)	36개월이하 영아 어머니 108명	설문 조사				X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 행위 유형: Q-방법론적 접근(박선정 외, 2013)	영유아 부모 40명	질적 연구			X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위에 관한 내용분석(박선정, 2014)	60개월 이하 영유아 어머니 32명	질적 연구			X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관련 신념 및 부모 효능감에 대한 연구(박영애 외, 2003)	임산부 253명, 산모 256명 총 509명	설문 조사		X		
[행복한 우리가족] 에 나타난 현대 부모의 양육관 분석 (안지성 외, 2013)	한성옥(2006)의 그림책 행복한우리가족	문헌 분석	X	X		

(표 II-2-2 계속)

연구명(연구자)	조사 대상자	연구 방법	연구주제			
			자녀관 양육관	양육 태도	양육 방식	양육 실제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우남희 외, 2009)	부모 931명 (영아기 136명; 유아기 239명; 저학년기 249명; 고학년기 247명)	설문 조사	X	X		X
예비부모의 자녀출산 및 양육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이문옥 외, 2011)	예비부모176명 설문조사 13명심층면담	설문 및 질적	X	X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련변인 연구 (이석호 외, 2012)	24개월 이하 자녀 양육모 359명	설문 조사			X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이수현, 2012)	기혼여성 21명	질적 연구	X			
30세 이상 미혼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에 관한 연구(제남주 외, 2014)	30대 이상 여성 192명	설문 조사	X			
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최연실 외, 2014)	만 50세 미만의 무자녀 부부 554명	설문 조사	X			
대학생의 자녀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최현정 외, 2014)	대학생 198명 (남 79명, 여 108명)	설문 조사	X			

1) 자녀관과 양육신념

자녀관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점차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97년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했던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73.4%이었던 반면, 2005년에는 미혼남성의 61.1%, 미혼여성의 53.8%으로 낮아졌다(이삼식 외, 2005: 230-231).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조사에서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이 응답자 전체의 53.5%으로 2003년, 2006년, 2009년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를 얻었다(김승권 외, 2012a: 203). 이와 유사하게, 아들이 없어도 괜찮다는 응답이 2000년에 39.5%였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5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남아선호가치관 역시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김승권 외, 2012a: 214).

자녀필요성은 결혼 여부,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자녀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아지며 (신효영·방은령, 2007: 495),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자녀를 갖는 것과 자녀에 대

해 더 긍정적인 측면을 인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예·송영숙, 2012: 308; 최현경·이성희, 2014: 593). 30세 이상 미혼 여성의 경우, 30~34세 집단보다 35~39세 연령집단에서 자녀 필요성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남주·최소영, 2014: 257). 즉, 미혼에 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자녀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가치관과 관련된 특징적인 사항은 2000년 이후 무자녀 가정(결혼기간 3년 이상 기혼자 중 출산 경험이 없는 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이다(김한곤, 2014: 96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2015)에 따르면 2000년에는 무자녀 부부가 약 25만 8천쌍으로 조사되었고, 2010년에는 약 33만 3천 쌍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인희·김은지·이상림·정다운, 2015: 26). 특히, 2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 집단에서, 비자발적 무자녀 가정(불임 등의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발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자발적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김한곤, 2014: 965).

대학생이나 예비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양육 방식에 대한 신념, 즉 양육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애정과 자율 측면이 강조된 양육관과 훈육을 위해 체벌을 허용하는 통제적 양육관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김영희·김신정, 2008: 286; 이문옥·심미영, 2011: 281). 특히 예비 부모들은 애정적 태도를 갖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자율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 순으로 낮게 지지하였다(이문옥·심미영, 2011: 281). 초산인 임산부들은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에 있어서 신생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에 비해 더 이상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임산부들은 출산 전에 아이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자라나길 바라는 경향이 있지만, 아이를 낳고 양육을 어머니들은 자녀가 평범하고 성실하게 자라주길 바라는 태도를 가졌다(박영애·나중혜, 2003: 294). 이는 자녀를 실제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양육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거나 아이들에게 과도한 애정을 보여줄 경우 아이의 버릇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었고, 어릴 때 엄하게 버릇을 잡는 것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길이라 생각하였다(김은설·최혜선, 2008: 67-69). 이러한 양육신념은 특히 50대 부모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나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양육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파

악된다. 즉, 30대의 젊은 부모 세대가 50대의 부모 세대들 보다는 아이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체벌을 덜 사용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최혜선, 2008).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검사(KPAAT: Korean Parent As a Teacher Test)를 이용하여 학령전기의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한 연구(어머니 대상: 김신정·김계숙·김영희, 2007: 7-9; 아버지 대상: 김영희·김신정, 2008: 86-87)에 따르면, 양육태도 6가지 요인(질문에 대한 반응, 놀이의 허용, 통제와 제한, 아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 학업의 성취 격려, 창의성 발달의 촉진) 중 학업 성취의 격려가 가장 높은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창의성 발달, 질문에 대한 반응, 놀이의 허용, 아동에 대한 평가와 지원, 통제와 제한 순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학령전기 부모는 아동의 지적인 발달을 지원하는데 민감하며 통제보다는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예의바른 생활습관, 책임감, 타인에 대한 포용과 존중, 결단력과 끈기 등의 덕목을 강조하고 가르치고자 하였다(이정림 외, 2015: 291). 이러한 부모의 양육 신념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연구(2015)에 따르면, 아동 연령이 1~3세 때 보다 4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두 자녀가 어른의 말씀을 잘 듣기를 더욱 바란다고 보고하였고, 상대적으로 검소함, 저축하고 절약하는 측면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는 결단력과 끈기, 종교적 신념과 상상력 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아버지는 자녀의 상상력 신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이정림 외, 2015: 284-285). 이와 유사하게,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모의 응답 역시 자녀의 발달시기별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영유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놀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과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뽑혔다. 초등학교 자녀에 대해서는 책을 통해 논리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는 것과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자녀에 대한 이해, 진학을 돕는 것과 같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의 특성을 반영한 양육태도가 우선순위로 보고되었다(김은설·최혜선, 2008: 77-8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부모의 성별, 아동과 부모의 연령 및 발달 단계가 양육 태도와 신념에 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양육방식과 실제

부모의 양육방식은 양육행동유형이나 양육행동차원을 세분화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박성연 외, 2009: 21; 이종욱 외, 2012: 277). 선행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긍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부정적 양육행동)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거나(박선정, 2014; 이정림 외, 2015), 허용과 통제를 기준으로 더 세분화된 유형분류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박선정·강경아·김신정, 2013; 이석호·이주연, 2012).

긍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의도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반응해줄 수 있는 부모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양육행동의 한 측면으로서, 잦은 피부 접촉, 자녀와 질적 시간 갖기, 자녀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지지하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감정 존중하기 등이 대표적이다(박선정, 2014: 41). 부정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과도하게 통제적인 경우에 발생한다. 과잉보호,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훈육, 방임, 비밀관적인 양육행동 등이 부정적 양육행동의 대표적인 특성이다(박선정, 2014: 43).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이정림 외, 2015), 어머니, 아버지 모두 통제적 양육행동보다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높게 보고하였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온정적, 통제적 양육행동 모두를 더 빈번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동에게 온정적인 행동을 더욱 보여주려는 현대 부모들의 노력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양육행동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여도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었다.

아버지 양육 참여를 조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9에서 2009년 동안 미취학 자녀 혹은 초중고생 자녀를 가진 20~59세 아버지들이 자녀의 양육에 참여한 시간이 증가하고, 남성 자녀돌봄 참여율이 21%에서 33%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자녀양육에서 어머니의 참여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참여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윤정·기재량·우석진·윤자영, 2014: 106-108). 다른 연구에서도 어머니가 주 양육자라 보고하는 경우가 여전히 81.5%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였고(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지, 2009: 310), 자녀양육활동 별 자녀 양육의 어머니 아버지 분담 정도에서도 여성의 역할 비중이 높게 보고되고 있다(학교 공부 76.6%, 놀아주기, 60.5%, 등하교 78.4%)(김승권 외, 2012a: 572-576).

한국 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와 함께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립용 완구, 퍼즐을 가지고 노는 것, 게임, 스포츠 등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활동, 혹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상대적으로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림 외, 2015: 170-174).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행동을 구분하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동의 생존과 관련된 식생활 지도, 수면지도, 배변훈련을 위한 양육 행동을 주로 하였다(노희연, 2008: 16). 유아기까지는 기본생활습관, 인성교육을 지원을 강조하는 양육행동 특성을 보이는 반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보다는 사교육을 위한 양육행동을 더욱 빈번하게 보여 주었다(우남희 외, 2009: 313-314). 앞서 설명하였던 양육방식(예: 온정적/통제적 양육행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육실제(양육행동의 종류)면에서는 연령별로 부모의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다.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변화 양상 및 영향 요인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변화에서 발견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낮아졌으며, 전통적인 자녀관(예: 남아선호사상)이 약해진 경향이 있다(남정은·정정희, 2012: 114).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실현, 직업적 성취에 관한 관심 증가와 기혼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가 자녀를 반드시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남정은·정정희, 2012: 117). 특히, 높은 연령대에 비해 20대, 30대 결혼한 여성들 가운데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고(김두섭 외, 2007: 119), 결혼 후에도 개인적인 삶을 즐기기 위해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미혼자가 전체의 약 11%라는 선행연구 결과(김은설·최혜선, 2008: 145)는 근대화, 서구화된 사회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무자녀 가정, 특히 자발적 무자녀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여성의 지위 상승이 35세 이상 기혼 여성들이 자녀를 낳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김한곤, 2014: 969-970).

둘째, 아버지 양육참여 인식은 증가하였지만(남정은·정정희, 2012: 116; 남정은, 2013: 64), 여전히 실제 참여율은 어머니만큼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신윤정 외, 2014: 108). 하지만 각종 매체에서 연예인의 육아참여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예: 아빠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을 개발하여 아버지 양육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남성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제도적 정립과 같은 (홍승아·이인선, 2012: 5) 긍정적인 변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세대별, 발달단계 별로 자녀 양육 특성이 세분화 되었으며, 그에 따른 양육 실제 및 해결 과제가 다양해졌다(표 II-2-3 참조). 20대 부모에게 최근 이슈가 되는 양육 주제는 양육 문화이다. 20대, 30대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출산 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베이비 샤워가 보편화되었다(남정은·정정희, 2012: 115). 또한, 출산을 한 어머니 50.2%가 다양한 형태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등 출산을 지원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였다(김승권 외, 2012a: 406). 인터넷 블로그와 각종 SNS매체를 통하여 젊은 어머니들이 육아 정보를 활발하게 교환하는 가운데(남정은·정정희, 2012: 118), 고가의 유아용품 구매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통신기술발달로 정보공유가 쉬워지면서, 값비싼 음식을 먹고, 아이에게 좋은 옷과 물건을 사주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는 것을 과시하는 문화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타인에게 보여 지는 것이 중요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아이 양육과 관련된 불필요한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30대 부모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양육 주제는 양육문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이다. 20대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30대 부부들 역시 소비적인 육아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남정은·정정희, 2013: 61). 뿐만 아니라, 30대는 자녀 양육에 들이는 시간이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높은 시기이며(신윤정 외, 2014),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 정서적 부담이 20대 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남정은, 2013: 455). 특히, 자녀가 만3세~7세일 때 보육비 지출이 집중되어 있고(김두섭 외, 2007: 173), 2003년 이후 해마다 월평균 양육비가 증가하여(73만 8천원), 2012년에는 월 118만 9천원에 이르러(김승권 외, 2012a: 842),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30대 부모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30대의 젊은 부모들은 성공한 자녀를 만들기 위한 열의가 있고(남정은, 2013: 455-456)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교육을 어린 나이에 시키는 것에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우남희 외, 2009: 309), 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40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양육 이슈는 자녀 교육과 대학 입시 문제이다. 자녀 1인당 대학졸업까지 필요한 총 양육비는 2012년 3억 896만 4천원이며, 2009년의 2억 6204만 4천원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김승권 외,

2012a: 844), 40대 부모들의 교육비 관련 경제적 부담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학업 면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필요시 사교육을 제공하고, 대학 입시관련 정보를 모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50대 부모에게 중요한 양육 이슈는 자녀 취업 및 결혼이다. 최근 취직의 어려움 증가와 결혼 시기가 늦춰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대학 졸업 이후에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50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50대는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는 연령대로, 자녀의 결혼 자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2012년 보고에 따르면, 결혼 자금은 남성 평균 7천 545만 6천원, 여성 5천 226만 6천원으로 2009년과 비교할 때 상승하였고, 결혼 비용 면에서 결혼당 사자가 부담하는 것보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김승권 외, 2012a: 856).

60대 이상의 부모에게 중요한 양육 이슈는 자녀 결혼과 황혼 육아 등이 있다. 만혼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60대에 여전히 자녀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60대에는 조부모가 되거나, 퇴직을 하여 직업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역할 재조정 및 재정립이 필요하다. 여성 취업 증가율에 의해 자녀들이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가 증가하여, 조부모의 황혼 육아가 흔하게 보고되는 만큼(남정은·정정희, 2012: 117-118), 손주 양육에서 자녀와 부딪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표 11-2-3〉 세대별 주요 양육 이슈 및 해결과제

세대	주요 양육 이슈	해결 과제
20대	양육문화: 베이비 샤워, 산후 조리원 이용, 고가의 유아용품 구매	경쟁적 육아, 보여주기 위한 양육
30대	양육문화, 자녀 보육 및 교육 문제	양육비 부담
40대	자녀 교육 및 입시	교육비 부담
50대	자녀 취업 및 결혼	취업난 및 만혼의 증가로 자녀와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짐, 결혼 비용 부담
60대	자녀 결혼 및 황혼 육아	역할 변화 적응 (은퇴, 조부모로서 양육하는 경우)

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

최근 이혼의 증가, 만혼의 증가로 한부모 가족과 무자녀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한부모 가족과 무자녀 가족의 자녀양육관 특징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과 다소 차이가 발견되어, 그 특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한부모 가족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2015년 30대 이하의 한부모 비율이 21.4%에서 25.3%로 증가하였고, 40대의 한부모의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았다(2012년 63.7%, 2015년 61.2%)(김은지·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소영·정수연·성경, 2015: 29). 대부분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가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김은지 외, 2015: 33), 2015년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가족의 비율이 47.3%, 아버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가족 비율이 1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지 외, 2015: 35). 한부모 가정의 자녀수는 2015년 평균 1.6명으로 1명인 경우가 전체의 49%, 2명은 44.8%에 해당하였다(김은지 외, 2015: 39). 한부모의 교육수준은 2012년 고졸이하가 64.2%, 대학이상 23.8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에 고졸이하 60.4%, 대학이상 31.8%로 고학력자의 한부모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은지 외, 2015: 31).

한부모 가족에서 부모가 겪는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돌봄 지원자 부족), 사회적 편견 등이 있다(문성희·이대균, 2011: 328-329). 한부모 가정 전체의 2015년 월평균소득은 약 189.6만원이고,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의 소득은 약 15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김은지 외, 2015: 128-129). 한부모들은 전 연령에서 양육·교육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김은지 외, 2015: 135).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한부모가 경험하는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미취학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한부모는 자녀 돌봄 시간의 부족, 한부모 부재 시 대신 자녀 돌봄 대상을 찾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김은지 외, 2015: 88). 특히, 아버지 한부모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형성에서의 어려움과, 아버지 역할에서의 어려움이 두드러졌다(김은지 외, 2015: 364). 남성 한부모는 대책 없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혼한 느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과 가정을 모두 돌보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양육 전쟁”으로

비유하는 경향이 있었다(박현정·이기연·정익중, 2013: 209-211). 정리해보면, 한 부모 모자 가구의 경우 주로 경제적 문제, 부자 가구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부모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이들의 실제 양육행동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통한 조사 분석과 심층면접을 모두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한 30-40대 한부모 가족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의도적 무자녀 가족

무자녀 부부는 자발형, 비자발형(불임으로 인한 경우), 연기형(자녀를 미래에 낳을 계획은 있으나 미루는 경우)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의도적 무자녀 가족은 자발형에 해당된다(최연실·성미애·이재림, 2014: 50). 즉, 결혼을 하였으나 자녀를 자발적으로 원하지 않고, 앞으로도 낳을 계획이 없는 경우 의도적 무자녀 가족으로 정의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5년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의도적 무자녀 기혼 여성의 비율은 연령별 전체 인구의 1.0~1.4% 정도 이고, 40대에서 그 비율이 증가하다가 50대부터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최인희·김은지·이상림·정다운, 2015: 34).

결혼 후 무자녀 가족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적 결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크게 개인의 가치관, 원가족과의 경험,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이 의도적 무자녀 결정 요인으로 꼽힌다(김정미·양성은, 2013: 85-87). 의도적 무자녀 여성은 직업적 면에서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에 대한 욕구가 크다(김정미·양성은, 2013: 85-86; 이수현, 2012: 59-61). 특히, 35~49세 연령에서 여성의 지위 상승이 무자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한곤, 2014: 969). 또한, 원가정에서 부모의 부부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경우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무자녀를 선택하기도 하였다(김정미·양성은, 2013: 86-87; 이수현, 2012: 62-63). 양육지원의 부족, 안전하지 않은 양육환경에 대한 불안 및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은 무자녀를 선택하게 하는 또 다른 주요인이다(김정미·양성은, 2013: 87; 이수현, 2012: 65-70).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택적 무자녀 부부의 특성을 유자녀 부부와 비교해보면, 거주 지역, 교육 수준, 맞벌이 여부, 소득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희 외, 2015: 80-82). 유자녀 부부에 비해 무자녀 부부

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무자녀 부부의 학력이 유자녀 기혼 부부보다 높은 편이었다. 유자녀 부부와 비교하여 무자녀 부부의 맞벌이 비율이 11.9%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 무자녀 여성들이 자기실현을 위해 자녀보다는 일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최인희 외, 2015: 81). 여성의 경우 무자녀 여성의 소득이 유자녀 여성의 소득보다 높았으나, 전체 소득수준은 유자녀 부부가 높은 편이었다(최인희 외, 2015: 82).

기존의 의도적 무자녀 연구는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만을 사용하거나(김정미·양성은, 2013; 이수현, 2012), 국가통계자료의 2차 분석(김한곤, 2014), 혹은 질문지를 통한 조사 분석(권영인, 2014; 성미애·최연실·이재림, 2014; 최연실·성미애·이재림, 2014) 중 한 가지 연구 방법에 의존하는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통한 조사 분석과 심층면접을 모두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 중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도적 무자녀 가족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을 알아보려고 한다.

3. 가족·육아지원 정책 현황과 특징

본 절에서는 한국의 가족·육아지원 정책의 동향과 연도별 주요정책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보다 본격적으로 지원정책 방안을 명시하고 있는 2006년 이후의 중앙부처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였다.

한국의 가족·육아지원 정책 동향은 저출산과 가족의 기능 약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한 추진 계획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6년 이후에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의 부처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초기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다가 점진적으로 보편적인 가족 지원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5). 이는 2001년 신설된 여성부가 2005년 6월 여성가족부로 재편하여 출범함으로써 여성, 가족 및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및 한국의 가족·육아에 대한 진단이 구체화되고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되어 향후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회 환경 마련과 인프

라 구축,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가임 부부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이 도입되고, 일·가정 양립의 기업 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이 도입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05, 2006).

2009년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영유아보육 관련 아이사랑플랜이 수정·발표되었는데, 이전의 중장기보육 기본계획과 달리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책임을 강조하고 국가가 보육 공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정 내 부모양육 지원을 위해 2009년 도입된 가정양육수당 등을 들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0b).

이후 2011~2012년은 2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실행된 시기로, 보편적인 가족의 보육공백 지원과 양육비용 부담 경감에 주안점을 두었다(관계부처합동, 2010a, 2010b). 또한 이 시기에 한국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양육비용 부담으로 결혼·임신·출산의 행태가 변하고 자녀의 보육 공백과 대체육아 수단으로써의 사교육으로 인한 양육비용 지출이 증가함에 따른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추가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등의 악순환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저출산과 양육부담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다양한 양육비용 지원' 방법과 대상 확대가 이루어지고 '경제활동 하는 여성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0a, 2010b). 구체적으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0-2세 보육료 지원(2012) 및 만5세 누리과정 지원(2012), 아이돌봄서비스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보육서비스 시간을 다양화를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확대와 사업장의 보육지원 참여를 강화하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발표 등을 들 수 있다(표 II-3-1 참조).

2013년은 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안정화를 통해 국가가 육아를 함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가정양육수당, 0-2세 보육료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기관과 가정 양육에 대한 모든 아동 대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일시보육서비스를 도입하여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체 아동의 비용 지원과 함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보 개방을 확대하며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함께 '부모가 육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였고, 보육서비스 개방화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 2013b).

2014년은 '일하는 부모의 육아지원'을 강화하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남성육아 휴직지원 아빠의 달 도입 등의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2015년부터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해진 보육지원서비스 내실화를 기하였다. 또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이 정책화되고, '부모역량을 강화'하여 부모가 자녀와 가족, 육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16년에는 맞춤형 보육제도가 도입되었고 시간제보육,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내실화가 강조되었으며, 불필요한 보육서비스 이용보다 '부모가 건강한 육아를 담당'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독려하게 되었다. 반면, 일하는 여성을 위해서는 안심하고 시설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보육 확충' 및 '보육시설의 질 관리'를 통한 시설보육의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연도별 주요 임신 및 출산, 육아 지원 정책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 <표 II-3-2>와 같다.

〈표 II-3-1〉 연도별 주요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

	2006~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임신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제외 수정시술비 150만, 2회, 기 초수급자 255만) 도입(2006), 3회, 기 초수급자 270만(2009)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20만, 고 임산카드도입(2008), 30만(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시술비지 원(180만, 4회) · 임신·출산·진료비지 원(40만, 대태아 5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출산·진료비지 원(50만, 대태아 70만) · 배우저출산휴가(유급3일, 무급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양육수당 대상 확대(전계층, 5세미만) · 초산가족과 미혼모 자녀 양육비 추가지원 (7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양육수당 대상 확대(전계층, 5세미만) · 초산가족과 미혼모 자녀 양육비 추가지원 (7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6회, 시술비 구분지원) · 임신기간근로시간 단축제도(12주~36주, 1일 2시간 단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산가족과 미혼모자녀 양육비 추가지원(5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6회, 시술비 구분지원)
가정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저출산휴가(유급3일) 도입 (2008) · 가정양육수당 (차상위2개월 미만) 도입 (2009) · 초산가족과 미혼모자녀 양육비 지원(16월(2001), 2만(2004), 5만(2005))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주당 15~30분) 도입(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양육수당(차상 위, 36개월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유급3일, 무급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양육수당 대상 확대(전계층, 5세미만) · 초산가족과 미혼모 자녀 양육비 추가지원 (7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소 득 하위 70%) · 대상확대(소득하위 5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소 득 하위 70%) · 대상확대(소득하위 5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소 득 하위 70%) · 대상확대(소득하위 5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소 득 하위 70%) · 대상확대(소득하위 50%→70%)
보육 유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소득하위 50%) 도입(2007) · 보육료지원 -차상위→소득하위50%이하 로 대상확대 -장애아부양보육(2003) -투자녀이상(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소 득 하위 70%) · 대상확대(소득하위 5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지원 (5세 부장)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소 득 하위 70%) · 대상확대(0-2세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소 득 하위 70%) · 대상확대(3-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소 득 하위 70%) · 대상확대(0-2세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소 득 하위 70%) · 대상확대(0-2세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서비스(소 득 하위 70%) · 대상확대(0-2세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보육지원 미이행 사업장 평단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보육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서비스 · 사립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 위경림, 위경메디 지원사업 도입(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이행 시연장 이행 강제금 부과 · 위경림, 위경메디 지원사업 확대(82개) 	

주: 1) 보건복지부(2008, 2009, 2010a, 2011, 2013a), 2009~2011, 2013년도 업무보고 및 업무계획자료.
 2) 대한민국정부(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a).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9~2015년도 (중양부처) 시행계획.
 3) 대한민국정부(2015b),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4) 관계부처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Ⅲ. 한국인의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요구

제3장은 부모됨의 인식과 요구와 관련한 20~50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절에는 자녀의 필요성과 자녀에 대한 기대, 2절에는 부모됨의 가치와 부모가 자녀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 및 지원 시기, 자녀 연령별 적합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좋은 부모의 조건 및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등 부모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내용, 부모됨 준비교육의 적정 시작시기,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됨 변화, 부모교육 의무화 등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1. 자녀에 대한 인식

가.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64.5%) 인식하며,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14.1%)과 없는 것이 더 좋다(1.4%)는 비중도 15.5%에 달한다.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거나 없는 것이 더 좋다는 응답은 여성(약 20%)이 남성(11.8%)보다 유의하게 높으며(이는 전 연령대에 걸쳐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 20대(24.1%)> 30대(17.3%)> 40대(12.4%)> 50대(1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것이 더 좋다는 비율이 3.2%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

응답한 미혼의 29.7%(기혼 10.5%), 57명의 기혼 무자녀 응답자 가운데 31.5%가 자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필요없다는 응답이 적으며, 자녀수 1명 및 3명 이상의 가구에서는 자녀가 필요없다는 응답이 전혀 없었다.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의 응답자가 자녀의 필요성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학력자가 대졸학력자 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의 필요성을 더 인식하였다.

〈표 III-1-1〉 자녀의 필요성

단위: %(명)

구 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데 것보다 낫다	없어도 상관없다	없는 것이 더 좋다	계(수)
전체	64.5	20.0	14.1	1.4	100.0 (1,013)
성별					
여성	60.8	19.9	17.3	2.0	100.0 (502)
남성	68.1	20.2	11.0	0.8	100.0 (511)
$\chi^2(df)$		12.1(3)**			
연령대					
20대	49.5	26.4	20.9	3.2	100.0 (220)
30대	63.0	19.8	16.9	0.4	100.0 (243)
40대	70.4	17.3	11.3	1.1	100.0 (284)
50대	71.8	18.0	9.0	1.1	100.0 (266)
$\chi^2(df)$		39.7(9)***			
성연령					
20대 여성	43.9	29.0	22.4	4.7	100.0 (107)
20대 남성	54.9	23.9	19.5	1.8	100.0 (113)
30대 여성	55.5	23.5	20.2	0.8	100.0 (119)
30대 남성	70.2	16.1	13.7	-	100.0 (124)
40대 여성	66.9	14.1	17.6	1.4	100.0 (142)
40대 남성	73.9	20.4	4.9	0.7	100.0 (142)
50대 여성	72.4	15.7	10.4	1.5	100.0 (134)
50대 남성	71.2	20.5	7.6	0.8	100.0 (132)
$\chi^2(df)$		62.6(21)***			
결혼여부					
미혼	46.3	23.9	26.6	3.1	100.0 (259)
기혼	71.7	17.8	9.8	0.7	100.0 (735)
이혼/사별/별거	31.6	52.6	10.5	5.3	100.0 (19)
$\chi^2(df)$		85(6)***			
자녀유무					
미혼	46.3	23.9	26.6	3.1	100.0 (259)
기혼유자녀	73.9	17.2	8.3	0.6	100.0 (697)
기혼무자녀	31.6	36.8	28.1	3.5	100.0 (57)
$\chi^2(df)$		45.7(8)***			
자녀수					
0명	43.7	26.3	26.9	3.2	100.0 (316)
1명	68.0	21.9	10.1	-	100.0 (169)
2명	73.8	16.9	8.4	0.9	100.0 (450)
3명이상	87.2	9.0	3.8	-	100.0 (78)
$\chi^2(df)$		12.1(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0.7	18.0	10.6	0.7	100.0 (451)
외벌이	70.6	19.8	8.6	1.0	100.0 (303)
$\chi^2(df)$		57.6(20)***			
거주지역					
대도시	65.7	19.5	13.7	1.1	100.0 (467)
중소도시	62.5	21.3	14.7	1.5	100.0 (408)
읍면동	65.9	18.1	13.8	2.2	100.0 (138)
$\chi^2(df)$		41.9(8)***			

(표 III-1-1 계속)

구 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거나 낮다	없어도 상관없다	없는 것이 더 좋다	계(수)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8.3	21.7	18.9	1.1	100.0 (175)
300~450만 미만	67.6	18.4	12.4	1.6	100.0 (429)
450~600만 미만	65.7	19.5	13.5	1.2	100.0 (251)
600만 이상	60.8	23.4	14.6	1.3	100.0 (158)
$\chi^2(df)$					8(9)
교육수준					
고졸이하	66.8	19.6	12.9	0.8	100.0 (388)
대학 재학	59.0	27.3	12.2	1.4	100.0 (139)
대학 졸업 이상	64.2	18.3	15.6	1.9	100.0 (486)
$\chi^2(df)$					45.7(8)***

** $p < .01$, *** $p < .001$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및 준비 부족(43.3%)가 압도적으로 높고, 부부의 여가시간 향유(20.4%), 부모로서의 심리정서적 준비 미비(14.6%), 자녀로 인한 사회활동 지장에 대한 우려(10.2%) 순으로 응답되었다.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5.1%).

남성이 여성보다, 30대와 40대가, 미혼, 자녀수가 2명인 경우, 맞벌이, 도시지역 거주자,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특히 20대 여성(24.1%)과 고졸이하의 응답자(20.8%)는 부모로서의 심리정서적인 준비 부족이 상대적으로 높고, 50대 여성(18.8%)과 월 가구소득 45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의 가구(18.9%)의 경우 자녀로 인해 사회활동에의 지장을 우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혼 무자녀는 경제적 부담과 부부간의 여가시간 향유가 동등한 수준(33.3%)이며, 아이를 싫어하기 때문(11.1%)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III-1-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 부족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 향유	부모가 될 정서 심리적 준비 부족	자녀로 인해 사회활동 지장 우려	아이 를 싫어함	기타	계(수)
전체	43.3	20.4	14.6	10.2	5.1	6.4	100.0 (157)
성별							
여성	39.2	19.6	17.5	10.3	4.1	9.3	100.0 (97)
남성	50.0	21.7	10.0	10.0	6.7	1.7	100.0 (60)
$\chi^2(df)$					6.4(5)		

(표 III-1-2 계속)

구 분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 부족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 향유	부모가 될 정서 심리적 준비 부족	자녀로 인해 사회활동 지장 우려	아이를 싫어함	기타	계(수)
연령대							
20대	39.6	22.6	18.9	9.4	5.7	3.8	100.0 (53)
30대	52.4	21.4	9.5	14.3	2.4	-	100.0 (42)
40대	42.9	20.0	17.1	2.9	5.7	11.4	100.0 (35)
50대	37.0	14.8	11.1	14.8	7.4	14.8	100.0 (27)
$\chi^2(df)$			15.3(15)				
성연령							
20대 여성	27.6	24.1	24.1	10.3	6.9	6.9	100.0 (29)
20대 남성	54.2	20.8	12.5	8.3	4.2	-	100.0 (24)
30대 여성	60.0	16.0	12.0	12.0	-	-	100.0 (25)
30대 남성	41.2	29.4	5.9	17.6	5.9	-	100.0 (17)
40대 여성	33.3	25.9	18.5	3.7	3.7	14.8	100.0 (27)
40대 남성	75.0	-	12.5	-	12.5	-	100.0 (8)
50대 여성	37.5	6.3	12.5	18.8	6.3	18.8	100.0 (16)
50대 남성	36.4	27.3	9.1	9.1	9.1	9.1	100.0 (11)
$\chi^2(df)$			33.9(35)				
결혼여부							
미혼	48.1	19.5	14.3	10.4	5.2	2.6	100.0 (77)
기혼	40.3	22.1	14.3	10.4	5.2	7.8	100.0 (77)
이혼/사별/별거	-	-	33.3	-	-	66.7	100.0 (3)
$\chi^2(df)$			22.9(10)*				
자녀수							
0명	45.3	22.1	13.7	9.5	6.3	3.2	100.0 (95)
1명	23.5	23.5	35.3	11.8	5.9	-	100.0 (17)
2명	47.6	16.7	9.5	9.5	2.4	14.3	100.0 (42)
3명이상	33.3	-	-	33.3	-	33.3	100.0 (3)
$\chi^2(df)$			22.1(15)0				

* $p < .05$

자녀의 가치에 대한 6가지 항목(①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 ② 자녀는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한다, ③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 ④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하여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⑥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자 3항목에 대해서는 3.1~3.3 점(4점 만점)에 분포하나, 후자 3항목의 자녀 가치에 대한 동의 수준은 2.3~2.6 점으로 낮은 편이다. 즉, 자녀의 수단적 가치(노후 경제적 도움, 집안 혈통 잇기,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별 항목은 남성 및 50대의 경우가 자녀를 갖는 것이 인생의 가치로운 일이며, 집안의 혈통잇기 및 사회적 의무라고 여기는 경향

이 강하다. 기혼 및 유자녀 응답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전자 3가지에 모두 동의 수준이 높고 특히 3자녀 이상 부모는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거주자가 자녀를 갖는 것이 인생의 가치로운 일이며, 집안의 대를 잇고 사회적 의무라는 여기는 응답률이 높다. 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는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대졸자의 경우 노후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3〉 자녀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구분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부관계를 더 굳건하게 한다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고자 자녀 두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계(수)
전체	3.3	3.3	3.1	2.3	2.5	2.6	100.0 (1,013)
성별							
여성	3.3	3.3	3.0	2.3	2.4	2.6	100.0 (502)
남성	3.4	3.3	3.1	2.4	2.7	2.7	100.0 (511)
$\chi^2(df)/t$	-2.8**	-1.4	-2.5*	-2.3*	-4.6***	-2.4*	
연령대							
20대	3.2	3.2	3.0	2.4	2.5	2.5	100.0 (220)
30대	3.3	3.4	3.1	2.2	2.4	2.4	100.0 (243)
40대	3.4	3.3	3.1	2.3	2.5	2.7	100.0 (284)
50대	3.4	3.3	3.2	2.4	2.7	2.8	100.0 (266)
$\chi^2(df)/F$	4.3**	1.2	2.0	2.5	3.7*	9.0***	
성연령							
20대 여성	3.1	3.2	2.9	2.3	2.4	2.5	100.0 (107)
20대 남성	3.2	3.3	3.1	2.4	2.6	2.6	100.0 (113)
30대 여성	3.2	3.3	3.0	2.2	2.2	2.4	100.0 (119)
30대 남성	3.4	3.4	3.1	2.3	2.6	2.5	100.0 (124)
40대 여성	3.2	3.2	3.0	2.3	2.4	2.6	100.0 (142)
40대 남성	3.5	3.4	3.2	2.4	2.6	2.7	100.0 (142)
50대 여성	3.4	3.3	3.1	2.4	2.6	2.7	100.0 (134)
50대 남성	3.4	3.3	3.2	2.5	2.7	2.9	100.0 (132)
$\chi^2(df)/F$	3.6***	1.0	2.2*	1.9	5.1***	4.9***	
결혼여부							
미혼	3.1	3.2	3.0	2.4	2.5	2.5	100.0 (259)
기혼	3.4	3.4	3.1	2.3	2.6	2.7	100.0 (735)
이혼/사별/별거	3.1	2.7	2.8	2.0	2.3	2.7	100.0 (19)
$\chi^2(df)/F$	16***	12.2***	6.2**	1.9	1.4	2.7	
자녀유무							
미혼	3.1	3.2	3.0	2.4	2.5	2.5	100.0 (259)
기혼유자녀	3.4	3.4	3.1	2.4	2.6	2.7	100.0 (697)
기혼무자녀	3.1	3.0	2.7	2.0	2.2	2.3	100.0 (57)
$\chi^2(df)/F$	21.6***	12.7***	12.4***	4.7**	5.3**	8.9***	

(표 III-1-3 계속)

구 분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모관계를 더 굳건 하게 한다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고자 자녀 두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계(수)
자녀수							
0명	3.1	3.2	2.9	2.3	2.4	2.5	100.0 (316)
1명	3.3	3.3	3.1	2.3	2.5	2.7	100.0 (169)
2명	3.4	3.4	3.2	2.4	2.6	2.7	100.0 (450)
3명이상	3.5	3.4	3.2	2.4	2.7	2.8	100.0 (78)
$\chi^2(df)/F$	15.4***	6.4***	7.6***	0.4	2.3	5.3**	
거주지역							
대도시	3.4	3.3	3.0	2.3	2.6	2.7	100.0 (467)
중소도시	3.2	3.3	3.1	2.3	2.4	2.6	100.0 (408)
읍면동	3.3	3.2	3.1	2.3	2.5	2.4	100.0 (138)
$\chi^2(df)/F$	5.8**	1.2	1.0	-	5.9**	6.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3	3.1	3.0	2.3	2.5	2.5	100.0 (175)
300~450만 미만	3.3	3.3	3.1	2.4	2.5	2.6	100.0 (429)
450~600만 미만	3.3	3.3	3.1	2.3	2.5	2.6	100.0 (251)
600만 이상	3.3	3.4	3.2	2.4	2.7	2.7	100.0 (158)
$\chi^2(df)/F$	1.0	5.8***	1.5	0.8	1.6	1.5	
교육수준							
고졸이하	3.3	3.3	3.1	2.4	2.5	2.6	100.0 (388)
대학 재학	3.3	3.3	3.1	2.5	2.6	2.6	100.0 (139)
대학 졸업 이상	3.3	3.3	3.1	2.3	2.5	2.6	100.0 (486)
$\chi^2(df)/F$	0.2	0.8	-	4.8**	0.6	0.6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녀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5가지 항목(① 형제자매는 서로 의지가 된다, ②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③ 맞벌이가정은 특히 형제자매가 필요하다, ④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 관심과 지원이 분산된다, ⑤ 형제자매보가 외동을 키우는 것이 더 쉽다)에 대하여 후자 2가지(④번 2.7점, ⑤번 2.5점)의 동의 수준은 낮은 편이다. 즉,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부모 관심과 지원은 크게 분산되지 않으며 외동을 키우는 것이 형제자매 양육보다 더 쉽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기혼 및 유자녀,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① 형제자매가 서로 의지가 되며, ②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가 사회성이 더 좋고 ③ 맞벌이 가정은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는 데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가 2명 및 3명이상인 경우는 형제자매보다 외동을 키우는 것이 더 쉽다고 여기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다. 성별, 연령대, 맞벌이 여부, 거주지역,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형제·자매의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구분	형제자매는 서로 의지가 된다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맞벌이가정은 특히 형제자매가 필요하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관심과 지원이 분산된다	형제자매보다 외동을 키우는 것이 더 쉽다	계(수)
전체	3.3	3.3	3.2	2.7	2.5	100.0 (1,013)
성별						
여성	3.3	3.3	3.2	2.7	2.5	100.0 (502)
남성	3.3	3.3	3.2	2.7	2.5	100.0 (511)
$\chi^2(df)/t$	0.9	-1.1	-0.3	0.9	-0.5	
연령대						
20대	3.3	3.2	3.2	2.7	2.6	100.0 (220)
30대	3.3	3.3	3.2	2.7	2.5	100.0 (243)
40대	3.4	3.3	3.2	2.7	2.4	100.0 (284)
50대	3.4	3.4	3.2	2.7	2.4	100.0 (266)
$\chi^2(df)/F$	1.6	2.5	0.4	0.1	2.3	
결혼여부						
미혼	3.2	3.2	3.1	2.7	2.5	100.0 (259)
기혼	3.4	3.3	3.2	2.7	2.4	100.0 (735)
이혼/사별/별거	3.1	3.1	3.1	2.9	2.5	100.0 (19)
$\chi^2(df)/F$	8.4***	7***	1.3	0.9	0.6	
자녀유무						
미혼	3.2	3.2	3.1	2.7	2.5	100.0 (259)
기혼유자녀	3.4	3.4	3.2	2.7	2.4	100.0 (697)
기혼무자녀	3.2	3.1	3.1	2.8	2.7	100.0 (57)
$\chi^2(df)/F$	10.5***	9.7***	1.5	1.0	3.9*	
자녀수						
0명	3.2	3.2	3.1	2.7	2.5	100.0 (316)
1명	3.2	3.2	3.0	2.6	2.5	100.0 (169)
2명	3.4	3.4	3.3	2.7	2.4	100.0 (450)
3명이상	3.5	3.4	3.3	2.8	2.4	100.0 (78)
$\chi^2(df)/F$	11.1***	10.3***	5.3**	0.5	2.6*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3	3.3	3.2	2.7	2.5	100.0 (175)
300~450만 미만	3.3	3.2	3.2	2.7	2.4	100.0 (429)
450~600만 미만	3.3	3.4	3.2	2.7	2.5	100.0 (251)
600만 이상	3.3	3.3	3.2	2.7	2.4	100.0 (158)
$\chi^2(df)/F$	0.5	1.7	0.2	0.2	1.1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나.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바를 자녀 성별에 따라 조사한 결과,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성격과 태도[책임감, 성실성](32.7%)> 사회성[대안관계, 리더십](32.3%)> 학업능력[성적](13.0)> 외모(12.95)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조사결과

(성격과 태도(33.5%)> 사회성(32.4%)> 학업능력(21.8%)> 외모(10.5%)> 예체능적
 자질(1.8%) 순)와 비교하면, 2016년도 부모들은 여전히 아들의 성격과 태도, 사
 회성을 우선시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업능력에 대한 기대는 2008년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대신 외모와 예체능적 자질에 대한 기대는 다소 높아
 진 것으로 파악된다.

50대(특히, 남성)가 아들에게 사회성을, 20대는 성격과 태도, 외모를 우선적으
 로 기대하였다. 여성이 전반적으로(특히, 20대와 50대 여성이) 아들의 학업능력
 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우선시하였다. 기혼 및 유자녀(특히 자녀수가 많을수
 록), 대도시 및 읍면지역 거주자,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사회성을, 미
 혼 및 무자녀, 중소도시 거주자,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성격과 태도
 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아들에 대한 기대

단위: %(명)

구 분	사회성	성격, 태도	학업 능력	외모	예체능적 자질	계(수)
전체	37.3	32.7	13.0	12.9	4.1	100.0 (912)
성별						
여성	34.5	35.4	15.0	11.2	3.8	100.0 (446)
남성	39.9	30.0	11.2	14.6	4.3	100.0 (466)
$\chi^2(df)$			8.5(4)			
연령대						
20대	27.3	37.5	13.0	14.8	7.4	100.0 (216)
30대	38.6	33.7	10.9	13.4	3.5	100.0 (202)
40대	39.5	33.2	13.8	11.5	2.0	100.0 (253)
50대	42.7	27.0	14.1	12.4	3.7	100.0 (241)
$\chi^2(df)$			23.2(12)*			
성연령						
20대 여성	26.0	37.5	17.3	10.6	8.7	100.0 (104)
20대 남성	28.6	37.5	8.9	18.8	6.3	100.0 (112)
30대 여성	33.7	37.9	13.7	10.5	4.2	100.0 (95)
30대 남성	43.0	29.9	8.4	15.9	2.8	100.0 (107)
40대 여성	37.7	36.1	13.9	11.5	0.8	100.0 (122)
40대 남성	41.2	30.5	13.7	11.5	3.1	100.0 (131)
50대 여성	39.2	31.2	15.2	12.0	2.4	100.0 (125)
50대 남성	46.6	22.4	12.9	12.9	5.2	100.0 (116)
$\chi^2(df)$			39.6(28)			
결혼여부						
미혼	32.0	35.5	11.2	15.8	5.4	100.0 (259)
기혼	39.5	31.9	13.7	11.9	3.0	100.0 (636)
이혼/사별/별거	35.3	17.6	17.6	5.9	23.5	100.0 (17)
$\chi^2(df)$			27.5(8)***			

(표 III-1-5 계속)

구 분	사회성	성격, 태도	학업 능력	외모	예체능적 자질	계(수)
자녀수						
0명	32.9	34.5	11.1	16.1	5.4	100.0 (316)
1명	39.1	35.5	10.9	7.3	7.3	100.0 (110)
2명	39.6	29.7	15.5	13.0	2.2	100.0 (414)
3명이상	40.3	37.5	11.1	6.9	4.2	100.0 (72)
$\chi^2(df)$			23.1(12)*			
거주지역						
대도시	41.4	31.3	8.4	15.7	3.3	100.0 (428)
중소도시	30.4	35.4	20.2	9.9	4.1	100.0 (362)
읍면동	43.4	29.5	8.2	12.3	6.6	100.0 (122)
$\chi^2(df)$			40(8)***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3.8	36.3	9.6	14.0	6.4	100.0 (157)
300~450만 미만	39.4	32.3	13.2	11.4	3.7	100.0 (378)
450~600만 미만	38.3	31.9	14.0	11.5	4.3	100.0 (235)
600만 이상	33.8	31.0	14.8	18.3	2.1	100.0 (142)
$\chi^2(df)$			12.2(12)			
2008 자료	32.4	33.5	21.8	10.5	1.8	100.0 (2,357)

* $p < .05$, *** $p < .001$

주: 2008년 자료에서는 대인능력(사회성 리더십 등)으로 응답한 값을 사회성과 비교함.

딸에게 기대하는 것은 외모(31.3%)> 성격과 태도[책임감, 성실성](31.2%)> 사회성[대안관계, 리더십](19.1%)> 학업능력[성적](13.2%)> 예체능적 자질(5.1%)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조사결과(외모(28.4%)> 성격과 태도(22.9%)> 사회성(21.8%)> 학업능력(19.3%)> > 예체능적 자질(7.5%) 순)와 비교하면, 2016년도 부모들은 변함없이 딸의 외모를 가장 우선시하며, 사회성 및 학업 성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상승하였다. 반면, 성격과 태도에 대한 기대는 8.3%p나 대폭 감소하였으며, 예체능적 자질에 대한 기대 역시 다소 감소하였다.

50대(특히, 남성)가 아들에게 사회성 및 (특히, 50대 여성이) 학업능력을, 20대는 성격과 태도, 외모를 우선적으로 기대하였다. 기혼 및 유자녀(특히 자녀수가 많을수록), 대도시 및 읍면지역 거주자,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사회성을, 미혼 및 무자녀, 중소도시 거주자,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의 응답자는 성격과 태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딸에 대한 기대

단위: %(명)

구 분	외모	성격, 태도	사회성	학업 능력	예체능적 자질	계(수)
전체	31.3	31.2	19.1	13.2	5.1	100.0 (862)
성별						
여성	29.6	30.0	22.9	11.8	5.7	100.0 (423)
남성	33.0	32.3	15.5	14.6	4.6	100.0 (439)
$\chi^2(df)$				9.2(4)		
연령대						
20대	34.6	33.2	15.4	10.7	6.1	100.0 (214)
30대	32.2	33.2	17.8	12.0	4.8	100.0 (208)
40대	28.6	29.1	21.4	15.9	5.0	100.0 (220)
50대	30.0	29.5	21.8	14.1	4.5	100.0 (220)
$\chi^2(df)$				8.7(12)		
결혼여부						
미혼	35.1	34.7	11.6	13.5	5.0	100.0 (259)
기혼	29.4	29.5	22.8	13.4	4.9	100.0 (589)
이혼/사별/별거	42.9	35.7	7.1	-	14.3	100.0 (14)
$\chi^2(df)$				21.2(8)**		
자녀유무						
미혼	35.1	34.7	11.6	13.5	5.0	100.0 (259)
기혼유자녀	28.8	29.7	23.3	13.4	4.9	100.0 (546)
기혼무자녀	38.6	29.8	14.0	10.5	7.0	100.0 (57)
$\chi^2(df)$				18.9(8)*		
자녀수						
0명	35.8	33.9	12.0	13.0	5.4	100.0 (316)
1명	26.2	34.5	19.0	11.9	8.3	100.0 (84)
2명	29.1	28.3	23.9	14.3	4.4	100.0 (385)
3명이상	29.9	31.2	24.7	10.4	3.9	100.0 (77)
$\chi^2(df)$				22.8(12)*		
거주지역						
대도시	36.0	28.2	19.1	12.3	4.3	100.0 (397)
중소도시	28.0	32.6	19.8	15.9	3.7	100.0 (353)
읍면동	25.0	37.5	17.0	8.0	12.5	100.0 (112)
$\chi^2(df)$				26.9(8)***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9.5	34.9	14.1	12.1	9.4	100.0 (149)
300~450만 미만	32.6	30.7	20.8	11.3	4.6	100.0 (371)
450~600만 미만	30.0	30.9	21.7	14.0	3.4	100.0 (207)
600만 이상	31.9	28.9	16.3	18.5	4.4	100.0 (135)
$\chi^2(df)$				16.2(12)		
2008 자료	28.4	22.9	21.8	19.3	7.5	100.0 (2,093)

* $p < .05$, ** $p < .01$, *** $p < .001$

주: 2008년 조사에서는 대인능력(사회성, 리더쉽 등)으로 응답한 값을 사회성과 비교함.

아들의 장래 직업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사무기술직(44.7%)> 전문직(34.4%)> 자영업(10.0)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 (여성 40.2%> 남성, 28.8%)가 유의하게 높으며,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그러하

다(54.7%). 50대 남성의 경우는 사무기술직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은 편(57.0%)이며, 4년제 대졸자는 고졸자에 비하여 전문직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년제 대졸자, 38.5% > 고졸자 29.0%).

〈표 III-1-7〉 부모가 기대하는 아들의 장래 직업

단위: %(명)

구 분	사무 기술 직	전문 직	자영 업	예체 능인	판매 서비 스직	경영 관리 직	군인	기능 숙련 공	종교 인	계(수)
전체	44.7	34.4	10.0	5.7	2.3	1.3	1.1	0.3	0.2	100.0 (902)
성별										
여성	44.5	40.2	5.9	4.8	2.7	0.7	0.5	0.5	0.2	100.0 (440)
남성	44.8	28.8	13.9	6.5	1.9	1.9	1.7	0.2	0.2	100.0 (462)
$\chi^2(df)$	31(8)***									
연령대										
20대	42.5	32.5	9.4	9.0	3.3	1.9	0.5	0.5	0.5	100.0 (212)
30대	37.1	42.6	9.9	5.9	1.5	1.0	2.0	-	-	100.0 (202)
40대	45.2	32.4	11.6	4.8	3.2	0.8	1.2	0.8	-	100.0 (250)
50대	52.5	31.1	8.8	3.4	1.3	1.7	0.8	-	0.4	100.0 (238)
$\chi^2(df)$	31.5(24)									
성연령										
20대 여성	47.1	37.3	4.9	6.9	2.9	-	-	1.0	-	100.0 (102)
20대 남성	38.2	28.2	13.6	10.9	3.6	3.6	0.9	-	0.9	100.0 (110)
30대 여성	31.6	54.7	5.3	6.3	1.1	-	1.1	-	-	100.0 (95)
30대 남성	42.1	31.8	14.0	5.6	1.9	1.9	2.8	-	-	100.0 (107)
40대 여성	48.7	33.6	6.7	4.2	4.2	1.7	-	0.8	-	100.0 (119)
40대 남성	42.0	31.3	16.0	5.3	2.3	-	2.3	0.8	-	100.0 (131)
50대 여성	48.4	37.9	6.5	2.4	2.4	0.8	0.8	-	0.8	100.0 (124)
50대 남성	57.0	23.7	11.4	4.4	-	2.6	0.9	-	-	100.0 (114)
$\chi^2(df)$	86.9(56)**									
자녀수										
0명	44.1	30.2	11.3	8.0	2.6	1.9	1.3	0.3	0.3	100.0 (311)
1명	37.3	47.3	8.2	3.6	2.7	0.9	-	-	-	100.0 (110)
2명	46.1	33.9	10.5	4.4	2.0	1.2	1.5	0.5	-	100.0 (410)
3명이상	50.7	35.2	4.2	5.6	2.8	-	-	-	1.4	100.0 (71)
$\chi^2(df)$	29.2(2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1.3	25.6	9.6	6.4	1.9	1.9	3.2	-	-	100.0 (156)
300~450만 미만	43.3	38.2	8.8	4.3	2.1	1.9	0.8	0.3	0.3	100.0 (374)
450~600만 미만	47.2	31.3	10.7	5.6	2.6	0.4	0.9	0.9	0.4	100.0 (233)
600만 이상	36.7	38.8	12.2	8.6	2.9	0.7	-	-	-	100.0 (139)
$\chi^2(df)$	31.2(24)									
교육수준										
고졸이하	51.4	29.0	10.1	3.7	3.4	0.9	1.1	-	0.3	100.0 (348)
대학 재학	45.9	35.3	6.8	6.8	3.0	1.5	-	0.8	-	100.0 (133)
대학 졸업 이상	38.7	38.5	10.9	6.9	1.2	1.7	1.4	0.5	0.2	100.0 (421)
$\chi^2(df)$	27.2(16)*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1-8 계속)

구 분	전문직	사무 기술직	예체 능인	자영 업	판매서 비스직	기능숙 련공	전업 주부	경영 관리직	군인	종교인	계(수)
교육수준											
고졸이하	44.7	41.8	5.7	3.8	1.9	1.3	0.3	0.3	0.3	-	100.0 (318)
대학 재학	52.3	33.6	10.9	0.8	1.6	-	-	0.8	-	-	100.0 (128)
대학 졸업 이상	51.0	33.8	10.0	2.2	1.5	0.2	0.5	0.2	0.2	0.2	100.0 (402)
$\chi^2(df)$											20.9(18)

* $p < .05$, *** $p < .001$

2. 부모됨에 대한 인식

가. 부모됨의 가치

부모됨에 관한 다음의 11가지 항목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동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동의(3.0~3.3점/4점 만점)하는 항목은 '부모됨은 행복하고 기대됨'(3.3점),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준비가 필요함'(3.3점), '경제적 준비가 필요함'(3.2점), '영유아자녀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3.2점), '부모가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하여야 함'(3.2점),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가 되어야 함'(3.0점),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3.0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됨'(2.2점), 자녀를 위한 부모 희생'(2.6점), 부모됨은 책임감으로 인해 두렵고 부담됨'(2.9점)은 동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및 50대가 부모됨이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며,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되고,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는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 준비를, 20대와 30대는 부모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유의하게 높았다. 기혼 및 유자녀, 대도시 거주자, 가구소득이 300만원~600만원 미만의 응답자가 부모됨을 행복한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자녀수가 적을수록(특히, 없는 경우),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적, 경제적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40대가 부모가 희생해서라도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 때문에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 부모됨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단위: 점(점), (명)											
	부모됨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 되는 일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행복 하고 기대 되는 일이다.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 정서적 준비 가 꼭 필요 하다	부모가 되려면 경제적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된다.	영유아자녀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부모가 되거나 있다면 부모가 양육전담할 필요가 없다.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부모는 자신행복을 회생해서라도 자녀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부모가 자녀때문에 자신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계(수)
전체	2.9 (0.7)	3.3 (0.6)	3.3 (0.6)	3.2 (0.7)	2.2 (0.9)	3.2 (0.6)	2.6 (0.8)	3.0 (0.7)	3.2 (0.6)	3.0 (0.6)	2.6 (0.7)	100.0 (1,013)
성별												
여성	3.0 (0.7)	3.2 (0.6)	3.3 (0.6)	3.2 (0.7)	2.1 (0.9)	3.2 (0.6)	2.6 (0.7)	2.9 (0.7)	3.2 (0.6)	2.9 (0.6)	2.6 (0.7)	100.0 (502)
남성	2.9 (0.7)	3.3 (0.6)	3.3 (0.6)	3.2 (0.6)	2.2 (0.9)	3.3 (0.6)	2.6 (0.8)	3.0 (0.7)	3.3 (0.6)	3.0 (0.6)	2.6 (0.7)	100.0 (511)
연령대												
20대	3.0 (0.7)	3.1 (0.7)	3.4 (0.6)	3.2 (0.6)	2.2 (0.9)	3.2 (0.6)	2.6 (0.7)	2.8 (0.7)	3.3 (0.6)	2.9 (0.7)	2.7 (0.7)	100.0 (220)
30대	3.0 (0.7)	3.2 (0.6)	3.3 (0.6)	3.3 (0.6)	2.1 (0.9)	3.2 (0.7)	2.6 (0.8)	2.9 (0.7)	3.3 (0.6)	2.9 (0.6)	2.6 (0.7)	100.0 (243)
40대	2.9 (0.7)	3.3 (0.6)	3.3 (0.5)	3.2 (0.6)	2.1 (0.9)	3.3 (0.6)	2.6 (0.7)	3.0 (0.7)	3.2 (0.6)	3.1 (0.7)	2.6 (0.7)	100.0 (284)
50대	2.9 (0.7)	3.3 (0.6)	3.2 (0.6)	3.1 (0.7)	2.2 (0.9)	3.2 (0.6)	2.5 (0.8)	3.1 (0.7)	3.2 (0.6)	2.9 (0.6)	2.6 (0.7)	100.0 (266)
$\chi^2(df)/F$	1.1	4.1**	5.2**	2.4	0.5	0.7	1.2	4.6**	3*	2.7*	1.1	
성연령												
20대 여성	3.0 (0.7)	3.1 (0.7)	3.3 (0.5)	3.2 (0.6)	2.1 (0.9)	3.2 (0.6)	2.6 (0.7)	2.8 (0.7)	3.4 (0.6)	2.9 (0.7)	2.7 (0.7)	100.0 (107)
20대 남성	2.9 (0.6)	3.2 (0.7)	3.4 (0.6)	3.3 (0.6)	2.2 (0.9)	3.3 (0.6)	2.6 (0.7)	2.8 (0.7)	3.3 (0.5)	2.9 (0.7)	2.6 (0.7)	100.0 (113)
30대 여성	3.0 (0.7)	3.2 (0.7)	3.3 (0.6)	3.3 (0.7)	2.0 (0.8)	3.2 (0.7)	2.7 (0.8)	2.9 (0.8)	3.3 (0.6)	2.9 (0.6)	2.6 (0.7)	100.0 (119)
30대 남성	3.0 (0.7)	3.3 (0.6)	3.4 (0.6)	3.2 (0.6)	2.3 (0.9)	3.2 (0.7)	2.5 (0.8)	3.0 (0.7)	3.3 (0.6)	3.0 (0.6)	2.5 (0.7)	100.0 (124)
40대 여성	2.9 (0.6)	3.2 (0.6)	3.3 (0.5)	3.2 (0.7)	2.1 (0.9)	3.2 (0.6)	2.7 (0.7)	2.9 (0.7)	3.2 (0.6)	3.0 (0.7)	2.6 (0.6)	100.0 (142)
40대 남성	2.8 (0.8)	3.4 (0.6)	3.3 (0.5)	3.2 (0.6)	2.2 (0.9)	3.3 (0.7)	2.6 (0.7)	3.1 (0.7)	3.3 (0.5)	3.1 (0.7)	2.5 (0.7)	100.0 (142)
50대 여성	2.9 (0.7)	3.2 (0.5)	3.2 (0.6)	3.1 (0.7)	2.1 (0.8)	3.2 (0.6)	2.6 (0.7)	3.0 (0.7)	3.2 (0.6)	2.9 (0.6)	2.6 (0.7)	100.0 (134)
50대 남성	2.9 (0.7)	3.4 (0.6)	3.2 (0.6)	3.2 (0.7)	2.3 (0.9)	3.3 (0.7)	2.5 (0.8)	3.1 (0.6)	3.2 (0.6)	2.9 (0.6)	2.6 (0.7)	100.0 (132)
$\chi^2(df)/F$	0.9	3**	2.5*	1.5	1.2	0.9	1.0	3.3**	1.9	1.9	1.0	
결혼여부												
미혼	3.0 (0.7)	3.1 (0.7)	3.4 (0.6)	3.3 (0.6)	2.1 (0.9)	3.2 (0.6)	2.6 (0.7)	2.8 (0.7)	3.3 (0.6)	2.9 (0.6)	2.6 (0.7)	100.0 (259)
기혼	2.9 (0.7)	3.3 (0.6)	3.3 (0.6)	3.2 (0.7)	2.2 (0.9)	3.2 (0.6)	2.6 (0.8)	3.0 (0.7)	3.2 (0.6)	3.0 (0.6)	2.6 (0.7)	100.0 (735)
이혼/사별/별거	3.1 (0.5)	2.9 (0.4)	3.1 (0.7)	2.8 (1.0)	2.4 (0.8)	3.1 (0.4)	2.4 (0.8)	2.8 (0.8)	3.0 (0.5)	2.8 (0.6)	2.6 (0.5)	100.0 (19)
$\chi^2(df)/F$	1.3	15.7***	3.7*	6.1**	0.8	1.3	0.5	5.2**	2.3	2.0	0.1	
자녀유무												
미혼	3.0 (0.7)	3.1 (0.7)	3.4 (0.6)	3.3 (0.6)	2.1 (0.9)	3.2 (0.6)	2.6 (0.7)	2.8 (0.7)	3.3 (0.6)	2.9 (0.6)	2.6 (0.7)	100.0 (259)
기혼/유자녀	2.9 (0.7)	3.3 (0.6)	3.3 (0.6)	3.2 (0.7)	2.2 (0.9)	3.2 (0.6)	2.6 (0.8)	3.0 (0.7)	3.2 (0.6)	3.0 (0.6)	2.6 (0.7)	100.0 (697)

(표 III-2-1 계속)

구분	부모됨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 되는 일이다.	부모가 되는 것은 행복 하고 기대 되는 일이다.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 정서적 준비 가 꼭 필요 하다	부모가 되려면 경제적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녀를 놓으면 저절로 부모가 된다.	영유아자녀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 하다	믿고 맡길 수 있다면 부모가 양육전담할 필요가 없다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부모는 자식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부모가 자녀때문에 자신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계(수)
기혼부자녀 $\chi^2(df)/F$	3.0 (0.6)	3.1 (0.7)	3.3 (0.6)	3.2 (0.6)	2.2 (0.9)	3.3 (0.7)	2.7 (0.8)	2.9 (0.8)	3.4 (0.6)	3.0 (0.6)	2.8 (0.6)	100.0 (57)
자녀수	1.4	14.6***	2.8	2.6	0.3	0.7	0.4	5**	2.7	1.2	2.9	
0명	3.0 (0.7)	3.1 (0.7)	3.4 (0.6)	3.3 (0.6)	2.1 (0.9)	3.2 (0.6)	2.6 (0.7)	2.9 (0.7)	3.3 (0.6)	2.9 (0.6)	2.7 (0.7)	100.0 (316)
1명	2.9 (0.7)	3.3 (0.5)	3.3 (0.6)	3.2 (0.7)	2.1 (0.8)	3.3 (0.6)	2.6 (0.7)	3.0 (0.7)	3.2 (0.6)	3.0 (0.6)	2.7 (0.7)	100.0 (169)
2명	2.9 (0.7)	3.4 (0.6)	3.3 (0.6)	3.2 (0.7)	2.2 (0.9)	3.2 (0.6)	2.6 (0.8)	3.0 (0.7)	3.2 (0.6)	3.0 (0.6)	2.6 (0.7)	100.0 (450)
3명이상	2.8 (0.7)	3.3 (0.5)	3.2 (0.6)	3.0 (0.7)	2.2 (0.9)	3.2 (0.6)	2.5 (0.7)	3.0 (0.6)	3.2 (0.5)	2.8 (0.6)	2.6 (0.6)	100.0 (78)
$\chi^2(df)/F$	1.7	10.5***	2.4	2.6*	0.6	0.8	0.5	3.2*	1.8	2.0	1.6	
딸딸이 여부												
딸딸이	2.9 (0.7)	3.3 (0.6)	3.3 (0.6)	3.2 (0.7)	2.2 (0.9)	3.2 (0.7)	2.6 (0.8)	3.0 (0.7)	3.3 (0.6)	3.0 (0.6)	2.6 (0.7)	100.0 (451)
외딸이	2.9 (0.7)	3.3 (0.6)	3.3 (0.6)	3.2 (0.7)	2.1 (0.8)	3.2 (0.6)	2.5 (0.8)	3.0 (0.7)	3.2 (0.6)	3.0 (0.6)	2.7 (0.7)	100.0 (303)
$\chi^2(df)/t$	1.2	-0.9	0.1	0.2	1.1	-0.2	1.3	-1.7	1.4	-1.0	-1.8	
거주지역												
대도시	2.9 (0.8)	3.3 (0.6)	3.3 (0.6)	3.2 (0.6)	2.1 (0.9)	3.2 (0.7)	2.6 (0.7)	3.0 (0.7)	3.3 (0.6)	3.0 (0.6)	2.6 (0.7)	100.0 (467)
중소도시	3.0 (0.6)	3.2 (0.6)	3.3 (0.6)	3.2 (0.7)	2.2 (0.9)	3.2 (0.6)	2.6 (0.8)	2.9 (0.7)	3.2 (0.6)	2.9 (0.7)	2.6 (0.7)	100.0 (408)
읍면동	3.0 (0.7)	3.1 (0.6)	3.3 (0.6)	3.2 (0.7)	2.2 (0.9)	3.3 (0.7)	2.5 (0.7)	2.8 (0.7)	3.3 (0.5)	2.9 (0.6)	2.7 (0.7)	100.0 (138)
$\chi^2(df)/F$	1.7	4.8**	0.2	1.3	1.0	1.8	1.9	6.3**	0.5	1.6	0.8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0 (0.7)	3.1 (0.6)	3.3 (0.6)	3.2 (0.7)	2.1 (0.9)	3.2 (0.7)	2.6 (0.8)	2.9 (0.7)	3.2 (0.5)	2.9 (0.6)	2.6 (0.7)	100.0 (175)
300~450만 미만	2.9 (0.7)	3.3 (0.6)	3.3 (0.6)	3.2 (0.7)	2.2 (0.9)	3.2 (0.7)	2.6 (0.7)	3.0 (0.7)	3.2 (0.6)	3.0 (0.6)	2.5 (0.7)	100.0 (429)
450~600만 미만	3.0 (0.7)	3.3 (0.6)	3.2 (0.6)	3.2 (0.6)	2.2 (0.9)	3.2 (0.6)	2.6 (0.8)	3.0 (0.7)	3.2 (0.6)	3.0 (0.6)	2.6 (0.6)	100.0 (251)
600만 이상	2.9 (0.7)	3.2 (0.7)	3.3 (0.5)	3.3 (0.5)	2.1 (0.9)	3.2 (0.6)	2.7 (0.8)	2.9 (0.7)	3.3 (0.6)	2.9 (0.6)	2.7 (0.6)	100.0 (158)
$\chi^2(df)/F$	1.5	4.2**	1.4	0.8	1.1	0.3	0.7	1.9	2.2	1.0	4.5**	
교육수준												
고졸이하	2.9 (0.7)	3.3 (0.6)	3.3 (0.6)	3.2 (0.7)	2.2 (0.9)	3.2 (0.7)	2.6 (0.7)	3.0 (0.7)	3.2 (0.6)	2.9 (0.6)	2.6 (0.7)	100.0 (388)
대학 재학	3.0 (0.7)	3.2 (0.6)	3.3 (0.5)	3.2 (0.6)	2.2 (0.9)	3.2 (0.6)	2.6 (0.7)	2.8 (0.6)	3.3 (0.6)	2.9 (0.6)	2.7 (0.6)	100.0 (139)
대학 졸업 이상	3.0 (0.7)	3.3 (0.6)	3.3 (0.6)	3.3 (0.6)	2.1 (0.9)	3.3 (0.6)	2.6 (0.8)	3.0 (0.7)	3.3 (0.6)	3.0 (0.7)	2.6 (0.7)	100.0 (486)
$\chi^2(df)/F$	1.8	0.5	1.4	2.9	0.4	1.7	0.9	3*	0.9	1.0	0.7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체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있어서 응답자의 72.9%가 부모는 자녀를 앞에서 이끌기 보다는 뒤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2008년도 결과와 유사하나, 뒤에서 지원한다는 비율이 근소하게 상승하였다(2008년도 70.1%).

이혼/사별/별거한 부모, 기혼무자녀, 중소도시 지역 거주자, 대졸이상 학력의 부모가 '자녀를 뒤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여기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가 희망하는 일에 대해 부모가 주도적인 경향이 덜함을 알 수 있다.

〈표 III-2-2〉 부모 주도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계(수)
전체	72.9	27.1	100.0 (1,013)
성별			
여성	74.7	25.3	100.0 (502)
남성	71.0	29.0	100.0 (511)
$\chi^2(df)$	1.7(1)		
연령대			
20대	68.2	31.8	100.0 (220)
30대	74.5	25.5	100.0 (243)
40대	74.3	25.7	100.0 (284)
50대	73.7	26.3	100.0 (266)
$\chi^2(df)$	3.1(3)		
결혼여부			
미혼	64.9	35.1	100.0 (259)
기혼	75.5	24.5	100.0 (735)
이혼/사별/별거	78.9	21.1	100.0 (19)
$\chi^2(df)$	11.3(2)**		
자녀유무			
미혼	64.9	35.1	100.0 (259)
기혼유자녀	75.0	25.0	100.0 (697)
기혼무자녀	82.5	17.5	100.0 (57)
$\chi^2(df)$	12.7(2)**		
자녀수			
0명	68.0	32.0	100.0 (316)
1명	73.4	26.6	100.0 (169)
2명	75.3	24.7	100.0 (450)
3명이상	76.9	23.1	100.0 (78)
$\chi^2(df)$	6.1(3)		
거주지역			
대도시	69.6	30.4	100.0 (467)
중소도시	77.2	22.8	100.0 (408)
읍면동	71.0	29.0	100.0 (138)
$\chi^2(df)$	6.7(2)*		

(표 III-2-2 계속)

구 분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계(수)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71.4	28.6	100.0 (175)
300~450만 미만	73.4	26.6	100.0 (429)
450~600만 미만	74.5	25.5	100.0 (251)
600만 이상	70.3	29.7	100.0 (158)
$\chi^2(df)$	1.1(3)		
교육수준			
고졸이하	67.8	32.2	100.0 (388)
대학 재학	69.1	30.9	100.0 (139)
대학 졸업 이상	78.0	22.0	100.0 (486)
$\chi^2(df)$		12.5(2)**	
2008 자료	70.1	29.9	100.0 (3,747)

* $p < .05$, ** $p < .01$

부모가 자녀를 길러준 것에 대하여 향후 자녀가 보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응답자의 74.4%가 ‘자녀양육은 부모의 의무로 여기며 자녀가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였다. 성별, 세대별, 자녀수, 결혼여부, 자녀유무, 자녀수, 거주지역,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30대, 자녀가 1명인 경우,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자녀가 보답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III-2-3〉 자녀 보답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 없다	계(수)
전체	25.6	74.4	100.0 (1,013)
성별			
여성	25.3	74.7	100.0 (502)
남성	25.8	74.2	100.0 (511)
$\chi^2(df)$		0(1)	
연령대			
20대	30.0	70.0	100.0 (220)
30대	22.6	77.4	100.0 (243)
40대	24.6	75.4	100.0 (284)
50대	25.6	74.4	100.0 (266)
$\chi^2(df)$		3.5(3)	

(표 III-2-3 계속)

구 분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 없다	계(수)
성연령			
20대 여성	30.8	69.2	100.0 (107)
20대 남성	29.2	70.8	100.0 (113)
30대 여성	22.7	77.3	100.0 (119)
30대 남성	22.6	77.4	100.0 (124)
40대 여성	21.1	78.9	100.0 (142)
40대 남성	28.2	71.8	100.0 (142)
50대 여성	27.6	72.4	100.0 (134)
50대 남성	23.5	76.5	100.0 (132)
$\chi^2(df)$	6(7)		
자녀수			
0명	28.5	71.5	100.0 (316)
1명	21.9	78.1	100.0 (169)
2명	24.9	75.1	100.0 (450)
3명이상	25.6	74.4	100.0 (78)
$\chi^2(df)$	2.7(3)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2.0	68.0	100.0 (175)
300~450만 미만	24.5	75.5	100.0 (429)
450~600만 미만	26.3	73.7	100.0 (251)
600만 이상	20.3	79.7	100.0 (158)
$\chi^2(df)$	6.5(3)		

나. 자녀성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정도 및 정서적, 경제적 지원 시기

부모가 자녀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57.0%)> 어느 정도 크다(41.1%)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2%에 불과하였다. 이는 2008년도 조사결과에 비교하면 현재는 부모의 영향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매우 크다, 44.7%> 어느 정도 크다 51.1%).

중소도시 거주자가 도시 및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인식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타의 변인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남성, 20대, 자녀수가 2명인 경우,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대졸 학력의 응답자가 부모가 자녀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III-2-4〉 자녀성장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영향을 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매우 큰		계(수)	4점 평균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전체	0.2	1.8	41.1	57.0	100.0 (1,013)	3.5
성별						
여성	-	1.6	42.2	56.2	100.0 (502)	3.5
남성	0.4	2.0	39.9	57.7	100.0 (511)	3.5
$\chi^2(df)/t$		2.6(3)				-0.1
연령대						
20대	-	1.8	39.5	58.6	100.0 (220)	3.6
30대	0.4	1.2	41.2	57.2	100.0 (243)	3.6
40대	-	2.1	43.0	54.9	100.0 (284)	3.5
50대	0.4	1.9	40.2	57.5	100.0 (266)	3.5
$\chi^2(df)/F$		3.3(9)				0.2
자녀수						
0명	0.3	1.9	41.5	56.3	100.0 (316)	3.5
1명	-	1.2	49.7	49.1	100.0 (169)	3.5
2명	0.2	2.2	36.9	60.7	100.0 (450)	3.6
3명이상	-	-	44.9	55.1	100.0 (78)	3.6
$\chi^2(df)/F$		11.2(9)				1.5
거주지역						
대도시	0.2	1.9	43.5	54.4	100.0 (467)	3.5
중소도시	-	0.7	39.2	60.0	100.0 (408)	3.6
읍면동	0.7	4.3	38.4	56.5	100.0 (138)	3.5
$\chi^2(df)/F$		12.9(6)*				2.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	0.6	41.7	57.7	100.0 (175)	3.6
300~450만 미만	0.2	2.3	38.0	59.4	100.0 (429)	3.6
450~600만 미만	0.4	1.6	44.6	53.4	100.0 (251)	3.5
600만 이상	-	1.9	43.0	55.1	100.0 (158)	3.5
$\chi^2(df)/F$		6.5(9)				0.7
교육수준						
고졸이하	0.5	2.1	42.5	54.9	100.0 (388)	3.5
대학 재학	-	2.2	39.6	58.3	100.0 (139)	3.6
대학 졸업 이상	-	1.4	40.3	58.2	100.0 (486)	3.6
$\chi^2(df)/F$		4.6(6)				1.0
2008 자료	0.3	3.8	51.1	44.7	100.0 (3,747)	

* $p < .05$

주. 평균은 '전혀 비영향' 1점~'매우 큰 영향'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평생동안 언제라도(33.4%)> 대학입학 전까지(19.5%)> 대학졸업까지(17.2%) 순으로 나타나, 한국부모들은 자녀를 정서적으로 무한대로 지지하여야 한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 30대 부모, 자녀수가 2명인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부모는 여타 소득수준의 부모에 비하여

결혼 후 안정될 때까지, 300만원 미만의 부모는 대학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 부모의 자녀지원 시기(1): 정서적 지지

단위: %(명)

구 분	대학 입학 전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언제라도	계(수)
전체	19.5	17.2	8.1	12.3	9.5	33.4	100.0 (1,013)
성별							
여성	19.3	15.9	8.0	12.5	9.2	35.1	100.0 (502)
남성	19.8	18.4	8.2	12.1	9.8	31.7	100.0 (511)
$\chi^2(df)$	1.9(5)						
연령대							
20대	21.4	15.9	5.5	13.2	10.5	33.6	100.0 (220)
30대	22.6	12.8	7.0	13.2	8.2	36.2	100.0 (243)
40대	19.4	16.5	7.4	12.3	10.6	33.8	100.0 (284)
50대	15.4	22.9	12.0	10.9	8.6	30.1	100.0 (266)
$\chi^2(df)$	22.9(15)						
자녀수							
0명	22.5	16.1	7.3	13.0	9.8	31.3	100.0 (316)
1명	19.5	17.8	7.7	12.4	11.2	31.4	100.0 (169)
2명	18.4	16.2	8.9	12.0	8.4	36.0	100.0 (450)
3명 이상	14.1	25.6	7.7	11.5	10.3	30.8	100.0 (78)
$\chi^2(df)$	10.3(15)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18.9	21.1	5.7	11.4	8.6	34.3	100.0 (175)
300~450만 미만	21.0	15.6	8.4	11.2	8.6	35.2	100.0 (429)
450~600만 미만	18.7	16.7	10.0	17.1	6.8	30.7	100.0 (251)
600만 이상	17.7	17.7	7.0	8.9	17.1	31.6	100.0 (158)
$\chi^2(df)$	25.8(15)*						

* $p < .05$

한편,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시기에 대하여 대학졸업까지(49.3%)> 취업할 때까지(23.6%)로 조사되어 평생동안 언제든지 제공하고자 하는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응답결과와 매우 다르다. 이는 2008년도 조사결과에 비하여 대학졸업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비중이 13.3%p나 감소되었고 오히려 취업할때까지 지원한다는 비중이 8.9%p 상승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시기가 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혼인 경우는 자녀취업 시까지, 기혼 무자녀는 대학졸업 및 결혼 후 안정될 때까지, 기혼 유자녀는 대학졸업 시와 결혼까지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높았다. 대도시 거주자는 대학졸업까지, 읍면지역은 결혼까지 지

원해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50대는 결혼할 때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월 소득 300만원 미만의 부모는 결혼까지 지원해야한다(13.1%)는 응답률이 높은 것에 비하여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의 부모는 오히려 상당히 낮게 (7.0%) 나타나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더 일찍 기대함을 알 수 있다.

〈표 III-2-6〉 부모의 자녀지원 시기(2): 경제적 지지

		단위: %(명)					
구 분	대학 입학 전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언제라도	계(수)
전체	9.9	49.3	23.6	12.0	3.0	2.3	100.0 (1,013)
성별							
여성	10.2	50.8	23.1	12.4	2.0	1.6	100.0 (502)
남성	9.6	47.7	24.1	11.7	3.9	2.9	100.0 (511)
$\chi^2(df)$	5.9(5)						
연령대							
20대	12.7	47.3	26.8	10.0	1.8	1.4	100.0 (220)
30대	12.3	49.8	20.2	11.1	3.3	3.3	100.0 (243)
40대	9.2	51.8	23.9	9.5	3.2	2.5	100.0 (284)
50대	6.0	47.7	23.7	17.3	3.4	1.9	100.0 (266)
$\chi^2(df)$	22.3(15)						
자녀유무							
미혼	12.0	45.2	28.2	10.8	2.3	1.5	100.0 (259)
기혼유자녀	9.2	50.2	22.1	13.2	2.7	2.6	100.0 (697)
기혼무자녀	8.8	56.1	21.1	3.5	8.8	1.8	100.0 (57)
$\chi^2(df)$	18.8(10)*						
자녀수							
0명	11.4	47.2	26.9	9.5	3.5	1.6	100.0 (316)
1명	10.7	45.6	23.1	16.0	3.0	1.8	100.0 (169)
2명	8.4	51.3	21.6	12.9	2.9	2.9	100.0 (450)
3명이상	10.3	53.8	23.1	9.0	1.3	2.6	100.0 (78)
$\chi^2(df)$	13(15)						
대도시	9.2	50.3	24.6	9.2	2.8	3.9	100.0 (467)
중소도시	12.7	48.8	22.1	13.5	2.2	0.7	100.0 (408)
읍면동	3.6	47.1	24.6	17.4	5.8	1.4	100.0 (138)
$\chi^2(df)$	31.5(1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8.6	43.4	26.9	13.1	4.0	4.0	100.0 (175)
300~450만 미만	9.1	52.7	23.1	11.7	2.1	1.4	100.0 (429)
450~600만 미만	12.0	45.8	23.1	15.1	2.8	1.2	100.0 (251)
600만 이상	10.1	51.9	22.2	7.0	4.4	4.4	100.0 (158)
$\chi^2(df)$	22.5(15)						
2008 자료	11.2	62.6	14.7	10.2	0.6	0.6	100.0 (3,747)

* $p < .05$, *** $p < .001$

주: 2008년 조사에서는 '결혼 10년까지'로 응답한 값을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와 비교함.

다. 자녀 성장시기별 적합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자녀 성장시기별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적합한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녀가 어릴수록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영유아기 79.6%).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부터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 참여 및 가사와 양육을 분담함(23.0%)과 어머니는 시간제 근무(21.1%)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률이 영유아기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역전현상이 일어나 '부모 모두 경제활동 및 가사와 양육을 분담함'(51/1%)과 어머니의 시간제 근무(31.2%)가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성인자녀가 되면 부모 모두 경제활동 및 가사와 양육분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7.6%로 현저히 높게 응답되었다.

〈표 III-2-7〉 자녀 성장시기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명)

구 분	아버지만 경제활동,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양육	어머니만 경제활동, 아버지는 집에서 자녀양육	부모 모두 경제활동, 어머니는 시간제 근무	부모 모두 경제활동, 아버지는 시간제근무	부모 모두 경제활동, 동등하게 가사와 양육분담	계(수)
영유아 자녀	79.6	0.7	6.0	0.1	13.6	100.0 (1,013)
초등 자녀	53.5	2.3	21.1	0.1	23.0	100.0 (1,013)
중고등 자녀	14.3	1.7	31.2	1.8	51.0	100.0 (1,013)
성인 자녀	5.6	0.8	14.6	1.4	77.6	100.0 (1,013)

구체적으로 자녀 성장시기별로 나누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는 40대의 50대는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가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것을, 20대(특히 여성)는 부모가 평등하게 경제활동과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 자녀수가 많을수록(특히, 3명 이상)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월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동등하게 육아를 분담하거나, 어머니가 시간제라도 근무하는 것을 원하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8〉 자녀 성장시기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영유아 자녀

단위: %(명)

구 분	아버지만 경제활동,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양육	어머니만 경제활동, 아버지는 집에서 자녀양육	부모 모두 경제활동, 어머니는 시간제 근무	부모 모두 경제활동, 아버지는 시간제근무	부모 모두 경제활동, 동등하게 가사와 양육분담	계(수)
영유아 자녀	79.6	0.7	6.0	0.1	13.6	100.0 (1,013)
성별						
여성	77.5	1.0	6.8	-	14.7	100.0 (502)
남성	81.6	0.4	5.3	0.2	12.5	100.0 (511)
$\chi^2(df)$			4.7(4)			
연령대						
20대	69.1	-	7.3	-	23.6	100.0 (220)
30대	81.1	0.4	7.0	0.4	11.1	100.0 (243)
40대	80.6	0.7	4.9	-	13.7	100.0 (284)
50대	85.7	1.5	5.3	-	7.5	100.0 (266)
$\chi^2(df)$			38.3(12)***			
성연령						
20대 여성	64.5	-	7.5	-	28.0	100.0 (107)
20대 남성	73.5	-	7.1	-	19.5	100.0 (113)
30대 여성	78.2	0.8	9.2	-	11.8	100.0 (119)
30대 남성	83.9	-	4.8	0.8	10.5	100.0 (124)
40대 여성	78.9	1.4	6.3	-	13.4	100.0 (142)
40대 남성	82.4	-	3.5	-	14.1	100.0 (142)
50대 여성	85.8	1.5	4.5	-	8.2	100.0 (134)
50대 남성	85.6	1.5	6.1	-	6.8	100.0 (132)
$\chi^2(df)$			52.2(28)**			
결혼여부						
미혼	71.8	0.4	6.6	-	21.2	100.0 (259)
기혼	82.4	0.7	6.0	0.1	10.7	100.0 (735)
이혼/사별/별거	73.7	5.3	-	-	21.1	100.0 (19)
$\chi^2(df)$			26.8(8)***			
자녀유무						
미혼	71.8	0.4	6.6	-	21.2	100.0 (259)
기혼유자녀	82.9	0.9	6.0	0.1	10.0	100.0 (697)
기혼무자녀	73.7	-	3.5	-	22.8	100.0 (57)
$\chi^2(df)$			26.5(8)***			
자녀수						
0명	72.2	0.3	6.0	-	21.5	100.0 (316)
1명	82.2	1.2	5.9	0.6	10.1	100.0 (169)
2명	82.2	0.7	6.7	-	10.4	100.0 (450)
3명이상	88.5	1.3	2.6	-	7.7	100.0 (78)
$\chi^2(df)$			33.4(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80.5	0.7	6.9	-	12.0	100.0 (451)
외벌이	84.8	1.0	4.3	0.3	9.6	100.0 (303)
$\chi^2(df)$			5.2(4)			

** $p < .01$, *** $p < .001$

자녀가 초등학교인 경우는 20대와 40대가 부모 모두의 경제활동 및 육아분담과 어머니의 시간제 근무를, 50대는 여전히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다. 자녀수가 1명 및 3명 이상인 경우, 여전히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양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자녀가 2명인 경우보다 높고, 부모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육아를 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비율은 자녀가 2명인 경우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표 III-2-9〉 자녀 성장시기별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초등자녀

단위: %(명)

구 분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함	어머니만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부모 모두 경제활동 부담 동등하게 가사와 양육을분담	계(수)
전체	53.5	2.3	21.1	0.1	23.0	100.0 (1,013)
성별						
여성	51.4	2.0	22.9	-	23.7	100.0 (502)
남성	55.6	2.5	19.4	0.2	22.3	100.0 (511)
$\chi^2(df)$			3.9(4)			
연령대						
20대	42.3	1.4	23.2	-	33.2	100.0 (220)
30대	58.0	2.5	19.3	-	20.2	100.0 (243)
40대	50.4	3.2	22.2	0.4	23.9	100.0 (284)
50대	62.0	1.9	19.9	-	16.2	100.0 (266)
$\chi^2(df)$			32.3(12)**			
결혼여부						
미혼	45.6	1.2	20.8	0.4	32.0	100.0 (259)
기혼	56.7	2.6	20.8	-	19.9	100.0 (735)
이혼/사별/별거	36.8	5.3	36.8	-	21.1	100.0 (19)
$\chi^2(df)$			25.5(8)**			
자녀유무						
미혼	45.6	1.2	20.8	0.4	32.0	100.0 (259)
기혼유자녀	57.0	2.7	21.4	-	18.9	100.0 (697)
기혼무자녀	47.4	1.8	19.3	-	31.6	100.0 (57)
$\chi^2(df)$			26.2(8)***			
자녀수						
0명	45.9	1.3	20.6	0.3	32.0	100.0 (316)
1명	60.4	2.4	21.9	-	15.4	100.0 (169)
2명	54.9	2.9	20.9	-	21.3	100.0 (450)
3명이상	61.5	2.6	23.1	-	12.8	100.0 (78)
$\chi^2(df)$			30(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1	2.7	22.8	-	24.4	100.0 (451)
외벌이	65.3	2.6	18.8	-	13.2	100.0 (303)
$\chi^2(df)$			20.3(3)***			

(표 III-2-10 계속)

구 분	경제적 지지 또는 이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자녀와의 소통	인내 심	정직 성	바른 인성	근면·성실 성	믿음	지식·지성	건강 함	기타	계(수)
	경제적 지지 또는 이해	경제적 지지 또는 이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연령대														
20대	22.9	5.0	9.6	4.6	18.3	17.4	-	11.0	2.3	1.4	3.7	2.3	1.4	100.0 (220)
30대	22.7	2.9	12.4	3.3	15.3	18.6	2.9	12.8	1.7	1.2	2.9	2.1	1.2	100.0 (243)
40대	22.3	3.2	5.7	3.2	20.1	19.8	2.1	11.7	3.5	1.1	4.9	1.4	1.1	100.0 (284)
50대	19.6	3.4	5.7	4.2	20.8	18.5	1.9	10.6	5.3	2.3	2.6	1.9	3.4	100.0 (266)
$\chi^2(df)$						38.6(36)								
성연령														
20대 여성	20.8	3.8	11.3	1.9	17.9	20.8	-	10.4	3.8	2.8	3.8	2.8	-	100.0 (107)
20대 남성	25.0	6.3	8.0	7.1	18.8	14.3	-	11.6	0.9	-	3.6	1.8	2.7	100.0 (113)
30대 여성	19.5	2.5	13.6	0.8	16.9	22.9	2.5	11.9	1.7	1.7	2.5	1.7	1.7	100.0 (119)
30대 남성	25.8	3.2	11.3	5.6	13.7	14.5	3.2	13.7	1.6	0.8	3.2	2.4	0.8	100.0 (124)
40대 여성	19.1	2.8	6.4	3.5	24.1	19.1	-	15.6	2.1	-	6.4	0.7	-	100.0 (142)
40대 남성	25.4	3.5	4.9	2.8	16.2	20.4	4.2	7.7	4.9	2.1	3.5	2.1	2.1	100.0 (142)
50대 여성	23.3	3.0	6.8	3.8	21.1	19.5	0.8	11.3	3.8	1.5	2.3	1.5	1.5	100.0 (134)
50대 남성	15.9	3.8	4.5	4.5	20.5	17.4	3.0	9.8	6.8	3.0	3.0	2.3	5.3	100.0 (132)
$\chi^2(df)$						97.8(84)								
자녀유무														
미혼	26.5	4.3	8.2	5.8	16.0	14.4	0.8	12.5	1.9	1.6	4.3	1.9	1.9	100.0 (259)
기혼유자녀	20.5	3.3	7.9	3.3	19.6	20.0	2.0	11.1	3.6	1.6	3.6	1.7	1.7	100.0 (697)
기혼무자녀	17.5	3.5	10.5	-	21.1	21.1	3.5	12.3	5.3	-	-	3.5	1.8	100.0 (57)
$\chi^2(df)$						24.3(24)								
자녀수														
0명	24.8	4.1	8.6	4.8	16.9	15.6	1.3	12.4	2.5	1.3	3.5	2.2	1.9	100.0 (316)
1명	18.5	4.8	11.9	3.0	19.0	22.0	1.2	11.9	4.2	-	2.4	-	1.2	100.0 (169)
2명	21.2	2.4	5.8	4.0	19.8	19.8	2.0	11.1	3.3	2.2	3.6	2.7	2.0	100.0 (450)
3명이상	20.8	5.2	11.7	-	19.5	16.9	3.9	9.1	3.9	1.3	6.5	-	1.3	100.0 (78)
$\chi^2(df)$						38.9(36)								
거주지역														
대도시	20.0	3.9	7.7	4.5	15.9	16.8	2.4	14.0	5.4	1.9	3.7	1.7	2.2	100.0 (467)
중소도시	22.0	3.0	9.1	3.5	20.2	20.2	1.5	11.4	1.0	1.2	3.2	2.2	1.5	100.0 (408)
읍면동	27.5	4.3	6.5	2.2	23.9	20.3	0.7	3.6	2.9	0.7	4.3	1.4	1.4	100.0 (138)
$\chi^2(df)$						39.9(2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19.5	4.0	8.0	4.6	23.0	15.5	1.7	11.5	3.4	2.3	1.1	2.9	2.3	100.0 (174)
300-450만 미만	21.8	2.8	7.7	3.5	19.7	19.9	2.1	9.6	4.4	.7	4.0	2.1	1.6	100.0 (427)
450-600만 미만	23.1	4.4	8.4	4.4	16.3	17.5	1.6	13.1	2.0	2.4	3.6	1.2	2.0	100.0 (251)
600만 이상	22.4	3.8	9.0	2.6	15.4	20.5	1.3	14.1	1.9	1.3	5.1	1.3	1.3	100.0 (156)
$\chi^2(df)$						26.7(36)								
교육수준														
고졸이하	22.5	2.8	7.0	5.7	18.4	18.1	1.8	9.1	4.9	1.6	4.1	1.6	2.3	100.0 (388)
대학 재학	24.6	5.8	5.8	3.6	23.9	9.4	0.7	15.2	2.2	0.7	4.3	1.4	2.2	100.0 (139)
대학 졸업 이상	20.5	3.5	9.7	2.3	17.6	21.7	2.1	12.4	2.3	1.7	2.9	2.3	1.2	100.0 (486)
$\chi^2(df)$						38.8(24)*								

* $p < .05$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역시 경제력이 33.1%로 가장 높았고, 세대차이 16.5%, 권위적인 태도 15.5% 순이었다. 세대 차이와 권위적인 태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와의 소통을 희망하지만 정작 자신이 잘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와 함께하는 절대

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도 10.2%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 돌봄 시간에 아쉬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간섭으로 인해 좋은 부모가 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20~30대에서 높게 나타나 혈연 등의 양육 지원 비율이 높은 현 세대의 어려움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자녀 출산 초기에 겪는 어려움일 수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40~50대 부모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경제력을 제외하면 20대는 주변의 간섭, 30대 직장생활 등으로 함께하는 시간 부족, 40대 권위적인 태도, 50대는 세대차이가 걸림돌이라고 응답하였다. 권위적인 태도로 인한 어려움은 3자녀 이상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도시규모가 클수록 경제적 어려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도시일수록 고가의 물품이나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II-2-11〉 좋은 부모가 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점

단위: %(명)

구 분	경제력	주변의 간섭	인내력	권위적인 태도	세대 차이	직장 생활 등으로 함께 하는 시간 부족	자녀에 대한 기대치	공감 능력 부족	교육 제도 등 사회 환경	계 (수)
전체	33.1	9.7	7.0	15.5	16.5	10.2	2.9	2.4	2.7	100.0 (626)
성별										
여성	32.3	12.8	7.4	15.1	15.7	8.9	2.7	2.4	2.7	100.0 (337)
남성	33.9	6.2	6.6	15.9	17.3	11.8	3.1	2.4	2.8	100.0 (289)
$\chi^2(df)$					8.7(8)					
연령대										
20대	28.6	23.8	9.5	-	14.3	9.5	4.8	4.8	4.8	100.0 (21)
30대	29.8	14.9	8.5	9.9	11.3	14.9	3.5	2.1	5.0	100.0 (141)
40대	35.5	9.5	6.9	17.7	13.4	8.7	3.0	2.6	2.6	100.0 (231)
50대	33.0	5.6	6.0	18.0	22.7	9.0	2.1	2.1	1.3	100.0 (233)
$\chi^2(df)$					41.4(24)*					
자녀수										
1명	35.5	12.9	9.0	11.0	12.9	11.6	3.2	1.9	1.9	100.0 (155)
2명	31.3	9.8	6.8	16.0	17.5	9.8	3.0	2.3	3.5	100.0 (399)
3명 이상	37.5	2.8	4.2	22.2	18.1	9.7	1.4	4.2	-	100.0 (72)
$\chi^2(df)$					19.2(16)					
거주지역										
대도시	39.9	9.7	7.6	13.9	11.1	10.8	2.4	2.1	2.4	100.0 (288)
중소도시	28.9	9.2	7.6	16.5	21.3	7.2	3.6	2.0	3.6	100.0 (249)
읍면동	22.5	11.2	3.4	18.0	20.2	16.9	2.2	4.5	1.1	100.0 (89)
$\chi^2(df)$					31.4(16)*					

(표 III-2-11 계속)

구 분	경제력	주변의 간섭	인내력	권위적인 태도	세대 차이	직장 생활 등으로 함께 하는 시간 부족	자녀에 대한 기대치	공감 능력 부족	교육 제도 등 사회 환경	계 (수)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8.4	9.1	9.1	13.1	15.2	9.1	3.0	-	3.0	100.0 (99)
300~450만 미만	33.5	10.7	7.5	13.9	15.7	8.2	3.6	3.6	3.6	100.0 (281)
450~600만 미만	31.6	9.2	5.3	19.1	15.8	12.5	2.6	2.6	1.3	100.0 (152)
600만 이상	28.7	8.5	6.4	17.0	21.3	13.8	1.1	1.1	2.1	100.0 (94)
$\chi^2(df)$						18.7(24)				

* $p < .05$

2)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전체 기혼유자녀 응답자의 49.4%가 자신의 부모역할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다고 보고하였다. 상대적으로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신의 부모역할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신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표 III-2-12〉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임	충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음	충분한 편임	매우 충분함	계 (수)	5점 평균
전체	2.4	21.5	49.4	23.5	3.2	100.0 (697)	3.0
성별							
여성	3.2	20.9	51.5	20.4	4.0	100.0 (373)	3.0
남성	1.5	22.2	46.9	27.2	2.2	100.0 (324)	3.1
$\chi^2(df)/t$			8.2(4)				0.8
연령대							
20대	-	13.6	54.5	27.3	4.5	100.0 (22)	3.2
30대	3.2	17.2	51.0	25.5	3.2	100.0 (157)	3.1
40대	3.5	25.8	48.1	20.8	1.9	100.0 (260)	2.9
50대	1.2	20.5	49.2	24.8	4.3	100.0 (258)	3.1
$\chi^2(df)/F$			12.1(12)				2.9*
자녀수							
1명	0.6	17.2	50.3	29.0	3.0	100.0 (169)	3.2
2명	3.1	22.4	48.7	22.4	3.3	100.0 (450)	3.0
3명 이상	2.6	25.6	51.3	17.9	2.6	100.0 (78)	2.9
$\chi^2(df)/F$			9.2(8)				3.2*

(표 III-2-12 계속)

구 분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임	충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음	충분한 편임	매우 충분함	계 (수)	5점 평균
거주지역							
대도시	3.2	17.5	48.3	27.0	4.1	100.0 (315)	3.1
중소도시	2.5	25.5	51.8	19.1	1.1	100.0 (282)	2.9
읍면동	-	23.0	46.0	25.0	6.0	100.0 (100)	3.1
$\chi^2(df)/F$			19.8(8)*				5.7**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4.5	29.1	44.5	17.3	4.5	100.0 (110)	2.9
300-450만 미만	2.3	19.3	50.2	25.4	2.9	100.0 (311)	3.1
450-600만 미만	1.8	24.1	47.6	24.7	1.8	100.0 (170)	3.0
600만 이상	1.9	16.0	54.7	22.6	4.7	100.0 (106)	3.1
$\chi^2(df)/F$			14.5(12)				2.0
2008 자료	1.0	18.8	44.6	31.8	3.9	100.0 (3,046)	

* $p < .05$, ** $p < .01$

주: 1) 2008년 조사에서는 보통으로 응답한 값을 충분하지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음과 비교함.

2) 평균은 '매우부족' 1점~'매우 충분'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신의 부모역할이 불충분하다 보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질문한 결과, 46.1%는 경제적 지원의 부족함을 가장 높게 꼽았다. 연령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달랐는데, 40대, 50대는 경제적 지원을 가장 높게 꼽은 반면, 30대의 경우 양육지식의 부족을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

〈표 III-2-13〉 부모역할이 가장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점

단위: %(명)

구 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학업 지도	양육 지식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기타	계 (수)
전체	46.1	18.6	12.6	11.4	9.6	1.8	100.0 (167)
성별							
여성	44.4	21.1	16.7	8.9	6.7	2.2	100.0 (90)
남성	48.1	15.6	7.8	14.3	13.0	1.3	100.0 (77)
$\chi^2(df)$			6.4(5)				
연령대							
20대	33.3	33.3	-	33.3	-	-	100.0 (3)
30대	21.9	21.9	6.3	31.3	12.5	6.3	100.0 (32)
40대	55.3	17.1	14.5	3.9	7.9	1.3	100.0 (76)
50대	48.2	17.9	14.3	8.9	10.7	-	100.0 (56)
$\chi^2(df)$			29.9(15)*				

(표 III-2-13 계속)

구 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학업 지도	양육 지식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기타	계 (수)
성연령							
20대 여성	-	50.0	-	50.0	-	-	100.0 (2)
20대 남성	100.0	-	-	-	-	-	100.0 (1)
30대 여성	21.1	31.6	5.3	21.1	10.5	10.5	100.0 (19)
30대 남성	23.1	7.7	7.7	46.2	15.4	-	100.0 (13)
40대 여성	58.5	12.2	19.5	4.9	4.9	-	100.0 (41)
40대 남성	51.4	22.9	8.6	2.9	11.4	2.9	100.0 (35)
50대 여성	42.9	25.0	21.4	3.6	7.1	-	100.0 (28)
50대 남성	53.6	10.7	7.1	14.3	14.3	-	100.0 (28)
$\chi^2(df)$				56.6(35)*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9.5	13.5	8.1	8.1	10.8	-	100.0 (37)
300~450만 미만	49.3	16.4	7.5	10.4	14.9	1.5	100.0 (67)
450~600만 미만	40.9	27.3	18.2	11.4	2.3	-	100.0 (44)
600만 이상	21.1	15.8	26.3	21.1	5.3	10.5	100.0 (19)
$\chi^2(df)$				29.3(15)*			
2008 자료	46.4	17.1	13.6	-	21.0	1.9	100.0 (601)

* $p < .05$

주: 2008년 조사에서는 양육지식 항목이 없었음.

3. 부모됨 준비 관련 요구

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모교육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은 '부모됨의 의미→자녀의 발달 특성→자녀의 교육·학습지원 방법→자녀의 독립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인다.

생애주기별로 임신·출산기와 자녀 영유아기에는 자녀의 발달 특성, 자녀 영유아기에는 양육 기술 및 방법에 대한 요구가 다수 있고, 자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학습지원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아진다. 청소년기에는 자녀와의 갈등 해결방법과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부모 교육을 필요로 하는 비율도 매우 높아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III-3-1〉 생애주기별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1순위

단위: %(명)

구 분	부모됨의 의미	부부 관계 개선 방안	일·가정 양립 전략	자녀의 발달 특성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 분담 전략	양육 기술 및 방법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 방안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방법	자녀의 독립을 준비 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	자녀 독립 후 가족관계 재정립 전략	기 타	계 (수)
결혼 후 무자녀	64.1	28.1	3.7	2.0	1.1	0.4	0.4	-	-	-	-	-	100.0 (697)
임신, 출산기	30.0	13.5	5.2	26.8	14.2	9.3	0.9	0.1	-	-	-	-	100.0 (697)
자녀 영유아기	2.2	1.4	20.4	26.3	18.8	23.7	0.6	6.7	-	-	-	-	100.0 (697)
자녀 아동기	0.7	0.5	5.0	5.2	5.5	7.5	4.1	69.4	0.2	1.8	0.2	-	100.0 (563)
자녀 청소년기	-	0.2	0.9	1.8	0.7	2.7	17.3	41.5	-	33.0	2.0	-	100.0 (451)
성인 자녀 및 중년기	0.3	-	0.6	-	-	0.3	7.3	3.6	39.7	13.6	34.2	0.3	100.0 (330)

생애주기별 필요한 부모교육에 대한 1, 2순위 의견을 합산하면 결혼 후 무자녀기에는 부모됨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부부관계에 대한 적응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임신·출산 및 자녀 영유아기에는 가정 내 역할 분담 전략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자녀 영유아기에는 양육기술 및 방법에 가장 큰 요구를 보인다. 자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녀와의 갈등해결방법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마지막으로 성인 자녀 및 중년기에는 자녀의 독립 후 가족관계 재정립 전략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표 III-3-2〉 생애주기별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1+2순위

단위: %(명)

구 분	부모됨의 의미	부부 관계 개선 방안	일·가정 양립 전략	자녀의 발달 특성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 분담 전략	양육 기술 및 방법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 방안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방법	자녀의 독립을 준비 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	자녀 독립 후 가족관계 재정립 전략	기 타	계 (수)
결혼 후 무자녀	82.5	79.8	10.8	9.3	8.0	3.6	2.4	-	0.1	-	-	0.1	(697)
임신, 출산기	38.0	27.5	14.9	46.1	48.4	22.4	1.3	0.6	-	-	-	-	(697)
자녀 영유아기	4.9	4.2	34.3	38.7	42.3	57.7	3.9	12.2	0.3	0.6	-	-	(697)
자녀 아동기	1.2	2.0	13.7	12.4	13.7	24.0	36.9	84.2	0.4	9.4	0.7	-	(563)
자녀 청소년기	0.2	1.3	1.1	2.7	2.2	6.7	49.9	55.2	15.5	63.6	0.9	-	(451)
성인 자녀 및 중년기	0.9	0.6	1.2	-	0.9	0.9	12.7	4.5	76.4	23.6	73.0	4.2	(330)

나. 부모교육 시작 적정시기

교육을 통해 부모됨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적정 시기로는 예비부모가 42.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초등·중·고등·대학생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45.6%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이는 당장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 시기부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부모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생과 예비부모 시기에 대한 응답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예비부모, 40~50대는 학생시기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고, 20대는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기혼자에서 초등학생, 즉 어린 시기부터 부모됨을 준비해야한다는 응답이 많고, 이혼, 사별, 별거 상태에서 중·고등학생과 자녀 학령기 가족에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III-3-3〉 부모됨 준비교육 시작 적정시기

단위: %(명)

구 분	초등 학생	중·고 등학생	대학생	예비 부모	자녀 영유아기 가족	자녀 학령기 가족	성인 및 중년기 가족	계(수)
전체	20.9	12.7	12.0	42.3	11.3	0.4	0.3	100.0 (1,013)
성별								
여성	20.7	11.2	12.5	42.6	11.8	0.8	0.4	100.0 (502)
남성	21.1	14.3	11.5	42.1	10.8	-	0.2	100.0 (511)
$\chi^2(df)$				6.8(6)				
연령대								
20대	13.6	14.1	17.3	44.1	9.5	0.5	0.9	100.0 (220)
30대	21.8	10.7	8.6	46.1	12.8	-	-	100.0 (243)
40대	25.0	14.1	10.2	40.1	9.9	0.7	-	100.0 (284)
50대	21.8	12.0	12.8	39.8	12.8	0.4	0.4	100.0 (266)
$\chi^2(df)$				27.7(18)				
결혼여부								
미혼	15.8	13.5	15.1	45.6	8.9	0.4	0.8	100.0 (259)
기혼	23.0	12.1	11.0	41.4	12.1	0.3	0.1	100.0 (735)
이혼/사별/별거	10.5	26.3	10.5	36.8	10.5	5.3	-	100.0 (19)
$\chi^2(df)$				28.5(12)**				
거주지역								
대도시	22.5	12.2	9.9	42.0	12.6	0.2	0.6	100.0 (467)
중소도시	18.9	11.3	15.9	43.4	10.3	0.2	-	100.0 (408)
읍면동	21.7	18.8	8.0	40.6	9.4	1.4	-	100.0 (138)
$\chi^2(df)$				24.9(1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16.6	18.3	7.4	48.0	8.6	0.6	0.6	100.0 (175)
300~450만 미만	23.1	12.8	10.7	42.0	11.2	0.2	-	100.0 (429)

구 분	초등 학생	중·고 등학생	대학생	예비 부모	자녀 영유아기 가족	자녀 학령기 가족	성인 및 중년기 가족	자녀 계(수)
450~600만 미만	19.9	12.0	15.1	38.6	13.5	0.4	0.4	100.0 (251)
600만 이상	21.5	7.6	15.8	43.0	10.8	0.6	0.6	100.0 (158)
$\chi^2(df)$				25.5(18)				

* $p < .05$, ** $p < .01$

다. 부모교육을 통한 변화 여부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9.9%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집단별로 살펴보면 기혼 유자녀와 맞벌이, 가구소득 600만 이상에서 부모교육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고,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자녀 3명 이상에서 부모교육을 통한 가치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III-3-4〉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변화 가능성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그렇지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0.5	9.7	71.4	18.5	100.0 (1,013)	3.1
성별						
여성	0.4	9.0	72.9	17.7	100.0 (502)	3.1
남성	0.6	10.4	69.9	19.2	100.0 (511)	3.1
$\chi^2(df)/t$	1.3(3)					0.1
연령대						
20대	0.9	9.1	65.9	24.1	100.0 (220)	3.1
30대	0.8	7.0	72.0	20.2	100.0 (243)	3.1
40대	0.4	9.9	75.7	14.1	100.0 (284)	3.0
50대	-	12.4	70.7	16.9	100.0 (266)	3.0
$\chi^2(df)/F$	15.8(9)					2.0
자녀유무						
미혼	1.5	8.1	68.0	22.4	100.0 (259)	3.1
기혼유자녀	0.1	10.6	72.6	16.6	100.0 (697)	3.1
기혼무자녀	-	5.3	71.9	22.8	100.0 (57)	3.2
$\chi^2(df)/F$	14.8(6)*					1.9
자녀수						
0명	1.3	7.6	68.7	22.5	100.0 (316)	3.1
1명	-	8.3	75.7	16.0	100.0 (169)	3.1
2명	0.2	11.1	71.6	17.1	100.0 (450)	3.1
3명이상	-	12.8	71.8	15.4	100.0 (78)	3.0
$\chi^2(df)/F$	14.2(9)					1.2

(표 III-3-4 계속)

구 분	전혀 그렇지않음	그렇지 않음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수)	4점 평균	
맞벌이 여부							
맞벌이	0.2	12.0	68.5	19.3	100.0 (451)	3.1	
외벌이	-	7.6	78.5	13.9	100.0 (303)	3.1	
$\chi^2(df)/t$						9.7(3)*	0.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1.7	9.7	68.6	20.0	100.0 (175)	3.1	
300~450만 미만	0.2	6.8	74.8	18.2	100.0 (429)	3.1	
450~600만 미만	0.4	11.2	70.9	17.5	100.0 (251)	3.1	
600만 이상	-	15.2	65.8	19.0	100.0 (158)	3.0	
$\chi^2(df)/F$						18(9)*	0.9

* $p < .05$

주: 평균은 '절대 반대' 1점~'매우 찬성'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라. 부모교육 의무화

본 조사에 참여한 미혼, 기혼 유자녀, 기혼 무자녀 응답자에게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응답에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대도시 거주자(66%)보다 중소도시(75.5%), 읍면동(78.3%)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부모교육 의무화에 찬성하는 정도가 높았다. 부모교육의 기회가 적은 중소도시 혹은 읍면지역의 거주 응답자들은 부모교육 의무화를 통한 전국 단위 교육 확대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3-5〉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반

구 분	단위: %(명)		계(수)
	찬성	반대	
전체	71.5	28.5	100.0 (1,013)
성별			
여성	73.5	26.5	100.0 (502)
남성	69.5	30.5	100.0 (511)
$\chi^2(df)$	2(1)		
연령대			
20대	72.3	27.7	100.0 (220)
30대	67.5	32.5	100.0 (243)
40대	72.2	27.8	100.0 (284)
50대	73.7	26.3	100.0 (266)
$\chi^2(df)$	2.7(3)		

(표 III-3-5 계속)

구분	찬성	반대	계(수)
자녀수			
0명	70.3	29.7	100.0 (316)
1명	74.6	25.4	100.0 (169)
2명	71.6	28.4	100.0 (450)
3명이상	69.2	30.8	100.0 (78)
$\chi^2(df)$	1.2(3)		
거주지역			
대도시	66.0	34.0	100.0 (467)
중소도시	75.5	24.5	100.0 (408)
읍면동	78.3	21.7	100.0 (138)
$\chi^2(df)$	13.3(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75.4	24.6	100.0 (175)
300~450만 미만	71.6	28.4	100.0 (429)
450~600만 미만	69.7	30.3	100.0 (251)
600만 이상	69.6	30.4	100.0 (158)
$\chi^2(df)$	2(3)		

** $p < .01$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 받는 부모에게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부모 73.6%는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자녀수가 많은 집단에서 부모 교육 의무화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또한 소득이 낮은 영유아 자녀의 부모 집단에서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3-6〉 보육료·교육비 수혜 부모 대상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찬반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계(수)
전체	73.6	26.4	100.0 (174)
성별			
여성	76.1	23.9	100.0 (88)
남성	70.9	29.1	100.0 (86)
$\chi^2(df)$	0.6(1)		

(표 III-3-6 계속)

구 분	찬성	반대	계 (수)
연령대			
20대	72.7	27.3	100.0 (22)
30대	72.5	27.5	100.0 (109)
40대	75.6	24.4	100.0 (41)
50대	100.0	-	100.0 (2)
$\chi^2(df)$	0.9(3)		
자녀수			
1명	67.6	32.4	100.0 (74)
2명	77.4	22.6	100.0 (84)
3명 이상	81.3	18.8	100.0 (16)
$\chi^2(df)$	2.5(2)		
거주지역			
대도시	67.5	32.5	100.0 (83)
중소도시	84.3	15.7	100.0 (70)
읍면동	61.9	38.1	100.0 (21)
$\chi^2(df)$	7.2(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88.6	11.4	100.0 (35)
300~450만 미만	71.0	29.0	100.0 (93)
450~600만 미만	70.0	30.0	100.0 (30)
600만 이상	62.5	37.5	100.0 (16)
$\chi^2(df)$	5.6(3)		

* $p < .05$

IV.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실제와 요구

제4장에서는 자녀양육관, 양육실제와 요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1절에는 자녀양육 관련 인식과 양육정서를, 2절에서는 양육시간 및 소통, 훈육, 비용과 관련한 양육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고, 3절에는 양육정보의 출처와 TV나 인터넷 매체가 자녀에게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4절에는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이슈를, 5절에는 국가와 가정의 양육지원 분담비율 및 적정 지원시기, 양육지원정책 관련 요구를 살펴보았다.

1. 양육 신념 및 정서

가. 자녀양육 관련 인식

1)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6가지 가치(①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②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 추구, ③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 ④ 자기 일에 대한 성취, ⑤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 ⑥ 타인에 대한 봉사 정신)의 중요도를 평정하게 한 결과, 전자 4가지 항목은 3.4~3.5점으로 높은 수준이며, 후자 2가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⑤번 항목은 2.9점, ⑥번 항목은 3.1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가치 항목을 변인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은 대도시 거주자가 더 강조하며(3.5점),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추구' 역시 도시지역 거주자(3.6점) 및 교육수준(3.6점)이 높을수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은 부모 연령대가 낮을수록 강조하며(특히, 30대 부모가 가장 강조),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은 기혼자 및 맞벌이인 경우,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은 미혼, 월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양육에서 더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1-1〉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의 중요도

단위: 점(점), (명)

구 분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개인적으 로 행복한 생활의 추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	자기 일에 대한 성취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	타인에 대한 봉사 정신	(수)
전체	3.4 (0.5)	3.5 (0.6)	3.5 (0.6)	3.5 (0.5)	2.9 (0.7)	3.1 (0.6)	(1,013)
성별							
여성	3.5 (0.5)	3.5 (0.6)	3.5 (0.6)	3.5 (0.6)	2.8 (0.7)	3.1 (0.6)	(502)
남성	3.4 (0.5)	3.5 (0.5)	3.5 (0.6)	3.5 (0.5)	2.9 (0.7)	3.2 (0.6)	(511)
<i>t</i>	0.8	-0.1	0.0	-0.6	-1.5	-1.3	
연령대							
20대	3.4 (0.5)	3.6 (0.5)	3.5 (0.6)	3.5 (0.5)	2.8 (0.8)	3.2 (0.6)	(220)
30대	3.5 (0.5)	3.6 (0.5)	3.6 (0.5)	3.5 (0.5)	2.8 (0.7)	3.1 (0.5)	(243)
40대	3.4 (0.5)	3.5 (0.6)	3.5 (0.6)	3.5 (0.5)	2.9 (0.7)	3.2 (0.6)	(284)
50대	3.5 (0.5)	3.5 (0.6)	3.4 (0.6)	3.4 (0.6)	2.9 (0.7)	3.1 (0.6)	(266)
<i>F</i>	0.2	2.3	4.0**	1.1	1.2	1.6	
결혼여부							
미혼	3.4 (0.5)	3.6 (0.5)	3.5 (0.6)	3.5 (0.5)	2.8 (0.8)	3.2 (0.6)	(259)
기혼	3.5 (0.5)	3.5 (0.6)	3.5 (0.6)	3.5 (0.6)	2.9 (0.7)	3.1 (0.6)	(735)
이혼/사별/별거	3.5 (0.5)	3.3 (0.5)	3.3 (0.6)	3.3 (0.5)	2.5 (0.6)	2.8 (0.5)	(19)
$\chi^2(df)/F$	0.9	2.9	1.7	1.1	3.0*	3.6*	
자녀유무							
미혼	3.4 (0.5)	3.6 (0.5)	3.5 (0.6)	3.5 (0.5)	2.8 (0.8)	3.2 (0.6)	(259)
기혼유자녀	3.5 (0.5)	3.5 (0.6)	3.5 (0.6)	3.5 (0.6)	2.9 (0.7)	3.1 (0.6)	(697)
기혼무자녀	3.5 (0.5)	3.7 (0.5)	3.6 (0.5)	3.4 (0.5)	2.9 (0.7)	3.1 (0.5)	(57)
$\chi^2(df)/F$	1.1	2.5	1.2	0.9	0.2	0.2	
자녀수							
0명	3.4 (0.5)	3.6 (0.5)	3.6 (0.6)	3.5 (0.5)	2.8 (0.7)	3.2 (0.6)	(316)
1명	3.4 (0.5)	3.5 (0.6)	3.4 (0.6)	3.5 (0.5)	2.8 (0.7)	3.1 (0.6)	(169)
2명	3.5 (0.5)	3.5 (0.6)	3.5 (0.6)	3.5 (0.6)	2.9 (0.7)	3.1 (0.6)	(450)
3명 이상	3.4 (0.5)	3.6 (0.5)	3.5 (0.6)	3.6 (0.6)	3.0 (0.7)	3.1 (0.6)	(78)
<i>F</i>	1.0	1.6	1.7	0.3	1.1	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 (0.5)	3.6 (0.6)	3.5 (0.6)	3.5 (0.5)	2.9 (0.7)	3.2 (0.6)	(451)
외벌이	3.5 (0.5)	3.5 (0.5)	3.5 (0.6)	3.5 (0.6)	2.8 (0.7)	3.1 (0.6)	(303)
<i>t</i>	0.0	1.4	0.2	1.3	2.8**	1.3	
거주지역							
대도시	3.5 (0.5)	3.6 (0.5)	3.5 (0.6)	3.5 (0.5)	2.9 (0.7)	3.2 (0.6)	(467)
중소도시	3.4 (0.5)	3.5 (0.6)	3.5 (0.6)	3.5 (0.6)	2.9 (0.7)	3.1 (0.6)	(408)
읍면동	3.4 (0.5)	3.4 (0.6)	3.4 (0.5)	3.5 (0.5)	2.8 (0.7)	3.1 (0.5)	(138)
<i>F</i>	7***	5.2**	2.0	2.0	0.9	0.3	

(표 IV-1-1 계속)

구 분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개인적으 로 행복한 생활의 추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	자기 일에 대한 성취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	타인에 대한 봉사 정신	(수)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5 (0.5)	3.5 (0.6)	3.5 (0.6)	3.5 (0.6)	2.8 (0.7)	3.2 (0.6)	(175)
300~450만 미만	3.5 (0.5)	3.5 (0.6)	3.6 (0.5)	3.5 (0.5)	2.9 (0.7)	3.2 (0.6)	(429)
450~600만 미만	3.4 (0.5)	3.6 (0.5)	3.5 (0.6)	3.4 (0.5)	2.9 (0.7)	3.1 (0.6)	(251)
600만 이상	3.4 (0.5)	3.6 (0.5)	3.5 (0.5)	3.5 (0.5)	2.9 (0.7)	3.1 (0.6)	(158)
F	1.8	0.9	2.0	2.0	1.4	0.3	
교육수준							
고졸이하	3.5 (0.5)	3.5 (0.6)	3.5 (0.6)	3.5 (0.6)	2.9 (0.7)	3.1 (0.6)	(388)
대학 재학	3.4 (0.5)	3.6 (0.5)	3.5 (0.6)	3.5 (0.5)	2.9 (0.7)	3.3 (0.6)	(139)
대학 졸업 이상	3.4 (0.5)	3.6 (0.5)	3.5 (0.5)	3.5 (0.5)	2.8 (0.7)	3.2 (0.6)	(486)
F	0.5	3.8*	1.6	0.7	0.5	4.7**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녀양육태도에 대한 7가지 항목별(①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짐, ②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음, ③ 자녀가 잘못할 때는 체벌할 수도 있음, ④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편임, ⑤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하도록 함, ⑥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함, ⑦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임) 응답자의 동의정도에 대한 평정 결과(4점 만점)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⑦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2.3점/4점 만점)이라는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응답결과가 2.7점~3.1점 사이에 분포하므로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②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음', '③ 자녀가 잘못할 때는 체벌할 수도 있음', '⑥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 자녀훈육에 관한 것이다.

부모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 유자녀가, 도시거주자인 경우, 월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모가 엄격해야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도시와 읍면지역 거주자,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가 잘못하는 경우 부모가 체벌할 수

있다고 인식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 자녀수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수가 1명과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의 제멋대로인 행동에 부모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표 IV-1-2〉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점), (명)

구 분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 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짐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음	자녀가 잘못할 때는 때를 들 수도 있음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편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하라고 함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	수
전체	3.1 (0.6)	2.8 (0.7)	2.9 (0.7)	3.3 (0.6)	3.1 (0.6)	2.7 (0.7)	2.3 (0.7)	(1,013)
성별								
여성	3.1 (0.6)	2.8 (0.7)	2.9 (0.7)	3.2 (0.6)	3.0 (0.6)	2.7 (0.6)	2.3 (0.7)	(502)
남성	3.1 (0.6)	2.8 (0.8)	2.9 (0.7)	3.3 (0.6)	3.1 (0.6)	2.7 (0.7)	2.2 (0.7)	(511)
<i>t</i>	-0.3	1.7	-0.9	-0.8	-1.3	0.6	2*	
연령대								
20대	3.1 (0.6)	2.7 (0.8)	2.8 (0.7)	3.2 (0.6)	3.0 (0.6)	2.6 (0.7)	2.3 (0.7)	(220)
30대	3.0 (0.6)	2.7 (0.7)	2.9 (0.7)	3.3 (0.5)	3.1 (0.6)	2.7 (0.6)	2.3 (0.7)	(243)
40대	3.1 (0.6)	2.8 (0.7)	3.0 (0.7)	3.3 (0.6)	3.0 (0.6)	2.8 (0.7)	2.2 (0.7)	(284)
50대	3.1 (0.6)	2.9 (0.7)	3.0 (0.7)	3.3 (0.6)	3.1 (0.6)	2.8 (0.6)	2.3 (0.7)	(266)
<i>F</i>	1.3	4**	2.9*	0.1	1.0	4.9**	0.8	
결혼여부								
미혼	3.1 (0.6)	2.7 (0.7)	2.9 (0.7)	3.2 (0.5)	3.1 (0.6)	2.6 (0.7)	2.3 (0.7)	(259)
기혼	3.1 (0.6)	2.8 (0.7)	2.9 (0.7)	3.3 (0.6)	3.1 (0.6)	2.8 (0.7)	2.3 (0.7)	(735)
이혼/사별/별거	3.2 (0.6)	2.7 (0.7)	3.0 (0.3)	3.1 (0.6)	2.8 (0.6)	2.8 (0.5)	2.3 (0.7)	(19)
$\chi^2(df)/F$	0.4	1.4	1.7	1.4	1.4	3.7*	0.0	
자녀유무								
미혼	3.1 (0.6)	2.7 (0.7)	2.9 (0.7)	3.2 (0.5)	3.1 (0.6)	2.6 (0.7)	2.3 (0.7)	(259)
기혼유자녀	3.1 (0.6)	2.8 (0.7)	2.9 (0.7)	3.3 (0.6)	3.1 (0.6)	2.8 (0.7)	2.3 (0.7)	(697)
기혼무자녀	3.1 (0.6)	2.6 (0.8)	3.0 (0.8)	3.2 (0.6)	3.1 (0.6)	2.7 (0.7)	2.3 (0.8)	(57)
$\chi^2(df)/F$	0.3	3*	1.6	1.1	0.1	4.1*	0.0	
자녀수								
0명	3.1 (0.6)	2.7 (0.7)	2.9 (0.7)	3.2 (0.5)	3.1 (0.6)	2.6 (0.7)	2.3 (0.8)	(316)
1명	3.0 (0.6)	2.8 (0.7)	3.0 (0.7)	3.2 (0.6)	3.0 (0.6)	2.7 (0.6)	2.4 (0.6)	(169)
2명	3.1 (0.6)	2.8 (0.7)	2.9 (0.7)	3.3 (0.6)	3.1 (0.6)	2.8 (0.7)	2.2 (0.7)	(450)
3명 이상	3.1 (0.6)	2.9 (0.7)	3.0 (0.6)	3.3 (0.5)	3.1 (0.6)	2.9 (0.6)	2.4 (0.7)	(78)
<i>F</i>	1.5	2.1	1.0	0.9	1.2	3.4*	3.3*	

(표 IV-1-2 계속)

구 분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짐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음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음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편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하라고 함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	수
거주지역								
대도시	3.2 (0.6)	2.9 (0.8)	3.0 (0.7)	3.3 (0.6)	3.1 (0.6)	2.7 (0.7)	2.3 (0.8)	(467)
중소도시	3.0 (0.6)	2.8 (0.7)	2.8 (0.7)	3.2 (0.6)	3.0 (0.6)	2.8 (0.6)	2.3 (0.7)	(408)
읍면동	3.0 (0.6)	2.7 (0.6)	2.9 (0.6)	3.2 (0.5)	3.1 (0.5)	2.6 (0.6)	2.3 (0.7)	(138)
F	7.5***	4*	8***	10.2***	3.2*	1.9	0.3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1 (0.6)	2.8 (0.7)	3.0 (0.6)	3.2 (0.5)	3.1 (0.6)	2.7 (0.7)	2.3 (0.7)	(175)
300-450만 미만	3.1 (0.6)	2.8 (0.7)	3.0 (0.7)	3.3 (0.6)	3.0 (0.6)	2.7 (0.7)	2.3 (0.7)	(429)
450-600만 미만	3.1 (0.6)	2.9 (0.7)	2.9 (0.7)	3.2 (0.6)	3.0 (0.6)	2.7 (0.6)	2.3 (0.7)	(251)
600만 이상	3.1 (0.6)	2.8 (0.7)	2.8 (0.7)	3.3 (0.5)	3.2 (0.6)	2.8 (0.7)	2.3 (0.7)	(158)
F	0.4	0.6	3.2*	1.1	2.0	0.4	0.7	
교육수준								
고졸이하	3.1 (0.6)	2.9 (0.7)	3.0 (0.7)	3.2 (0.6)	3.1 (0.6)	2.8 (0.6)	2.3 (0.7)	(388)
대학 재학	3.0 (0.6)	2.8 (0.7)	2.8 (0.7)	3.3 (0.6)	3.0 (0.6)	2.6 (0.6)	2.3 (0.7)	(139)
대학 졸업 이상	3.1 (0.6)	2.7 (0.8)	2.9 (0.7)	3.3 (0.5)	3.1 (0.6)	2.7 (0.7)	2.3 (0.7)	(486)
F	2.8	8.1***	3.3*	0.7	1.9	3.4*	0.5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취업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인식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 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50대 응답자의 경우 여성의 역할을 자녀 양육자로 한정하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는 경향이 더 나타난데 반해(평균 3.1점), 20대의 경우 그러한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2.8점). 결혼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가 미혼이거나 기혼 무자녀 응답자보다 더 여성의 자녀 양육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대도시에 살수록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취업모는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의견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동의하는 것(2.8점>2.7점)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느끼는 육아의 부담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3〉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단위: 점(점), (명)

구 분	어머니가 일 보다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것이 더 중요		취업모는 어머니로서 역할에 한계 있음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직장 일하는 것이 더 쉬움		(수)
전체	3.0	(0.6)	3.1	(0.6)	2.7	(0.7)	100.0 (1,013)
성별							
여성	3.0	(0.6)	3.1	(0.6)	2.8	(0.7)	100.0 (502)
남성	3.0	(0.6)	3.1	(0.5)	2.7	(0.7)	100.0 (511)
$\chi^2(df)/t$	-1.0		-0.6		2.3*		
연령대							
20대	2.8	(0.7)	3.1	(0.6)	2.7	(0.7)	100.0 (220)
30대	3.0	(0.6)	3.1	(0.6)	2.7	(0.7)	100.0 (243)
40대	3.0	(0.6)	3.1	(0.6)	2.7	(0.7)	100.0 (284)
50대	3.1	(0.6)	3.1	(0.6)	2.7	(0.7)	100.0 (266)
$\chi^2(df)/F$	12.1***		0.8		-		
성연령							
20대 여성	2.8	(0.7)	3.0	(0.6)	2.9	(0.7)	100.0 (107)
20대 남성	2.8	(0.8)	3.1	(0.5)	2.6	(0.7)	100.0 (113)
30대 여성	3.0	(0.6)	3.1	(0.6)	2.7	(0.7)	100.0 (119)
30대 남성	3.0	(0.7)	3.1	(0.6)	2.7	(0.8)	100.0 (124)
40대 여성	3.0	(0.6)	3.1	(0.6)	2.8	(0.7)	100.0 (142)
40대 남성	3.1	(0.6)	3.1	(0.5)	2.7	(0.7)	100.0 (142)
50대 여성	3.1	(0.6)	3.1	(0.6)	2.8	(0.7)	100.0 (134)
50대 남성	3.2	(0.5)	3.1	(0.6)	2.7	(0.7)	100.0 (132)
$\chi^2(df)/F$	5.4***		0.5		1.6		
결혼여부							
미혼	2.8	(0.7)	3.0	(0.6)	2.7	(0.7)	100.0 (259)
기혼	3.1	(0.6)	3.1	(0.6)	2.8	(0.7)	100.0 (735)
이혼/사별/별거	3.1	(0.6)	2.9	(0.8)	2.4	(0.6)	100.0 (19)
$\chi^2(df)/F$	15.3***		2.1		2.5		
자녀유무							
미혼	2.8	(0.7)	3.0	(0.6)	2.7	(0.7)	100.0 (259)
기혼유자녀	3.1	(0.6)	3.1	(0.6)	2.8	(0.7)	100.0 (697)
기혼무자녀	2.8	(0.7)	3.1	(0.5)	2.6	(0.8)	100.0 (57)
$\chi^2(df)/F$	20.5***		1.4		1.8		

(표 IV-1-3 계속)

구 분	어머니가 일 보다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것이 더 중요		취업모는 어머니로서 역할에 한계 있음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직장 일하는 것이 더 쉬움		(수)
자녀수							
0명	2.8	(0.7)	3.1	(0.6)	2.7	(0.7)	100.0 (316)
1명	3.0	(0.6)	3.1	(0.6)	2.8	(0.7)	100.0 (169)
2명	3.1	(0.6)	3.1	(0.6)	2.8	(0.7)	100.0 (450)
3명 이상	3.2	(0.6)	3.1	(0.6)	2.8	(0.7)	100.0 (78)
$\chi^2(df)/F$	16.5***		1.6		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	(0.6)	3.1	(0.6)	2.8	(0.7)	100.0 (451)
외벌이	3.2	(0.6)	3.1	(0.6)	2.7	(0.7)	100.0 (303)
$\chi^2(df)/t$	-3.4***		0.4		1.0		
거주지역							
대도시	3.1	(0.7)	3.1	(0.6)	2.7	(0.7)	100.0 (467)
중소도시	3.0	(0.6)	3.1	(0.6)	2.7	(0.7)	100.0 (408)
읍면동	2.9	(0.6)	3.1	(0.6)	2.7	(0.7)	100.0 (138)
$\chi^2(df)/F$	6.1**		0.3		0.7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0	(0.6)	3.1	(0.6)	2.7	(0.7)	100.0 (175)
300~450만 미만	3.0	(0.7)	3.1	(0.6)	2.7	(0.7)	100.0 (429)
450~600만 미만	3.0	(0.6)	3.1	(0.6)	2.8	(0.7)	100.0 (251)
600만 이상	2.9	(0.7)	3.1	(0.6)	2.7	(0.7)	100.0 (158)
$\chi^2(df)/F$	3*		0.2		1.8		
교육수준							
고졸이하	3.1	(0.6)	3.1	(0.6)	2.7	(0.7)	100.0 (388)
대학 재학	2.9	(0.6)	3.1	(0.6)	2.7	(0.6)	100.0 (139)
대학 졸업 이상	3.0	(0.7)	3.1	(0.6)	2.8	(0.7)	100.0 (486)
$\chi^2(df)/F$	5.6**		0.5		0.5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3) 0~2세 영아 자녀 둔 전업주부에게 하루에 자녀 돌봄 지원이 필요한 시간

모든 응답자에게 0~2세 영아 자녀를 둔 전업주부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녀 돌봄 지원 시간을 물어본 결과, 하루 평균 3.2시간($sd=1.8$)이 적절한 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자녀가 없거나(3.4시간), 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3.3시간) 자녀수가 많은 부모들(2명=3.1시간, 3명이상=2.9시간)보다 더 많은 돌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첫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경험이 부족하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V-1-4〉 0-2세 영아자녀를 둔 전업 주부에게 하루에 필요한 자녀돌봄 지원 시간

단위: 시간(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2	1.8	(1,013)
성별			
여성	3.1	1.5	(502)
남성	3.2	2.0	(511)
<i>t</i>		-0.7	
연령대			
20대	3.3	1.7	(220)
30대	3.3	1.7	(243)
40대	3.2	2.0	(284)
50대	3.0	1.6	(266)
<i>F</i>		1.4	
자녀수			
0명	3.4	1.8	(316)
1명	3.3	2.1	(169)
2명	3.1	1.6	(450)
3명이상	2.9	1.6	(78)
<i>F</i>		3*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3	1.7	(175)
300~450만 미만	3.1	1.8	(429)
450~600만 미만	3.2	1.6	(251)
600만 이상	3.4	1.9	(158)
<i>F</i>		1.5	

* $p < .05$

4)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하는 최소 시간에 관한 인식

부모로서 하루에 자녀와 함께 보내야하는 최소 시간에 대해 응답자들은 1일 평균 3.7시간(SD=2.2)이 적당하다고 보고하였다. 여성들이(3.8시간, sd=2.5) 남성(3.5시간, sd=1.8)들에 비해 부모-자녀 사이 최소 시간을 더 길게 보고하여, 성별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연령 간 응답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20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자녀 최소 시간은 4.3시간(sd=3.1)으로 30대 3.8시간, 50대 3.5시간, 40대 3.3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었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4.9시간(sd=3.9)이 이상적인 최소 시간이라 응답하여 모든 성별과 연령 그룹의 응답과 상이하였다.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미혼이 가장 긴 시간(4.2시간, sd=3.0)을 보고하였으며, 뒤이어 기혼 무자녀 집단이 4.0시간(sd=2.1), 기혼 유자녀가 3.5시간(sd=1.8)이라 응답하였다. 자녀가 없거나 미혼인 경우에 자녀와 함께 더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표 IV-1-5〉 하루에 자녀와 함께 보내야 하는 최소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	2.2	(1,013)	
성별				
여성	3.8	2.5	(502)	
남성	3.5	1.8	(511)	
<i>t</i>		2.2*		
연령대				
20대	4.3	3.1	(220)	
30대	3.8	1.8	(243)	
40대	3.3	1.8	(284)	
50대	3.5	1.9	(266)	
<i>F</i>		8.9***		
성연령				
20대 여성	4.9	3.9	(107)	
20대 남성	3.7	1.8	(113)	
30대 여성	3.7	1.9	(119)	
30대 남성	3.8	1.8	(124)	
40대 여성	3.5	2.0	(142)	
40대 남성	3.2	1.7	(142)	
50대 여성	3.5	2.0	(134)	
50대 남성	3.5	1.8	(132)	
<i>F</i>		6.9***		
자녀유무				
미혼	4.2	3.0	(259)	
기혼유자녀	3.5	1.8	(697)	
기혼무자녀	4.0	2.1	(57)	
<i>F</i>		11.4***		
자녀수				
0명	4.2	2.9	(316)	
1명	3.6	1.8	(169)	
2명	3.4	1.8	(450)	
3명이상	3.5	2.0	(78)	
<i>F</i>		7.5***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8	2.1	(175)	
300~450만 미만	3.8	2.4	(429)	
450~600만 미만	3.5	1.9	(251)	
600만 이상	3.7	2.2	(158)	
<i>F</i>		2.7*		

* $p < .05$, *** $p < .001$

5) 부모 이혼시 자녀양육 주체

자녀가 영유아시기에 부모가 이혼할 경우, 누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어머니(51.3%)>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 (30.2%)>부모 공동(9.2%) 순으로 응답되었다. 아버지가 주된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하였으며, 자녀선택에 따른다는 의견은 7.0%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 이혼시 어머니가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며, 아버지가 아닌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된 점은 자녀양육에 경제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0대와 50대는 어머니가, 20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이혼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이외에 부모 공동, 자녀선택에 따른다는 의견도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음), 미혼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 이혼/사별/별거하는 부모는 부모 공동 및 아버지가 적합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도시 거주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를, 읍면지역 거주자는 어머니가 양육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경향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1-6〉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 이혼 시, 적합한 자녀양육의 주체

단위: %(명)

구 분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	부모 공동	자녀의 선택에 따름	아버지	부모가 아닌 혈연자	기타	계(수)
전체	51.3	30.2	9.2	7.0	2.0	0.2	100.0 (1,013)
성별							
여성	51.8	30.9	9.4	6.2	1.8	-	100.0 (502)
남성	50.9	29.5	9.0	7.8	2.2	0.4	100.0 (511)
$\chi^2(df)$			4.3(6)				
연령대							
20대	39.5	35.0	12.3	9.5	3.2	0.5	100.0 (220)
30대	52.7	28.8	11.1	6.6	0.8	-	100.0 (243)
40대	55.3	29.9	6.0	7.4	1.1	-	100.0 (284)
50대	55.6	27.8	8.3	4.9	3.0	0.4	100.0 (266)
$\chi^2(df)$			31.4(18)*				
결혼여부							
미혼	42.1	32.8	13.1	9.3	2.3	0.4	100.0 (259)
기혼	54.7	29.5	7.6	6.3	1.6	0.1	100.0 (735)
이혼/사별/별거	47.4	21.1	15.8	5.3	10.5	-	100.0 (19)
$\chi^2(df)$			25.7(12)*				

(표 IV-1-6 계속)

구 분	경제적으로		부모 공동	자녀의 선택에 따름	부모가		기타	계(수)
	어머니	안정된 부/모			아버지	아닌 혈연자		
자녀유무								
미혼	42.1	32.8	13.1	9.3	2.3	0.4	-	100.0 (259)
기혼유자녀	55.4	29.1	7.7	5.7	1.7	0.1	0.1	100.0 (697)
기혼무자녀	43.9	31.6	8.8	12.3	3.5	-	-	100.0 (57)
$\chi^2(df)$				22(12)*				
자녀수								
0명	42.4	32.6	12.3	9.8	2.5	0.3	-	100.0 (316)
1명	54.4	28.4	7.7	7.1	1.8	0.6	-	100.0 (169)
2명	55.1	30.4	7.6	4.9	1.8	-	0.2	100.0 (450)
3명이상	59.0	23.1	9.0	7.7	1.3	-	-	100.0 (78)
$\chi^2(df)$				25.7(18)				
맞벌이 여부								
맞벌이	57.4	28.2	7.3	5.3	1.6	-	0.2	100.0 (451)
외벌이	50.2	31.0	8.6	7.6	2.3	0.3	-	100.0 (303)
$\chi^2(df)$				6.8(6)				
거주지역								
대도시	50.7	32.8	6.6	8.1	1.5	0.2	-	100.0 (467)
중소도시	49.8	28.2	13.5	5.9	2.5	0.2	-	100.0 (408)
읍면동	58.0	27.5	5.1	6.5	2.2	-	0.7	100.0 (138)
$\chi^2(df)$				26.7(1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47.4	30.3	10.3	10.3	1.7	-	-	100.0 (175)
300~450만 미만	54.3	28.4	7.2	7.7	1.6	0.5	0.2	100.0 (429)
450~600만 미만	52.6	31.9	9.2	4.4	2.0	-	-	100.0 (251)
600만 이상	45.6	32.3	13.3	5.7	3.2	-	-	100.0 (158)
$\chi^2(df)$				19.5(18)				
교육수준								
고졸이하	59.3	23.7	8.8	5.7	2.6	-	-	100.0 (388)
대학 재학	38.8	37.4	12.9	7.9	2.2	0.7	-	100.0 (139)
대학 졸업 이상	48.6	33.3	8.4	7.8	1.4	0.2	0.2	100.0 (486)
$\chi^2(df)$				28.4(12)**				

* $p < .05$, ** $p < .01$

나. 양육 정서

양육 정서에 대한 8가지 항목별(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음, ②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음, ③ 참고만 사는 것 같음, ④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질 때가 많음, ⑤ 자녀가 잘 성장할지 걱정됨, ⑥ 내 자신도 함께 성장함을 느낌, ⑦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⑧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함) 응답자의 동의정도에 대한 평정 결과(4점 만점)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②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음, ③ 참고만 사는

것 같음, ④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질 때가 많음)에 대한 평균 점수가 2.2~2.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자녀양육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감정은 평균 2.8점이었으며,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⑥ 내 자신도 함께 성장함을 느낌, ⑦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의 평균 점수는 3.1~3.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보고하였는데, 자녀가 한명인 경우보다, 자녀가 2~3이상인 경우에 더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양육 정서와 관련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고졸 이하 혹은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에 비해 자녀에 대해 짜증스러운 느낌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자녀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고 인식하였다. 자녀의 수가 많은 가정(2~3이상)의 부모는 자녀가 1명만 있는 자녀의 부모들보다, 맞벌이 부모가 외벌이 부모에 비해 자녀에게 화풀이 하고 싶어질 때가 더 있다고 보고하였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혹은 여러 명의 자녀를 동시에 돌보아야하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이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인식은 줄어들었다. 특히, 20대 부모들이 30, 40, 50대 부모들에 비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비슷하게, 20대 여성이 다른 연령대의 부모들과 비교했을 때 자녀를 키우면서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IV-1-7〉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

단위: 점(명)

구 분	혼란스러울 때가 많음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음	참고만 사는 것 같음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질 때가 많음	자녀가 잘 성장할지 걱정됨	내자신도 함께 성장함을 느낌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함	(\sum)
전체	2.8	2.3	2.4	2.2	3.0	3.1	3.2	2.8	(697)
성별									
여성	2.8	2.4	2.5	2.2	3.0	3.1	3.2	2.8	(373)
남성	2.8	2.3	2.3	2.2	3.0	3.1	3.2	2.9	(324)
$\chi^2(df)/t$	0.7	10.0	2.1*	0.6	-	-0.4	-1.7	-1.1	

(표 IV-1-7 계속)

구 분	혼란스러울 때가 많음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음	참고만 사는 것 같음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질 때가 많음	자녀가 잘 성장할지 걱정됨	내자신도 함께 성장함을 느낌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함	(수)
연령대									
20대	3.0	2.3	2.1	2.0	3.2	3.4	3.4	3.0	(22)
30대	2.8	2.4	2.3	2.1	3.0	3.1	3.2	2.7	(157)
40대	2.8	2.3	2.4	2.3	3.1	3.1	3.2	2.9	(260)
50대	2.8	2.4	2.5	2.2	3.0	3.0	3.2	2.9	(258)
$\chi^2(df)/F$	0.6	0.3	3*	1.9	0.4	4.8**	1.4	2.6	
성연령									
20대 여성	2.8	2.1	2.1	2.1	3.1	3.4	3.5	3.1	(16)
20대 남성	3.3	2.7	2.2	1.8	3.3	3.5	3.2	2.5	(6)
30대 여성	2.9	2.4	2.4	2.1	3.1	3.2	3.2	2.7	(90)
30대 남성	2.7	2.4	2.2	2.1	2.9	3.0	3.2	2.7	(67)
40대 여성	2.8	2.4	2.4	2.3	3.1	3.1	3.1	2.9	(134)
40대 남성	2.7	2.2	2.3	2.3	3.0	3.2	3.3	2.9	(126)
50대 여성	2.8	2.3	2.5	2.2	3.0	3.0	3.2	2.8	(133)
50대 남성	2.9	2.4	2.5	2.2	3.1	3.1	3.2	2.9	(125)
$\chi^2(df)/F$	1.4	1.0	2.3*	0.9	0.8	2.8**	3**	1.9	
자녀수									
1명	2.7	2.3	2.3	2.0	3.0	3.1	3.2	2.8	(169)
2명	2.8	2.3	2.4	2.3	3.0	3.1	3.2	2.9	(450)
3명 이상	2.8	2.5	2.4	2.2	3.1	3.0	3.2	2.9	(78)
$\chi^2(df)/F$	3.6*	1.2	2.5	4.4*	0.1	0.6	0.4	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	2.4	2.4	2.3	3.0	3.1	3.2	2.9	(410)
외벌이	2.8	2.3	2.4	2.1	3.1	3.1	3.2	2.8	(287)
$\chi^2(df)/t$	0.8	0.8	1.1	2.2*	-1.4	1.5	-0.9	1.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9	2.5	2.4	2.3	3.2	3.1	3.1	2.9	(110)
300~450만 미만	2.8	2.3	2.4	2.2	3.0	3.1	3.2	2.8	(311)
450~600만 미만	2.8	2.3	2.3	2.2	3.0	3.1	3.2	2.9	(170)
600만 이상	2.8	2.3	2.6	2.2	3.0	3.1	3.2	2.9	(106)
$\chi^2(df)/F$	1.4	1.5	2.5	0.3	1.2	0.2	1.5	0.5	
교육수준									
고졸이하	2.8	2.4	2.4	2.2	3.0	3.1	3.2	2.8	(317)
대학 재학	3.0	2.6	2.5	2.3	3.3	3.2	3.1	2.9	(47)
대학 졸업 이상	2.8	2.3	2.3	2.2	3.0	3.1	3.2	2.9	(333)
$\chi^2(df)/F$	1.5	3.9*	20.0	1.1	2.0	2.2	2.2	0.1	

* $p < .05$, ** $p < .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부모로서 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측면에 대한 질문에 전체 57%의 응답자들은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측면이라 보고하였다. 뒤이어 23.5%의 응답자는 자녀

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가활동 공유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였다. 눈에 띄는 것은 50대 남성의 경우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가 두 번째로 높게 보고한 점이다(20.2%). 다른 연령대와 성별대의 부모보다 청년기의 자녀를 둔 퇴직을 앞둔 50대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얻는 지지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8〉 자녀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점

단위: %(명)

구 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자녀 돌봄과 지도	계 (수)
전체	57.0	23.5	17.5	2.0	100.0 (697)
성별					
여성	55.5	26.0	16.6	1.9	100.0 (373)
남성	58.6	20.7	18.5	2.2	100.0 (324)
$\chi^2(df)$		2.8(3)			
연령대					
20대	68.2	18.2	13.6	-	100.0 (22)
30대	45.2	35.7	16.6	2.5	100.0 (157)
40대	59.2	22.7	15.8	2.3	100.0 (260)
50대	60.9	17.4	20.2	1.6	100.0 (258)
$\chi^2(df)$		22.3(9)**			
성연령					
20대 여성	56.3	25.0	18.8	-	100.0 (16)
20대 남성	100.0	-	-	-	100.0 (6)
30대 여성	45.6	34.4	17.8	2.2	100.0 (90)
30대 남성	44.8	37.3	14.9	3.0	100.0 (67)
40대 여성	57.5	24.6	16.4	1.5	100.0 (134)
40대 남성	61.1	20.6	15.1	3.2	100.0 (126)
50대 여성	60.2	21.8	15.8	2.3	100.0 (133)
50대 남성	61.6	12.8	24.8	0.8	100.0 (125)
$\chi^2(df)$		33.7(21)*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7.3	23.6	19.1	-	100.0 (110)
300~450만 미만	60.8	23.2	13.8	2.3	100.0 (311)
450~600만 미만	61.2	19.4	15.9	3.5	100.0 (170)
600만 이상	38.7	31.1	29.2	0.9	100.0 (106)
$\chi^2(df)$		27.4(9)**			

* $p < .05$, ** $p < .01$

부모로서 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측면은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장 높게 보고하였다(전체 33.9%). 양육비용 부담 외에 연령대 별로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20~40대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을 어려워하는 반면, 50대 부모는 자녀의 학업, 직업적 성취를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가정(47.4%)과 저소득 가정(51.9%)의 경우, 비용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IV-1-9〉 자녀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

단위: %(명)

구 분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자녀의 학업/ 직업적 성취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심리적 안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자녀의 신체적 건강	배우자 의 무관심, 부재	기타	계 (수)
전체	33.9	20.7	17.1	9.0	7.7	5.9	3.2	1.6	1.0	100.0 (697)
성별										
여성	32.4	22.3	18.0	6.4	8.0	6.4	2.9	2.7	0.8	100.0 (373)
남성	35.5	18.8	16.0	12.0	7.4	5.2	3.4	0.3	1.2	100.0 (324)
$\chi^2(df)$					15(8)					
연령대										
20대	40.9	31.8	4.5	4.5	4.5	9.1	4.5	-	-	100.0 (22)
30대	34.4	19.7	8.9	12.1	5.7	14.0	3.8	0.6	0.6	100.0 (157)
40대	35.0	23.1	15.8	8.1	10.4	2.7	3.5	0.8	0.8	100.0 (260)
50대	31.8	17.8	24.4	8.5	6.6	3.9	2.3	3.1	1.6	100.0 (258)
$\chi^2(df)$					59.5(24)***					
성연령										
20대 여성	50.0	25.0	-	6.3	-	12.5	6.3	-	-	100.0 (16)
20대 남성	16.7	50.0	16.7	-	16.7	-	-	-	-	100.0 (6)
30대 여성	32.2	17.8	8.9	13.3	7.8	16.7	1.1	1.1	1.1	100.0 (90)
30대 남성	37.3	22.4	9.0	10.4	3.0	10.4	7.5	-	-	100.0 (67)
40대 여성	30.6	26.1	20.1	3.7	11.2	2.2	3.7	1.5	0.7	100.0 (134)
40대 남성	39.7	19.8	11.1	12.7	9.5	3.2	3.2	-	0.8	100.0 (126)
50대 여성	32.3	21.1	24.1	4.5	6.0	3.0	3.0	5.3	0.8	100.0 (133)
50대 남성	31.2	14.4	24.8	12.8	7.2	4.8	1.6	0.8	2.4	100.0 (125)
$\chi^2(df)$					106.9(56)***					
자녀수										
1명	34.9	23.1	8.3	8.3	9.5	10.1	3.6	1.2	1.2	100.0 (169)
2명	31.1	21.3	20.2	9.1	6.9	4.9	3.3	2.0	1.1	100.0 (450)
3명 이상	47.4	11.5	17.9	10.3	9.0	2.6	1.3	-	-	100.0 (78)
$\chi^2(df)$					31.8(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7	25.6	19.5	9.0	8.0	3.2	1.5	1.5	1.0	100.0 (410)
외벌이	38.3	13.6	13.6	9.1	7.3	9.8	5.6	1.7	1.0	100.0 (287)
$\chi^2(df)$					39.9(8)***					

(표 IV-1-9 계속)

구 분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자녀의 학업/ 직업적 성취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심리적 안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자녀의 신체적 건강	배우자 의 무관심, 부재	기타	계 (수)
거주지역										
대도시	37.5	18.4	16.8	8.9	9.2	4.1	1.9	1.6	1.6	100.0 (315)
중소도시	30.9	18.4	18.4	11.0	7.4	7.1	5.0	1.4	0.4	100.0 (282)
읍면동	31.0	34.0	14.0	4.0	4.0	8.0	2.0	2.0	1.0	100.0 (100)
$\chi^2(df)$	30.3(16)*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46.4	16.4	13.6	4.5	6.4	8.2	2.7	1.8	-	100.0 (110)
300-450만 미만	37.6	17.0	17.0	9.0	7.4	6.8	2.9	1.3	1.0	100.0 (311)
450-600만 미만	30.0	26.5	15.3	10.0	8.2	4.1	3.5	1.8	0.6	100.0 (170)
600만 이상	16.0	26.4	23.6	12.3	9.4	3.8	3.8	1.9	2.8	100.0 (106)
$\chi^2(df)$	41.5(24)*									
교육수준										
고졸이하	39.7	17.7	19.6	7.9	5.7	3.5	2.5	2.5	0.9	100.0 (317)
대학 재학	27.7	31.9	17.0	8.5	10.6	2.1	2.1	-	-	100.0 (47)
대학 졸업 이상	29.1	21.9	14.7	10.2	9.3	8.7	3.9	0.9	1.2	100.0 (333)
$\chi^2(df)$	31.1(16)*									

* $p < .05$, *** $p < .001$

2. 양육 시간 및 비용

가. 양육 시간

주중(5일 기준)과 주말(2일 기준)을 구분하여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각각 질문한 결과, 주말에 비해 주중에 어머니와 아버지 간 격차가 발견되었다. 어머니가 더 아버지에 비해 자녀와 오랜 시간 동안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30대, 40대 부모, 자녀수가 1, 2명인 가정, 대도시, 중소도시 거주 가정, 월 가구소득이 450만원 미만인 가정, 부모의 교육수준이 대학재학 이상인 경우에 두드러졌다. 주말의 경우 고향력 어머니 아버지 집단(어머니>아버지)을 제외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주중 부모가 자녀와 보낸 시간은 5일 간의 시간을 합한 값이고, 주말은 2일간의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하루 평균 어머니-자녀, 아버지-자녀의 상호작

용시간은 주중(어머니=1.08시간, 아버지=0.58시간)보다 주말(어머니=2시간, 아버지=1.85시간)에 더 긴 편이다. 대체적으로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상호작용 하는 시간이 긴 편이었고, 특히 어머니가 고학력인 경우에 자녀와 함께 보내는 주중, 주말 시간이 저학력 어머니에 비해 길었다.

〈표 IV-2-1〉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

단위: 시간(명)

구 분	주중			주말			(수)	
	어머니	아버지	t	어머니	아버지	t	어머니	아버지
전체	5.4	2.9	5.2***	4.0	3.7	0.7	(373)	(324)
연령대								
20대	11.2	6.9	0.6	7.2	10.8	-1.0	(16)	(6)
30대	9.8	4.7	3.6***	6.5	6.5	-	(90)	(67)
40대	4.9	3.0	3.4***	4.2	3.9	0.6	(134)	(126)
50대	2.2	1.6	1.7	1.7	1.7	-0.2	(133)	(125)
F	22***	11***		28.2***	23.5***			
자녀수								
1명	6.8	3.8	2.4*	4.6	5.0	-0.4	(87)	(82)
2명	5.1	2.6	4.7***	3.8	3.4	1.0	(242)	(208)
3명 이상	3.9	2.6	1.6	3.8	2.8	1.3	(44)	(34)
F	2.3	2.4		1.0	3.9*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	2.9	2.7**	3.8	3.4	0.7	(238)	(172)
외벌이	7.2	2.9	4.7***	4.5	4.1	0.6	(135)	(152)
t	-3.1**	0.1		-1.4	-1.2			
거주지역								
대도시	5.6	2.8	4***	4.7	4.1	0.9	(176)	(139)
중소도시	5.4	2.7	3.6***	3.3	3.2	0.2	(151)	(131)
읍면동	4.3	3.6	0.6	3.7	4.0	-0.3	(46)	(54)
F	0.5	1.1		3.7*	1.3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6.7	3.2	2.4*	4.9	3.7	1.3	(51)	(59)
300~450만 미만	6.2	2.8	4.6***	4.3	4.2	0.1	(175)	(136)
450~600만 미만	3.8	3.2	4.6***	4.3	4.2	0.1	(175)	(81)
600만 이상	3.8	2.3	1.0	3.4	3.6	-0.3	(89)	(48)
600만 이상	4.1	0.6	1.4	3.3	2.7	0.9	(58)	
F	2.7*			1.6	1.2			
교육수준								
고졸이하	3.7	2.8	1.8	2.7	3.4	-1.2	(190)	(127)
대학 재학	5.4	2.8	2.3*	5.1	4.9	0.2	(24)	(23)
대학 졸업 이상	7.4	3.0	4.9***	5.4	3.9	2.8**	(159)	(174)
F	9.3***	0.1		16.8***	1.1			

* $p < .05$, ** $p < .01$, *** $p < .001$

자녀를 위한 양육활동 시간을 질문한 결과,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다양한 양육 활동에 장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목욕, 식사 등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챙기는 시간(4.1시간), 학습지도/진로상담 시간(1.2시간), 자녀의 등하교를 돕는 시간(0.8시간)은 아버지(1.8시간, 0.6시간, 0.3시간)보다 2배 이상 길었다.

어머니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외벌이일 경우에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관련된 양육활동에 더 오랜 시간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녀의 학습지도에 가장 적극적인 부모 집단은 30대 어머니였고, 아버지 집단 가운데 40대 아버지, 맞벌이 가정의 아버지가 학습지도에 조금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어머니(9.6시간), 20대 아버지(8.5시간)는 다른 모든 성·연령 집단 중에서 자녀와 놀이하기 및 자녀의 등하교 도움에 가장 긴 시간을 소비하였다. 자녀수가 적을수록, 어머니 아버지 모두 더 오랜 시간 아이와 놀아주는 경향이 있었으며, 외벌이 어머니, 대학에 재학 중인 어머니의 놀이 참여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20대 어머니는 자녀 등·하원을 돕기 위해 모든 성·연령 집단 중 가장 많은 시간(3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자녀양육 활동에의 참여시간

단위: 시간(명)

구 분	일상생활			학습지도/진로상담			놀이주기/여가시간 함께 보내기			교육/보육 기관 및 학교 등하교 도움			(수)	
	모	부	t	모	부	t	모	부	t	모	부	t	모	부
전체	4.1	1.8	7.6***	1.2	0.6	5.4***	3.2	2.5	1.5	0.8	0.3	4.6***	(373)	(324)
연령대														
20대	5.8	6.2	-0.10	1.7	0.2	4***	9.6	8.3	0.20	3.0	0.4	0.90	(16)	(6)
30대	6.5	1.9	6***	1.9	0.6	5.3***	6.8	5.1	1.0	1.5	0.4	5.2***	(90)	(67)
40대	3.6	2.2	3.4***	1.3	0.8	2.2*	2.3	2.5	-0.5	0.8	0.4	3.1**	(134)	(126)
50대	2.6	1.1	4.2***	0.6	0.3	1.7	0.9	0.8	0.3	0.1	0.2	-0.7	(133)	(125)
F	13.2***	9.8***		8.3***	5.6***		17.6***	16***		17.1***	2.3			
자녀수														
1명	4.6	1.8	4.2***	1.0	0.6	2.1*	5.0	3.7	1.1	1.0	0.2	4.4***	(87)	(82)
2명	4.0	1.8	6***	1.3	0.5	4.8***	2.8	2.2	1.0	0.8	0.3	3.1**	(242)	(208)
3명 이상	3.0	1.6	2.5*	1.2	0.6	1.3	1.8	1.3	1.0	0.6	0.4	0.9	(44)	(34)
F	1.4	-		0.5	0.2		3.5*	3.8*		0.60	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	1.9	4.3***	1.1	0.7	2.7**	2.5	2.0	0.9	0.7	0.4	2.1*	(238)	(172)
외벌이	5.4	1.6	6.3***	1.4	0.4	5***	4.5	3.0	1.5	1.0	0.2	5.3***	(135)	(152)
t	-3.4***	1.0		-1.3	2.1*		-2.1*	-1.8		-1.4	1.8			

(표 IV-2-2 계속)

구분	일상생활			학습지도/진로상담			놀이주기/여가시간 함께 보내기			교육/보육 기관 및 학교 등학교 도움			(수)	
	모	부	t	모	부	t	모	부	t	모	부	t	모	부
거주지역														
대도시	4.2	1.7	5.7***	1.4	0.5	4.5***	3.7	2.9	0.8	0.8	0.2	3.1**	(176)	(139)
중소도시	3.9	1.7	4.7***	1.1	0.6	3.4***	2.8	2.2	1.1	0.8	0.3	3.8***	(151)	(131)
읍면동	4.0	2.1	2.3*	0.9	0.7	0.4	2.6	2.0	0.7	0.6	0.5	0.8	(46)	(54)
F	0.1	0.5		1.9	1.0		0.6	1.1		0.2	2.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4.7	2.0	2.8**	1.2	0.7	1.6	4.9	2.9	1.3	0.9	0.3	2.9**	(51)	(59)
300~450만	4.5	1.7	6.3***	1.4	0.5	5.2***	3.2	2.6	1.0	1.0	0.3	3.1**	(175)	(136)
450~600만	4.0	2.0	3.6***	1.1	0.7	1.7	3.2	2.5	0.5	0.7	0.3	2*	(89)	(81)
600만 이상	2.1	1.4	1.5	0.7	0.4	1.4	1.9	1.6	0.5	0.5	0.3	1.4	(58)	(48)
F	3.9**	0.8		1.9	1.3		1.4	0.8		1.0	-			
교육수준														
고졸이하	3.2	1.7	3.9***	0.8	0.5	2.2*	1.8	2.2	-0.8	0.6	0.3	1.5	(190)	(127)
대학 재학	4.8	1.5	4***	1.9	0.4	2.9**	4.9	3.0	1.2	1.1	0.2	2.5*	(24)	(23)
대학졸업이상	5.0	1.9	6.2***	1.7	0.7	4.6***	4.7	2.7	2.2*	1.0	0.3	5.2***	(159)	(174)
F	6.1**	0.3		9.9***	1.3		7.4***	0.5		2.2	0.3			

* $p < .05$, ** $p < .01$, *** $p < .001$

나. 자녀와의 대화 및 소통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어린 20대(40.9%), 30대(33.1%)의 부모는 자녀와 놀이(학습지도)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는 편인데 반해, 40대(48.1%), 50대(63.2%)의 경우, 식사(외식)하면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월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식사(외식)하면서 대화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2-3〉 자녀와 주로 대화하는 시간

단위: %(명)

구분	식사(외식)하면서	학교·퇴근 후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와 놀이(학습지도)시간 가지면서	자녀를 데려다 주는 등 이동 시간에	따로 둘만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가사일(요리, 청소) 중에	기타	계(수)
전체	47.5	26.0	12.5	5.7	4.0	1.7	2.6	100.0 (697)
성별								
여성	46.6	24.4	13.4	6.2	3.8	2.9	2.7	100.0 (373)
남성	48.5	27.8	11.4	5.2	4.3	0.3	2.5	100.0 (324)
$\chi^2(df)$				8.9(6)				

(표 IV-2-3 계속)

구 분	식사 (외식) 하면서	하교· 퇴근 후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와 놀이 (학습 지도)시간 가지면서	자녀를 데려다 주는 등 이동 시간에	따로 돌만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가사일 (요리, 청소) 중에	기타	계 (수)
연령대								
20대	22.7	22.7	40.9	9.1	-	-	4.5	100.0 (22)
30대	24.2	28.7	33.1	6.4	1.3	0.6	5.7	100.0 (157)
40대	48.1	31.2	7.7	7.7	3.1	1.2	1.2	100.0 (260)
50대	63.2	19.4	2.3	3.1	7.0	3.1	1.9	100.0 (258)
$\chi^2(df)$				164.7(18)***				
성연령								
20대 여성	12.5	18.8	50.0	12.5	-	-	6.3	100.0 (16)
20대 남성	50.0	33.3	16.7	-	-	-	-	100.0 (6)
30대 여성	24.4	24.4	34.4	6.7	2.2	1.1	6.7	100.0 (90)
30대 남성	23.9	34.3	31.3	6.0	-	-	4.5	100.0 (67)
40대 여성	52.2	28.4	5.2	8.2	3.0	2.2	0.7	100.0 (134)
40대 남성	43.7	34.1	10.3	7.1	3.2	-	1.6	100.0 (126)
50대 여성	60.2	21.1	3.0	3.0	6.0	5.3	1.5	100.0 (133)
50대 남성	66.4	17.6	1.6	3.2	8.0	0.8	2.4	100.0 (125)
$\chi^2(df)$				189.9(42)***				
자녀수								
1명	32.5	28.4	25.4	4.1	3.6	0.6	5.3	100.0 (169)
2명	53.6	24.0	8.4	5.8	4.7	2.0	1.6	100.0 (450)
3명 이상	44.9	32.1	7.7	9.0	1.3	2.6	2.6	100.0 (78)
$\chi^2(df)$				56.5(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2.2	26.6	7.8	6.3	3.7	1.7	1.7	100.0 (410)
외벌이	40.8	25.1	19.2	4.9	4.5	1.7	3.8	100.0 (287)
$\chi^2(df)$				26.1(6)***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40.0	27.3	17.3	2.7	5.5	2.7	4.5	100.0 (110)
300~450만 미만	46.9	24.4	14.5	6.1	2.9	3.9	1.3	100.0 (311)
450~600만 미만	50.0	29.4	9.4	7.1	3.5	-	0.6	100.0 (170)
600만 이상	52.8	23.6	6.6	5.7	6.6	2.8	1.9	100.0 (106)
$\chi^2(df)$				29.6(18)*				
교육수준								
고졸이하	57.4	21.8	6.9	4.4	5.0	2.5	1.9	100.0 (317)
대학 재학	53.2	27.7	10.6	2.1	2.1	2.1	2.1	100.0 (47)
대학 졸업 이상	37.2	29.7	18.0	7.5	3.3	0.9	3.3	100.0 (333)
$\chi^2(df)$				43.7(12)***				

* $p < .05$, *** $p < .001$

자녀와 나누는 대화 주제로는 전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일상생활, 하루지낸 이야기를 가장 빈번하게 나누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8.5%). 20, 30, 40대 부모들은 자녀의 생활태도, 습관에 관한 주제를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 다음으로 많이 이야기하였으나, 50대의 부모는 자녀의 장래, 진로, 미래계획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가정에서 저소득 가정에 비해 자녀의 진로, 미래계획에 대해 더 빈번히 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V-2-4〉 자녀와의 대화 주제: 1순위

단위: %(명)

구분	일상 생활, 하루 지낸 이야기	생활 태도, 습관	장래 진로, 미래 계획	대인/교우 관계, 사회 생활	학업 및 학습	계획, 스케줄 공유	개인의 심리 정서 상태	기타	계 (수)
전체	38.5	14.6	13.2	11.6	10.8	6.3	3.0	2.0	100.0 (697)
성별									
여성	36.5	14.5	14.2	11.5	11.0	8.0	2.4	1.9	100.0 (373)
남성	40.7	14.8	12.0	11.7	10.5	4.3	3.7	2.2	100.0 (324)
$\chi^2(df)$				6.3(7)					
연령대									
20대	31.8	31.8	4.5	-	4.5	-	22.7	4.5	100.0 (22)
30대	47.1	20.4	1.3	7.0	9.6	6.4	3.8	4.5	100.0 (157)
40대	36.9	15.0	12.3	12.3	13.8	6.5	1.9	1.2	100.0 (260)
50대	35.3	9.3	22.1	14.7	8.9	6.6	1.9	1.2	100.0 (258)
$\chi^2(df)$				102.2(21)***					
성연령									
20대 여성	31.3	31.3	6.3	-	6.3	-	18.8	6.3	100.0 (16)
20대 남성	33.3	33.3	-	-	-	-	33.3	-	100.0 (6)
30대 여성	41.1	22.2	1.1	11.1	12.2	7.8	2.2	2.2	100.0 (90)
30대 남성	55.2	17.9	1.5	1.5	6.0	4.5	6.0	7.5	100.0 (67)
40대 여성	29.9	14.9	17.9	11.2	14.2	9.0	2.2	0.7	100.0 (134)
40대 남성	44.4	15.1	6.3	13.5	13.5	4.0	1.6	1.6	100.0 (126)
50대 여성	40.6	6.8	20.3	13.5	7.5	8.3	0.8	2.3	100.0 (133)
50대 남성	29.6	12.0	24.0	16.0	10.4	4.8	3.2	-	100.0 (125)
$\chi^2(df)$				143.3(49)***					
자녀수									
1명	36.1	21.3	10.1	7.1	10.1	5.3	4.1	5.9	100.0 (169)
2명	38.0	12.9	14.0	13.1	11.3	6.9	2.9	0.9	100.0 (450)
3명 이상	46.2	10.3	15.4	12.8	9.0	5.1	1.3	-	100.0 (78)
$\chi^2(df)$				34.1(14)**					

(표 IV-24 계속)

구 분	일상 생활, 하루 지낸 이야기	생활 태도, 습관	장래 진로, 미래 계획	대인/ 교우 관계, 사회 생활	학업 및 학습	계획, 스케줄 공유	개인의 심리 정서 상태	기타	계 (수)
거주지역									
대도시	37.1	15.6	11.1	11.4	12.4	7.0	1.6	3.8	100.0 (315)
중소도시	39.4	13.1	16.7	11.3	10.3	4.3	4.3	0.7	100.0 (282)
읍면동	40.0	16.0	10.0	13.0	7.0	10.0	4.0	-	100.0 (100)
$\chi^2(df)$				25.4(1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40.9	22.7	10.9	7.3	9.1	7.3	0.9	0.9	100.0 (110)
300~450만 미만	40.5	14.1	15.1	11.3	7.1	5.5	3.2	3.2	100.0 (311)
450~600만 미만	33.5	15.3	8.8	12.9	16.5	7.1	4.1	1.8	100.0 (170)
600만 이상	37.7	6.6	17.0	15.1	14.2	6.6	2.8	-	100.0 (106)
$\chi^2(df)$				38(21)*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와 빈번히 나누는 대화주제에 관해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합산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6%가 일상생활, 하루지낸 이야기를 선택하였고, 52.4%가 대인관계 사회생활, 48.4%가 생활 태도와 습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다고 보고하였다. 주제별, 연령대별 가장 높은 빈도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20대는 일상생활,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를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생활태도 습관, 40대는 학업 및 학습, 50대는 대인관계, 장래 미래 계획, 스케줄 공유 등으로 연령대별로 대화 주제의 종류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연령대 별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연령이 다르고 이에 따라 수행해야하는 발달 과업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V-2-5〉 자녀와의 대화 주제: 1+2+3순위

단위: %

구 분	일상 생활, 하루 지낸 이야기	대인/ 교우 관계, 사회 생활	생활 태도, 습관	학업 및 학습	장래 진로, 미래 계획	개인의 심리 정서 상태	계획, 스케줄 공유	기타
전체	69.6	52.4	48.4	37.3	36.2	23.0	21.7	2.0

(표 IV-2-5 계속)

구분	일상 생활, 하루 지낸 이야기	대인/교우 관계, 사회 생활	생활 태도, 습관	학업 및 학습	장래 진로, 미래 계획	개인의 심리 정서 상태	계획, 스케줄 공유	기타
성별								
여성	70.0	55.8	47.5	38.3	35.1	20.6	25.2	1.9
남성	69.1	48.5	49.4	36.1	37.3	25.6	17.6	2.2
연령대								
20대	77.3	36.4	59.1	13.6	4.5	63.6	13.6	4.5
30대	72.6	43.9	60.5	38.9	12.1	28.7	18.5	4.5
40대	65.4	52.3	52.3	51.9	34.6	17.7	21.2	1.2
50대	71.3	58.9	36.0	23.6	55.0	21.3	24.8	1.2
자녀수								
1명	68.6	50.9	55.6	29.6	23.7	26.0	17.8	5.9
2명	70.0	53.8	44.0	39.6	40.4	22.0	23.1	0.9
3명 이상	69.2	47.4	57.7	41.0	38.5	21.8	21.8	-
맞벌이 여부								
맞벌이	69.3	57.1	44.6	39.5	37.6	21.0	22.0	2.0
외벌이	70.0	45.6	53.7	34.1	34.1	25.8	21.3	2.1
거주지역								
대도시	65.7	55.6	49.2	37.8	32.4	23.2	22.9	3.8
중소도시	70.6	49.6	48.6	37.2	40.1	25.5	17.7	0.7
읍면동	79.0	50.0	45.0	36.0	37.0	15.0	29.0	-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70.0	49.1	56.4	35.5	37.3	20.0	22.7	0.9
300~450만 미만	69.8	51.1	52.4	36.0	35.7	22.8	18.3	3.2
450~600만 미만	67.1	49.4	47.6	44.1	33.5	21.8	24.1	1.8
600만 이상	72.6	64.2	29.2	32.1	40.6	28.3	26.4	-
교육수준								
고졸이하	71.6	57.1	44.5	36.0	41.0	18.3	21.8	1.9
대학 재학	76.6	42.6	55.3	40.4	31.9	27.7	21.3	-
대학 졸업 이상	66.7	49.2	51.1	38.1	32.1	26.7	21.6	2.4

자녀가 대화를 원치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응답자의 44.9% 부모는 나중에 자녀가 원할 때 대화하자고 제안한다고 보고하였고, 23.8%는 주제를 바꿔 대화를 시도한다고 보고하였다. 가구소득이 낮은 부모(300이하, 20.9%)와 저학력의 부모(21.1%)는 고소득, 고학력의 부모들에 비해 대화를 중단하고 회피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2-6〉 자녀가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의 부모 행동

단위: %(명)

구 분	나중에 자녀가 원할 때 대화 하자고 제안함	주제를 바꿔 대화를 시도함	대화를 중단하고 회피함	동일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지속함	자녀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함	기타	계 (수)
전체	44.9	23.8	15.4	7.9	6.7	1.3	100.0 (697)
성별							
여성	44.0	24.7	16.1	6.4	8.0	0.8	100.0 (373)
남성	46.0	22.8	14.5	9.6	5.2	1.9	100.0 (324)
<i>t</i>			6.3(5)				
연령대							
20대	50.0	22.7	4.5	9.1	9.1	4.5	100.0 (22)
30대	34.4	34.4	12.1	8.3	5.7	5.1	100.0 (157)
40대	48.8	21.5	15.8	8.1	5.8	-	100.0 (260)
50대	46.9	19.8	17.8	7.4	8.1	-	100.0 (258)
<i>F</i>			46.5(15)***				
성연령							
20대 여성	50.0	31.3	-	-	12.5	6.3	100.0 (16)
20대 남성	50.0	-	16.7	33.3	-	-	100.0 (6)
30대 여성	35.6	34.4	14.4	6.7	6.7	2.2	100.0 (90)
30대 남성	32.8	34.3	9.0	10.4	4.5	9.0	100.0 (67)
40대 여성	47.0	23.9	17.2	5.2	6.7	-	100.0 (134)
40대 남성	50.8	19.0	14.3	11.1	4.8	-	100.0 (126)
50대 여성	45.9	18.0	18.0	8.3	9.8	-	100.0 (133)
50대 남성	48.0	21.6	17.6	6.4	6.4	-	100.0 (125)
<i>F</i>			79(35)***				
자녀수							
1명	44.4	25.4	14.2	5.9	5.3	4.7	100.0 (169)
2명	46.4	21.6	15.8	9.1	6.9	0.2	100.0 (450)
3명 이상	37.2	33.3	15.4	5.1	9.0	-	100.0 (78)
<i>F</i>			29.6(1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5.5	18.2	20.9	10.0	12.7	2.7	100.0 (110)
300~450만 미만	47.3	25.1	15.4	6.8	4.2	1.3	100.0 (311)
450~600만 미만	41.2	26.5	16.5	8.8	6.5	0.6	100.0 (170)
600만 이상	53.8	21.7	7.5	7.5	8.5	0.9	100.0 (106)
<i>F</i>			27.1(15)*				
교육수준							
고졸이하	42.0	20.2	21.1	6.9	8.8	0.9	100.0 (317)
대학 재학	40.4	36.2	14.9	6.4	2.1	-	100.0 (47)
대학 졸업 이상	48.3	25.5	9.9	9.0	5.4	1.8	100.0 (333)
<i>F</i>			27.2(10)**				

* $p < .05$, ** $p < .01$, *** $p < .001$

다. 자녀 훈육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난 3개월간 7가지 양육행동 항목에서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연령별로 특정 양육행동 빈도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자녀의 잘못 말로 타이르기, 자녀가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게 하기, 올바른 행동했을 때 칭찬해주기와 같은 긍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겁을 주기, 자녀의 잘못에 소리치고 화내기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빈도, 50대가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50대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청소년기이거나 성인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훈육 차원의 양육행동 빈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영유아 자녀를 양육할 확률이 높은 20대의 부모는 아이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잡기 위해 다양한 양육행동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1명 혹은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녀의 주도성을 격려하고 자녀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동시에 자녀가 잘못할 경우에 감정적이 되어 더 많이 소리치거나 화내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교육 수준이 낮은 부모보다 더 자주 올바른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해주고, 자녀가 모르는 것을 질문했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지난 3개월 간 양육행동 빈도

단위: 점(점), (명)

구 분	자녀의 잘못 말로 타이르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주기	자녀가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게 하기	자녀가 모르는 것을 몇 번이고 설명해 주기	올바른 행동했을 때 칭찬해 주기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 자녀 뜻을 꺾기 위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겁줌	자녀의 잘못에 소리치고 화내기	(수)
전체	2.5 (0.8)	2.6 (0.9)	2.7 (0.8)	2.5 (0.8)	2.9 (0.9)	1.9 (0.8)	1.9 (0.7)	(697)
성별								
여성	2.6 (0.8)	2.6 (0.9)	2.7 (0.8)	2.6 (0.8)	2.9 (0.9)	1.9 (0.8)	1.9 (0.7)	(373)
남성	2.4 (0.8)	2.5 (0.8)	2.7 (0.8)	2.5 (0.9)	2.9 (0.9)	1.8 (0.8)	1.9 (0.7)	(324)
<i>t</i>	1.7	0.9	0.1	1.3	0.5	2.0	1.7	

(표 IV-2-7 계속)

구 분	자녀의 잘못 말로 타이르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자녀가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게 하기	자녀가 모르는 것을 몇 번이고 설명해 주기	올바른 행동했을 때 칭찬해 주기	자녀가 고집을 부릴 때 자녀 뜻을 꺾기 위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겁줌	자녀의 잘못에 소리치고 화내기	(수)
연령대								
20대	2.8 (0.9)	2.6 (0.8)	2.5 (0.9)	2.7 (1.0)	3.1 (0.8)	2.2 (0.9)	2.0 (0.7)	(22)
30대	2.6 (0.8)	2.7 (0.8)	2.6 (0.7)	2.6 (0.9)	3.0 (0.9)	2.0 (0.8)	2.0 (0.7)	(157)
40대	2.6 (0.8)	2.6 (0.8)	2.7 (0.8)	2.7 (0.8)	2.9 (0.9)	1.9 (0.8)	2.0 (0.7)	(260)
50대	2.3 (0.8)	2.5 (0.9)	2.6 (0.8)	2.4 (0.9)	2.8 (0.9)	1.7 (0.8)	1.7 (0.7)	(258)
F	5.9***	1.5	0.9	5**	3.5*	7.5***	6.8***	
자녀수								
1명	2.4 (0.9)	2.4 (0.9)	2.5 (0.9)	2.5 (0.9)	2.9 (1.0)	1.8 (0.8)	1.8 (0.6)	(169)
2명	2.5 (0.8)	2.6 (0.9)	2.7 (0.8)	2.6 (0.8)	2.9 (0.9)	1.9 (0.8)	1.9 (0.7)	(450)
3명 이상	2.4 (0.7)	2.5 (0.8)	2.7 (0.7)	2.5 (0.8)	2.9 (0.8)	2.0 (0.9)	2.0 (0.8)	(78)
F	1.1	3.2*	3.8*	0.7	-	1.5	4.6*	
거주지역								
대도시	2.6 (0.9)	2.6 (0.9)	2.8 (0.8)	2.6 (0.9)	2.9 (0.9)	1.9 (0.8)	1.9 (0.7)	(315)
중소도시	2.4 (0.8)	2.5 (0.8)	2.5 (0.8)	2.4 (0.8)	2.8 (0.9)	1.8 (0.8)	1.8 (0.7)	(282)
읍면동	2.4 (0.7)	2.6 (0.8)	2.7 (0.7)	2.6 (0.8)	3.1 (0.8)	1.9 (0.7)	2.0 (0.6)	(100)
F	6.9**	2.5	5.9**	4.1*	4.6*	0.6	2.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6 (0.8)	2.6 (0.9)	2.7 (0.7)	2.5 (0.9)	2.8 (0.9)	1.9 (0.8)	2.0 (0.8)	(110)
300~450만	2.5 (0.8)	2.6 (0.9)	2.7 (0.8)	2.5 (0.8)	2.9 (0.9)	1.9 (0.7)	1.9 (0.7)	(311)
450~600만	2.4 (0.8)	2.5 (0.8)	2.6 (0.8)	2.6 (0.9)	2.9 (0.9)	1.9 (0.8)	1.9 (0.7)	(170)
600만 이상	2.5 (0.9)	2.6 (1.0)	2.8 (0.9)	2.6 (0.9)	3.0 (0.9)	1.8 (0.8)	1.8 (0.7)	(106)
F	0.9	0.4	0.6	0.6	0.7	0.9	2.4	
교육수준								
고졸이하	2.4 (0.8)	2.5 (0.9)	2.6 (0.8)	2.4 (0.8)	2.8 (0.9)	1.8 (0.7)	1.9 (0.7)	(317)
대학 재학	2.5 (0.7)	2.6 (0.7)	2.7 (0.7)	2.6 (0.8)	2.9 (0.7)	2.2 (0.8)	2.2 (0.8)	(47)
대학졸업이상	2.6 (0.8)	2.6 (0.8)	2.7 (0.8)	2.6 (0.9)	3.0 (0.9)	2.0 (0.8)	1.9 (0.7)	(333)
F	2.1	2.6	0.4	4.5*	4.4*	8.3***	4.8**	

* $p < .05$, ** $p < .01$, *** $p < .001$

라. 양육 비용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총 가구소득 대비 24.8%를 자녀 양육을 위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27.3%, 27%의 가구 소득을 자녀양육비로

쓰고 있었는데, 이는 20대 부모(17.7%)와 50대 부모(21.7%)의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의 비율이 높아져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는 28.7%에 이르렀다(1명(20.1%) < 2명(25.9%) < 3명이상(28.7%)). 총 수입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와 외벌이 가족 간 자녀를 위한 지출의 비율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2-8〉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 지출비용 비율

단위: %(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4.8	16.6	(697)
성별			
여성	24.7	17.0	(373)
남성	24.9	16.3	(324)
<i>t</i>			-0.1
연령대			
20대	17.7	12.6	(22)
30대	27.3	16.2	(157)
40대	27.0	15.4	(260)
50대	21.7	17.8	(258)
<i>F</i>			7.1***
성연령			
20대 여성	17.7	11.0	(16)
20대 남성	17.8	17.4	(6)
30대 여성	28.1	16.1	(90)
30대 남성	26.1	16.4	(67)
40대 여성	27.8	16.6	(134)
40대 남성	26.2	13.9	(126)
50대 여성	20.3	17.3	(133)
50대 남성	23.3	18.3	(125)
<i>F</i>			3.5***
자녀수			
1명	20.1	14.3	(169)
2명	25.9	17.3	(450)
3명 이상	28.7	15.5	(78)
<i>F</i>			1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4.7	15.9	(110)
300~450만 미만	26.1	17.1	(311)
450~600만 미만	24.9	17.3	(170)
600만 이상	21.0	14.4	(106)
<i>F</i>			2.5

*** $p < .001$

현재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 59.7%의 부모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연령, 자녀수,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부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40대 부모들의 비용 부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표 IV-2-9〉 양육지출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단위: %(명), 절

구 분	매우 부담스러움	부담스러움	부담스럽지 않음	전혀 부담안됨	계 (수)	4점 평균
전체	13.1	46.6	31	9.3	100.0 (697)	2.6
성별						
여성	13.9	45	30.8	10.2	100.0 (373)	2.6
남성	12	48.5	31.2	8.3	100.0 (324)	2.6
$\chi^2(df)/t$		1.6(3)				-0.2
연령대						
20대	9.1	27.3	59.1	4.5	100.0 (22)	2.4
30대	8.9	52.2	35	3.8	100.0 (157)	2.7
40대	17.3	53.5	23.5	5.8	100.0 (260)	2.8
50대	11.6	38	33.7	16.7	100.0 (258)	2.4
$\chi^2(df)/F$		51.8(9)***				10***
성연령						
20대 여성	6.3	25	62.5	6.3	100.0 (16)	2.3
20대 남성	16.7	33.3	50	-	100.0 (6)	2.7
30대 여성	11.1	51.1	35.6	2.2	100.0 (90)	2.7
30대 남성	6	53.7	34.3	6	100.0 (67)	2.6
40대 여성	18.7	56	19.4	6	100.0 (134)	2.9
40대 남성	15.9	50.8	27.8	5.6	100.0 (126)	2.8
50대 여성	12	32.3	35.3	20.3	100.0 (133)	2.4
50대 남성	11.2	44	32	12.8	100.0 (125)	2.5
$\chi^2(df)/F$		62.3(21)***				5.1***
자녀수						
1명	7.1	37.9	44.4	10.7	100.0 (169)	2.4
2명	13.6	50	27.1	9.3	100.0 (450)	2.7
3명 이상	23.1	46.2	24.4	6.4	100.0 (78)	2.9
$\chi^2(df)/F$		28.7(6)***				9.8***

(표 IV-2-9 계속)

구 분	매우 부담스러움	부담스러 움	부담스럽 지 않음	전혀 부담안됨	계 (수)	4점 평균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0	44.5	28.2	7.3	100.0 (110)	2.8
300~450만 미만	13.2	49.5	28.9	8.4	100.0 (311)	2.7
450~600만 미만	12.9	48.2	30	8.8	100.0 (170)	2.7
600만 이상	5.7	37.7	41.5	15.1	100.0 (106)	2.3
$\chi^2(df)/F$	20.2(9)*					5.9***
교육수준						
고졸이하	15.5	42.6	28.1	13.9	100.0 (317)	2.6
대학 재학	17	42.6	34	6.4	100.0 (47)	2.7
대학 졸업 이상	10.2	51.1	33.3	5.4	100.0 (333)	2.7
$\chi^2(df)/F$	21.3(6)**					0.7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전혀 부담안됨' 1점~'매우 부담'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지 부모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의 59.4% 부모가 자신이 제공하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 연령이 높을수록, 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났다. 20대(77.3%가 충분하다고 생각)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과반수 이상이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표 IV-2-10〉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 제공여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 부족함	부족함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수)	4점 평균
전체	5.7	53.7	37.9	2.7	100.0 (697)	2.4
성별						
여성	6.7	50.7	40.2	2.4	100.0 (373)	2.4
남성	4.6	57.1	35.2	3.1	100.0 (324)	2.4
$\chi^2(df)/t$	4.1(3)					0.3
연령대						
20대	4.5	18.2	68.2	9.1	100.0 (22)	2.8
30대	1.9	51.6	44.6	1.9	100.0 (157)	2.5
40대	8.5	57.7	31.2	2.7	100.0 (260)	2.3
50대	5.4	53.9	38.0	2.7	100.0 (258)	2.4
$\chi^2(df)/F$	27.5(9)**					6.7***

(표 IV-2-10 계속)

구 분	매우 부족함	부족함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 (수)	4점 평균
성연령						
20대 여성	-	25.0	62.5	12.5	100.0 (16)	2.9
20대 남성	16.7	-	83.3	-	100.0 (6)	2.7
30대 여성	1.1	47.8	48.9	2.2	100.0 (90)	2.5
30대 남성	3.0	56.7	38.8	1.5	100.0 (67)	2.4
40대 여성	10.4	58.2	29.9	1.5	100.0 (134)	2.2
40대 남성	6.3	57.1	32.5	4.0	100.0 (126)	2.3
50대 여성	7.5	48.1	42.1	2.3	100.0 (133)	2.4
50대 남성	3.2	60.0	33.6	3.2	100.0 (125)	2.4
$\chi^2(df)/F$		43.8(21)**				3.5**
자녀수						
1명	4.1	41.4	51.5	3.0	100.0 (169)	2.5
2명	6.2	55.1	36.2	2.4	100.0 (450)	2.3
3명 이상	6.4	71.8	17.9	3.8	100.0 (78)	2.2
$\chi^2(df)/F$		28(6)***				9***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15.5	61.8	20.9	1.8	100.0 (110)	2.1
300~450만 미만	6.1	56.3	35.0	2.6	100.0 (311)	2.3
450~600만 미만	1.8	55.3	40.0	2.9	100.0 (170)	2.4
600만 이상	0.9	34.9	60.4	3.8	100.0 (106)	2.7
$\chi^2(df)/F$		60.1(9)***				16.9***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매우 부족' 1점~'매우 충분'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녀 양육에 관련된 지출 중 부모들이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하고 있는 항목은 사교육비였다(46.3%). 20대 부모는 예외적으로 사교육비 보다 내구재 소비를 더 높게 보고하였다(27.3%).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대졸이상 51.4%), 맞벌이인 경우(50.7%), 사교육 지출을 1순위로 보고한 경우가 50%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지출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용(56.5%)과 의류비(30.7%)가 지출이 큰 항목으로 꼽혔다. 20대 어머니들과 50대 어머니들은 사교육보다 아동의 의류비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었다. 20대의 경우 영유아 자녀를 위해, 50대 여성의 경우 손주 혹은 성인 자녀를 위해 의류비를 소비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소비적 양육 문화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IV-2-11〉 자녀양육을 위한 최대 지출항목

단위: %(명)

구 분	교육기			자녀를			가족	서적	돌봄	의료	지출	계 (수)	
	사교육관·보육시설이용비	가족의식비	의류비	위한민간보험	문화오락비	내구재							및교재비
전체	46.3	12.8	7.3	6.5	6.0	5.2	4.4	4.3	2.7	1.9	1.7	0.9	100.0 (697)
성별													
여성	44.2	13.7	7.2	6.7	6.4	7.2	2.9	4.8	2.4	1.9	1.9	0.5	100.0 (373)
남성	48.8	11.7	7.4	6.2	5.6	2.8	6.2	3.7	3.1	1.9	1.5	1.2	100.0 (324)
$\chi^2(df)$	14.2(11)												
연령대													
20대	9.1	4.5	18.2	9.1	13.6	9.1	27.3	-	-	4.5	4.5	-	100.0 (22)
30대	39.5	8.9	7.0	3.2	4.5	8.9	12.7	5.7	1.3	6.4	1.9	-	100.0 (157)
40대	66.5	13.5	2.7	3.8	3.5	3.8	0.4	2.3	1.9	0.4	1.2	-	100.0 (260)
50대	33.3	15.1	11.2	10.9	8.9	3.9	1.6	5.8	4.7	0.4	1.9	2.3	100.0 (258)
$\chi^2(df)$	202.2(33)***												
성연령													
20대 여성	12.5	-	18.8	12.5	6.3	12.5	31.3	-	-	-	6.3	-	100.0 (16)
20대 남성	-	16.7	16.7	-	33.3	-	16.7	-	-	16.7	-	-	100.0 (6)
30대 여성	47.8	8.9	6.7	2.2	3.3	12.2	4.4	5.6	-	7.8	1.1	-	100.0 (90)
30대 남성	28.4	9.0	7.5	4.5	6.0	4.5	23.9	6.0	3.0	4.5	3.0	-	100.0 (67)
40대 여성	64.2	14.9	4.5	3.0	3.0	4.5	-	3.0	1.5	-	1.5	-	100.0 (134)
40대 남성	69.0	11.9	0.8	4.8	4.0	3.2	0.8	1.6	2.4	0.8	0.8	-	100.0 (126)
50대 여성	25.6	17.3	9.0	12.8	12.0	6.0	1.5	6.8	5.3	-	2.3	1.5	100.0 (133)
50대 남성	41.6	12.8	13.6	8.8	5.6	1.6	1.6	4.8	4.0	0.8	1.6	3.2	100.0 (125)
$\chi^2(df)$	287.8(77)***												
자녀수													
1명	38.5	6.5	4.1	4.1	9.5	8.9	11.8	5.3	1.8	4.1	3.0	2.4	100.0 (169)
2명	50.7	13.6	9.1	6.4	4.9	4.0	2.2	3.3	3.1	1.3	0.9	0.4	100.0 (450)
3명 이상	38.5	21.8	3.8	11.5	5.1	3.8	1.3	7.7	2.6	-	3.8	-	100.0 (78)
$\chi^2(df)$	86(22)***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7	12.4	6.3	8.0	6.3	3.7	2.4	4.1	2.0	2.0	1.2	0.7	100.0 (410)
외벌이	40.1	13.2	8.7	4.2	5.6	7.3	7.3	4.5	3.8	1.7	2.4	1.0	100.0 (287)
$\chi^2(df)$	26.9(11)**												
거주지역													
대도시	45.7	12.4	6.3	5.4	6.0	5.1	6.0	4.4	3.5	2.9	1.6	0.6	100.0 (315)
중소도시	48.9	14.2	7.4	5.7	5.0	6.7	3.2	4.6	1.1	1.4	1.1	0.7	100.0 (282)
읍면동	41.0	10.0	10.0	12.0	9.0	1.0	3.0	3.0	5.0	-	4.0	2.0	100.0 (100)
$\chi^2(df)$	34.3(22)*												

(표 IV-2-11 계속)

구 분	교육기				자녀를			서적 및 교재비	돌봄 비용	의료 보건비	지출 없음	계 (수)	
	사교육관·보 육시설 이용비	가족 의식비	의류비	위한 민간 보험	문화 오락비	내구재	가족 여행비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2.7	11.8	8.2	10.9	5.5	5.5	5.5	5.5	6.4	2.7	4.5	0.9	100.0 (110)
300~450만 미만	46.3	13.2	7.7	4.2	7.7	5.1	4.5	4.2	2.9	1.9	1.9	0.3	100.0 (311)
450~600만 미만	53.5	12.9	4.7	8.2	4.7	5.9	4.7	2.9	0.6	0.6	0.6	0.6	100.0 (170)
600만 이상	49.1	12.3	9.4	5.7	3.8	3.8	2.8	5.7	1.9	2.8	-	2.8	100.0 (106)
$\chi^2(df)$	47(33)												
교육수준													
고졸이하	40.7	15.1	7.6	9.5	7.3	5.4	2.5	5.4	2.5	0.6	2.2	1.3	100.0 (317)
대학 재학	48.9	17.0	6.4	-	8.5	2.1	8.5	2.1	2.1	4.3	-	-	100.0 (47)
대학 졸업 이상	51.4	9.9	7.2	4.5	4.5	5.4	5.7	3.6	3.0	2.7	1.5	0.6	100.0 (333)
$\chi^2(df)$	36.6(22)*												

* $p < .05$, ** $p < .01$, *** $p < .001$

고가의 육아용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1%가 고가의 육아용품을 전혀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응답자의 22.9%는 고가육아용품에 대한 강한 구매 의사가 있거나 구매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가 육아용품 구매의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어, 20대는 51.4%, 30대는 59.3%, 40대는 77.8%, 50대는 8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고가의 육아용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

<표 IV-2-12> 고가의 육아용품 구입 의사

단위: %(명)

구 분	전혀 구매의사 없음	고려해 볼 만함	아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능	모르겠음	계(수)
전체	69.1	16.8	6.1	8.0	100.0 (1,013)
성별					
여성	70.5	15.3	6.2	8.0	100.0 (502)
남성	67.7	18.2	6.1	8.0	100.0 (511)
$\chi^2(df)$	1.5(3)				

(표 IV-2-12 계속)

구 분	전혀 구매의사 없음	고려해 볼 만함	아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능	모르겠음	계(수)
연령대					
20대	51.4	25.0	10.0	13.6	100.0 (220)
30대	59.3	23.5	7.4	9.9	100.0 (243)
40대	77.8	12.0	6.0	4.2	100.0 (284)
50대	83.5	9.0	1.9	5.6	100.0 (266)
$\chi^2(df)$	83.9(9)***				
자녀유무					
미혼	52.9	25.1	8.9	13.1	100.0 (259)
기혼유자녀	77.0	12.6	4.3	6.0	100.0 (697)
기혼무자녀	45.6	29.8	15.8	8.8	100.0 (57)
$\chi^2(df)$	72(6)***				
자녀수					
0명	51.6	25.9	10.1	12.3	100.0 (316)
1명	75.1	13.0	5.3	6.5	100.0 (169)
2명	77.1	12.4	4.0	6.4	100.0 (450)
3명이상	80.8	12.8	3.8	2.6	100.0 (78)
$\chi^2(df)$	68.3(9)***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76.0	12.0	5.1	6.9	100.0 (175)
300~450만 미만	71.8	16.3	3.0	8.9	100.0 (429)
450~600만 미만	64.1	19.1	8.4	8.4	100.0 (251)
600만 이상	62.0	19.6	12.0	6.3	100.0 (158)
$\chi^2(df)$	27.0(9)**				
교육수준					
고졸이하	82.7	9.0	4.4	3.9	100.0 (388)
대학 재학	58.3	14.4	8.6	18.7	100.0 (139)
대학 졸업 이상	61.3	23.7	6.8	8.2	100.0 (486)
$\chi^2(df)$	77.1(6)***				

** $p < .01$, *** $p < .001$

3. 양육 정보와 매체의 영향

가. 양육정보의 출처

양육정보를 얻는 경로를 묻은 결과, 전체 53.1%의 부모들이 친구, 이웃, 부모

등 주변 지인으로부터 양육정보를 얻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뒤이어 부모, 친인척이 16.9%, 인터넷이 15.6%로 나타나, 정보화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육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 20대, 30대, 자녀가 1명인 부모, 대도시 거주 부모, 고학력 부모가 상대적으로 부모, 친인척 보다는 인터넷에서 양육정보를 더 얻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전체 부모의 77.2%가 현재 자신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양육정보가 신뢰롭다고 보고하였다.

〈표 IV-3-1〉 양육정보 습득 경로

단위: %(명)

구분	친구, 이웃, 부모 등	부모, 친인척 등	인터넷(블로그, 육아카페)	TV프로그램	육아서적	부모교육(센터, 병원 등)	기타	계 (수)
전체	53.1	16.9	15.6	8.8	3.4	1.4	0.7	100.0 (697)
성별								
여성	57.1	11.5	16.6	8.6	4.0	1.3	0.8	100.0 (373)
남성	48.5	23.1	14.5	9.0	2.8	1.5	0.6	100.0 (324)
$\chi^2(df)$	17.7(6)**							
연령대								
20대	45.5	9.1	40.9	-	-	4.5	-	100.0 (22)
30대	43.9	8.9	32.5	8.9	3.8	0.6	1.3	100.0 (157)
40대	51.9	18.1	13.8	8.1	4.6	2.3	1.2	100.0 (260)
50대	60.5	21.3	5.0	10.1	2.3	0.8	-	100.0 (258)
$\chi^2(df)$	85(18)***							
성연령								
20대 여성	43.8	12.5	37.5	-	-	6.3	-	100.0 (16)
20대 남성	50.0	-	50.0	-	-	-	-	100.0 (6)
30대 여성	41.1	6.7	36.7	7.8	6.7	-	1.1	100.0 (90)
30대 남성	47.8	11.9	26.9	10.4	-	1.5	1.5	100.0 (67)
40대 여성	56.7	11.9	11.9	9.7	6.0	2.2	1.5	100.0 (134)
40대 남성	46.8	24.6	15.9	6.3	3.2	2.4	0.8	100.0 (126)
50대 여성	69.9	14.3	5.3	9.0	0.8	0.8	-	100.0 (133)
50대 남성	50.4	28.8	4.8	11.2	4.0	0.8	-	100.0 (125)
$\chi^2(df)$	122(42)***							
자녀수								
1명	46.2	14.2	28.4	6.5	4.1	0.6	-	100.0 (169)
2명	55.1	17.6	11.8	9.1	3.6	1.8	1.1	100.0 (450)
3명 이상	56.4	19.2	10.3	11.5	1.3	1.3	-	100.0 (78)
$\chi^2(df)$	33.5(12)***							

(표 IV-3-1 계속)

구 분	친구, 이웃, 보모 등	부모, 친인척 등	인터넷(블로그, 육아카페)	TV프로그램	육아서적	부모교육(센터, 병원 등)	기타	계 (수)
거주지역								
대도시	49.8	13.7	19.0	11.1	5.1	0.6	0.6	100.0 (315)
중소도시	58.2	20.2	11.7	5.0	2.1	2.1	0.7	100.0 (282)
읍면동	49.0	18.0	16.0	12.0	2.0	2.0	1.0	100.0 (100)
$\chi^2(df)$	26.3(1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1.8	20.9	10.0	13.6	0.9	0.9	1.8	100.0 (110)
300~450만 미만	54.7	12.5	18.6	9.3	3.2	1.6	-	100.0 (311)
450~600만 미만	52.4	20.6	15.3	5.9	2.9	1.8	1.2	100.0 (170)
600만 이상	50.9	19.8	13.2	6.6	7.5	0.9	0.9	100.0 (106)
$\chi^2(df)$	29.1(18)*							
교육수준								
고졸이하	57.1	19.9	8.2	10.4	1.6	2.2	0.6	100.0 (317)
대학 재학	61.7	17.0	14.9	4.3	2.1	-	-	100.0 (47)
대학 졸업 이상	48.0	14.1	22.8	7.8	5.4	0.9	0.9	100.0 (333)
$\chi^2(df)$	41.4(12)***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 정보 제공원은 전체 부모의 46.1%가 친구, 이웃, 보모 등의 정보를 꼽았다. 20대, 30대는 인터넷 정보(각각 36.4%, 27.4%)를 40대, 50대는 부모 및 친인척(각각 15.4%, 21.7%)을 친구 이웃, 보모 다음으로 높게 선택하였다. 20대, 30대의 젊은 부모들은 자신들의 부모 혹은 친척들에게 양육에 대해 묻기 보다는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얻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여, 40대 50대 부모와는 정보 습득 방법에서 차별화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2〉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정보 제공원

단위: %(명)

구 분	친구, 이웃, 보모 등	부모 및 친인척 등	인터넷	TV 프로그램	부모교육(센터, 병원 등)	육아서적	기타	계 (수)
전체	46.1	16.1	14.8	11.9	5.6	5.0	0.6	100.0 (697)
성별								
여성	46.9	12.1	15.5	13.4	6.2	5.6	0.3	100.0 (373)
남성	45.1	20.7	13.9	10.2	4.9	4.3	0.9	100.0 (324)
$\chi^2(df)$	12.3(6)							

(표 IV-3-2 계속)

구 분	친구, 이웃, 부모 등	부모 및 친인척 등	인터넷	TV 프로그램	부모교육(센터, 병원 등)	육아서적	기타	계 (수)
연령대								
20대	45.5	4.5	36.4	4.5	9.1	-	-	100.0 (22)
30대	36.9	9.6	27.4	12.7	5.7	6.4	1.3	100.0 (157)
40대	46.9	15.4	14.2	10.0	7.7	5.0	0.8	100.0 (260)
50대	50.8	21.7	5.8	14.0	3.1	4.7	-	100.0 (258)
$\chi^2(df)$	66.2(18)***							
성연령								
20대 여성	37.5	6.3	37.5	6.3	12.5	-	-	100.0 (16)
20대 남성	66.7	-	33.3	-	-	-	-	100.0 (6)
30대 여성	31.1	7.8	30.0	14.4	4.4	11.1	1.1	100.0 (90)
30대 남성	44.8	11.9	23.9	10.4	7.5	-	1.5	100.0 (67)
40대 여성	50.7	11.2	11.9	11.2	9.0	6.0	-	100.0 (134)
40대 남성	42.9	19.8	16.7	8.7	6.3	4.0	1.6	100.0 (126)
50대 여성	54.9	16.5	6.8	15.8	3.8	2.3	-	100.0 (133)
50대 남성	46.4	27.2	4.8	12.0	2.4	7.2	-	100.0 (125)
$\chi^2(df)$	101.4(42)***							
자녀수								
1명	41.4	14.2	25.4	9.5	4.1	5.3	-	100.0 (169)
2명	47.6	16.7	11.6	12.4	5.8	5.1	0.9	100.0 (450)
3명 이상	47.4	16.7	10.3	14.1	7.7	3.8	-	100.0 (78)
$\chi^2(df)$	23.8(1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40.9	22.7	7.3	16.4	6.4	4.5	1.8	100.0 (110)
300~450만 미만	45.7	12.9	16.7	13.5	6.1	4.8	0.3	100.0 (311)
450~600만 미만	48.2	15.9	15.3	8.8	6.5	4.7	0.6	100.0 (170)
600만 이상	49.1	18.9	16.0	7.5	1.9	6.6	-	100.0 (106)
$\chi^2(df)$	24.9(18)							
교육수준								
고졸이하	50.2	18.9	7.6	13.9	5.0	4.1	0.3	100.0 (317)
대학 재학	42.6	12.8	12.8	12.8	12.8	4.3	2.1	100.0 (47)
대학 졸업 이상	42.6	13.8	21.9	9.9	5.1	6.0	0.6	100.0 (333)
$\chi^2(df)$	38.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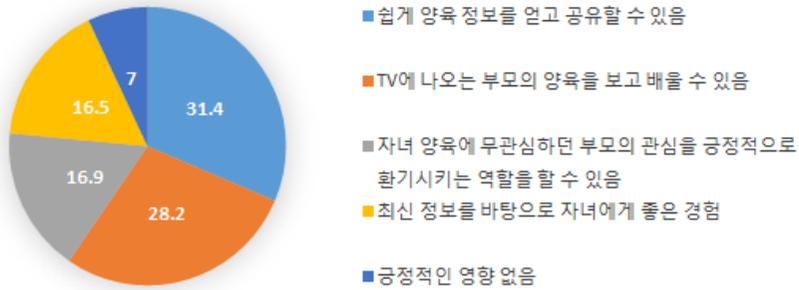
* $p < .05$, *** $p < .001$

나. 매체(TV 육아프로그램과 인터넷)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1) TV 육아프로그램

TV 육아프로그램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31.4%는 쉽게 양육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는 점을 꼽았고, 28.2%는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16.9%)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점(16.5%)을 뒤이어 보고하였다.



[그림 IV-3-1] TV 육아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표 IV-3-3> TV 육아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단위: %(명)

구분	쉽게 양육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	긍정적 영향 없음	계(수)
전체	31.4	28.2	16.9	16.5	7.0	100.0 (1,013)
성별						
여성	30.7	30.7	17.3	16.1	5.2	100.0 (502)
남성	32.1	25.8	16.4	16.8	8.8	100.0 (511)
$\chi^2(df)$			7.2(4)			
연령대						
20대	30.9	29.5	15.0	16.8	7.7	100.0 (220)
30대	35.4	25.5	15.6	17.3	6.2	100.0 (243)
40대	30.6	27.8	19.4	15.1	7.0	100.0 (284)
50대	28.9	30.1	16.9	16.9	7.1	100.0 (266)
$\chi^2(df)$			5.5(12)			
자녀수						
0명	33.5	26.6	14.9	16.8	8.2	100.0 (316)
1명	27.8	30.2	17.2	18.3	6.5	100.0 (169)
2명	30.2	30.0	18.0	14.9	6.9	100.0 (450)
3명이상	37.2	20.5	17.9	20.5	3.8	100.0 (78)
$\chi^2(df)$			9.7(12)			

(표 IV-3-3 계속)

구 분	쉽게 양육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 할 수 있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	긍정적 영향 없음	계(수)
거주지역						
대도시	29.3	30.8	19.3	15.8	4.7	100.0 (467)
중소도시	34.1	27.0	15.7	15.7	7.6	100.0 (408)
읍면동	30.4	23.2	12.3	21.0	13.0	100.0 (138)
$\chi^2(df)$			20.7(8)**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2.6	24.6	14.9	20.6	7.4	100.0 (175)
300~450만 미만	31.7	30.5	17.5	15.2	5.1	100.0 (429)
450~600만 미만	31.9	27.5	16.7	14.7	9.2	100.0 (251)
600만 이상	28.5	27.2	17.7	18.4	8.2	100.0 (158)
$\chi^2(df)$			10.1(12)			

** $p < .01$

반면, TV 육아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1.6%가 TV육아 프로그램이 간접광고 등의 영향으로 과소비 문화를 조장하는 점을 보고하였다. 23%의 응답자는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점을 부정적 측면으로 꼽았다.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의견 또한 21.6%로 상당히 높았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예: 대도시, 읍면동 거주, 고졸 이하),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가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TV육아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면을 더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IV-3-2] TV 육아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

〈표 IV-3-4〉 TV 육아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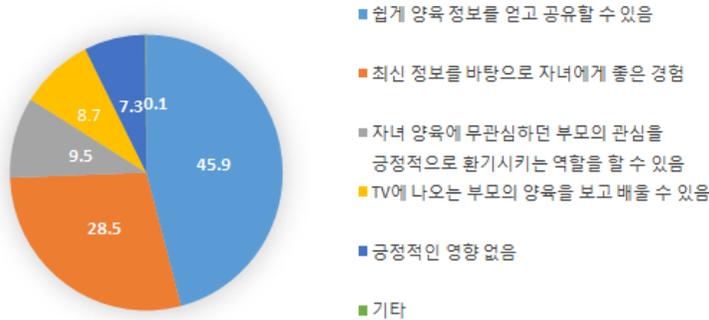
단위: %(명)

구 분	간접광고 등의 영향으로 과소비 문화를 조장함	다른 부모들과 비교 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	부정 적인 영향 없음	무분별한 정보로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 러움	비전문적 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	기타	계(수)
전체	31.6	23.0	21.6	12.8	10.9	0.1	100.0 (1,013)
성별							
여성	32.3	24.1	21.7	12.9	9.0	-	100.0 (502)
남성	30.9	21.9	21.5	12.7	12.7	0.2	100.0 (511)
$\chi^2(df)$			5(5)				
연령대							
20대	30.0	27.3	17.7	10.5	14.5	-	100.0 (220)
30대	32.5	23.5	20.6	14.0	9.5	-	100.0 (243)
40대	32.0	22.9	24.3	10.6	9.9	0.4	100.0 (284)
50대	31.6	19.2	22.9	16.2	10.2	-	100.0 (266)
$\chi^2(df)$			17.3(15)				
자녀수							
0명	29.7	23.4	19.9	13.6	13.3	-	100.0 (316)
1명	39.6	21.3	17.8	10.7	10.7	-	100.0 (169)
2명	30.2	23.1	23.8	13.6	9.1	0.2	100.0 (450)
3명이상	29.5	24.4	24.4	10.3	11.5	-	100.0 (78)
$\chi^2(df)$			13(15)				
거주지역							
대도시	30.2	23.6	25.3	13.3	7.7	-	100.0 (467)
중소도시	34.1	23.8	15.7	13.2	13.2	-	100.0 (408)
읍면동	29.0	18.8	26.8	10.1	14.5	0.7	100.0 (138)
$\chi^2(df)$			29.1(1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1.4	22.3	20.0	17.7	8.6	-	100.0 (175)
300~450만 미만	31.5	22.4	21.7	11.9	12.4	0.2	100.0 (429)
450~600만 미만	30.7	23.1	24.3	10.4	11.6	-	100.0 (251)
600만 이상	33.5	25.3	19.0	13.9	8.2	-	100.0 (158)
$\chi^2(df)$			11.4(15)				
교육수준							
고졸이하	30.2	19.1	23.7	16.0	11.1	-	100.0 (388)
대학 재학	29.5	25.9	18.7	9.4	15.8	0.7	100.0 (139)
대학 졸업 이상	33.3	25.3	20.8	11.3	9.3	-	100.0 (486)
$\chi^2(df)$			22.4(10)*				

* $p < .05$, ** $p < .01$

2) 인터넷 육아정보

인터넷 육아정보의 긍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45.9%가 인터넷(블로그, 카페)이 양육정보를 쉽게 얻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28.5%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그림 IV-3-3] 인터넷 육아정보의 긍정적 영향

<표 IV-3-5> 인터넷 육아정보의 긍정적 영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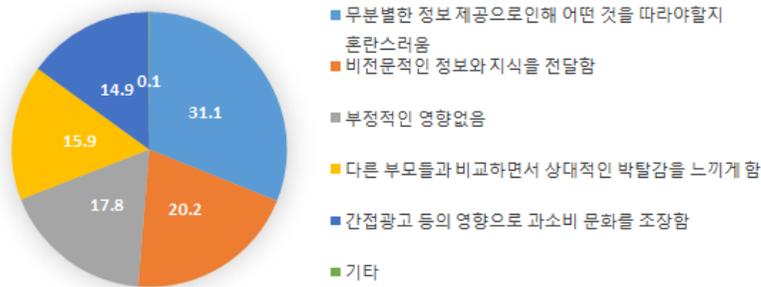
구분	쉽게 양육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	TV 나오는 부모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긍정적인 영향 없음	기타	계(수)
전체	45.9	28.5	9.5	8.7	7.3	0.1	100.0 (1,013)
성별							
여성	47.4	28.7	10.4	8.6	5.0	-	100.0 (502)
남성	44.4	28.4	8.6	8.8	9.6	0.2	100.0 (511)
$\chi^2(df)$			9.7(5)				
연령대							
20대	48.2	25.9	10.9	9.1	5.9	-	100.0 (220)
30대	45.7	33.3	7.0	8.2	5.3	0.4	100.0 (243)
40대	44.0	29.9	9.2	7.7	9.2	-	100.0 (284)
50대	46.2	24.8	10.9	9.8	8.3	-	100.0 (266)
$\chi^2(df)$			14.6(15)				
자녀수							
0명	47.2	28.5	8.9	9.5	5.7	0.3	100.0 (316)
1명	44.4	34.9	7.1	7.7	5.9	-	100.0 (169)

(표 IV-3-5 계속)

구 분	쉽게 양육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	TV 나오는 부모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긍정적 인 영향 없음	기타	계(수)
2명	46.7	25.1	11.3	8.0	8.9	-	100.0 (450)
3명이상	39.7	34.6	6.4	11.5	7.7	-	100.0 (78)
$\chi^2(df)$			16.4(15)				
거주지역							
대도시	44.1	33.6	9.9	7.3	4.9	0.2	100.0 (467)
중소도시	46.1	25.0	9.6	9.8	9.6	-	100.0 (408)
읍면동	51.4	21.7	8.0	10.1	8.7	-	100.0 (138)
$\chi^2(df)$			19.9(1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48.0	24.0	10.3	9.1	8.6	-	100.0 (175)
300~450만 미만	46.4	29.4	10.7	8.9	4.4	0.2	100.0 (429)
450~600만 미만	44.6	29.5	8.4	7.2	10.4	-	100.0 (251)
600만 이상	44.3	29.7	7.0	10.1	8.9	-	100.0 (158)
$\chi^2(df)$			15.5(15)				

* $p < .05$

반면,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의 31.1%가 무분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어떤 것을 따라야할지 혼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20.2%의 응답자는 인터넷상의 육아정보가 비전문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TV를 통한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과 비슷하게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의견 또한 17.8%로 상당히 높았으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예: 대도시, 읍면동 거주, 고졸 이하), 인터넷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가 비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



[그림 IV-3-4]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

〈표 IV-3-6〉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

단위: %(명)

구 분	무분별한 정보로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 스러움	비전문 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	부정적인 영향 없음	다른 부모들과 비교 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	간접광고 등의 영향으로 과소비 문화를 조장함	기타	계(수)
전체	31.1	20.2	17.8	15.9	14.9	0.1	100.0 (1,013)
성별							
여성	31.9	18.7	18.5	18.1	12.7	-	100.0 (502)
남성	30.3	21.7	17.0	13.7	17.0	0.2	100.0 (511)
$\chi^2(df)$			8.9(5)				
연령대							
20대	32.3	22.7	13.6	16.8	14.5	-	100.0 (220)
30대	30.5	21.0	20.6	13.6	14.4	-	100.0 (243)
40대	28.9	19.7	20.4	14.4	16.2	0.4	100.0 (284)
50대	33.1	18.0	15.8	18.8	14.3	-	100.0 (266)
$\chi^2(df)$			13(15)				
자녀수							
0명	30.7	22.8	17.1	14.9	14.6	-	100.0 (316)
1명	33.1	20.7	17.2	13.0	16.0	-	100.0 (169)
2명	31.1	18.4	18.0	17.1	15.1	0.2	100.0 (450)
3명이상	28.2	19.2	20.5	19.2	12.8	-	100.0 (78)
$\chi^2(df)$			6.4(15)				
거주지역							
대도시	33.0	19.5	19.9	12.8	14.8	-	100.0 (467)
중소도시	29.4	23.5	13.7	18.1	15.2	-	100.0 (408)
읍면동	29.7	13.0	22.5	19.6	14.5	0.7	100.0 (138)
$\chi^2(df)$			25.1(1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7.1	20.6	13.7	11.4	17.1	-	100.0 (175)
300~450만 미만	29.1	21.7	21.0	14.9	13.1	0.2	100.0 (429)
450~600만 미만	26.3	17.9	17.9	20.3	17.5	-	100.0 (251)
600만 이상	37.3	19.6	13.3	16.5	13.3	-	100.0 (158)
$\chi^2(df)$			23.4(15)				
교육수준							
고졸이하	29.6	18.3	21.4	16.2	14.4	-	100.0 (388)
대학 재학	29.5	28.1	12.9	16.5	12.2	0.7	100.0 (139)
대학 졸업 이상	32.7	19.5	16.3	15.4	16.0	-	100.0 (486)
$\chi^2(df)$			18.7(10)*				

* $p < .05$, ** $p < .01$

3) 매체와 양육정보원의 영향: 양육가치관 및 양육행동 변화 경험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본인의 양육 가치관이나 양육행동이 변화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부모의 78.1%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부모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주변 영향으로 양육 가치관이나 양육행동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특이하게 20대 남자의 경우 매체나 주변 지인으로 인한 양육 가치관, 양육행동 변화를 다른 성 연령대에 비해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양육 가치관이나 양육행동이 변화하였다고 보고한 145명 중 24.8%의 부모는 자녀에 대한 이해, 정서적 지지가 늘어났다고 느꼈으며, 20.7%는 학원 등 교육 방식에서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는 학원 등 교육방식의 변화를 가장 높게 보고한 반면, 자녀가 1명 혹은 2명이 있는 집에서는 정서적지지 증가를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표 IV-3-7〉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인한 양육 가치관 또는 양육행동 변화 경험 여부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리함	매우 그리함	계 (수)	4점 평균
전체	4.9	73.2	20.7	1.3	100.0 (697)	2.2
성별						
여성	3.8	71.3	24.4	0.5	100.0 (373)	2.2
남성	6.2	75.3	16.4	2.2	100.0 (324)	2.1
$\chi^2(df)/t$		11.4(3)**				1.8
연령대						
20대	-	72.7	22.7	4.5	100.0 (22)	2.3
30대	2.5	66.9	29.9	0.6	100.0 (157)	2.3
40대	6.2	71.2	22.7	-	100.0 (260)	2.2
50대	5.4	79.1	12.8	2.7	100.0 (258)	2.1
$\chi^2(df)/F$		30.6(9)***				3.6*
성연령						
20대 여성	-	81.3	18.8	-	100.0 (16)	2.2
20대 남성	-	50.0	33.3	16.7	100.0 (6)	2.7
30대 여성	-	65.6	34.4	-	100.0 (90)	2.3
30대 남성	6.0	68.7	23.9	1.5	100.0 (67)	2.2
40대 여성	6.7	64.9	28.4	-	100.0 (134)	2.2

(표 IV-3-7 계속)

구 분	전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렇함	매우 그렇함	계 (수)	4점 평균
40대 남성	5.6	77.8	16.7	-	100.0 (126)	2.1
50대 여성	3.8	80.5	14.3	1.5	100.0 (133)	2.1
50대 남성	7.2	77.6	11.2	4.0	100.0 (125)	2.1
$\chi^2(df)/F$	57.6(21)***					2.9**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6.4	70.9	19.1	3.6	100.0 (110)	2.2
300~450만 미만	3.5	74.9	20.6	1.0	100.0 (311)	2.2
450~600만 미만	7.1	70.0	22.4	0.6	100.0 (170)	2.2
600만 이상	3.8	75.5	19.8	0.9	100.0 (106)	2.2
$\chi^2(df)/F$	10.2(9)					0.1
교육수준						
고졸이하	6.3	76.0	16.4	1.3	100.0 (317)	2.1
대학 재학	6.4	70.2	19.1	4.3	100.0 (47)	2.2
대학 졸업 이상	3.3	70.9	24.9	0.9	100.0 (333)	2.2
$\chi^2(df)/F$	13.2(6)*					3.6*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전혀 그렇지않음' 1점~'매우 그렇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4.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관심 이슈¹⁾

부모 생애주기별로 부모로서 관심을 가졌던 양육관련 이슈를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생애주기 단계별 1순위 양육 관련 이슈는 '부모됨 의미→자녀돌봄→자녀 학교생활 적응→자녀의 교육·학습지원→자녀의 취업'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부부관계 중심의 생활에서 취학 연령에 따른 자녀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가 자녀 성인기에는 가족의 유대 관계 증진에 관심이 상승하는 형태이다.

부모됨의 의미는 주로 출산 이전에 관심을 갖는 이슈로, 결혼 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점차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출산 전까지는 부모됨 외에도 부부관계에 관심을 둔 비율이 다수 있다.

가정 내 가사와 양육분담은 영유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 시기의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 영유아

1) 본 절은 기혼 유자녀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분석 대상은 기혼 유자녀 697명임.

기에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민 역시 크게 나타나,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유대관계 증진은 성인자녀 및 청소년기에 다시금 관심사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V-4-1〉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1순위

단위: %(명)

구 분	부모 됨의 의미	가족 계획	부부 관계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 분담	일· 가정 양립	자녀 돌봄	자녀 의 학교 생활 적용	자녀 의 교육, 학습 지원	자녀 의 대인 관계	자녀 의 심리 적 자립	자녀 의 취업	'자 녀의 결혼	은퇴 계획, 준비	가족 유대 관계 증진	기 타	(수)
결혼 후 무자녀	41.9	25.4	27.8	0.9	3.0	-	-	0.1	-	-	-	-	-	0.9	-	(697)
임신, 출산기	38.9	16.4	21.2	12.8	4.7	5.3	-	0.3	-	-	-	-	-	0.1	0.3	(697)
자녀 영유아기	5.2	1.4	2.6	23.2	19.5	40.9	1.4	3.4	0.7	1.0	-	-	-	0.4	0.1	(697)
자녀 아동기	0.7	0.4	0.2	2.3	5.7	6.4	60.4	17.1	4.3	1.8	0.5	-	-	0.4	-	(563)
자녀 청소년기	-	-	-	0.7	1.8	1.6	23.9	40.6	17.7	10.2	2.7	0.2	-	0.7	-	(451)
성인자녀 및 청소년기	0.3	-	-	-	0.3	-	1.2	1.2	9.4	16.1	52.1	8.5	6.7	4.2	-	(330)

부모의 생애주기별 관심 양육 이슈 1, 2순위를 합산하여 생애주기 단계별로 살펴보면 결혼 후 무자녀 시기에는 가족계획과 함께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신·출산 및 자녀 영유아기에는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 분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자녀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자녀의 학교 생활 및 교육·학습지원으로 주관심사가 전환된다. 또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위한 부모로서의 또 다른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2〉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1+2순위

단위: %(명)

구 분	부모 됨의 의미	가족 계획	부부 관계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 분담	일· 가정 양립	자녀 돌봄	자녀 의 학교 생활 적용	자녀 의 교육, 학습 지원	자녀 의 대인 관계	자녀 의 심리 적 자립	자녀 의 취업	자녀 의 결혼	은퇴 계획, 준비	가족 유대 관계 증진	기 타	(수)
결혼 후 무자녀	58.1	75.6	50.5	2.9	7.9	0.4	0.3	0.1	-	-	-	0.1	0.3	2.9	-	(697)
임신, 출산기	48.9	32.0	38.5	46.6	14.3	14.8	0.4	1.1	-	0.4	-	-	-	1.1	0.3	(697)
자녀 영유아기	9.2	4.6	6.7	49.2	36.9	70.6	3.7	11.2	1.3	3.7	-	-	-	1.1	0.1	(697)
자녀 아동기	1.2	1.6	1.1	5.7	11.0	19.9	77.8	62.2	10.1	5.5	0.9	-	-	1.2	0.2	(563)
자녀 청소년기	0.4	0.2	0.4	1.6	2.9	2.9	39.5	67.2	35.9	37.7	4.7	0.7	-	4.4	-	(451)
성인자녀 및 청소년기	0.6	0.9	0.3	0.3	0.6	-	1.8	2.7	15.8	27.6	69.7	50.0	13.0	15.5	0.3	(330)

생애주기 단계별에 따른 변인별 양육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 후 무자녀 기시에 가장 관심있는 양육 관련 이슈 1순위는 부모됨의 의미가 41.9%로 가장 높고, 부부관계 27.8%, 가족계획 25.4% 순이다. 부모됨의 의미를 제외하고, 여성은 부부관계, 남성은 가족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20대는 부부 중심의 가족 가치관을, 50대는 부모됨의 의미에 응답이 높았고, 20대에서는 일·가정 양립, 가정 내 역할분담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여성의 취업률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IV-4-3〉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결혼 후 무자녀 시기

단위: %(명)

구 분	부모됨의 의미	부부 관계	가족 계획	일·가정 양립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 분담	가족 유대관계 증진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계 (수)
전체	41.9	27.8	25.4	3.0	0.9	0.9	0.1	100.0 (697)
성별								
여성	40.8	29.8	24.7	3.2	0.5	0.8	0.3	100.0 (373)
남성	43.2	25.6	26.2	2.8	1.2	0.9	-	100.0 (324)
$\chi^2(df)$				3.5(6)				
연령대								
20대	36.4	31.8	18.2	9.1	4.5	-	-	100.0 (22)
30대	38.9	29.9	25.5	4.5	0.6	0.6	-	100.0 (157)
40대	39.6	28.5	26.5	3.1	0.4	1.5	0.4	100.0 (260)
50대	46.5	25.6	24.8	1.6	1.2	0.4	-	100.0 (258)
$\chi^2(df)$				17.8(18)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9.1	26.4	28.2	1.8	2.7	1.8	-	100.0 (110)
300~450만 미만	40.8	28.0	28.0	1.9	0.3	0.6	0.3	100.0 (311)
450~600만 미만	42.9	31.2	20.6	4.7	0.6	-	-	100.0 (170)
600만 이상	46.2	23.6	22.6	4.7	0.9	1.9	-	100.0 (106)
$\chi^2(df)$				20.7(18)				

임신·출산기 부모의 양육 관련 이슈는 부모됨의 의미가 38.9%로 가장 높고, 부부관계 21.2%, 가족계획과 가정내 역할분담이 각각 16.4%, 12.8%로 10%대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IV-4-5 계속)

구 분	자녀 돌봄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 분담	일·가정 양립	부모 됨의 의미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부부 관계	가족 계획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자녀의 심리적 자립	자녀의 대인 관계	가족 유대 관계 증진	기타	계 (수)
연령대													
20대	31.8	40.9	18.2	-	4.5	-	4.5	-	-	-	-	-	100.0 (22)
30대	41.4	24.2	17.8	4.5	6.4	1.3	-	1.3	0.6	1.3	1.3	-	100.0 (157)
40대	40.8	22.7	21.2	5.4	3.5	2.7	0.4	0.8	0.8	1.2	0.4	0.4	100.0 (260)
50대	41.5	21.7	19.0	5.8	1.6	3.5	3.1	2.3	1.6	-	-	-	100.0 (258)
$\chi^2(df)$								38.6(33)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43.6	20.9	21.8	5.5	3.6	-	2.7	0.9	-	0.9	-	-	100.0 (110)
300~450만 미만	38.9	23.8	20.3	3.9	4.5	2.3	1.9	1.9	1.6	0.6	-	0.3	100.0 (311)
450~600만 미만	44.1	24.1	13.5	9.4	2.4	2.9	-	0.6	0.6	1.2	1.2	-	100.0 (170)
600만 이상	38.7	22.6	24.5	1.9	1.9	5.7	0.9	1.9	0.9	-	0.9	-	100.0 (106)
$\chi^2(df)$								40.7(33)					

자녀 아동기에는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대한 관심이 60.4%로 높아지고, 교육·학습지원 17.1%, 자녀돌봄 6.4% 순이다.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30대가 아동기 자녀의 교육·학습 지원과 대인관계에 더 관심을 보였다.

〈표 IV-4-6〉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아동기

단위: %(명)

구 분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자녀 돌봄	일·가정 양립	자녀의 대인 관계	가정 내 가사 양육 분담	자녀의 심리 적 자립	부모 됨의 의미	자녀의 취업	가족 계획	가족 유대 관계 증진	부부 관계	계 (수)
전체	60.4	17.1	6.4	5.7	4.3	2.3	1.8	0.7	0.5	0.4	0.4	0.2	100.0 (563)
성별													
여성	61.8	15.2	5.8	6.5	5.2	2.3	1.9	0.3	0.6	0.3	-	-	100.0 (309)
남성	58.7	19.3	7.1	4.7	3.1	2.4	1.6	1.2	0.4	0.4	0.8	0.4	100.0 (254)
$\chi^2(df)$								9.4(11)					
연령대													
30대	56.3	21.1	7.0	2.8	7.0	1.4	1.4	1.4	-	1.4	-	-	100.0 (71)
40대	61.9	16.9	5.5	6.4	4.7	1.3	2.1	-	0.4	-	0.8	-	100.0 (236)
50대	60.2	16.0	7.0	5.9	3.1	3.5	1.6	1.2	0.8	0.4	-	0.4	100.0 (256)
$\chi^2(df)$								18.9(22)					

(표 IV-4-7 계속)

구 분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자녀의 대인 관계	자녀의 심리적 자립	자녀의 취업	일·가정 양립	자녀 돌봄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분담	가족 유대 관계 증진	자녀의 결혼	계 (수)
거주지역											
대도시	41.2	29.4	14.7	6.4	1.5	2.5	1.5	1.0	1.5	0.5	100.0 (204)
중소도시	42.5	17.7	18.8	15.5	3.3	1.1	1.1	-	-	-	100.0 (181)
읍면동	33.3	24.2	24.2	7.6	4.5	1.5	3.0	1.5	-	-	100.0 (66)
$\chi^2(df)$						29.1(18)*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9.7	27.9	14.7	10.3	1.5	2.9	1.5	-	-	1.5	100.0 (68)
300-450만 미만	43.5	25.0	13.0	9.8	3.8	2.2	0.5	1.1	1.1	-	100.0 (184)
450-600만 미만	34.5	21.8	23.5	12.6	3.4	-	3.4	0.8	-	-	100.0 (119)
600만 이상	43.8	21.3	22.5	7.5	-	2.5	1.3	-	1.3	-	100.0 (80)
$\chi^2(df)$						29.6(27)					
교육수준											
고졸이하	43.8	21.5	16.2	12.3	0.8	1.9	1.9	0.8	0.8	-	100.0 (260)
대학 재학	33.3	36.7	6.7	3.3	16.7	-	-	-	3.3	-	100.0 (30)
대학졸업 이상	36.6	25.5	22.4	8.1	3.1	1.9	1.2	0.6	-	0.6	100.0 (161)
$\chi^2(df)$						45.6(18)***					

* $p < .05$, *** $p < .001$

성인 자녀 및 중년기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취업에 대한 관심이 52.1%로 반수 이상이었다. 30대 부모의 자녀의 취업과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은 대학생 자녀에게 나타나는 관심으로 보이고, 점차 결혼 등으로 관심사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4-8〉 생애주기별 양육관련 이슈: 성인 자녀 및 중년기

단위: %(명)

구 분	자녀의 취업	자녀의 심리적 자립	자녀의 대인 관계	자녀의 결혼	은퇴 계획, 준비	가족 유대 관계 증진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부모 됨의 의미	일·가정 양립	계 (수)
전체	52.1	16.1	9.4	8.5	6.7	4.2	1.2	1.2	0.3	0.3	100.0 (330)
성별											
여성	49.2	16.9	10.1	6.9	8.5	4.2	1.6	1.6	0.5	0.5	100.0 (189)
남성	56.0	14.9	8.5	10.6	4.3	4.3	0.7	0.7	-	-	100.0 (141)
$\chi^2(df)$						7.1(9)					

(표 IV-4-8 계속)

연령대												
30대	50.0	-	50.0	-	-	-	-	-	-	-	-	100.0 (2)
40대	48.9	17.0	12.8	6.4	9.6	4.3	1.1	-	-	-	-	100.0 (94)
50대	53.4	15.8	7.7	9.4	5.6	4.3	1.3	1.7	0.4	0.4	-	100.0 (234)
$\chi^2(df)$												11.3(18)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0.0	12.5	7.1	12.5	7.1	8.9	-	1.8	-	-	-	100.0 (56)
300~450만 미만	50.4	15.0	11.0	8.7	7.1	2.4	2.4	1.6	0.8	0.8	-	100.0 (127)
450~600만 미만	53.4	17.0	9.1	8.0	9.1	2.3	1.1	-	-	-	-	100.0 (88)
600만 이상	55.9	20.3	8.5	5.1	1.7	6.8	-	1.7	-	-	-	100.0 (59)
$\chi^2(df)$												20.3(27)

5. 양육지원 요구

가. 정부의 양육지원 분담비율 및 적절 지원 시기

자녀출산 및 양육에 가정과 국가의 책임 정도에 대한 의견은 가정 대 국가가 5.8 대 4.2로 가정의 책임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특히 40~50대의 가정 책임에 대한 인식이 20~30대보다 높은 편이고,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은 5.5 대 4.5 수준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자녀수 3명 이상에서 가정의 자녀의 양육 책임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5-1〉 가정과 국가의 자녀출산 및 양육책임 분담 비율

단위: 점(명)

구 분	가정		국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8	1.5	4.2	1.5	(1,013)
성별					
여성	5.9	1.5	4.1	1.5	(502)
남성	5.8	1.6	4.2	1.6	(511)
t		1.0		-1.0	
연령대					
20대	5.7	1.6	4.3	1.6	(220)
30대	5.6	1.5	4.4	1.5	(243)
40대	6.1	1.5	3.9	1.5	(284)
50대	5.9	1.4	4.1	1.4	(266)
F		4.1**		4.1**	

구 분	가정		국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연령					
20대 여성	5.5	1.6	4.5	1.6	(107)
20대 남성	6.0	1.6	4.0	1.6	(113)
30대 여성	5.7	1.5	4.3	1.5	(119)
30대 남성	5.5	1.6	4.5	1.6	(124)
40대 여성	6.2	1.3	3.8	1.3	(142)
40대 남성	6.0	1.7	4.0	1.7	(142)
50대 여성	6.1	1.3	3.9	1.3	(134)
50대 남성	5.7	1.4	4.3	1.4	(132)
F	3.5**		3.5**		
자녀수					
0명	5.8	1.5	4.2	1.5	(316)
1명	5.9	1.6	4.1	1.6	(169)
2명	5.8	1.5	4.2	1.5	(450)
3명이상	6.1	1.5	3.9	1.5	(78)
F	1.3		1.3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6	1.5	4.4	1.5	(175)
300~450만 미만	5.9	1.6	4.1	1.6	(429)
450~600만 미만	5.9	1.5	4.1	1.5	(251)
600만 이상	5.9	1.4	4.1	1.4	(158)
F	1.4		1.4		

** $p < .01$

주: 가정과 국가의 양육 책임 분담 정도를 합이 10이 되도록 응답한 결과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양육 지원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시기는 영유아가 55.3%로 반수 이상이고,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각각 13.9%, 12.6%, 11.8%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30대는 영유아기, 40대 고등학생, 50대는 대학생에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이 효율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재 자신의 상황과 자녀의 연령이 응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여부에 따라서 이혼/사별/별거는 경제적 부담이 큰 대학생, 미혼은 영유아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고, 자녀수 3명 이상에서 대학생과 성인에 대한 응답이 19.0%로 높게 나타나 다자녀는 대학 이후 자녀 성인지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2〉 가장 효율적인 양육지원 시기

단위: %(명)

구 분	영유 아기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대학졸업 이후 성인	계(수)
전체	55.3	13.9	5.2	12.6	11.8	1.1	100.0 (1,013)
성별							
여성	52.8	15.3	6.6	12.4	11.8	1.2	100.0 (502)
남성	57.7	12.5	3.9	12.9	11.9	1.0	100.0 (511)
$\chi^2(df)$			6.2(5)				
연령대							
20대	57.7	9.1	8.6	12.3	10.9	1.4	100.0 (220)
30대	61.3	13.6	4.5	9.1	10.3	1.2	100.0 (243)
40대	51.8	15.5	5.3	16.5	9.9	1.1	100.0 (284)
50대	51.5	16.5	3.0	12.0	16.2	0.8	100.0 (266)
$\chi^2(df)$			28.6(15)*				
결혼여부							
미혼	60.2	10.0	7.3	10.8	10.0	1.5	100.0 (259)
기혼	53.9	15.2	4.5	13.2	12.2	1.0	100.0 (735)
이혼/사별/별거	42.1	15.8	5.3	15.8	21.1	-	100.0 (19)
$\chi^2(df)$			12.8(10)				
자녀수							
0명	59.5	10.8	7.0	11.1	10.4	1.3	100.0 (316)
1명	58.0	13.6	5.9	8.9	12.4	1.2	100.0 (169)
2명	52.7	15.1	4.2	15.3	11.8	0.9	100.0 (450)
3명이상	47.4	20.5	2.6	11.5	16.7	1.3	100.0 (78)
$\chi^2(df)$			19.3(15)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4.3	14.9	6.9	12.6	10.3	1.1	100.0 (175)
300~450만 미만	56.4	13.1	3.7	13.1	12.6	1.2	100.0 (429)
450~600만 미만	53.4	14.7	7.2	12.0	12.4	0.4	100.0 (251)
600만 이상	56.3	13.9	4.4	12.7	10.8	1.9	100.0 (158)
$\chi^2(df)$			8.5(15)				

* $p < .05$

나. 양육지원정책

1) 수혜 경험 및 만족도

유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지원 정책의 수혜 경험을 살펴 보면, 소득과 상관없이 미취학 영유아 전 연령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수혜 경험이 각각 29.4%, 26.6%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방과후돌봄이 9.5%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6.2%, 4.0% 순이다.

〈표 IV-5-3〉 육아지원정책 수혜 경험

단위: %(명)

구 분	현재 받음	과거 받음	받은 적 없음	계 (수)
불임부부 지원	-	0.4	99.6	100.0 (697)
출산 휴가	0.7	5.5	93.8	100.0 (697)
육아휴직	0.7	3.3	96.0	100.0 (697)
탄력근무제	0.3	0.7	99.0	100.0 (697)
보육료·교육비 지원	18.4	11.0	70.6	100.0 (697)
가정양육수당 지원	14.8	11.8	73.5	100.0 (697)
방과후돌봄	5.2	4.3	90.5	100.0 (697)

각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항목별 수혜자들이 응답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매우만족+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양육수당이 89.2%로 가장 높고, 방과후돌봄과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87.9%, 87.3%이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에 대해서는 약 85~86%대의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나타났으나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수 있어서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 만족도가 양극화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불임부부 지원, 보육료·교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사유는 지원금이 적어서, 방과후돌봄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돌봄만 이루어진다는 데에 불만이 있었다. 출산휴가는 휴가 기간이 짧아서,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는 제도는 있으나 사용을 못하는 분위기라서 때문이라는 이유이었다.

〈표 IV-5-4〉 육아지원정책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수)	4점 평균
불임부부 지원	-	66.7	33.3	-	100.0 (3)	2.3
출산 휴가	2.3	11.6	69.8	16.3	100.0 (43)	3.0
육아휴직	-	14.3	78.6	7.1	100.0 (28)	2.9
탄력근무제	-	14.3	71.4	14.3	100.0 (7)	3.0
보육료·교육비 지원	2	10.7	79.5	7.8	100.0 (205)	2.9
가정양육수당 지원	1.6	9.2	81.6	7.6	100.0 (185)	3.0
방과후돌봄	-	12.1	77.3	10.6	100.0 (66)	3.0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보육료·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은 편이며, 두 지원 모두 30대의 만족도가 높고, 5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최근 수혜 경험이 있는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평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 부모들이 보육료·교육비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20.9%로 높고, 만족도는 평균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역시 유의한 차이는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다.

〈표 IV-5-5〉 보육료·교육비 지원정책 만족도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수)	4점 평균
전체	2.0	10.7	79.5	7.8	100.0 (205)	2.9
성별						
여성	1.0	8.8	83.3	6.9	100.0 (102)	3.0
남성	2.9	12.6	75.7	8.7	100.0 (103)	2.9
$\chi^2(df)$	2.3(3)					
연령대						
20대	14.3	-	78.6	7.1	100.0 (14)	2.8
30대	1.0	9.5	77.1	12.4	100.0 (105)	3.0
40대	-	13.9	83.3	2.8	100.0 (72)	2.9
50대	7.1	14.3	78.6	-	100.0 (14)	2.7
$\chi^2(df)$	23.7(9)**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9.4	3.1	75	12.5	100.0 (32)	2.9
300~450만 미만	0.9	12	80.6	6.5	100.0 (108)	2.9
450~600만 미만	-	13.6	81.8	4.5	100.0 (44)	2.9
600만 이상	-	9.5	76.2	14.3	100.0 (21)	3.0
$\chi^2(df)/F$	16.2(9)					0.4
교육수준						
고졸이하	3.2	17.7	77.4	1.6	100.0 (62)	2.8
대학 재학	-	7.1	57.1	35.7	100.0 (14)	3.3
대학 졸업 이상	1.6	7.8	82.9	7.8	100.0 (129)	3.0
$\chi^2(df)$	23.1(6)***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표 IV-5-6〉 가정양육수당 지원정책 만족도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수)	4점 평균
전체	1.6	9.2	81.6	7.6	100.0 (185)	3.0
성별						
여성	1.1	6.8	87.5	4.5	100.0 (88)	3.0
남성	2.1	11.3	76.3	10.3	100.0 (97)	2.9
$\chi^2(df)$	4(3)					

(표 IV-5-6 계속)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수)	4점 평균
연령대						
20대	14.3	-	71.4	14.3	100.0 (14)	2.9
30대	-	12.4	79	8.6	100.0(105)	3.0
40대	-	7.1	87.5	5.4	100.0 (56)	3.0
50대	10	-	90	-	100.0 (10)	2.8
$\chi^2(df)$	27.1(9)**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6.1	12.1	63.6	18.2	100.0 (33)	2.9
300~450만 미만	1	6.9	87.1	5	100.0(101)	3.0
450~600만 미만	-	15.4	79.5	5.1	100.0 (39)	2.9
600만 이상	-	-	91.7	8.3	100.0 (12)	3.1
$\chi^2(df)$	28.4(18)					0.5
교육수준						
고졸이하	3.6	8.9	82.1	5.4	100.0 (56)	2.9
대학 재학	-	13.3	73.3	13.3	100.0 (15)	3.0
대학 졸업 이상	0.9	8.8	82.5	7.9	100.0(114)	3.0
$\chi^2(df)$	3.4(6)					

** $p < .01$

2) 육아지원정책 우선순위 및 선호도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30.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육아 휴직, 탄력근무제, 출산휴가 순이었다. 보육료·교육비 지원 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육아휴직+탄력근무제+출산휴가)이 차지하는 비중이 41.9%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보육료·교육비 지원, 여성과 20대는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50대에서는 탄력근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방과후돌봄 뿐 아니라 자녀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아 돌봄지원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고, 자녀 3명 이상은 보육료·교육비와 방과후 돌봄, 외벌이는 보육료·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을 선호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대학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에서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외에 탄력근무제 등으로 선택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고졸이하에서는 불임부부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았으나 3.3%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40~50대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IV-5-7〉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단위: %(명)

구 분	보육료·교육비 지원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출산휴가	방과후돌봄	가정양육수당 지원	불임부부 지원	자녀양육친화적인프라 확충	계(수)
전체	30.7	15.8	14.6	11.5	9.6	8.6	6.0	3.3	100.0 (1,013)
성별									
여성	28.7	17.1	14.9	11.6	10.2	8.0	6.4	3.2	100.0 (502)
남성	32.7	14.5	14.3	11.4	9.0	9.2	5.7	3.3	100.0 (511)
$\chi^2(df)$					3.5(7)				
연령대									
20대	27.3	23.6	13.6	16.8	5.5	7.3	3.2	2.7	100.0 (220)
30대	31.3	16.5	15.2	13.6	7.8	9.1	4.5	2.1	100.0 (243)
40대	33.1	13.0	12.3	8.1	10.9	10.6	8.1	3.9	100.0 (284)
50대	30.5	11.7	17.3	8.6	13.2	7.1	7.5	4.1	100.0 (266)
$\chi^2(df)$					48.3(21)***				
결혼여부									
미혼	27.8	22.0	15.1	16.2	5.4	6.6	4.2	2.7	100.0 (259)
기혼	31.8	13.7	14.6	9.9	10.9	9.3	6.7	3.1	100.0 (735)
이혼/사별/별거	26.3	10.5	10.5	5.3	15.8	10.5	5.3	15.8	100.0 (19)
$\chi^2(df)$					37.1(14)***				
자녀유무									
미혼	27.8	22.0	15.1	16.2	5.4	6.6	4.2	2.7	100.0 (259)
기혼유자녀	32.6	13.1	14.1	9.2	11.3	9.8	6.5	3.6	100.0 (697)
기혼무자녀	21.1	21.1	19.3	17.5	7.0	3.5	8.8	1.8	100.0 (57)
$\chi^2(df)$					39.6(14)***				
자녀수									
0명	26.6	21.8	15.8	16.5	5.7	6.0	5.1	2.5	100.0 (316)
1명	29.0	16.0	17.8	7.7	8.9	9.5	8.3	3.0	100.0 (169)
2명	32.9	13.1	13.8	10.2	10.4	9.8	5.8	4.0	100.0 (450)
3명이상	38.5	6.4	7.7	6.4	21.8	10.3	6.4	2.6	100.0 (78)
$\chi^2(df)$					58(2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9.7	13.1	17.5	10.2	11.5	6.7	7.5	3.8	100.0 (451)
외벌이	34.7	14.5	9.9	9.2	10.2	13.2	5.3	3.0	100.0 (303)
$\chi^2(df)$					19.5(7)**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2.6	17.7	13.7	10.9	6.3	12.0	2.9	4.0	100.0 (175)
300-400만 미만	33.1	15.4	13.1	11.7	10.3	7.2	6.8	2.6	100.0 (429)
400-600만 미만	28.3	14.7	16.7	11.2	10.4	9.6	7.2	2.0	100.0 (251)
600만 이상	25.9	16.5	16.5	12.0	10.1	7.0	5.7	6.3	100.0 (158)
$\chi^2(df)$					22.5(21)				
교육수준									
고졸이하	32.7	12.1	13.4	10.3	10.6	8.8	8.5	3.6	100.0 (388)
대학 재학	32.4	24.5	8.6	14.4	7.2	5.0	5.0	2.9	100.0 (139)
대학 졸업 이상	28.6	16.3	17.3	11.5	9.5	9.5	4.3	3.1	100.0 (486)
$\chi^2(df)$					29.5(14)**				

** $p < .01$, *** $p < .001$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응답 1, 2순위를 합산하면 보육료·교육비 지원 다음으로 탄력근무제, 육아휴직이 높게 나타나 출산휴가 보다는 탄력근무제와 육아휴직 형태의 자녀양육 지원이 도움이 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도 11.0%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이혼, 사별 등의 집단에서의 요구가 높았다.

〈표 IV-5-8〉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2순위

단위: %(명)

구 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탄력 근무제	육아휴직	가정양육 수당 지원	방과후 돌봄	출산 휴가	자녀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	불입부부 지원	(수)
전체	47.6	32.2	28.4	26.9	24.4	19.8	11.0	9.6	(1,013)
성별									
여성	46.4	33.5	27.5	24.1	26.5	20.7	10.6	10.6	(502)
남성	48.7	30.9	29.4	29.7	22.3	19.0	11.4	8.6	(511)
연령대									
20대	48.2	32.7	38.2	21.8	15.9	28.2	8.2	6.8	(220)
30대	47.3	34.2	29.6	29.6	21.4	19.8	11.1	7.0	(243)
40대	49.3	29.9	23.2	27.8	26.8	16.5	13.7	12.3	(284)
50대	45.5	32.3	24.8	27.8	31.6	16.5	10.2	11.3	(266)
결혼여부									
미혼	48.6	37.5	35.1	19.3	17.0	27.4	6.9	8.1	(259)
기혼	47.3	30.3	26.1	29.8	26.5	17.6	12.1	10.1	(735)
이혼/사별/별거	42.1	31.6	26.3	21.1	42.1	5.3	21.1	10.5	(19)
자녀유무									
미혼	48.6	37.5	35.1	19.3	17.0	27.4	6.9	8.1	(259)
기혼유자녀	48.5	29.7	25.3	30.3	27.5	16.4	12.5	9.8	(697)
기혼무자녀	31.6	38.6	36.8	21.1	19.3	28.1	10.5	14.0	(57)
자녀수									
0명	45.6	37.7	35.4	19.6	17.4	27.5	7.6	9.2	(316)
1명	44.4	34.3	29.6	28.4	24.3	15.4	11.2	12.4	(169)
2명	48.9	29.8	25.1	28.9	27.6	17.8	13.1	8.9	(450)
3명이상	55.1	19.2	16.7	42.3	34.6	10.3	11.5	9.0	(7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8	34.4	25.9	25.5	28.6	18.2	11.8	10.6	(451)
외벌이	50.8	24.4	26.4	35.6	24.4	15.8	13.2	9.2	(303)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2.0	29.1	28.0	31.4	22.3	20.6	11.4	5.1	(175)
300~450만 미만	48.7	30.3	29.8	27.0	24.5	18.9	10.3	10.5	(429)
450~600만 미만	46.2	33.9	25.1	25.9	26.7	22.7	8.8	10.8	(251)
600만 이상	41.8	38.0	30.4	23.4	22.8	17.1	15.8	10.1	(158)
교육수준									
고졸이하	48.5	31.2	23.5	26.8	28.9	18.0	10.6	12.6	(388)
대학 재학	56.8	25.2	41.0	21.6	12.9	26.6	8.6	7.2	(139)
대학 졸업 이상	44.2	35.0	28.8	28.6	24.1	19.3	11.9	7.8	(486)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정부가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과 0-2세 보육료 지원 중 선호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은 결과, 보육료 지원이 53.4%로 약간 더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현금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을 선호하였고, 응답자 수가 적은 50대를 제외하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육료 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부모 중에는 0-2세 보육료 선호도가 63.6%로 높았다.

〈표 IV-5-9〉 가정양육수당과 0-2세 보육료 지원 중 선호하는 정책

단위: %(명)

구 분	가정양육수당 지원	0-2세 보육료 지원	계 (수)
전체	46.6	53.4	100.0 (174)
성별			
여성	40.9	59.1	100.0 (88)
남성	52.3	47.7	100.0 (86)
$\chi^2(df)$	2.3(1)		
연령대			
20대	31.8	68.2	100.0 (22)
30대	47.7	52.3	100.0 (109)
40대	53.7	46.3	100.0 (41)
50대	-	100.0	100.0 (2)
$\chi^2(df)$	4.6(3)		
자녀수			
1명	48.6	51.4	100.0 (74)
2명	42.9	57.1	100.0 (84)
3명 이상	56.3	43.8	100.0 (16)
$\chi^2(df)$	1.2(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42.9	57.1	100.0 (35)
300~450만 미만	51.6	48.4	100.0 (93)
450~600만 미만	46.7	53.3	100.0 (30)
600만 이상	25.0	75.0	100.0 (16)
$\chi^2(df)$	4.1(3)		
비용지원 수혜*			
둘 다 경험	36.4	63.6	100.0 (88)

주: 둘 다 경험한 사람만 제시하여 전체 수와 차이가 있음.

가정양육수당을 보육료 지원보다 선호한다고 응답한 부모들의 74.1%는 선호 이유로 어머니가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부모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정양육수당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직접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았다.

〈표 IV-5-10〉 가정양육수당 지원 선호 이유

단위: %(명)

구 분	어머니가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보육시설에 맡기기에는 자녀의 연령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므로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계 (수)
전체	74.1	18.5	3.7	3.7	100.0 (81)
성별					
여성	69.4	19.4	8.3	2.8	100.0 (36)
남성	77.8	17.8	-	4.4	100.0 (45)
$\chi^2(df)$			4.1(3)		
연령대					
20대	71.4	14.3	-	14.3	100.0 (7)
30대	73.1	21.2	3.8	1.9	100.0 (52)
40대	77.3	13.6	4.5	4.5	100.0 (22)
$\chi^2(df)$			3.5(6)		
자녀수					
1명	77.8	16.7	2.8	2.8	100.0 (36)
2명	69.4	19.4	5.6	5.6	100.0 (36)
3명 이상	77.8	22.2	-	-	100.0 (9)
$\chi^2(df)$			1.8(6)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80.0	6.7	6.7	6.7	100.0 (15)
300~450만 미만	70.8	22.9	4.2	2.1	100.0 (48)
450~600만 미만	78.6	14.3	-	7.1	100.0 (14)
600만 이상	75.0	25.0	-	-	100.0 (4)
$\chi^2(df)$			4.4(9)		
비용지원 수혜*					
둘 다 경험	65.6	25.0	6.3	3.1	100.0 (32)

주: 둘 다 경험한 사람만 제시하여 전체 수와 차이가 있음.

0~2세 보육료를 더 선호하는 부모들은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에 의미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수가 3명 이상인 부모에게는 '어머니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률이 월등히 높았는데, 이를 통해 보육시설 이용이 어머니의 세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어서' 응답이 46.3%로 나타나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외별이는 어린이집 이용을 통해 가정 내에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보육료가 부담스러워서'의 응답 비율이 450만 미만 집단에서 일부 나타나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는 실제 보육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11〉 0-2세 보육료 지원 선호 이유

단위: %(명)

구 분	자녀가 가정에서보다 어린이집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므로	어머니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영아보육의 질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정보육이 어려운 경우 보육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 (수)
전체	46.2	31.2	14.0	4.3	4.3	100.0 (93)
성별						
여성	38.5	40.4	11.5	3.8	5.8	100.0 (52)
남성	56.1	19.5	17.1	4.9	2.4	100.0 (41)
$\chi^2(df)$			5.9(4)			
연령대						
20대	40.0	33.3	13.3	6.7	6.7	100.0 (15)
30대	42.1	31.6	17.5	3.5	5.3	100.0 (57)
40대	57.9	31.6	5.3	5.3	-	100.0 (19)
50대	100.0	-	-	-	-	100.0 (2)
$\chi^2(df)$			6.3(12)			
자녀수						
1명	50.0	36.8	10.5	-	2.6	100.0 (38)
2명	45.8	31.3	10.4	6.3	6.3	100.0 (48)
3명 이상	28.6	-	57.1	14.3	-	100.0 (7)
$\chi^2(df)$			17.9(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9.3	46.3	14.6	2.4	7.3	100.0 (41)
외벌이	59.6	19.2	13.5	5.8	1.9	100.0 (52)
$\chi^2(df)$			12.1(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5.0	20.0	35.0	5.0	5.0	100.0 (20)
300~450만 미만	53.3	28.9	6.7	4.4	6.7	100.0 (45)
450~600만 미만	56.3	31.3	6.3	6.3	-	100.0 (16)
600만 이상	25.0	58.3	16.7	-	-	100.0 (12)
$\chi^2(df)$			17.6(12)			
비용지원 수혜*						
둘 다 경험	46.4	30.4	14.3	3.6	5.4	100.0 (56)

* $p < .05$

주: 둘 다 경험한 사람만 제시하여 전체 수와 차이가 있음.

3) 안심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 여건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이 32.9%로 가장 높고, 공교육·보육 강화 17.9%,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16.8% 순이다. 전반적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보육 강화는 집단별로 유사하게 높거나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보육 강화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자녀 양육에 있어 교육·보육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반면 여성은 보육·교육기관의 질과 안전한 환경의 중요함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 내 양성 평등에 대해서도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고, 30~40대, 특히 30대 남성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보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가구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나 비용 부담은 적은 반면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과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에 대한 요구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12〉 안심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여건

단위: %(명)

구 분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보육 강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조성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가정 내 양성평등	기타	계(수)
전체	32.9	17.9	16.8	13.5	11.6	7.1	0.2	100.0 (1,013)
성별								
여성	30.3	14.3	16.1	17.1	11.8	10.4	-	100.0 (502)
남성	35.4	21.3	17.4	10.0	11.5	3.9	0.4	100.0 (511)
$\chi^2(df)$				35.6(6)***				
연령대								
20대	25.0	16.4	16.8	15.9	17.7	8.2	-	100.0 (220)
30대	35.8	19.3	16.0	11.5	11.5	5.8	-	100.0 (243)
40대	35.9	19.0	19.0	12.3	7.0	6.7	-	100.0 (284)
50대	33.5	16.5	15.0	14.7	11.7	7.9	0.8	100.0 (266)
$\chi^2(df)$				29.3(18)*				
성연령								
20대 여성	22.4	9.3	19.6	21.5	16.8	10.3	-	100.0 (107)
20대 남성	27.4	23.0	14.2	10.6	18.6	6.2	-	100.0 (113)
30대 여성	27.7	17.6	15.1	15.1	15.1	9.2	-	100.0 (119)
30대 남성	43.5	21.0	16.9	8.1	8.1	2.4	-	100.0 (124)
40대 여성	38.7	16.2	14.8	16.2	5.6	8.5	-	100.0 (142)

(표 IV-5-12 계속)

구 분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보육 강화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조성	보육·교 육기관의 질 향상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가정 내 양성평등	기타	계(수)
40대 남성	33.1	21.8	23.2	8.5	8.5	4.9	-	100.0 (142)
50대 여성	29.9	13.4	15.7	16.4	11.2	13.4	-	100.0 (134)
50대 남성	37.1	19.7	14.4	12.9	12.1	2.3	1.5	100.0 (132)
$\chi^2(df)$				89.1(4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5.4	21.1	18.3	9.7	9.1	5.7	0.6	100.0 (175)
300~450만 미만	33.6	17.5	17.2	16.1	10.0	5.4	0.2	100.0 (429)
450~600만 미만	34.7	20.3	12.4	11.2	12.7	8.8	-	100.0 (251)
600만 이상	25.3	11.4	20.9	14.6	17.1	10.8	-	100.0 (158)
$\chi^2(df)$				33.5(18)*				

* $p < .05$, *** $p < .001$

V.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자녀양육관

제5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지닌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의 특성을 담고 있다. 1절에는 이혼 후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40대 한부모의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특성과 요구를 살펴보았고, 2절에는 결혼 후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무자녀 기혼 성인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 특성과 요구를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포커스집단 면담을 통해 얻은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의 특성과 자녀 수에 따른 한자녀와 세 자녀 이상 가족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1. 한부모가족

이혼 후 직접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40대 한부모 107명을 대상으로 부모됨과 자녀양육관 특성을 조사하였다.

가. 자녀에 대한 인식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52.3%, 없어도 상관없다가 16.5% 수준이었다. 성별 응답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은 남성이 높고, 여성 중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21.4%로 다수 있었다.

〈표 V-1-1〉 자녀의 필요성

구 분	단위: %(명)				계(수)
	없는 것이 더 좋다	없어도 상관없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꼭 있어야 한다	
전체	0.9	16.8	29.9	52.3	100.0 (107)
성별					
여성	0	21.4	34.3	44.3	100.0 (70)
남성	2.7	8.1	21.6	67.6	100.0 (37)
$\chi^2(df)$	8.25(3)*				

(표 V-1-1 계속)

구 분	없는 것이 더 좋다	없어도 상관없다	있는 것이 것보다 낫다	없는 것보다 꼭 있어야 한다	계(수)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5	17.6	29.4	51.5	100.0 (68)
300만원 이상	0	15.4	30.8	53.8	100.0 (39)
$\chi^2(df)$	0.691(3)				
교육수준					
대졸 미만	2.4	11.9	21.4	64.3	100.0 (42)
대졸 이상	0	20	35.4	44.6	100.0 (65)
$\chi^2(df)$	6.089(3)				

* $p < .05$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가 될 심리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이 47.4%로 가장 높고, 경제적 준비가 덜 되어서가 42.1% 순이었다. 20~50대 집단과 비교하여 한부모는 자녀를 갖기 전에 경제적 준비 이상으로 부모 스스로 부모됨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가 안되어	자녀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 있을까봐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부모가 될 정서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계(수)
전체	42.1	5.3	5.3	47.4	100.0 (19)
성별					
여성	46.7	0.0	6.7	46.7	100.0 (15)
남성	25.0	25.0	0.0	50.0	100.0 (4)
$\chi^2(df)$	4.376(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8.5	0.0	7.7	53.8	100.0 (13)
300만원 이상	50.0	16.7	0.0	33.3	100.0 (6)
$\chi^2(df)$	3.123(3)				
교육수준					
대졸 미만	33.3	0.0	0.0	66.7	100.0 (6)
대졸 이상	46.2	7.7	7.7	38.5	100.0 (13)
$\chi^2(df)$	1.773(3)				
20~50대 조사	43.3	10.2	20.4	14.6	100.0 (157)

주. 20~50대 조사 결과 중 '아이를 싫어함(5.1%)', '기타(6.4%)'를 제외하고 비교함.

자녀의 가치와 관련된 질문에서 한부모는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점에 4점 평균 3.6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졸 미만에서 자녀를 갖는 것의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었다. ‘자녀가 부부간 관계를 굳건히 해준다’는 점에는 2.7점의 동의 정도를 보여 20~50대 집단(3.3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에는 2.0점의 낮은 동의 정도를 보였는데, 특히 여성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경향을 보였다.

〈표 V-1-3〉 자녀의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3.6	2.7	3.0	2.2	2.0	2.5
성별						
여성	3.5	2.8	3.0	2.2	1.8	2.5
남성	3.7	2.7	3.0	2.1	2.4	2.5
<i>t</i>	-1.5	0.5	-0.3	0.5	-3.2**	-0.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6	2.7	3.0	2.2	2.0	2.5
300만원 이상	3.5	2.8	3.0	2.1	2.1	2.5
<i>t</i>	0.3	-0.4	0.0	0.9	-0.9	0.3
교육수준						
대졸 미만	3.7	2.8	3.1	2.3	2.2	2.5
대졸 이상	3.4	2.7	2.9	2.0	1.9	2.5
<i>t</i>	2.7**	1.1	1.5	2.0*	1.5	0.3
20~50대 조사	3.3	3.3	3.1	2.3	2.5	2.6

** $p < .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①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 ②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 ③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 ④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 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 ⑥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나. 부모됨에 대한 인식

1) 부모됨의 가치 및 한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됨에 대한 한부모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 ‘자녀 출산 전 부모가 되기 위

한 심리·정서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가 3.6점으로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3.4점)보다 높았다. 이는 한부모의 경우, 부모가 되기 이전의 심리·정서적 준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준비에 대한 필요성 응답은 도시지역이 3.4점으로 읍면지역(3.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이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1.7점이었는데,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과 대졸 이상 집단에서 동의 정도가 낮았다. 또한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이어야 한다'는 점에도 대졸 이상의 그룹에서 동의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표 V-1-4〉 부모됨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3.3 (07)	3.3 (06)	3.6 (05)	3.4 (05)	1.7 (07)	3.4 (06)	2.6 (07)	2.4 (08)	3.5 (06)	2.7 (08)	2.7 (07)	(107)
성별												
여성	3.3 (06)	3.3 (06)	3.6 (05)	3.4 (05)	1.6 (07)	3.4 (05)	2.6 (07)	2.5 (08)	3.5 (05)	2.7 (08)	2.7 (06)	(70)
남성	3.1 (07)	3.2 (06)	3.5 (05)	3.3 (05)	1.8 (08)	3.5 (06)	2.4 (07)	2.4 (08)	3.4 (06)	2.8 (08)	2.6 (09)	(37)
$\chi^2(df)/t$	1.5	0.5	0.9	0.9	-0.9	-0.9	1.6	0.8	1.0	-1.0	0.6	
지역규모												
도시(동)	3.3 (07)	3.2 (06)	3.6 (05)	3.4 (05)	1.6 (07)	3.4 (05)	2.6 (07)	2.5 (08)	3.5 (05)	2.7 (08)	2.6 (07)	(78)
읍면	3.1 (07)	3.3 (06)	3.5 (05)	3.2 (04)	1.7 (08)	3.4 (06)	2.4 (06)	2.4 (09)	3.4 (06)	2.6 (08)	2.8 (07)	(29)
$\chi^2(df)/t$	1.3	-1.0	1.1	2.5*	-0.5	-0.3	1.3	0.5	1.0	0.7	-1.3	
가구소득												
300만 미만	3.3 (07)	3.2 (06)	3.5 (05)	3.4 (05)	1.8 (08)	3.4 (06)	2.7 (07)	2.5 (08)	3.5 (06)	2.8 (07)	2.6 (06)	(68)
300만 이상	3.3 (06)	3.3 (06)	3.6 (05)	3.4 (05)	1.4 (05)	3.5 (06)	2.4 (07)	2.3 (07)	3.5 (06)	2.6 (08)	2.7 (08)	(39)
$\chi^2(df)/t$	-0.4	-0.4	-0.7	0.0	3.1**	-0.6	2.0	1.0	-0.5	1.0	-1.0	
교육수준												
대졸 미만	3.2 (08)	3.2 (06)	3.6 (05)	3.5 (05)	1.9 (08)	3.5 (06)	2.7 (07)	2.6 (08)	3.5 (06)	2.8 (07)	2.6 (05)	(42)
대졸 이상	3.3 (06)	3.3 (06)	3.6 (05)	3.3 (05)	1.5 (07)	3.4 (05)	2.5 (07)	2.3 (08)	3.5 (06)	2.6 (08)	2.7 (08)	(65)
$\chi^2(df)/t$	-0.7	-1.2	0.4	1.1	2.2*	0.5	1.8	2.2*	0.3	1.1	-0.7	

* $p < .05$, ** $p < .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 ②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 ③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 정서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
- ④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 ⑤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이다
- ⑥ 자녀가 영유아(초등 이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⑦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 ⑧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므로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
- ⑨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 ⑩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 ⑪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혼을 선택한 것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한부모가 된 것은 자녀를 위해서도 잘한 선택이었다'가 55.1%로 약간 더 높고, '자녀 때문에 한부모가 된 것을 이따금 후회한다'가 44.9% 이었다.

〈표 V-1-5〉 한부모됨의 선택

단위: %(명)

구 분	자녀 때문에 한부모가 된 것을 이따금씩 후회한 적이 있다	한부모가 된 것은 자녀를 위해서도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계(수)
전체	44.9	55.1	100.0 (107)
성별			
여성	42.9	57.1	100.0 (70)
남성	48.6	51.4	100.0 (37)
$\chi^2(df)$	0.328(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5.6	54.4	100.0 (68)
300만원 이상	43.6	56.4	100.0 (39)
$\chi^2(df)$	0.04(1)		
교육수준			
대졸 미만	50.0	50.0	100.0 (42)
대졸 이상	41.5	58.5	100.0 (65)
$\chi^2(df)$	0.739(1)		

자녀 때문에 이혼 결정을 이따금 후회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된 상황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타인을 의식하거나 위축될 때'가 41.7%로 가장 높고, '성이 다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역할에 한계를 느낄 때'와 '혼자 벌여 기르기에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18.8% 순이었다.

〈표 V-1-6〉 한부모됨의 선택을 후회한 경험: 1순위

단위: %(명)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계(수)
전체	18.8	41.7	18.8	8.3	8.3	2.1	2.1	100.0 (48)

(표 V-1-6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계(수)
성별								
여성	13.3	46.7	26.7	3.3	3.3	3.3	3.3	100.0 (30)
남성	27.8	33.3	5.6	16.7	16.7	0.0	0.0	100.0 (18)
$\chi^2(df)$	10.406(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9.4	41.9	19.4	6.5	6.5	3.2	3.2	100.0 (31)
300만원 이상	17.6	41.2	17.6	11.8	11.8	0.0	0.0	100.0 (17)
$\chi^2(df)$	1.876(6)							
교육수준								
대졸 미만	28.6	38.1	14.3	9.5	4.8	0.0	4.8	100.0 (21)
대졸 이상	11.1	44.4	22.2	7.4	11.1	3.7	0.0	100.0 (27)
$\chi^2(df)$	5.13(6)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① 성이 다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역할에 한계를 느낄 때
- ②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타인을 의식하거나 정서적으로 위축된다고 생각될 때
- ③ 혼자 벌여 자녀를 기르기에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 ④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긴급 상황에 양육지원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
- ⑤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 ⑥ 자녀가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할 때

이혼 결정을 후회한 상황에 대한 1, 2순위 결과를 합산하면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52.1%로 가장 높고, 자녀가 위축될 때 50.0% 순으로 나타난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여 힘들음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에게 73.3%로 높게 나타났고, 남성은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부모가 함께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때에 대한 응답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편모는 경제력, 편부는 주변의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V-1-7〉 한부모됨의 선택을 후회한 경험: 1+2순위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수)
전체	20.8	50.0	52.1	20.8	20.8	25.0	6.3	4.2 (48)
성별								
여성	16.7	56.7	73.3	23.3	13.3	6.7	3.3	6.7 (30)
남성	27.8	38.9	16.7	16.7	33.3	55.6	11.1	0.0 (1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2.6	51.6	54.8	25.8	19.4	19.4	3.2	3.2 (31)
300만원 이상	17.6	47.1	47.1	11.8	23.5	35.3	11.8	5.9 (17)

(표 V-1-7 계속)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타	(수)
교육수준									
대졸 미만	28.6	47.6	57.1	23.8	19.0	19.0	0.0	4.8	(21)
대졸 이상	14.8	51.9	48.1	18.5	22.2	29.6	11.1	3.7	(27)

- 주: ① 성이 다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역할에 한계를 느낄 때
 ② 자녀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타인을 의식하거나 정서적으로 위축된다고 생각될 때
 ③ 혼자 벌여 자녀를 기르기에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④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긴급 상황에 양육지원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
 ⑤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 때
 ⑥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부모가 함께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때
 ⑦ 자녀가 자신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할 때

2) 자녀성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정도 및 지원시기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모에 대해서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86.9%로 ‘나쁜 영향을 주더라도 부모가 함께 기르는 것이 낫다’는 의견(13.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1-8〉 자녀성장에 미치는 부모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혹은 아버지는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부모역도 자녀는 부모가 함께 기르는 것이 낫다	계(수)
전체	86.9	13.1	100.0 (107)
성별			
여성	91.4	8.6	100.0 (70)
남성	78.4	21.6	100.0 (37)
$\chi^2(df)$		3.625(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86.8	13.2	100.0 (68)
300만원 이상	87.2	12.8	100.0 (39)
$\chi^2(df)$		0.004(1)	
교육수준			
대졸 미만	88.1	11.9	100.0 (42)
대졸 이상	86.2	13.8	100.0 (65)
$\chi^2(df)$		0.085(1)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에게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

견에서는 정서적 지지는 대학 졸업까지(36.4%), 대학 입학 전까지(26.2%) 순으로 많고, 평생 동안은 17.8%로 나타나 평생 동안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난 20~50대 응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경제적지지 역시 대학 졸업까지(46.7%), 대학 입학 전까지(22.4%), 취업까지(15.9%) 순으로 나타났는데, 20~50대 응답에서는 대학 졸업까지(49.3%), 취업까지(23.6%), 결혼까지(12.0%) 순으로 나타나 한부모가 생각하는 경제적 지지 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V-1-9〉 자녀 지원시기: 한부모

단위: %(명)

구 분	대학 입학 전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언제라도	계(수)
정서적 지지	26.2	36.4	14.0	4.7	0.9	17.8	100.0 (107)
경제적 지지	22.4	46.7	15.9	6.5	3.7	4.7	100.0 (107)
20~50대 조사							
정서적 지지	19.5	17.2	8.1	12.3	9.5	33.4	100.0 (1,013)
경제적 지지	9.9	49.3	23.6	12.0	3.0	2.3	100.0 (1,013)

3) 좋은 부모됨의 조건 및 부모 역할 수행 평가

가) 좋은 부모됨의 조건

한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의 덕목은 자녀와의 소통이 3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인내심 19.6%, 경제력은 16.8% 순이다. 이는 경제력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던 20~50대 집단, 의도적 무자녀 집단과는 다른 경향이다.

〈표 V-1-10〉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덕목: 한부모

단위: %(명)

구 분	경제력	정서적 지지 또는 이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책임감	자녀와의 소통	인내심	바른 인성	근면·성실성	민음	지식·지성	건강함	계(수)
전체	16.8	9.3	5.6	0.9	32.7	19.6	8.4	2.8	0.9	0.9	1.9	100.0 (107)
성별												
여성	14.3	8.6	5.7	1.4	31.4	21.4	8.6	2.9	1.4	1.4	2.9	100.0 (70)
남성	21.6	10.8	5.4	0.0	35.1	16.2	8.1	2.7	0.0	0.0	0.0	100.0 (37)
$\chi^2(df)$					3.996(10)							

(표 V-1-10 계속)

구 분	경제 력	정서적 지지 또는 이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책임 감	자녀 와의 소통	인내 심	바른 인성	근면· 성실 성	믿음	지식· 지성	건 강 합	계(수)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6.2	8.8	7.4	0.0	32.4	17.6	11.8	1.5	1.5	1.5	1.5	100.0 (68)
300만원 이상	17.9	10.3	2.6	2.6	33.3	23.1	2.6	5.1	0.0	0.0	2.6	100.0 (39)
$\chi^2(df)$					8.22(10)							
교육수준												
대졸 미만	16.7	4.8	7.1	0.0	31.0	21.4	7.1	4.8	2.4	2.4	2.4	100.0 (42)
대졸 이상	16.9	12.3	4.6	1.5	33.8	18.5	9.2	1.5	0.0	0.0	1.5	100.0 (65)
$\chi^2(df)$					6.942(10)							
20~50대 조사	21.8	3.6	8.1	3.8	18.8	18.7	1.8	11.5	3.3	1.5	3.6	1.9 (1013)

주: 20~50대 조사 결과 중 '기타(18.%)'를 제외하고 비교함.

바람직한 부모가 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변의 편견과 간섭이 36.0%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50대 집단(9.7%)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로, 한부모는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나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1> 좋은 부모가 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점: 한부모

단위: %(명)

구 분	경제력	주변의 편견과 간섭	인내력	권위적 인 태도	세대 차이	직장생활 등으로 함께하는 시간 부족	자녀에 대한 기대치	공감능 력 부족	계(수)
전체	29.0	36.0	4.0	7.0	7.0	10.0	2.0	5.0	100.0(100)
성별									
여성	29.9	32.8	3.0	7.5	7.5	11.9	3.0	4.5	100.0 (67)
남성	27.3	42.4	6.1	6.1	6.1	6.1	0.0	6.1	100.0 (33)
$\chi^2(df)$				3.123(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5.4	34.9	4.8	9.5	6.3	11.1	3.2	4.8	100.0 (63)
300만원 이상	35.1	37.8	2.7	2.7	8.1	8.1	0.0	5.4	100.0 (37)
$\chi^2(df)$				4.121(7)					
교육수준									
대졸 미만	30.8	41.0	2.6	7.7	2.6	12.8	2.6	0.0	100.0 (39)
대졸 이상	27.9	32.8	4.9	6.6	9.8	8.2	1.6	8.2	100.0 (61)
$\chi^2(df)$				6.495(7)					
20~50대 조사	33.1	9.7	7.0	15.5	16.5	10.2	2.9	2.4	100.0(626)

주: 20~50대 조사 결과 중 '교육제도 등 사회 환경(2.7%)'을 제외하고 비교함.

한부모라는 사실이 좋은 부모가 되는데 제약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1%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계가 있다는 응답도 43.9% 있었다.

〈표 V-1-12〉 한부모의 좋은 부모됨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한부모이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부모라는 사실이 좋은 부모가 되는데 제약이 되지는 않는다	계(수)
전체	43.9	56.1	100.0 (107)
성별			
여성	42.9	57.1	100.0 (70)
남성	45.9	54.1	100.0 (37)
$\chi^2(df)$	0.094(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9.7	60.3	100.0 (68)
300만원 이상	51.3	48.7	100.0 (39)
$\chi^2(df)$	1.348(1)		
교육수준			
대졸 미만	52.4	47.6	100.0 (42)
대졸 이상	38.5	61.5	100.0 (65)
$\chi^2(df)$	2.007(1)		

나) 부모 역할 수행 평가

부모로서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는 4점 만점에 2.5점 수준으로, 20~50대 기혼 유자녀 집단(3.0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300만 미만에서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나 소득으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V-1-13〉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한부모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임	충분하지도모 자라지도 않음	충분한 편임	계(수)	5점평균
전체	9.3	39.3	47.7	3.7	100.0 (107)	2.5
성별						
여성	12.9	35.7	48.6	2.9	100.0 (70)	2.6
남성	2.7	45.9	45.9	5.4	100.0 (37)	2.5
$\chi^2(df)/t$	3.772(3)					0.9

(표 V-1-13 계속)

구 분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임	충분하지도 아래지도 않음	충분한 편임	계(수)	5점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4	30.9	57.4	4.4	100.0 (68)	2.4
300만원 이상	12.8	53.8	30.8	2.6	100.0 (39)	2.8
$\chi^2(df)/t$						-2.5*
교육수준						
대졸 미만	7.1	35.7	52.4	4.8	100.0 (42)	2.5
대졸 이상	10.8	41.5	44.6	3.1	100.0 (65)	2.6
$\chi^2(df)/t$						-1.0
20~50대 조사	2.4	21.5	49.4	23.5	100.0 (697)	3.0

* $p < .05$

주: 1) 평균은 '매우 부족' 1점~'매우 충분'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20~50대 조사 결과 중 '매우 충분함(3.2%)'을 제외하고 비교함.

부모 역할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경제적 지원이 36.4%로 높고 정서적 지지 21.8%, 배우자 부재로 인한 성역할 모델링 20.0% 순이었다. 가구소득 300만 미만에서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토로한 반면, 300만 이상에서는 성역할 모델링에 대한 역할 부족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지원은 7.7%로 낮았다.

<표 V-1-14> 부모역할이 가장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점: 한부모

단위: %(명)

구 분	양육 지식	정서적 지지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학업 지도	경제적 지원	배우자 부재로 인한 성역할 모델링	계(수)
전체	9.1	21.8	5.5	7.3	36.4	20.0	100.0 (55)
성별							
여성	8.3	25.0	5.6	5.6	36.1	19.4	100.0 (36)
남성	10.5	15.8	5.3	10.5	36.8	21.1	100.0 (19)
$\chi^2(df)$							0.992(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1.9	19.0	7.1	2.4	45.2	14.3	100.0 (42)
300만원 이상	0.0	30.8	0.0	23.1	7.7	38.5	100.0 (13)
$\chi^2(df)$							15.697(5)**
교육수준							
대졸 미만	12.5	25.0	8.3	0.0	41.7	12.5	100.0 (24)
대졸 이상	6.5	19.4	3.2	12.9	32.3	25.8	100.0 (31)
$\chi^2(df)$							6.013(5)

** $p < .01$

자신의 부모 역할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한부모 중 49.1%는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 노력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제로 추가 근무를 한다는 응답이 27.3% 이었다.

〈표 V-1-15〉 부족한 부모역할 보완을 위한 노력: 한부모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기타	계(수)	
전체	9.1	49.1	9.1	27.3	3.6	1.8	100.0 (55)	
성별								
여성	5.6	50.0	11.1	25.0	5.6	2.8	100.0 (36)	
남성	15.8	47.4	5.3	31.6	0.0	0.0	100.0 (19)	
$\chi^2(df)$	3.699(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9.5	45.2	11.9	28.6	2.4	2.4	100.0 (42)	
300만원 이상	7.7	61.5	0.0	23.1	7.7	0.0	100.0 (13)	
$\chi^2(df)$	3.311(5)							
교육수준								
대졸 미만	4.2	50.0	8.3	29.2	4.2	4.2	100.0 (24)	
대졸 이상	12.9	48.4	9.7	25.8	3.2	0.0	100.0 (31)	
$\chi^2(df)$	2.55(5)							

주: ① 양육 지식을 얻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함
 ②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 노력
 ③ 자녀의 학업 지도를 위해 교육의 기회를 주거나, 직접 자녀 학업을 지도함
 ④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간제로 추가 근무를 하거나, 일자리를 알아봄
 ⑤ 배우자를 대신 하여 성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혈연 및 비혈연 성인과 만남 제공

다. 부모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한부모에게 가장 도움 되는 부모교육 내용은 '자녀의 심리·정서적 지원방안' 이 35.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자녀와의 관계를 위한 방법', '부모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극복방안' 순이었다.

1, 2순위 응답을 합산하였을 때에는 '자녀의 지원'(53.3%) 다음으로 '한부모가 이용 가능한 제도와 서비스 안내'가 50.5%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한부모들이 지원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1-16〉 한부모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 1순위

단위: %(명)

구 분	한부모로서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위한 방법	자녀 양육을 전담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와의 소통방법	성이 다른 자녀의 양육지원 전략	부모 부재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방안	한부모로서 서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극복 방안 지원	한부모 가정의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의 서비스 이용방법	계(수)
전체	21.5	5.6	5.6	35.5	16.8	15.0	100.0 (107)
성별							
여성	20.0	8.6	4.3	34.3	15.7	17.1	100.0 (70)
남성	24.3	0.0	8.1	37.8	18.9	10.8	100.0 (37)
$\chi^2(df)$				4.89(5)			
지역규모							
도시(동)	24.4	6.4	3.8	34.6	16.7	14.1	100.0 (78)
읍면	13.8	3.4	10.3	37.9	17.2	17.2	100.0 (29)
$\chi^2(df)$				3.23(5)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8	7.1	4.8	38.1	14.3	11.9	100.0 (42)
대졸 이상	20.0	4.6	6.2	33.8	18.5	16.9	100.0 (65)
$\chi^2(df)$				1.375(5)			

〈표 V-1-17〉 한부모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 1+2순위

단위: %(명)

구 분	한부모로서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위한 방법	자녀 양육을 전담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와의 소통방법	성이 다른 자녀의 양육지원 전략	부모 부재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방안	한부모로서 서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극복 방안 지원	한부모 가정의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의 서비스 이용방법	계(수)
전체	28.0	12.1	15.0	53.3	41.1	50.5	(107)
성별							
여성	25.7	14.3	10.0	57.1	42.9	50.0	(70)
남성	32.4	8.1	24.3	45.9	37.8	51.4	(3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6.5	14.7	13.2	51.5	41.2	52.9	(68)
300만원 이상	30.8	7.7	17.9	56.4	41.0	46.2	(39)
교육수준							
대졸 미만	35.7	11.9	14.3	52.4	35.7	50.0	(42)
대졸 이상	23.1	12.3	15.4	53.8	44.6	50.8	(65)

라. 양육신념

1)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 및 태도

자녀양육 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녀의 행동이나 성취해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편이다'에 동의 정도가 3.3점으로 가장 높았다. 자녀가 잘못할 때 매를 들 수 있다는 행동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과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동의 수준이 높았고, 읍면지역과 300만원 이상에서는 낮았다.

20~50대 집단의 응답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 버릇이 나빠진다',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자녀는 순종해야 한다'에 동의 정도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표 V-1-18〉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단위: 점(점),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3.0 (0.6)	2.6 (0.6)	2.9 (0.7)	3.3 (0.5)	3.1 (0.5)	2.6 (0.6)	2.0 (0.7)	(107)
성별								
여성	3.0 (0.6)	2.5 (0.6)	2.9 (0.7)	3.3 (0.6)	3.1 (0.5)	2.5 (0.6)	2.0 (0.7)	(70)
남성	3.0 (0.5)	2.7 (0.5)	2.8 (0.6)	3.2 (0.5)	3.1 (0.5)	2.6 (0.6)	2.2 (0.7)	(37)
$\chi^2(df)/t$	-0.1	-1.7	0.4	0.6	0.1	-1.2	-1.7	
지역규모								
도시(동)	3.1 (0.5)	2.6 (0.6)	2.9 (0.6)	3.3 (0.5)	3.1 (0.5)	2.6 (0.6)	2.1 (0.7)	(78)
읍면	2.9 (0.8)	2.5 (0.6)	2.6 (0.7)	3.3 (0.6)	3.2 (0.5)	2.5 (0.6)	2.0 (0.6)	(29)
$\chi^2(df)/t$	0.8	1.0	2.3*	0.2	-0.9	0.3	0.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 (0.6)	2.6 (0.6)	3.0 (0.6)	3.3 (0.5)	3.1 (0.5)	2.6 (0.6)	2.0 (0.7)	(68)
300만원 이상	3.0 (0.6)	2.6 (0.6)	2.6 (0.8)	3.3 (0.6)	3.1 (0.5)	2.4 (0.6)	2.1 (0.7)	(39)
$\chi^2(df)/t$	0.6	-0.1	2.6*	-0.3	0.2	1.4	-1.1	
교육수준								
대졸 미만	3.0 (0.5)	2.7 (0.6)	3.0 (0.7)	3.3 (0.5)	3.1 (0.5)	2.6 (0.6)	2.0 (0.7)	(42)
대졸 이상	3.0 (0.6)	2.5 (0.6)	2.8 (0.7)	3.3 (0.6)	3.1 (0.5)	2.5 (0.7)	2.1 (0.7)	(65)
$\chi^2(df)/t$	-0.3	1.6	1.5	-0.4	0.0	0.9	-0.5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①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 ②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 ③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 ④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편이다
- ⑤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하라고 한다
- ⑥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⑦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2) 부모 이혼시 자녀양육 주체

이혼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를 누가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머니가 38.3%로 가장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35.5% 순이었다. 성별 응답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 어머니가 키워야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25.7%) 순이었던 반면, 남성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54.1%로 가장 높고, 부모 공동(18.9%) 순이었다.

〈표 V-1-19〉 영유아를 둔 부모 이혼 시, 적합한 자녀양육의 주체

단위: %(명)

구 분	어머니	부모 공동	경제적으 로 안정된 부/모	부모가 아닌 혈연자	자녀의 선택에 따름	기타	계(수)
전체	38.3	15.9	35.5	0.9	7.5	1.9	100.0 (107)
성별							
여성	50.0	14.3	25.7	1.4	7.1	1.4	100.0 (70)
남성	16.2	18.9	54.1	0.0	8.1	2.7	100.0 (37)
$\chi^2(df)$	13.78(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6.8	13.2	42.6	0.0	4.4	2.9	100.0 (68)
300만원 이상	41.0	20.5	23.1	2.6	12.8	0.0	100.0 (39)
$\chi^2(df)$	8.851(5)						
교육수준							
대졸 미만	38.1	14.3	40.5	0.0	4.8	2.4	100.0 (42)
대졸 이상	38.5	16.9	32.3	1.5	9.2	1.5	100.0 (65)
$\chi^2(df)$	2.016(5)						

* $p < .05$

마. 양육 정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에 대해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데에 동의 정도가 3.3점으로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와 '자녀양육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가 각각 3.1점, 3.0점이었다. 반면, '자녀를 키우며 짜증이 난다', '참고만 사는 것 같다', '화풀이 하고 싶어질 때가 많다'는 응답에 동의정도는 20~50대 집단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났다.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생각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300만원 미만에서 이러한 생각에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V-1-20〉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

단위: 점(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수)
전체	3.0 (0.6)	2.0 (0.7)	2.2 (0.7)	1.9 (0.7)	3.1 (0.6)	3.0 (0.7)	3.3 (0.6)	3.3 (0.7)	(107)
성별									
여성	3.0 (0.6)	2.0 (0.7)	2.2 (0.7)	1.7 (0.7)	3.1 (0.6)	2.9 (0.7)	3.2 (0.6)	3.2 (0.6)	(70)
남성	2.9 (0.6)	0.0 (0.7)	-0.8 (0.8)	1.6 (0.7)	-0.3 (0.7)	0.9 (0.6)	0.8 (0.6)	0.4 (0.8)	(37)
<i>t</i>	1.1								
가구소득									
300만 미만	3.1 (0.6)	2.0 (0.8)	2.2 (0.8)	1.7 (0.7)	3.1 (0.7)	3.1 (0.7)	3.3 (0.6)	3.1 (0.6)	(68)
300만 이상	2.8 (0.7)	0.0 (0.7)	0.2 (0.7)	1.8 (0.7)	0.7 (0.6)	-0.3 (0.6)	-0.4 (0.6)	2.0* (0.8)	(39)
<i>t</i>	1.7								
교육수준									
대졸 미만	3.1 (0.6)	2.0 (0.7)	2.2 (0.6)	1.9 (0.7)	3.1 (0.7)	3.1 (0.7)	3.2 (0.5)	3.2 (0.6)	(42)
대졸 이상	2.9 (0.6)	0.0 (0.7)	0.3 (0.8)	-0.2 (0.7)	1.0 (0.6)	-1.6 (0.6)	-0.2 (0.7)	0.9 (0.8)	(65)
<i>t</i>	1.9								

* $p < .05$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①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 ②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 ③ 자녀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 ④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질 때가 많다
- ⑤ 자녀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
- ⑥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 ⑦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 ⑧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든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측면은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가 38.3%로 가장 높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30.8%, '자녀의 성장에 대한 성취감' 29.9% 순이었다.

20~50대 집단의 응답과 비교하여 양육 성취감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비율 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과 지지를 통해 기쁨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크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V-1-21〉 자녀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점

단위: %(명)

구 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기타	계(수)
전체	29.9	38.3	30.8	0.9	100.0 (107)
성별					
여성	21.4	37.1	41.4	0.0	100.0 (70)
남성	45.9	40.5	10.8	2.7	100.0 (37)
$\chi^2(df)$		14.188(3)**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7.9	38.2	33.8	0.0	100.0 (68)
300만원 이상	33.3	38.5	25.6	2.6	100.0 (39)
$\chi^2(df)$		2.523(3)			
교육수준					
대졸 미만	31.0	40.5	28.6	0.0	100.0 (42)
대졸 이상	29.2	36.9	32.3	1.5	100.0 (65)
$\chi^2(df)$		0.871(3)			
20~50대 조사	57.0	23.5	17.5	-	100.0 (697)

** $p < .01$

주. 20~50대 조사 결과 중 '자녀 돌봄과 지도(2.0%)'를 제외하고 비교함.

자녀 양육에서의 어려움은 양육비용 부담이 27.1%로 가장 높고, 일·가사의 병행 25.2%, 자녀의 심리적 안정 18.7% 순이었다. 이는 한부모가 자녀의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표 V-1-22〉 자녀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

단위: %(명)

구 분	자녀 양육 과 일의 병행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의 신체적 건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자녀가 아프거나 긴급 상황에 양육지원자 없음	기타	계(수)
전체	25.2	27.1	2.8	5.6	18.7	0.9	4.7	8.4	5.6	0.9	100.0 (107)
성별											
여성	28.6	27.1	1.4	4.3	20.0	0.0	5.7	7.1	5.7	0.0	100.0 (70)
남성	18.9	27.0	5.4	8.1	16.2	2.7	2.7	10.8	5.4	2.7	100.0 (37)
$\chi^2(df)$							7.72(9)				

(표 IV-2-9 계속)

구분	자녀 양육 과 일의 병행	양육 비용 에 대한 부담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 의 학업/ 직업 적 성취	자녀 의 심리 적 안정	자녀 의 신체 적 건강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배우 자의 무관 심, 부재	자녀가 아프거나 긴급 상황에 양육지원 자 없음	기타	계(수)
가구소득											
300만 미만	23.5	30.9	2.9	4.4	22.1	0.0	5.9	5.9	4.4	0.0	100.0 (68)
300만 이상	28.2	20.5	2.6	7.7	12.8	2.6	2.6	12.8	7.7	2.6	100.0 (39)
$\chi^2(df)$	8.783(9)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8	35.7	4.8	7.1	14.3	0.0	4.8	7.1	2.4	0.0	100.0 (42)
대졸 이상	26.2	21.5	1.5	4.6	21.5	1.5	4.6	9.2	7.7	1.5	100.0 (65)
$\chi^2(df)$	6.611(9)										

바. 양육 시간 및 비용

1) 양육 지원자

상황별 주 양육 지원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모 출근~자녀 등원, 자녀 하원~부모 퇴근까지는 자녀 혼자 보내는 비율이 각각 33.6%, 34.6%로 가장 높았다. 또한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비율 역시 33.6% 높게 나타나, 한부모는 돌봄 공백에 주로 자녀 혼자 보내게 하거나 혈연인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는 긴급한 상황에는 조부모와 혈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58.9%로 다수이고, 전 배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4.7% 있었다. 자녀 혼자 보내는 경우 역시 6.7%로 긴급한 상황에 지원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연장 근무 시에는 역시 조부모와 혈연자의 도움을 얻는 경우가 60.7%이었고, 자녀 혼자 보내는 경우도 23.4%이었다.

〈표 V-1-23〉 상황별 주된 양육 지원자

구분	단위: %(명)											
	조부 모	조부모 외 혈연자	전 배우 자	이 이 돌 보 미 자 시 터	학 원	이 웃, 친 구 부 모	초 등 돌 봄 시 간 연 장 보 육 시 간 제 보 육	직 접 돌 봄	자 녀 혼 자	등· 하 교 (원) 시 간 에 맞 춰 조 정	기 타	계(수)
아프거나 다치는 긴급한 상황	37.4	21.5	4.7	-	-	0.9	0.9	26.2	4.7	2.8	0.9	100.0(107)

구 분	조부 모	조부모 외 혈연자	전 배우자	아이들 보미 시터	학원	이웃, 친구 부모	초등돌봄, 시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직접 돌봄	자녀 혼자	등·하교 (원)시간에 맞춰 조정	기 타	계(수)
예상치 못한 야근, 휴일근무	41.1	19.6	2.8	-	-	1.9	-	8.4	23.4	0.9	1.9	100.0(107)
부모 출근 후 ~자녀 등원 전	33.6	8.4	0.9	1.9	1.9	-	0.9	13.1	33.6	4.7	0.9	100.0(107)
자녀 하원 후 ~부모 퇴근 전	33.6	6.5	1.9	1.9	4.7	-	2.8	8.4	34.6	4.7	0.9	100.0(107)

주: 근무시간과 관련한 문항의 '직접 돌봄'에는 미취업 부모의 응답을 포함함.

2) 자녀와의 대화 및 소통

자녀와 주로 대화하는 시간은 '하교·퇴근 후'가 38.3%로 가장 빈번하고, '식사 하며' 20.6%, '이동 시간' 14.0% 순이었다. '자녀와 놀이(학습지도)하면서'는 7.5%로 한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의 학업이나 발달을 돕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V-1-24〉 자녀와 주로 대화하는 시간

단위: %(명)

구 분	식사를 (외식)하면서	자녀를 데려다 주는 등 이동 시간에	하교퇴근 후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가사일 (요리, 청소) 중에	자녀와 놀이 (학습지도) 시간을 가지면서	따로 둘만의 대화 시간 마련	기타	계(수)
전체	20.6	14.0	38.3	2.8	7.5	7.5	9.3	100.0 (107)
성별								
여성	20.0	14.3	32.9	2.9	8.6	10.0	11.4	100.0 (70)
남성	21.6	13.5	48.6	2.7	5.4	2.7	5.4	100.0 (37)
$\chi^2(df)$				4.607(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0.6	13.2	36.8	4.4	4.4	8.8	11.8	100.0 (68)
300만원 이상	20.5	15.4	41.0	0.0	12.8	5.1	5.1	100.0 (39)
$\chi^2(df)$				5.884(6)				
교육수준								
대졸 미만	19.0	11.9	35.7	4.8	9.5	4.8	14.3	100.0 (42)
대졸 이상	21.5	15.4	40.0	1.5	6.2	9.2	6.2	100.0 (65)
$\chi^2(df)$				4.24(6)				

자녀가 대화를 원치 않을 때 한부모의 53.3%는 나중에 원할 때 대화하자고 제안, 22.4%는 주제를 바꿔 대화를 시도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50대 집단 응답과 유사한 경향을 띤다. 가구소득에 따라서 대처 방식에 차이를 보였는데, 3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다는 응답이 17.6%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25〉 자녀가 대화를 원치 않을 경우의 부모 행동

단위: %(명)

구분	대화를 중단하고 회피함	동일한 주제로 대화를 지속	주제를 바꿔 대화를 시도함	자녀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함	나중에 자녀가 원할 때 대화 하자고 제안함	기타	계(수)
전체	8.4	2.8	22.4	12.1	53.3	0.9	100.0 (107)
성별							
여성	7.1	1.4	17.1	17.1	55.7	1.4	100.0 (70)
남성	10.8	5.4	32.4	2.7	48.6	0.0	100.0 (37)
$\chi^2(df)$				9.185(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	4.4	17.6	17.6	54.4	1.5	100.0 (68)
300만원 이상	15.4	0.0	30.8	2.6	51.3	0.0	100.0 (39)
$\chi^2(df)$				12.431(5)*			
교육수준							
대졸 미만	4.8	2.4	28.6	19.0	45.2	0.0	100.0 (42)
대졸 이상	10.8	3.1	18.5	7.7	58.5	1.5	100.0 (65)
$\chi^2(df)$				6.493(5)			
20~50대 조사	15.4	7.9	23.8	6.7	44.9	1.3	100.0 (697)

* $p < .05$

전 배우자와 자녀 간 소통에 대한 질문에는 전혀 없다는 경우가 49.5%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29.0%, 특별한 날 만남 11.2% 순이었다.

전 배우자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응답한 경우, 만남의 빈도는 주당 평균 0.9회 정도로 나타났다.

〈표 V-1-26〉 자녀와 전 배우자 간 소통방법 및 빈도

단위: %(명), 회(명)

구 분	자녀와 전 배우자 간 소통방법					정기적 만남 빈도		
	정기적으로 얼굴보고 만남	생일 등 특별한 날 만남	전화, 이메일, sns 등 이용	연락하거 나 만나지 않음	계(수)	평균 (주)	표준편차 (주)	(수)
전체	29.0	11.2	10.3	49.5	100.0 (107)	0.9	1.7	(31)
성별								
여성	25.7	10.0	14.3	50.0	100.0 (70)	0.8	1.6	(18)
남성	35.1	13.5	2.7	48.6	100.0 (37)	1.1	1.8	(13)
$\chi^2(df)$	4.176(3)					-0.4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7.9	10.3	11.8	50.0	100.0 (68)	0.8	1.5	(19)
300만원 이상	30.8	12.8	7.7	48.7	100.0 (39)	1.1	1.9	(12)
$\chi^2(df)$	0.618(3)					-0.4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8	16.7	16.7	42.9	100.0 (42)	1.2	2.1	(10)
대졸 이상	32.3	7.7	6.2	53.8	100.0 (65)	0.8	1.5	(21)
$\chi^2(df)$	5.833(3)					0.6		

주: 평균은 '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9.5%가 원활하다고 응답하였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남성 중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V-1-27〉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평가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원활하지 않다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원활한 편이다	매우 원활하다	계(수)	4점 평균
전체	0.9	19.6	69.2	10.3	100.0 (107)	2.9
성별						
여성	0.0	17.1	70.0	12.9	100.0 (70)	3.0
남성	2.7	24.3	67.6	5.4	100.0 (37)	2.8
$\chi^2(df)/t$	3.856(3)					1.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0.0	19.1	69.1	11.8	100.0 (68)	2.9
300만원 이상	2.6	20.5	69.2	7.7	100.0 (39)	2.8
$\chi^2(df)/t$	2.168(3)					0.9
교육수준						
대졸 미만	0.0	23.8	64.3	11.9	100.0 (42)	2.9
대졸 이상	1.5	16.9	72.3	9.2	100.0 (65)	2.9
$\chi^2(df)/t$	1.678(3)					-0.1

주: 평균은 '전혀 비원활' 1점~'매우 원활'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3) 양육 비용

한부모는 전체 가구소득의 37.9%를 자녀 양육을 위해 지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50대 집단(24.8%)과 비교하여 높은데 한부모 응답자의 가구소득이 낮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그만큼 자녀 양육 비용에 부담이 큰 한부모가 다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녀 양육 지출 비용 수준에 대해 전체의 64.5%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4점 평균 2.7점 수준이다. 특히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느끼는 부담 정도가 평균 2.9점으로 높았는데, 20~50대 집단에서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와 같은 결과이다.

〈표 V-1-28〉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 지출비용 비율

단위: %(명), 점

구분	가구소득 대비 자녀양육 비용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 정도					
	평균	표준 편차	(수)	매우 부담	부담	부담 안됨	전혀 부담안됨	계(수)	4점 평균
전체	37.9	18.5	(107)	13.1	51.4	30.8	4.7	100.0 (107)	2.7
성별									
여성	38.8	20.0	(70)	17.1	50	30	2.9	100.0 (70)	2.8
남성	36.1	15.5	(37)	5.4	54.1	32.4	8.1	100.0 (37)	2.6
<i>t</i>	0.7			4.101(3)					1.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0.0	20.2	(68)	17.6	54.4	23.5	4.4	100.0 (68)	2.9
300만원 이상	34.1	14.7	(39)	5.1	46.2	43.6	5.1	100.0 (39)	2.5
<i>t</i>	1.7			6.559(3)					2.3*
교육수준									
대졸 미만	41.2	19.5	(42)	16.7	52.4	23.8	7.1	100.0 (42)	2.8
대졸 이상	35.7	17.7	(65)	10.8	50.8	35.4	3.1	100.0 (65)	2.7
<i>t</i>	1.5			2.702(3)					0.6
20~50대 조사	24.8	16.6	(697)	13.1	46.6	31	9.3	100.0 (697)	2.6

* $p < .05$

주: 평균은 '전혀 비부담' 1점~'매우 부담'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81.3%로 4점 평균 2점 수준이다. 이 역시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27.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지원의 충분 정도 인식은 대졸 미만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V-1-29〉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 부족함	부족함	충분함	매우 충분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19.6	61.7	15.9	2.8	100.0 (107)	2.0
성별						
여성	24.3	58.6	15.7	1.4	100.0 (70)	1.9
남성	10.8	67.6	16.2	5.4	100.0 (37)	2.2
$\chi^2(df)/t$	3.926(3)					-1.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7.9	54.4	13.2	4.4	100.0 (68)	1.9
300만원 이상	5.1	74.4	20.5	0.0	100.0 (39)	2.2
$\chi^2(df)/t$	10.718(3)*					-1.6
교육수준						
대졸 미만	26.2	64.3	7.1	2.4	100.0 (42)	1.9
대졸 이상	15.4	60.0	21.5	3.1	100.0 (65)	2.1
$\chi^2(df)/t$	4.966(3)					-2.0*

* $p < .05$

주: 평균은 '매우 부족' 1점~'매우 충분'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지를 질문한 결과, 지원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72.0%,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15.9%이었다. 남성이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86.5%에 이르러,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높았다.

전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다고 응답한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평균 61만5천원 수준이었다.

〈표 V-1-30〉 전 배우자로부터의 양육비 지원 여부 및 월 평균 지원비용

단위: %(명), 원(명)

구 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 여부			계(수)	월 평균 지원비용	
	받은 적 없음	정기적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받음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평균	(수)
전체	72	12.1	15.9	100.0 (107)	614,706	(17)
성별						
여성	64.3	14.3	21.4	100.0 (70)	590,000	(15)
남성	86.5	8.1	5.4	100.0 (37)	800,000	(2)
$\chi^2(df)$	6.33(2)*				-0.9	

(표 V-1-30 계속)

구 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 여부				월 평균 지원비용	
	받은 적 없음	정기적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받음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계(수)	평균	(수)
가구소득						
300만 미만	66.2	16.2	17.6	100.0 (68)	612,500	(12)
300만 이상	82.1	5.1	12.8	100.0 (39)	620,000	(5)
$\chi^2(df)$		3.721(2)			0.0	
교육수준						
대졸 미만	76.2	11.9	11.9	100.0 (42)	580,000	(5)
대졸 이상	69.2	12.3	18.5	100.0 (65)	629,167	(12)
$\chi^2(df)$		0.866(2)			-0.3	

* $p < .05$

사. 양육 정보와 매체의 영향

1) 양육정보의 출처

한부모가 주로 양육정보를 얻는 경로는 인터넷이 33.6%로 가장 높고, 부모 26.2%, 친구, 지인 20.6% 순이었다. 친구와 부모 등으로부터 양육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70.0%에 달하는 20~50대 집단과 비교하여 주변 지인과 가족을 통한 정보 습득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1-31〉 양육정보 습득경로

구 분	단위: %(명)							계(수)
	부모, 친인척 등	친구, 이웃, 보모 등	인터넷	TV 프로그램	육아 서적	기타		
전체	26.2	20.6	33.6	10.3	8.4	0.9	100.0 (107)	
성별								
여성	22.9	22.9	31.4	10.0	11.4	1.4	100.0 (70)	
남성	32.4	16.2	37.8	10.8	2.7	0.0	100.0 (37)	
$\chi^2(df)$			4.398(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3.5	22.1	36.8	7.4	8.8	1.5	100.0 (68)	
300만원 이상	30.8	17.9	28.2	15.4	7.7	0.0	100.0 (39)	
$\chi^2(df)$			3.406(5)					

(표 V-1-31 계속)

구 분	부모 친인척 등	친구, 이웃, 보모 등	인터넷	TV 프로그램	육아 서적	기타	계(수)
교육수준							
대졸 미만	28.6	14.3	40.5	9.5	4.8	2.4	100.0 (42)
대졸 이상	24.6	24.6	29.2	10.8	10.8	0.0	100.0 (65)
$\chi^2(df)$	5.116(5)						
20~50대 조사	16.9	53.1	15.6	8.8	3.4	0.7	100.0 (697)

주. 20~50대 조사 결과 중 '부모교육(1.4%)'을 제외하고 비교함.

부모에게 가장 도움 되는 양육 정보원은 부모 및 친인척이 35.5%로 가장 높고, 친구나 이웃, TV, 인터넷 순이었다. 실제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와 달리 주변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가장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32>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정보 제공원

단위: %(명)

구 분	부모 및 친인척 등	친구, 이웃, 보모 등	인터넷	TV프로 그램	부모 교육 (센터등)	육아 서적	기타	계(수)
전체	35.5	17.8	12.1	13.1	9.3	11.2	0.9	100.0 (107)
성별								
여성	30.0	18.6	11.4	17.1	8.6	12.9	1.4	100.0 (70)
남성	45.9	16.2	13.5	5.4	10.8	8.1	0.0	100.0 (37)
$\chi^2(df)$	5.589(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9	13.2	17.6	16.2	10.3	10.3	1.5	100.0 (68)
300만원 이상	43.6	25.6	2.6	7.7	7.7	12.8	0.0	100.0 (39)
$\chi^2(df)$	10.174(6)							
교육수준								
대졸 미만	38.1	9.5	9.5	14.3	14.3	14.3	0.0	100.0 (42)
대졸 이상	33.8	23.1	13.8	12.3	6.2	9.2	1.5	100.0 (65)
$\chi^2(df)$	6.27(6)							

2) 매체(TV 육아프로그램과 인터넷)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가) TV 육아프로그램

TV 육아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쉽게 양육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응답이 높았던 20~50대 부모와 다르게 한부모는 TV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고, 최신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25.2%로 높았다. 이를 통해 한부모는 체험이나 물건에 대한 정보를 TV를 통해 다수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33〉 TV 육아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단위: %(명)

구분	긍정적 인 영향 없음	쉽게 양육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최신 정보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 (물건, 체험 등) 제공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	기타	계(수)
전체	12.1	18.7	25.2	25.2	17.8	0.9	100.0 (107)
성별							
여성	5.7	17.1	27.1	30.0	18.6	1.4	100.0 (70)
남성	24.3	21.6	21.6	16.2	16.2	0.0	100.0 (37)
$\chi^2(df)$				9.879(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1.8	14.7	27.9	26.5	19.1	0.0	100.0 (68)
300만원 이상	12.8	25.6	20.5	23.1	15.4	2.6	100.0 (39)
$\chi^2(df)$				4.202(5)			
교육수준							
대졸 미만	11.9	16.7	16.7	26.2	28.6	0.0	100.0 (42)
대졸 이상	12.3	20.0	30.8	24.6	10.8	1.5	100.0 (65)
$\chi^2(df)$				7.391(5)			
20~50대 조사	7.0	31.4	28.2	16.5	16.9	-	100.0 (1,013)

반면 TV 육아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응답이 43.0%로 가장 높았다. 특히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이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TV 속 상황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모 역할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음을 추측 수 있다.

〈표 V-1-34〉 TV 육아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

단위: %(명)

구 분	부정적 인 영향 없음	비전문 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	과소비 문화를 조장함	다른 부모와 비교 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함	무분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움	기타	계(수)
전체	9.3	4.7	28.0	43.0	13.1	1.9	100.0 (107)
성별							
여성	10.0	2.9	21.4	47.1	15.7	2.9	100.0 (70)
남성	8.1	8.1	40.5	35.1	8.1	0.0	100.0 (37)
$\chi^2(df)$				7.614(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7.4	4.4	23.5	45.6	19.1	0.0	100.0 (68)
300만원 이상	12.8	5.1	35.9	38.5	2.6	5.1	100.0 (39)
$\chi^2(df)$				11.143(5)*			
교육수준							
대졸 미만	7.1	4.8	23.8	40.5	23.8	0.0	100.0 (42)
대졸 이상	10.8	4.6	30.8	44.6	6.2	3.1	100.0 (65)
$\chi^2(df)$				8.274(5)			

* $p < .05$

나) 인터넷 육아정보

인터넷 육아정보에 대해서는 20~50대 집단과 동일하게 쉽게 양육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 가장 큰 장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최신정보를 얻고, 양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영향을 인터넷을 통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35〉 인터넷 육아정보의 긍정적 영향

단위: %(명)

구 분	긍정적 인 영향 없음	쉽게 양육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최신 정보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 (물건, 체험 등) 제공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	기타	계(수)
전체	6.5	52.3	6.5	17.8	15.9	0.9	100.0 (107)
성별							
여성	2.9	55.7	8.6	14.3	17.1	1.4	100.0 (70)
남성	13.5	45.9	2.7	24.3	13.5	0.0	100.0 (37)
$\chi^2(df)$				8.02(5)			

(표 V-1-35 계속)

구 분	긍정적 인 영향 없음	쉽게 양육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최신 정보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 (물건, 체험 등) 제공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	기타	계(수)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	57.4	7.4	14.7	16.2	0.0	100.0 (68)
300만원 이상	10.3	43.6	5.1	23.1	15.4	2.6	100.0 (39)
$\chi^2(df)$				5.11(5)			
교육수준							
대졸 미만	7.1	42.9	4.8	23.8	21.4	0.0	100.0 (42)
대졸 이상	6.2	58.5	7.7	13.8	12.3	1.5	100.0 (65)
$\chi^2(df)$				4.969(5)			
20~50대 조사	7.3	45.9	8.7	28.5	9.5	0.1	100.0 (1,013)

반면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인 영향은 정보의 무분별함이 27.1%로 높고, 과소비 문화 조장 및 상대적 박탈감 순이었다. 20~50대 집단과 마찬가지로 한부모도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36〉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

단위: %(명)

구 분	부정적 인 영향 없음	비전문 적인 과소비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	과소비 문화를 조장함	다른 부모와 비교 하며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게 함	무분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움	기타	계(수)
전체	10.3	17.8	22.4	21.5	27.1	0.9	100.0 (107)
성별							
여성	11.4	15.7	24.3	21.4	25.7	1.4	100.0 (70)
남성	8.1	21.6	18.9	21.6	29.7	0.0	100.0 (37)
$\chi^2(df)$				1.719(5)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10.3	17.6	23.5	20.6	27.9	0.0	100.0 (68)
300만원 이상	10.3	17.9	20.5	23.1	25.6	2.6	100.0 (39)
$\chi^2(df)$				1.965(5)			
교육수준							
대졸 미만	9.5	14.3	23.8	23.8	28.6	0.0	100.0 (42)
대졸 이상	10.8	20.0	21.5	20.0	26.2	1.5	100.0 (65)
$\chi^2(df)$				1.44(5)			
20~50대 조사	17.8	20.2	14.9	15.9	31.1	0.9	100.0 (1,013)

다) 매체와 양육정보원의 영향: 양육 가치관 및 양육행동 변화 경험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인한 가치관이나 행동의 변화 경험에 대해서는 77.6%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였고, 4점 평균에 2.8점으로 한부모가 20~50대보다 자녀양육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다소 높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혼자 양육을 하면서 주변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자칫 혼돈된 양육관이나 양육행동, 상대적인 박탈감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추측된다.

〈표 V-1-37〉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양육가치관 또는 양육행동의 변화 경험 여부

단위: %(명), 점

구 분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22.4	72.0	5.6	100.0 (107)	2.8
성별					
여성	18.6	75.7	5.7	100.0 (70)	2.9
남성	29.7	64.9	5.4	100.0 (37)	2.8
$\chi^2(df)/t$		1.744(2)			1.1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0.6	72.1	7.4	100.0 (68)	2.9
300만원 이상	25.6	71.8	2.6	100.0 (39)	2.8
$\chi^2(df)/t$		1.296(2)			1.0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8	71.4	4.8	100.0 (42)	2.8
대졸 이상	21.5	72.3	6.2	100.0 (65)	2.8
$\chi^2(df)/t$		0.15(2)			-0.4
20~50대 조사	73.2	20.7	1.3	100.0 (697)	2.2

주: 1)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음' 1점~'매우 그러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20~50대 조사 결과 중 '전혀 그렇지 않음(4.9%)'을 제외하고 비교함.

매체를 통해 양육행동이 변화한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 39.5%, 문화시간이 늘어남 21.1%로 자신의 부모 역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완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보인다. 다만 특정 육아용품이나 음식의 구입에 대한 비율이 17.1%로 높은 편이어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V-1-38〉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양육가치관 및 양육 행동의 변화 경험

단위: %(명)

구분	자녀와 대화 시간이 늘어남	자녀와의 문화·여가 활동 등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	학원 등 교육 방식의 변화	특정 육아용품이나 음식의 구입	자녀 이해, 정서적 지지 증진	잘못된 육아 정보에 대한 정정	기타	계(수)
전체	9.2	21.1	5.3	17.1	39.5	5.3	2.6	100.0 (76)
성별								
여성	9.4	17.0	7.5	20.8	41.5	3.8	0.0	100.0 (53)
남성	8.7	30.4	0.0	8.7	34.8	8.7	8.7	100.0 (23)
$\chi^2(df)$			10.019(6)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3	20.8	6.3	20.8	37.5	6.3	2.1	100.0 (48)
300만원 이상	14.3	21.4	3.6	10.7	42.9	3.6	3.6	100.0 (28)
$\chi^2(df)$			3.061(6)					
교육수준								
대졸 미만	6.9	20.7	10.3	13.8	41.4	6.9	0.0	100.0 (29)
대졸 이상	10.6	21.3	2.1	19.1	38.3	4.3	4.3	100.0 (47)
$\chi^2(df)$			4.392(6)					

아. 양육지원 요구

1) 양육지원정책

가) 수혜경험 및 만족도

한부모 가정 부모의 지원 정책 수혜경험을 질문한 결과, 30~40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육료·교육비와 가정양육수당, 방과후 돌봄 지원 경험이 순서대로 많았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중에서는 추가 교육비와 추가 양육비 지원 경험이 많다.

〈표 V-1-39〉 육아지원정책 수혜 경험

단위: %(명)

구분	현재 받음	과거 받음	받은 적 없음	계(수)
출산 휴가	-	21.5	78.5	100.0 (107)
육아휴직	-	5.6	94.4	100.0 (107)
단력근무제	0.9	0.9	98.1	100.0 (107)
보육료·교육비 지원	28.0	30.8	41.1	100.0 (107)

(표 V-1-39 계속)

구 분	현재 받음	과거 받음	받은 적 없음	계(수)
가정양육수당 지원	9.3	24.3	66.4	100.0 (107)
방과후돌봄	15.0	16.8	68.2	100.0 (107)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양육비 지원	9.3	9.3	81.3	100.0 (107)
추가 교육비 지원	15.0	10.3	74.8	100.0 (107)
주거 관련 지원	7.5	1.9	90.7	100.0 (107)
창업자금, 취업교육	1.9	1.9	96.3	100.0 (107)

육아지원 정책 만족도는 2.5~3.0점 분포이며, 보편 지원 정책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의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 정책별 불만족 사유를 살펴보면, 출산휴가는 기간이 짧아서, 육아휴직은 제도는 있으나 사용 못하는 분위기, 보육료·교육비, 가정양육수당은 지원이 적다는 이유이고, 방과후 돌봄은 지원금 액수와 선택사항이 없다는 점 이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중 추가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은 지원금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격 요건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주거관련 지원은 지원금이 적어서, 창업자금 및 취업교육 지원은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불만족 사유가 있었다.

〈표 V-1-40〉 육아지원정책별 만족도

단위: %(명), 점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수)	4점 평균
출산 휴가	13.0	26.1	52.2	8.7	100.0 (23)	2.6
육아휴직	16.7	16.7	50.0	16.7	100.0 (6)	2.7
탄력근무제	-	-	100.0	-	100.0 (2)	3.0
보육료·교육비 지원	6.3	15.9	66.7	11.1	100.0 (63)	2.8
가정양육수당 지원	5.6	36.1	52.8	5.6	100.0 (36)	2.6
방과후돌봄	5.9	8.8	73.5	11.8	100.0 (34)	2.9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양육비 지원	10.0	45.0	35.0	10.0	100.0 (20)	2.5
추가 교육비 지원	7.4	40.7	44.4	7.4	100.0 (27)	2.5
주거관련 지원	10.0	30.0	50.0	10.0	100.0 (10)	2.6
창업자금, 취업교육	25.0	-	50.0	25.0	100.0 (4)	2.8

주: 평균은 '매우 불만족' 1점~'매우 만족'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나) 육아지원정책 우선순위 및 선호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는 '보육료·교육비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24.3%로 높고, '탄력근무제' 17.8%, '육아휴직' 13.1% 순이었다. 보육료·교육비 지원 못지않게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지원이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탄력근무제'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보육료·교육비 지원'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300만원 미만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300만원 이상은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V-1-41〉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단위: %(명)

구 분	불임 부부 지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탄력 근무 제	보육료 교육비 지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방과후 돌봄	자녀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계(수)
전체	2.8	7.5	13.1	17.8	24.3	3.7	5.6	0.9	24.3	100.0 (107)
성별										
여성	4.3	5.7	15.7	22.9	15.7	1.4	2.9	1.4	30.0	100.0 (70)
남성	0.0	10.8	8.1	8.1	40.5	8.1	10.8	0.0	13.5	100.0 (37)
$\chi^2(df)$					21.458(8)**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	5.9	11.8	17.6	14.7	4.4	5.9	1.5	35.3	100.0 (68)
300만원 이상	2.6	10.3	15.4	17.9	41.0	2.6	5.1	0.0	5.1	100.0 (39)
$\chi^2(df)$					18.069(8)*					
교육수준										
대졸 미만	4.8	2.4	11.9	11.9	21.4	2.4	4.8	0.0	40.5	100.0 (42)
대졸 이상	1.5	10.8	13.8	21.5	26.2	4.6	6.2	1.5	13.8	100.0 (65)
$\chi^2(df)$					13.509(8)					

* $p < .05$, ** $p < .01$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응답 1, 2순위를 합산하면 '보육료·교육비 지원'에 대한 응답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탄력근무제'에 대한 요구도 모든 집단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나 혼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탄력근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점은 향후 지원 방안 모색에 고려할만 하다.

〈표 V-1-42〉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2순위

단위: %(명)

구 분	불입 부부 지원	출산 휴가	육아 휴직	탄력 근무 제	보육료 교육비 지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방과후 돌봄	자녀양육 친화적 안과 확충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수)
전체	3.7	10.3	21.5	30.8	50.5	11.2	17.8	11.2	43.0	(107)
성별										
여성	4.3	10.0	24.3	35.7	45.7	5.7	17.1	10.0	47.1	(70)
남성	2.7	10.8	16.2	21.6	59.5	21.6	18.9	13.5	35.1	(37)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	7.4	19.1	30.9	48.5	8.8	17.6	14.7	50.0	(68)
300만원 이상	5.1	15.4	25.6	30.8	53.8	15.4	17.9	5.1	30.8	(39)
교육수준										
대졸 미만	4.8	4.8	16.7	28.6	45.2	9.5	16.7	16.7	57.1	(42)
대졸 이상	3.1	13.8	24.6	32.3	53.8	12.3	18.5	7.7	33.8	(65)

다)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의 이용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3.7%로 매우 소수이었다. 또한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54.2%로 절반 이상이고, 알지만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42.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들이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추가 고찰이 필요하다.

〈표 V-1-43〉 한부모가정 지원센터를 비롯한 각종 지원센터 이용 여부

단위: %(명)

구 분	있다	알지만 이용해 본 적이 없다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계(수)
전체	3.7	42.1	54.2	100.0 (107)
성별				
여성	2.9	48.6	48.6	100.0 (70)
남성	5.4	29.7	64.9	100.0 (37)
$\chi^2(df)$		3.649(2)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	42.6	52.9	100.0 (68)
300만원 이상	2.6	41.0	56.4	100.0 (39)
$\chi^2(df)$		0.297(2)		

(표 V-143 계속)

구 분	있다	알지만 이용해 본 적이 없다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계(수)
교육수준				
대졸 미만	4.8	50.0	45.2	100.0 (42)
대졸 이상	3.1	36.9	60.0	100.0 (65)
$\chi^2(df)$		2.257(2)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에서 주로 운영하는 각 사업들이 필요한 정도를 질문한 결과, 학생 대상의 상담, 학습 클리닉, 성교육 등 자녀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점 평균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이 3.7점 순이었다.

〈표 V-1-44〉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사업의 필요성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계(수)	5점 평균
개인상담	1.9	11.2	34.6	42.1	10.3	100.0(107)	3.5
부모교육	1.9	12.1	28.0	45.8	12.1	100.0(107)	3.5
자녀교육	0.9	12.1	23.4	37.4	26.2	100.0(107)	3.8
자조모임	5.6	24.3	36.4	28.0	5.6	100.0(107)	3.0
구인 및 구직 정보 제공	5.6	7.5	22.4	40.2	24.3	100.0(107)	3.7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 1점~'매우 필요'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의 사업 중 '자조모임'에 대한 필요성은 5점 평균에 3점으로 제시된 프로그램 중 가장 낮은 점수였는데, 여성보다 남성에게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45〉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사업의 필요성: 한부모가정 자조모임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계(수)	5점 평균
전체	5.6	24.3	36.4	28.0	5.6	100.0(107)	3.0
성별							
여성	2.9	31.4	38.6	21.4	5.7	100.0(70)	3.0
남성	10.8	10.8	32.4	40.5	5.4	100.0(37)	3.2
$\chi^2(df)/t$			10.373(4)*				-1.2

(표 V-145 계속)

구 분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계(수)	5점 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4.4	23.5	39.7	26.5	5.9	100.0 (68)	3.1
300만원 이상	7.7	25.6	30.8	30.8	5.1	100.0 (39)	3.0
$\chi^2(df)/t$			1.253(4)				0.3
교육수준							
대졸 미만	0.0	23.8	42.9	28.6	4.8	100.0 (42)	3.1
대졸 이상	9.2	24.6	32.3	27.7	6.2	100.0 (65)	3.0
$\chi^2(df)/t$			4.758(4)				0.9

* $p < .05$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 1점~'매우 필요'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구인 및 구직 정보 제공'에서는 가구소득, 교육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과 대졸 미만 그룹에서 5점 평균 4점으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V-1-46> 한부모가정 지원센터 사업 필요성: 한부모가정의 구인 및 구직 정보 제공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어느정도 필요	매우 필요	계(수)	5점 평균
전체	5.6	7.5	22.4	40.2	24.3	100.0 (107)	3.7
성별							
여성	4.3	10.0	17.1	41.4	27.1	100.0 (70)	3.8
남성	8.1	2.7	32.4	37.8	18.9	100.0 (37)	3.6
$\chi^2(df)/t$			5.629(4)				0.9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2.9	4.4	17.6	44.1	30.9	100.0 (68)	4.0
300만원 이상	10.3	12.8	30.8	33.3	12.8	100.0 (39)	3.3
$\chi^2(df)/t$			10.657(4)*				3.3**
교육수준							
대졸 미만	0.0	4.8	23.8	42.9	28.6	100.0 (42)	4.0
대졸 이상	9.2	9.2	21.5	38.5	21.5	100.0 (65)	3.5
$\chi^2(df)/t$			5.259(4)				2.1*

* $p < .05$, ** $p < .01$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 1점~'매우 필요'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이 외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제공되었으면 하는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24.6%로 가장 높고, 문화 프로그램 20.3%, 심리·

상담 프로그램 14.5% 순이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저소득 지원 범위의 확대, 중·고등생 자녀 교육비 지원액 상향 조정 등이 있었고, 자녀 돌봄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업무, 창업 대출 조건의 완화 등의 경제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한부모들은 자신이 문화생활에서 많이 도태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며 올바른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지원, 여행비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 외에는 다른 성을 양육하는 부모와 자녀의 대화 방법, 성인이 되었을 때 롤모델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 등 다른 성의 자녀를 키우는 데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 있었고, 편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은 다양한 반면 편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 편부가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센터 프로그램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표 V-1-47〉 한부모가정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단위: %(명)

구분	한부모가정 경제적 지원	한부모가정 문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문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자녀 심리상담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한부모가정 생활 지원	한부모가정 지역별 모임	기타	계(수)
전체	24.6	20.3	10.1	14.5	10.1	11.6	4.3	4.3	100.0 (69)
성별									
여성	31.1	20.0	11.1	20.0	6.7	8.9	0.0	2.2	100.0 (45)
남성	12.5	20.8	8.3	4.2	16.7	16.7	12.5	8.3	100.0 (24)
$\chi^2(df)$				14.361(7)*					
가구소득									
300만 미만	26.7	24.4	13.3	13.3	6.7	8.9	2.2	4.4	100.0 (45)
300만 이상	20.8	12.5	4.2	16.7	16.7	16.7	8.3	4.2	100.0 (24)
$\chi^2(df)$				6.44(7)					
교육수준									
대졸 미만	23.3	26.7	13.3	6.7	6.7	16.7	3.3	3.3	100.0 (30)
대졸 이상	25.6	15.4	7.7	20.5	12.8	7.7	5.1	5.1	100.0 (39)
$\chi^2(df)$				5.937(7)					

* $p < .05$

자. 한부모 가정: 포커스집단 면담을 중심으로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한부모 가정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이혼 후 현재 9세 이하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그룹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도출한 한부모의 자녀양육 특징은 '한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우선', '편견으로 인한 위축', '다른 성의 자녀 양육에 어려움', '한부모 자조모임을 통한 교류 희망'으로 볼 수 있다.

1) 한부모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우선

면담에 참여한 한부모는 자신의 심리적 불안과 우울을 관리하는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위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면담자들은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충격이 회복되기까지 약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야기하며, 이혼으로 인한 자신의 정서가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이혼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및 치료 기회가 많지 않아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프로그램 지원 외에도 비슷한 상황의 한부모들과의 집단 상담을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 편견으로 인한 위축

한부모들은 자녀 연령대의 학부모들의 편견어린 시선에 부담을 느끼고, 자신이 한부모임을 숨기거나 일반가정 부모들과의 교류를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주변 지인을 통해 양육정보를 얻거나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한하여 양육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제약이 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또한 이혼에 대한 선입견은 구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 돌봄과 경제활동을 병행하여야 하는 상황일 경우 자녀가 초등 저학년일 때까지라도 국가적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기를 제안하였다.

3) 다른 성의 자녀 양육에 어려움

자신과 다른 성의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 역할에 한계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가 배우자 성의 성인과 함

게 하고 싶어 하는 활동을 대신하거나 성 역할에 모델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부모 지원센터 등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임에는 모자가정의 참여는 원활하지만 부자가정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한부모 아버지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한부모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4) 한부모 자조모임을 통한 교류 희망

주변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부모들은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들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부모와의 소통은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서로의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 역할 및 간접 경험을 제공하며 서로의 양육을 돕는 공동체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차. 소결

한부모의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과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는 자녀 출산 전에 경제력보다도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인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가 될 심리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한부모의 응답과 부모가 될 마음가짐이 선행된 후 자녀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한부모 조사 결과에서 찾을 수 있었다.

둘째, 한부모는 평생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자녀와의 소통과 정서적 교류에 부모 역할의 의미를 찾았다. 한부모는 좋은 부모의 덕목으로 '자녀와의 소통'을 가장 중시하였고, 부족한 부모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한부모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자녀 뿐 아니라 자신의 정서적인 안정과 치유를 위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한부모는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얻는 애정과 지지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경험하고 양육의 기쁨을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한부모는 주변의 편견과 간섭으로 인한 양육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편부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부모가 함께 참석하는 행사가 있을 때 이혼을 후회한 경험이 많았다. 또한 한부모는 돌봄 공백에 혈연인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를 혼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는 긴급한 상황에도 지원을 요청할 지원자가 없을 경우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못하고 자녀 혼자 보내게 하는 경우가 있다.

넷째, 한부모는 주변 지인이나 가족보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부모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상황을 터놓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을 더 빈번히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매체 혹은 인터넷을 통한 양육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의견을 갖는 경향이 있었는데, 매체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는 신뢰도가 낮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한다고 보고하였다.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양육행동 변화를 크게 경험하는 한부모가 유명연예인 부모와 자신을 비교하여 부모역할에 부족함을 느끼거나, 혼돈된 양육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육아지원정책은 보육료·교육비, 탄력근무제 순이었다. 한부모 가정에서는 부모 출근~자녀등원 사이의 시간, 자녀하원~부모 퇴근 사이 시간에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탄력근무제를 통해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여섯째, 한부모는 각종 한부모 대상 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많지 않은 반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편부의 경우, 센터 프로그램 대상에서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조모임에 대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편부와 한부모 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편부 자조모임 등을 마련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가구 소득이 적은 한부모 가정에서는 경제적 제약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높았다.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정의 한부모는 구인·구직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색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지속적으로 돈벌이를 걱정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녀의 뜻을 꺾기 위해 겁을 주거나 자녀의 잘못에 화를 내는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종종 보여주었다. 또한 자녀가 대화를 원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

았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제 활동과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됨에 대한 인식 환기 및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의도적 무자녀 가정

결혼 후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30-40대 기혼 성인 104명을 대상으로 부모됨과 자녀양육관 특성을 조사하였다.

가. 자녀에 대한 인식

의도적 무자녀 기혼 성인 전체의 93.3%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거나 없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부간 더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29.9%),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및 준비가 되지 않아서(26.8%), 부모가 될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21.6%) 등의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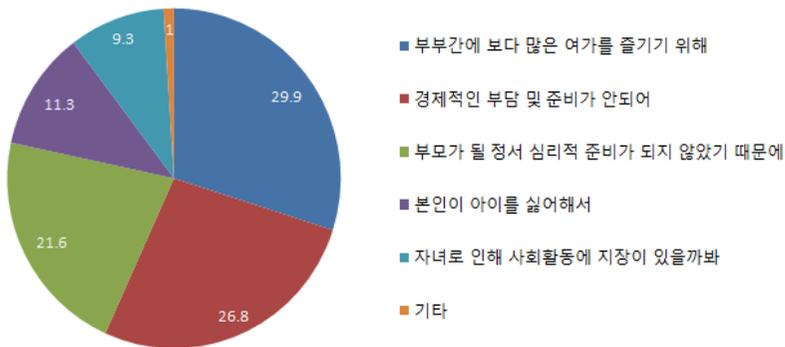
〈표 V-2-1〉 자녀의 필요성

구 분	단위: %(명)				계(수)
	없는 것이 더 좋다	없어도 상관없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꼭 있어야 한다	
전체	20.2	73.1	4.8	1.9	100.0 (104)
성별					
여성	24	72	4	0	100.0 (50)
남성	16.7	74.1	5.6	3.7	100.0 (54)
$\chi^2(df)$	2.7(3)				
연령대					
30대	22.4	65.3	8.2	4.1	100.0 (49)
40대	18.2	80	1.8	0	100.0 (55)
$\chi^2(df)$	5.4(3)				
거주지역					
대도시	27.1	70	0	2.9	100.0 (70)
중소도시	6.3	78.1	15.6	0	100.0 (32)
읍면동	0	100	0	0	100.0 (2)
$\chi^2(df)$	17.8(6)**				

(표 V-2-1 계속)

구 분	없는 것이 더 좋다	없어도 상관없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꼭 있어야 한다	계(수)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0	85.7	14.3	0	100.0 (7)
300~450만 미만	15.8	78.9	5.3	0	100.0 (38)
450~600만 미만	28.9	65.8	2.6	2.6	100.0 (38)
600만 이상	19	71.4	4.8	4.8	100.0 (21)
$\chi^2(df)$					7.4(9)
교육수준					
고졸이하	10	75	15	0	100.0 (20)
대학 재학	70	30	0	0	100.0 (10)
대학 졸업 이상	16.2	78.4	2.7	2.7	100.0 (74)
$\chi^2(df)$					23(6)***

** $p < .01$, *** $p < .001$



[그림 V-2-1] 의도적 무자녀가정에서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표 V-2-2>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가 안되어	부모가 될 정서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자녀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기타	계(수)
전체	29.9	26.8	21.6	11.3	9.3	1.0	100.0 (97)
성별							
여성	25.0	22.9	31.3	8.3	12.5	0.0	100.0 (48)
남성	34.7	30.6	12.2	14.3	6.1	2.0	100.0 (49)
$\chi^2(df)$							8.1(5)

(표 V-2-2 계속)

구 분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가 안되어	부모가 될 정서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자녀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기타	계(수)
연령대							
30대	27.9	25.6	25.6	11.6	9.3	0.0	100.0 (43)
40대	31.5	27.8	18.5	11.1	9.3	1.9	100.0 (54)
$\chi^2(df)$			1.5(5)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16.7	66.7	16.7	0.0	0.0	0.0	100.0 (6)
300~450만 미만	30.6	36.1	13.9	8.3	11.1	0.0	100.0 (36)
450~600만 미만	38.9	19.4	22.2	8.3	8.3	2.8	100.0 (36)
600만 이상	15.8	10.5	36.8	26.3	10.5	0.0	100.0 (19)
$\chi^2(df)$			20.5(15)				

의도적 무자녀 가정의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은 전체 20~50대 응답자의 인식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의도적 무자녀 성인(1.7~2.3점 분포)은 전체 20~50대 응답자(2.3~3.3분포)에 비해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거나, 자녀에게 의지하여 안정감을 얻고 부부 관계를 위해 자녀를 갖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는데, 이는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의도적 무자녀 성인의 가치관을 잘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한 30대 의도적 무자녀 성인이 40대 의도적 무자녀 성인에 비해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고 자녀를 갖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V-2-3〉 자녀의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구 분	단위: 점(점), (명)						(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2.3 (0.6)	2.3 (0.6)	2.2 (0.7)	1.7 (0.7)	1.9 (0.6)	1.9 (0.7)	(104)
성별							
여성	2.3 (0.6)	2.3 (0.7)	2.2 (0.7)	1.7 (0.7)	1.8 (0.5)	1.8 (0.6)	(50)
남성	2.3 (0.6)	2.3 (0.6)	2.3 (0.7)	1.7 (0.7)	2.0 (0.6)	2.0 (0.7)	(54)
$\chi^2(df)/t$	-0.1	0.2	-0.8	-0.3	-1.3	-1.2	
연령대							
30대	2.4 (0.6)	2.4 (0.7)	2.4 (0.8)	1.7 (0.8)	2.0 (0.7)	2.0 (0.7)	(49)
40대	2.2 (0.6)	2.2 (0.6)	2.1 (0.6)	1.7 (0.7)	1.8 (0.4)	1.8 (0.6)	(55)
$\chi^2(df)/t$	1.6	1.5	2.6*	0.4	1.8	2*	

(표 V-2-3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수)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6 (1.0)	2.7 (0.8)	1.7 (0.8)	1.9 (1.2)	2.0 (0.6)	1.9 (0.7)	(7)
300~450만 미만	2.3 (0.5)	2.3 (0.7)	2.2 (0.6)	1.7 (0.7)	1.9 (0.4)	1.9 (0.6)	(38)
450~600만 미만	2.3 (0.7)	2.3 (0.6)	2.3 (0.8)	1.7 (0.7)	1.9 (0.6)	1.8 (0.7)	(38)
600만 이상	2.4 (0.6)	2.3 (0.6)	2.5 (0.7)	1.8 (0.6)	1.9 (0.7)	2.1 (0.7)	(21)
$\chi^2(df)/F$	0.5	1.0	2.2	0.2	0.2	1.3	

* $p < .05$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①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 ②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 ③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 ④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 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 ⑥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 결과와 비슷하게, 의도적 무자녀 가정의 형제·자매에 대한 의견은 전체 20~50대 응답자의 의견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의도적 무자녀 가정의 응답자는 형제·자매가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되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사회성이 좋으며, 맞벌이 가정에서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형제·자매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에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연령대, 거주지,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30대, 대도시 거주, 고소득 의도적 무자녀 가정이 맞벌이 가정에서 형제·자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가장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형제·자매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①	②	③	④	⑤	(수)
전체	2.8 (0.5)	2.5 (0.6)	2.6 (0.7)	2.6 (0.6)	2.5 (0.8)	(104)
성별						
여성	2.9 (0.4)	2.5 (0.6)	2.5 (0.6)	2.5 (0.6)	2.5 (0.8)	(50)
남성	2.8 (0.6)	2.6 (0.7)	2.6 (0.7)	2.6 (0.7)	2.5 (0.8)	(54)
$\chi^2(df)$	1.1	-0.1	-0.7	-0.7	0.0	
연령대						
30대	2.9 (0.5)	2.6 (0.7)	2.7 (0.7)	2.7 (0.6)	2.5 (0.7)	(49)
40대	2.8 (0.5)	2.5 (0.5)	2.5 (0.6)	2.5 (0.6)	2.4 (0.9)	(55)
$\chi^2(df)$	0.6	0.0	2.2*	1.3	0.6	

단위: 점(점), (명)

(표 V-24 계속)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수)
거주지역						
대도시	2.9 (0.5)	2.5 (0.6)	2.7 (0.6)	2.6 (0.6)	2.6 (0.8)	(70)
중소도시	2.8 (0.4)	2.7 (0.6)	2.3 (0.8)	2.4 (0.6)	2.2 (0.7)	(32)
읍면동	2.5 (0.7)	2.5 (0.7)	2.5 (0.7)	2.5 (0.7)	2.5 (0.7)	(2)
$\chi^2(df)$	0.5	0.7	5.5**	1.1	3.7*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7 (0.5)	2.6 (0.5)	1.9 (0.7)	2.3 (0.8)	1.7 (0.5)	(7)
300~450만 미만	2.7 (0.5)	2.4 (0.5)	2.5 (0.6)	2.5 (0.6)	2.5 (0.8)	(38)
450~600만 미만	2.9 (0.4)	2.5 (0.6)	2.7 (0.6)	2.7 (0.6)	2.6 (0.8)	(38)
600만 이상	3.1 (0.3)	2.9 (0.7)	2.7 (0.6)	2.5 (0.5)	2.4 (0.8)	(21)
$\chi^2(df)$	4.8**	2.6	3.9*	1.4	2.7	

* $p < .05$, ** $p < .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①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 ②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 ③ 맞벌이 가정의 경우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 ④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분산된다
- ⑤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을 키우는 것이 더 쉽다

나. 부모됨에 대한 인식

1) 부모됨의 가치

의도적 무자녀 가정의 성인을 대상으로 부모됨에 대해 질문하였다. 맞벌이인 경우,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부모가 되는 것이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아야한다는 생각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동의하였으며, 이중에서도 4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대학 졸업 혹은 재학 중인 성인에 비해 학력이 고졸 이하인 응답자가 영유아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아야 한다는데 더 동의하였다.

자녀양육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 양육자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은 여성보다 남성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은 30대보다는 40대에게서 강한 편이었다.

<표 V-2-5> 부모됨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전체	3.1	2.5(0.6)	3.1(0.6)	3.2(0.6)	1.9(0.8)	3.0(0.7)	2.7(0.7)	2.7(0.7)	3.1(0.6)	2.7(0.7)	2.8(0.5)	(104)
성별												
여성	3.2	2.5(0.6)	3.0(0.5)	3.2(0.7)	2.0(0.9)	2.8(0.7)	2.8(0.6)	2.9(0.6)	3.0(0.6)	2.6(0.7)	2.8(0.5)	(50)
남성	3.1	0.3	0.9	0.0	-0.7	3.9***	-0.6	-2.1*	1.0	0.4	1.4	(54)
$\chi^2(df)$	0.6											
연령대												
30대	3.2	2.6(0.7)	3.1(0.5)	3.3(0.6)	1.9(0.9)	3.0(0.6)	2.8(0.6)	2.7(0.7)	3.1(0.6)	2.5(0.7)	2.9(0.4)	(49)
40대	3.0	1.1	0.3	0.7	-0.1	0.0	1.4	-0.8	-0.2	-2.3*	0.9	(55)
$\chi^2(df)$	1.6											
성연령												
30대 여성	3.3	2.7(0.6)	3.1(0.5)	3.1(0.6)	1.7(0.8)	3.1(0.5)	2.7(0.4)	2.6(0.7)	3.0(0.5)	2.5(0.6)	2.9(0.4)	(23)
30대 남성	3.2	2.5(0.7)	3.1(0.6)	3.4(0.6)	2.1(1.0)	2.9(0.7)	2.9(0.7)	2.8(0.7)	3.2(0.7)	2.5(0.9)	2.8(0.5)	(26)
40대 여성	3.1	2.4(0.7)	3.1(0.7)	3.3(0.6)	2.0(0.8)	3.4(0.6)	2.6(0.9)	2.6(0.8)	3.3(0.6)	2.9(0.8)	2.9(0.6)	(27)
40대 남성	3.0	2.5(0.5)	3.0(0.5)	3.1(0.7)	1.9(0.7)	2.7(0.6)	2.6(0.6)	3.0(0.6)	2.9(0.5)	2.8(0.5)	2.7(0.5)	(28)
$\chi^2(df)$	1.0	0.5	0.4	1.8	0.9	6.4***	0.8	1.7	2.1	1.8	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	2.5(0.6)	3.1(0.6)	3.2(0.6)	1.9(0.8)	3.0(0.7)	2.7(0.7)	2.7(0.7)	3.1(0.6)	2.6(0.7)	2.9(0.6)	(77)
외벌이	2.8	0.0	1.0	-0.5	-0.4	-1.5	-0.8	-1.6	-1.3	-0.4	1.0	(27)
$\chi^2(df)$	2.9**											
거주지역												
대도시	3.0	2.4(0.6)	3.1(0.5)	3.2(0.7)	2.0(0.9)	3.0(0.6)	2.7(0.7)	2.7(0.7)	3.1(0.6)	2.7(0.7)	2.8(0.5)	(70)
중소도시	3.4	2.8(0.7)	3.1(0.6)	3.3(0.6)	1.8(0.8)	3.2(0.7)	2.7(0.7)	2.8(0.8)	3.2(0.7)	2.7(0.7)	2.9(0.5)	(32)
읍면동	3.5	2.0(0.0)	3.0(1.4)	3.5(0.7)	2.0(0.0)	2.5(0.7)	2.5(0.7)	2.0(0.0)	2.5(0.7)	2.5(0.7)	2.5(0.7)	(2)
$\chi^2(df)$	5.5**	3.6*	0.1	0.2	0.5	1.5	0.2	1.0	1.2	0.0	1.3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4	3.0(0.8)	3.1(0.4)	3.4(0.5)	1.7(0.8)	3.3(0.5)	2.6(0.8)	3.0(1.0)	3.4(0.5)	2.7(1.0)	2.9(0.7)	(7)
300-450만 미만	3.2	2.5(0.6)	3.1(0.6)	3.3(0.7)	1.9(0.7)	3.0(0.7)	2.7(0.7)	2.6(0.7)	3.1(0.6)	2.6(0.7)	2.8(0.5)	(38)
450-600만 미만	3.1	2.4(0.6)	2.9(0.5)	3.2(0.6)	1.9(0.8)	3.0(0.6)	2.8(0.7)	2.6(0.6)	3.1(0.5)	2.7(0.7)	2.9(0.5)	(38)
600만 이상	3.0	2.6(0.6)	3.3(0.6)	3.2(0.7)	2.1(1.1)	3.0(0.8)	2.7(0.7)	3.0(0.7)	2.9(0.6)	2.8(0.7)	2.7(0.6)	(21)
$\chi^2(df)$	0.7	2.0	2.1	0.3	0.5	0.5	0.4	2.4	1.5	0.6	0.9	
교육수준												
고졸이하	3.2	2.7(0.7)	3.3(0.6)	3.3(0.8)	1.9(0.9)	3.4(0.5)	2.5(0.8)	2.7(0.9)	3.2(0.8)	2.8(0.8)	2.8(0.8)	(20)
대학 재학	2.4	2.6(0.5)	2.8(0.4)	2.5(0.5)	2.2(0.6)	2.5(0.5)	2.8(0.4)	2.7(0.5)	2.8(0.4)	2.3(0.5)	2.7(0.5)	(10)
대학 졸업 이상	3.2	2.5(0.6)	3.1(0.6)	3.3(0.6)	1.9(0.9)	3.0(0.7)	2.8(0.7)	2.8(0.7)	3.1(0.6)	2.7(0.7)	2.9(0.5)	(74)
$\chi^2(df)$	7.2**	1.2	2.1	8.5***	0.7	6.4**	2.0	0.2	1.6	1.7	0.4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②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 ③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 정서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
- ④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 ⑤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이다
- ⑥ 자녀가 영유아(초등 이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⑦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 ⑧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므로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
- ⑨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 ⑩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 ⑪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의도적 무자녀 가정의 성인(72.1%)은 기혼 유자녀 가정의 부모(75%)와 비슷하게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견에 더 많이 동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소도시, 읍면지역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 강하게 나타났다.

〈표 V-2-6〉 부모 주도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계(수)
전체	72.1	27.9	100.0 (104)
성별			
여성	72.0	28.0	100.0 (50)
남성	72.2	27.8	100.0 (54)
$\chi^2(df)$	0(1)		
연령대			
30대	75.5	24.5	100.0 (49)
40대	69.1	30.9	100.0 (55)
$\chi^2(df)$	0.5(1)		
거주지역			
대도시	77.1	22.9	100.0 (70)
중소도시	65.6	34.4	100.0 (32)
읍면동	0.0	100.0	100.0 (2)
$\chi^2(df)$	6.7(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71.4	28.6	100.0 (7)
300~450만 미만	63.2	36.8	100.0 (38)
450~600만 미만	81.6	18.4	100.0 (38)
600만 이상	71.4	28.6	100.0 (21)
$\chi^2(df)$	3.2(3)		

* $p < .05$

부모 양육 및 지원에 대한 자녀의 보답과 관련하여 의도적 무자녀 성인의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6%가 자녀를 키워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기혼 유자녀 부모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5.8%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자녀보다 무자녀일 때 자녀 보답을 덜 기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V-2-7〉 자녀 보답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 없다	계(수)
전체	15.4	84.6	100.0 (104)
성별			
여성	18.0	82.0	100.0 (50)
남성	13.0	87.0	100.0 (54)
$\chi^2(df)$	0.5(1)		
연령대			
30대	16.3	83.7	100.0 (49)
40대	14.5	85.5	100.0 (55)
$\chi^2(df)$	0.1(1)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8.6	71.4	100.0 (7)
300~450만 미만	15.8	84.2	100.0 (38)
450~600만 미만	18.4	81.6	100.0 (38)
600만 이상	4.8	95.2	100.0 (21)
$\chi^2(df)$	3(3)		

2) 자녀성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정도 및 지원 시기

의도적 무자녀 가정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녀 성장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한 결과, 자녀 성장에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57.7%).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자는 40.4%였는데, 전체 조사에서 총 응답자의 57%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에 비해 낮은 비율이었다.

〈표 V-2-8〉 자녀성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정도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영향을	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매우 큰	계(수)	4점 평균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전체	-	1.9	57.7	40.4	100.0 (104)	3.4
성별						
여성	-	2.0	52.0	46.0	100.0 (50)	3.4
남성	-	1.9	63.0	35.2	100.0 (54)	3.3
$\chi^2(df)/t$		1.3(2)				1.0
연령대						
30대	-	-	57.1	42.9	100.0 (49)	3.4
40대	-	3.6	58.2	38.2	100.0 (55)	3.3
$\chi^2(df)/t$		1.9(2)				0.8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	-	14.3	85.7	100.0 (7)	3.9
300~450만 미만	-	2.6	63.2	34.2	100.0 (38)	3.3
450~600만 미만	-	-	71.1	28.9	100.0 (38)	3.3
600만 이상	-	4.8	38.1	57.1	100.0 (21)	3.5
$\chi^2(df)/F$		13.5(6)*				3.2*
교육수준						
고졸이하	-	5.0	50.0	45.0	100.0 (20)	3.4
대학 재학	-	-	20.0	80.0	100.0 (10)	3.8
대학 졸업 이상	-	1.4	64.9	33.8	100.0 (74)	3.3
$\chi^2(df)/F$		9.4(4)				3.8*

* $p < .05$

주: 평균은 '전혀 비영향' 1점~'매우 큰 영향'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의도적 무자녀 성인의 경우,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는 평생 동안 언제라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26.9%), 그 뒤로 대학입학 전까지(20.2%), 대학 졸업할 때까지(19.2%)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지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60%로 가장 많았다. 특이한 것은 경제적 지원을 평생 언제라도 해주어야한다는 응답률(11.5%)이 전체 조사 응답률(2.3%)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점이다. 의도적 무자녀 부부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부담을 느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평생 동안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경향이 있어서 기혼 유자녀들에 비해 자녀 양육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V-2-10 계속)

구 분	경제력	정서적 지지 또는 이해	자녀에 대한 관심과 사랑	책임감	자녀와의 소통	인내심	바른 인성	근면·성실성	지식·지성	건강함	기타	계(수)
교육수준												
고졸이하	20.0	15.0	5.0	-	15.0	35.0	5.0	-	-	-	5.0	100.0 (20)
대학 재학	50.0	-	-	-	30.0	20.0	-	-	-	-	-	100.0 (10)
대학졸업이상	32.4	7.0	12.7	1.4	11.3	18.3	9.9	1.4	2.8	1.4	1.4	100.0 (71)
$\chi^2(df)$						15(20)						

*** $p < .001$

다. 부모교육을 통한 변화 여부

1) 생애주기 단계별 필요한 부모교육

의도적 무자녀가 결혼 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모교육 내용 1순위는 부모됨의 의미가 57.7%로 절반 이상이고, 부부관계 개선 방안 25.0%, 일·가정 양립 전략 8.7% 순이었다. 의도적 무자녀 집단에서도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것은 결혼 후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까지 부모됨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나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여성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30대는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으나 40대는 부부관계 개선 방안이나 일·가정 양립 전략 등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2-11〉 생애주기별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결혼 후 무자녀 시기

단위: %(명)

구 분	부모됨의 의미	부부 관계 개선 방안	일·가정 양립 전략	자녀의 발달 특성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분담 전략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 방안	양육 기술 및 방법	계(수)
전체	57.7	25.0	8.7	2.9	2.9	1.9	1.0	100.0 (104)
성별								
여성	52.0	24.0	14.0	4.0	2.0	4.0	-	100.0 (50)
남성	63.0	25.9	3.7	1.9	3.7	-	1.9	100.0 (54)
$\chi^2(df)$					7.5(6)			

(표 V-2-11 계속)

구 분	부모됨 의 의미	부부 관계 개선 방안	일·가 정 양립 전략	자녀의 발달 특성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분담 전략	가족 내 의사소 통 방식 개선 방안	양육 기술 및 방법	계(수)
연령대								
30대	63.3	20.4	4.1	4.1	4.1	2.0	2.0	100.0 (49)
40대	52.7	29.1	12.7	1.8	1.8	1.8	-	100.0 (55)
$\chi^2(df)$				5.6(6)				
거주지역								
대도시	62.9	25.7	5.7	1.4	1.4	1.4	1.4	100.0 (70)
중소도시	46.9	25.0	12.5	6.3	6.3	3.1	-	100.0 (32)
읍면동	50.0	-	50.0	-	-	-	-	100.0 (2)
$\chi^2(df)$				11.2(1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7.1	14.3	-	14.3	-	14.3	-	100.0 (7)
300~450만 미만	55.3	23.7	7.9	5.3	2.6	2.6	2.6	100.0 (38)
450~600만 미만	57.9	34.2	7.9	-	-	-	-	100.0 (38)
600만 이상	61.9	14.3	14.3	-	9.5	-	-	100.0 (21)
$\chi^2(df)$				22.8(18)				
교육수준								
고졸이하	50.0	20.0	25.0	-	-	5.0	-	100.0 (20)
대학 재학	90.0	10.0	-	-	-	-	-	100.0 (10)
대학 졸업 이상	55.4	28.4	5.4	4.1	4.1	1.4	1.4	100.0 (74)
$\chi^2(df)$				15.6(12)				

2) 부모교육 적정 시작 시기

교육을 통해 부모됨 준비 시작의 적정 시기에 대해 의도적 무자녀의 46.2%는 '예비부모'를 꼽았다. 또한 자녀 영유아기 이후에 부모됨 교육을 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6.4%로 20~50대 집단의 응답(12.0%)보다 높았는데, 이는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는 경우 굳이 부모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V-2-12〉 부모됨 준비교육 시작 적정시기

단위: %(명)

구 분	초등 학생	중·고 등학생	대학생	예비 부모	자녀 영유아 기 가족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계(수)
전체	17.3	10.6	9.6	46.2	15.4	1.0	100.0 (104)

(표 V-2-12 계속)

구 분	초등 학생	중·고 등학생	대학생	예비 부모	자녀 영유아 기 가족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계(수)
성별							
여성	18.0	12.0	6.0	46.0	18.0	-	100.0 (50)
남성	16.7	9.3	13.0	46.3	13.0	1.9	100.0 (54)
$\chi^2(df)$	2.9(5)						
연령대							
30대	14.3	12.2	10.2	38.8	22.4	2.0	100.0 (49)
40대	20.0	9.1	9.1	52.7	9.1	-	100.0 (55)
$\chi^2(df)$	6(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5.6	9.1	11.7	45.5	16.9	1.3	100.0 (77)
외벌이	22.2	14.8	3.7	48.1	11.1	-	100.0 (27)
$\chi^2(df)$	3.3(5)						
거주지역							
대도시	22.9	10.0	5.7	41.4	18.6	1.4	100.0 (70)
중소도시	6.3	12.5	18.8	53.1	9.4	-	100.0 (32)
읍면동	-	-	-	100.0	-	-	100.0 (2)
$\chi^2(df)$	12.2(1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	-	14.3	71.4	14.3	-	100.0 (7)
300~450만 미만	23.7	7.9	21.1	31.6	13.2	2.6	100.0 (38)
450~600만 미만	10.5	10.5	-	63.2	15.8	-	100.0 (38)
600만 이상	23.8	19.0	4.8	33.3	19.0	-	100.0 (21)
$\chi^2(df)$	23.4(15)						
교육수준							
고졸이하	15.0	10.0	10.0	50.0	15.0	-	100.0 (20)
대학 재학	70.0	10.0	-	10.0	10.0	-	100.0 (10)
대학 졸업 이상	10.8	10.8	10.8	50.0	16.2	1.4	100.0 (74)
$\chi^2(df)$	22.8(10)*						

* $p < .05$

3) 부모교육을 통한 변화 여부

부모교육이 가치관 변화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5.6%이로, 4점 평균 3점이다. 이는 20~50대 집단의 평균(3.1점)과 비교하여 약간 낮은 수준이다.

〈표 V-2-13〉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변화 가능성 여부

단위: %(명), 점

구 분	전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려함	매우 그려함	계(수)	4점 평균
전체	1.0	13.5	68.3	17.3	100.0 (104)	3.0
성별						
여성	2.0	12.0	66.0	20.0	100.0 (50)	3.0
남성	-	14.8	70.4	14.8	100.0 (54)	3.0
$\chi^2(df)/t$		1.7(3)				0.3
연령대						
30대	-	20.4	61.2	18.4	100.0 (49)	3.0
40대	1.8	7.3	74.5	16.4	100.0 (55)	3.1
$\chi^2(df)/F$		4.9(3)				-0.6
거주지역						
대도시	1.4	14.3	75.7	8.6	100.0 (70)	2.9
중소도시	-	12.5	50.0	37.5	100.0 (32)	3.3
읍면동	-	-	100.0	-	100.0 (2)	3.0
$\chi^2(df)/F$		14.2(6)*				3.7*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	-	14.3	85.7	100.0 (7)	3.9
300~450만 미만	2.6	18.4	57.9	21.1	100.0 (38)	3.0
450~600만 미만	-	13.2	78.9	7.9	100.0 (38)	2.9
600만 이상	-	9.5	85.7	4.8	100.0 (21)	3.0
$\chi^2(df)/F$		31.9(9)***				5.7**
교육수준						
고졸이하	5.0	5.0	70.0	20.0	100.0 (20)	3.1
대학 재학	-	10.0	70.0	20.0	100.0 (10)	3.1
대학 졸업 이상	-	16.2	67.6	16.2	100.0 (74)	3.0
$\chi^2(df)/F$		6(6)				0.2

* $p < .05$, ** $p < .01$, *** $p < .001$

주: 평균은 '전혀 그렇지 않음' 1점~'매우 그려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라. 양육신념

1) 자녀양육 관련 인식

의도적 무자녀 성인을 대상으로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를 묻은 결과, 전체 20~50대 응답자의 의견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의도적 무자녀 성인은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의 추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 자기 일에 대한 성취 등을 다른 가치에 비해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여성에 비해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4〉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의 중요도

단위: 점(점), (명)

구분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개인적으 로 행복한 생활의 추구	자기자신 에 대한 사랑과 존중	자기 일에 대한 성취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	타인에 대한 봉사 정신	(수)
전체	3.2 (0.5)	3.4 (0.5)	3.4 (0.6)	3.3 (0.6)	2.7 (0.7)	3.0 (0.6)	(104)
성별							
여성	3.2 (0.4)	3.4 (0.5)	3.4 (0.6)	3.3 (0.6)	2.6 (0.8)	3.0 (0.5)	(50)
남성	3.2 (0.5)	3.4 (0.5)	3.4 (0.5)	3.4 (0.6)	2.9 (0.7)	3.0 (0.6)	(54)
$\chi^2(df)/t$	-0.7	0.1	0.1	-0.6	-2.5*	0.4	
연령대							
30대	3.2 (0.5)	3.4 (0.5)	3.4 (0.6)	3.3 (0.7)	2.8 (0.7)	2.9 (0.6)	(49)
40대	3.2 (0.4)	3.5 (0.5)	3.4 (0.6)	3.4 (0.5)	2.7 (0.8)	3.1 (0.5)	(55)
$\chi^2(df)/t$	0.7	-1.2	0.3	-0.8	0.7	-1.7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0 (0.0)	3.3 (0.5)	3.0 (0.6)	3.1 (0.9)	2.6 (0.5)	2.7 (0.8)	(7)
300~450만 미만	3.2 (0.5)	3.5 (0.6)	3.5 (0.5)	3.3 (0.6)	2.7 (0.9)	3.0 (0.7)	(38)
450~600만 미만	3.2 (0.5)	3.4 (0.5)	3.5 (0.6)	3.3 (0.6)	2.7 (0.7)	3.0 (0.4)	(38)
600만 이상	3.3 (0.5)	3.4 (0.6)	3.2 (0.6)	3.3 (0.6)	2.9 (0.7)	3.2 (0.5)	(21)
$\chi^2(df)/F$	0.8	0.3	2.7	0.2	0.5	1.8	

* $p < .05$,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의도적 무자녀 성인은 전체 20~50대 응답자와 비슷한 자녀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의도적 무자녀 응답자의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 수도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의도적 무자녀 응답자는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에 늘 관심을 갖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표 V-2-15〉 자녀양육 태도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점),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3.0 (0.5)	2.7 (0.6)	2.7 (0.7)	3.1 (0.6)	2.9 (0.6)	2.6 (0.6)	2.3 (0.6)	(104)
성별								
여성	3.0 (0.6)	2.6 (0.6)	2.7 (0.8)	3.1 (0.7)	2.9 (0.7)	2.5 (0.6)	2.2 (0.7)	(50)
남성	2.9 (0.5)	2.8 (0.6)	2.7 (0.5)	3.1 (0.6)	3.0 (0.6)	2.6 (0.6)	2.3 (0.6)	(54)
$\chi^2(df)/t$	0.9	-1.6	0.4	-0.3	-1.0	-1.1	-0.6	

(표 V-2-15 계속)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연령대								
30대	3.0 (0.5)	2.8 (0.7)	2.6 (0.6)	3.1 (0.6)	3.0 (0.6)	2.6 (0.6)	2.3 (0.6)	(49)
40대	2.9 (0.6)	2.7 (0.6)	2.8 (0.7)	3.1 (0.6)	2.9 (0.7)	2.5 (0.7)	2.2 (0.6)	(55)
$\chi^2(df)/t$	0.9	0.8	-1.4	0.1	0.5	0.7	1.0	
거주지역								
대도시	3.0 (0.6)	2.7 (0.6)	2.7 (0.7)	3.0 (0.6)	2.9 (0.6)	2.6 (0.6)	2.3 (0.6)	(70)
중소도시	2.9 (0.5)	2.8 (0.7)	2.8 (0.7)	3.3 (0.6)	3.0 (0.7)	2.7 (0.6)	2.2 (0.6)	(32)
읍면동	3.0 (0.0)	3.0 (0.0)	2.5 (0.7)	2.0 (0.0)	2.5 (0.7)	2.5 (0.7)	3.0 (0.0)	(2)
$\chi^2(df)/F$	0.1	1.2	0.4	7.2**	0.5	0.3	1.7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3.0 (0.6)	3.0 (0.6)	3.0 (0.6)	3.4 (0.5)	2.7 (0.5)	2.7 (0.5)	2.1 (0.7)	(7)
300~450만 미만	2.9 (0.6)	2.8 (0.7)	2.8 (0.6)	3.1 (0.7)	3.0 (0.6)	2.6 (0.6)	2.2 (0.7)	(38)
450~600만 미만	2.9 (0.6)	2.6 (0.6)	2.6 (0.7)	3.1 (0.6)	2.8 (0.5)	2.6 (0.6)	2.3 (0.5)	(38)
600만 이상	3.1 (0.4)	2.9 (0.5)	2.7 (0.7)	3.0 (0.7)	3.0 (0.8)	2.6 (0.7)	2.3 (0.8)	(21)
$\chi^2(df)/F$	0.5	1.8	1.1	1.0	0.8	0.1	0.5	
교육수준								
고졸이하	3.2 (0.6)	3.0 (0.7)	3.2 (0.6)	3.2 (0.7)	3.0 (0.6)	2.6 (0.6)	2.0 (0.6)	(20)
대학 재학	3.0 (0.5)	2.6 (0.5)	2.4 (0.5)	2.8 (0.4)	2.8 (0.4)	2.5 (0.5)	2.4 (0.5)	(10)
대학 졸업 이상	2.9 (0.5)	2.7 (0.6)	2.6 (0.7)	3.1 (0.6)	2.9 (0.7)	2.6 (0.6)	2.3 (0.6)	(74)
$\chi^2(df)/F$	1.4	1.7	6.6**	1.1	0.3	0.1	2.3	

** $p < .01$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 ①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 ②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 ③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 ④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편이다
- ⑤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하라고 한다
- ⑥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⑦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의도적 무자녀 성인들의 취업모에 대한 인식은 전체 20~50대 응답자의 인식에 비해 더 유연한 경향이 있었다. 자녀를 기르는 것 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쉽다(3.0점)는 데에 전체 20~50대(2.7점)보다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일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2.5점)는 데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의도적 무자녀 성인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만큼 여성의 직장 생활을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외벌이 가정의 의도적 무자녀 응답자는 맞벌이 가정의 응답자보다 직장일이 자녀 양육보다 쉽다고 생각하였고, 소득이 300이하인 가정의 의

도적 무자녀 응답자는 취업모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음에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표 V-2-16〉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단위: 점(점), (명)

구 분	어머니가 일 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		취업모는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한계가 있음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쉬움		계 (수)
전체	2.5	(0.7)	3.0	(0.6)	3.0	(0.6)	100.0 (104)
성별							
여성	2.4	(0.7)	2.9	(0.6)	3.0	(0.7)	100.0 (50)
남성	2.7	(0.7)	3.0	(0.6)	2.9	(0.5)	100.0 (54)
$\chi^2(df)/t$	-1.8		-0.5		0.6		
연령대							
30대	2.5	(0.7)	2.9	(0.6)	3.0	(0.6)	100.0 (49)
40대	2.6	(0.7)	3.0	(0.6)	3.0	(0.6)	100.0 (55)
$\chi^2(df)/t$	-0.2		-0.2		-0.3		1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	(0.7)	3.0	(0.6)	2.9	(0.6)	100.0 (77)
외벌이	2.5	(0.7)	2.9	(0.6)	3.2	(0.6)	100.0 (27)
$\chi^2(df)/t$	0.6		0.3		-2.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1	(0.9)	2.3	(1.0)	2.7	(1.0)	100.0 (7)
300~450만 미만	2.5	(0.8)	3.0	(0.6)	3.0	(0.6)	100.0 (38)
450~600만 미만	2.6	(0.6)	3.1	(0.4)	3.0	(0.6)	100.0 (38)
600만 이상	2.7	(0.7)	2.9	(0.7)	2.9	(0.5)	100.0 (21)
$\chi^2(df)/F$	1.2		3.8*		0.7		

* $p < .05$

주: 평균은 '전혀 비동의' 1점~'전적 동의'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마. 양육 정보와 매체의 영향

1) TV 육아프로그램

의도적 무자녀 응답자는 TV육아 프로그램의 좋은 점으로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배울 수 있는 점(26.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뒤 이어 쉽게 양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26%),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다(18.3%)는 긍정적 영향을 꼽았다.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

가 발견되었는데, 고졸 이하의 응답자는 쉽게 양육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는 점(40%)을, 대학 졸업 이상의 응답자는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점(29.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표 V-2-17〉 TV 육아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

단위: %(명)

구 분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쉽게 양육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 (물건, 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음	긍정적인 영향 없음	계(수)
전체	26.9	26.0	18.3	16.3	12.5	100.0 (104)
성별						
여성	38.0	16.0	16.0	16.0	14.0	100.0 (50)
남성	16.7	35.2	20.4	16.7	11.1	100.0 (54)
$\chi^2(df)$			8.5(4)			
연령대						
30대	26.5	20.4	24.5	14.3	14.3	100.0 (49)
40대	27.3	30.9	12.7	18.2	10.9	100.0 (55)
$\chi^2(df)$			3.5(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8.6	28.6	14.3	28.6	0.0	100.0 (7)
300~450만 미만	28.9	36.8	18.4	2.6	13.2	100.0 (38)
450~600만 미만	28.9	13.2	21.1	23.7	13.2	100.0 (38)
600만 이상	19.0	28.6	14.3	23.8	14.3	100.0 (21)
$\chi^2(df)$			13.2(12)			
교육수준						
고졸이하	15.0	40.0	10.0	15.0	20.0	100.0 (20)
대학 재학	30.0	10.0	0.0	10.0	50.0	100.0 (10)
대학 졸업 이상	29.7	24.3	23.0	17.6	5.4	100.0 (74)
$\chi^2(df)$			22.8(8)**			

** $p < .01$

의도적 무자녀 성인은 TV육아 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으로 간접광고로 인한 과소비 조장(26.9%),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점(22.1%) 등을 높게 보고하였다. 전체 20~50대(10.8%) 응답자에 비해 TV육아 프로그램이 비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의도적 무자녀 응답자의 비율(19.2%)이 높았다.

〈표 V-2-18〉 TV 육아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

단위: %(명)

구분	간접광고 등 영향으로 과소비문화를 조장함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함	부정적인 영향 없음	비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	무분별한 정보 제공으로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움	계(수)
전체	26.9	22.1	20.2	19.2	11.5	100.0 (104)
성별						
여성	28.0	20.0	22.0	18.0	12.0	100.0 (50)
남성	25.9	24.1	18.5	20.4	11.1	100.0 (54)
$\chi^2(df)$			0.5(4)			
연령대						
30대	30.6	20.4	16.3	20.4	12.2	100.0 (49)
40대	23.6	23.6	23.6	18.2	10.9	100.0 (55)
$\chi^2(df)$			1.4(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14.3	0.0	42.9	14.3	28.6	100.0 (7)
300~450만 미만	23.7	26.3	28.9	15.8	5.3	100.0 (38)
450~600만 미만	31.6	23.7	13.2	15.8	15.8	100.0 (38)
600만 이상	28.6	19.0	9.5	33.3	9.5	100.0 (21)
$\chi^2(df)$			14.7(12)			

2) 인터넷 육아정보

의도적 무자녀 응답자들은 인터넷 육아정보의 장점으로 쉽게 양육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고(46.2%), 최신정보를 바탕으로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점(27.9%) 등을 높게 꼽았다. 인터넷 육아정보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은 전체 20~50대 응답과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

〈표 V-2-19〉 인터넷 육아정보의 긍정적 영향

단위: %(명)

구분	쉽게 양육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 (물건, 체험 등)을 제공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	긍정적인 영향 없음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계(수)
전체	46.2	27.9	13.5	6.7	5.8	100.0 (104)
성별						
여성	50.0	24.0	12.0	8.0	6.0	100.0 (50)
남성	42.6	31.5	14.8	5.6	5.6	100.0 (54)
$\chi^2(df)$			1.2(4)			

(표 V-2-19 계속)

구 분	쉽게 양육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 (물건, 체험 등)을 제공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	긍정적인 영향 없음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계(수)
연령대						
30대	44.9	28.6	16.3	4.1	6.1	100.0 (49)
40대	47.3	27.3	10.9	9.1	5.5	100.0 (55)
$\chi^2(df)$			1.6(4)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8.6	57.1	0.0	0.0	14.3	100.0 (7)
300~450만 미만	47.4	23.7	13.2	7.9	7.9	100.0 (38)
450~600만 미만	52.6	23.7	15.8	5.3	2.6	100.0 (38)
600만 이상	38.1	33.3	14.3	9.5	4.8	100.0 (21)
$\chi^2(df)$			7.9(12)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의도적 무자녀 응답자들은 인터넷 육아정보가 무분별한 정보를 양산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28.8%), 간접광고 때문에 과소비를 조장한다(25%)고 보고하였다. 교육 수준에 따라 부정적 영향 응답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졸 이하의 응답자는 무분별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혼란스러움(45%)을, 대학 재학 중인 응답자는 다른 부모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박탈감(60%)을, 대학 졸업 이상의 응답자는 간접광고로 인한 과소비 문화 조장(31.1%)을 가장 큰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표 V-2-20〉 인터넷 육아정보의 부정적 영향

단위: %(명)

구 분	무분별한 정보제공으로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움	간접광고 등의 영향으로 과소비 문화를 조장함	비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함	부정적인 영향 없음	계(수)
전체	28.8	25.0	17.3	15.4	13.5	100.0 (104)
성별						
여성	30.0	24.0	18.0	16.0	12.0	100.0 (50)
남성	27.8	25.9	16.7	14.8	14.8	100.0 (54)
$\chi^2(df)$			0.3(4)			
연령대						
30대	24.5	28.6	18.4	18.4	10.2	100.0 (49)
40대	32.7	21.8	16.4	12.7	16.4	100.0 (55)
$\chi^2(df)$			2.4(4)			

(표 V-2-20 계속)

구 분	무분별한 정보제공으로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움	간접광고 등의 영향으로 과소비 문화를 조장함	비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함	부정적인 영향 없음	계(수)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8.6	14.3	14.3	28.6	14.3	100.0 (7)
300~450만 미만	34.2	15.8	13.2	21.1	15.8	100.0 (38)
450~600만 미만	34.2	31.6	15.8	7.9	10.5	100.0 (38)
600만 이상	9.5	33.3	28.6	14.3	14.3	100.0 (21)
$\chi^2(df)$			11.7(12)			
교육수준						
고졸이하	45.0	5.0	15.0	15.0	20.0	100.0 (20)
대학 재학	20.0	20.0	0.0	60.0	0.0	100.0 (10)
대학 졸업 이상	25.7	31.1	20.3	9.5	13.5	100.0 (74)
$\chi^2(df)$			25.5(8)**			

** $p < .01$

바. 양육지원 요구

1) 정부의 양육지원 부담비율 및 적정 지원 시기

의도적 무자녀 응답자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가정이 6.1, 국가가 3.9의 비율로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 20~50대 집단의 응답보다(가정 5.8, 국가 4.2) 상대적으로 가정의 책임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집단별로는 외벌이에서 가정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국가의 책임 정도를 4.8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21〉 가정과 국가의 출산 및 양육책임 부담 비율

구 분	가정		국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1	1.3	3.9	1.3	(104)
성별					
여성	6.1	1.1	3.9	1.1	(50)
남성	6.1	1.5	3.9	1.5	(54)
t		0.2		-0.2	
연령대					
30대	6.1	1.2	3.9	1.2	(49)
40대	6.1	1.4	3.9	1.4	(55)
t		0.1		-0.1	

단위: 점(명)

(표 V-2-21 계속)

구 분	가정		국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맞벌이 여부					
맞벌이	5.9	1.4	4.1	1.4	(77)
외벌이	6.6	1.0	3.4	1.0	(27)
<i>t</i>		-2.4*		2.4*	
거주지역					
대도시	6.2	1.4	3.8	1.4	(70)
중소도시	5.8	1.2	4.2	1.2	(32)
읍면동	6.0	1.4	4.0	1.4	(2)
<i>F</i>		10.0		10.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6.0	0.8	4.0	0.8	(7)
300~450만 미만	6.1	1.5	3.9	1.5	(38)
450~600만 미만	6.3	1.0	3.7	1.0	(38)
600만 이상	6.0	1.7	4.0	1.7	(21)
<i>F</i>		0.4		0.4	
교육수준					
고졸이하	6.0	0.8	4.0	0.8	(20)
대학 재학	5.2	1.3	4.8	1.3	(10)
대학 졸업 이상	6.3	1.4	3.7	1.4	(74)
<i>F</i>		3.1*		3.1*	

* $p < .05$

주. 가정과 국가의 양육 책임 분담 정도를 합이 10이 되도록 응답한 결과임.

의도적 무자녀 집단은 영유아기와 초등학생 시기에 이루어지는 양육 지원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응답이 88.5%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대학생 이상 성인은 2.9%로 매우 낮았다. 이는 응답자의 연령대가 30~40대이므로 아직 성인기 자녀 양육을 간접 경험하거나 어려움 등을 공감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표 V-2-22〉 가장 효율적인 양육지원 시기

단위: %(명)

구 분	영유아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졸업 이후 성인	계(수)
전체	65.4	23.1	3.8	4.8	1.9	1.0	100.0 (104)
성별							
여성	66.0	28.0	-	6.0	-	-	100.0 (50)
남성	64.8	18.5	7.4	3.7	3.7	1.9	100.0 (54)
$\chi^2(df)$				7.8(5)			

(표 V-2-22 계속)

구 분	영유 아기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대학생	대학졸업 이후 성인	계(수)
연령대							
30대	67.3	28.6	2.0	-	2.0	-	100.0 (49)
40대	63.6	18.2	5.5	9.1	1.8	1.8	100.0 (55)
$\chi^2(df)$				7.4(5)			
거주지역							
대도시	68.6	21.4	4.3	4.3	1.4	-	100.0 (70)
중소도시	59.4	25.0	3.1	6.3	3.1	3.1	100.0 (32)
읍면동	50.0	50.0	-	-	-	-	100.0 (2)
$\chi^2(df)$				4.2(10)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7.1	28.6	-	14.3	-	-	100.0 (7)
300~450만 미만	60.5	26.3	2.6	5.3	5.3	-	100.0 (38)
450~600만 미만	68.4	26.3	2.6	2.6	-	-	100.0 (38)
600만 이상	71.4	9.5	9.5	4.8	-	4.8	100.0 (21)
$\chi^2(df)$				13.9(15)			
교육수준							
고졸이하	70.0	10.0	-	15.0	-	5.0	100.0 (20)
대학 재학	80.0	20.0	-	-	-	-	100.0 (10)
대학 졸업 이상	62.2	27.0	5.4	2.7	2.7	-	100.0 (74)
$\chi^2(df)$				14.6(10)			

2) 양육지원정책

3~40대 의도적 무자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은 탄력근무제가 25.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23.1%, 육아휴직 15.4% 순이었다.

특히 여성에서 탄력근무제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데, 의도적 무자녀 여성은 사회생활을 위해 근무 형태나 시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함을 유추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출산·양육 지원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반면 남성, 특히 30대 남성은 보육료·교육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V-2-23〉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단위: %(명)

구 분	탄력근 무제	보육료 · 교육 비 지원	육아 휴직	불임부 부 지원	출산 휴가	가정양 육수당 지원	방과후 돌봄	자녀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	계(수)
전체	25.0	23.1	15.4	12.5	11.5	7.7	3.8	1.0	100.0 (104)
성별									
여성	36.0	14.0	16.0	10.0	10.0	8.0	6.0	-	100.0 (50)
남성	14.8	31.5	14.8	14.8	13.0	7.4	1.9	1.9	100.0 (54)
$\chi^2(df)$	10.9(7)								
연령대									
30대	16.3	26.5	16.3	10.2	16.3	6.1	8.2	-	100.0 (49)
40대	32.7	20.0	14.5	14.5	7.3	9.1	-	1.8	100.0 (55)
$\chi^2(df)$	11.2(7)								
성연령									
30대 여성	26.1	4.3	21.7	13.0	17.4	4.3	13.0	-	100.0 (23)
30대 남성	7.7	46.2	11.5	7.7	15.4	7.7	3.8	-	100.0 (26)
40대 여성	44.4	22.2	11.1	7.4	3.7	11.1	-	-	100.0 (27)
40대 남성	21.4	17.9	17.9	21.4	10.7	7.1	-	3.6	100.0 (28)
$\chi^2(df)$	34.4(21)*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14.3	42.9	14.3	28.6	-	-	-	-	100.0 (7)
300-450만 미만	26.3	18.4	7.9	18.4	7.9	13.2	7.9	-	100.0 (38)
450-600만 미만	21.1	31.6	21.1	5.3	13.2	2.6	2.6	2.6	100.0 (38)
600만 이상	33.3	9.5	19.0	9.5	19.0	9.5	-	-	100.0 (21)
$\chi^2(df)$	22.5(21)								

* $p < .05$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 2순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보육료·교육비 지원이 44.2%로 가장 높고, 탄력근무제와 육아휴직도 39.4%, 34.6%로 높은 편이었다. 여전히 남성은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여성은 탄력근무제와 육아휴직에 대한 요구가 컸고, 맞벌이에서 탄력근무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V-2-24〉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2순위

단위: %(명)

구 분	보육료 · 교육 비 지원	탄력근 무제	육아 휴직	가정양 육수당 지원	출산 휴가	방과후 돌봄	불임부 부 지원	자녀 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	(수)
전체	44.2	39.4	34.6	23.1	21.2	19.2	15.4	2.9	(104)

(표 V-2-24 계속)

구 분	보육료·교육비 지원	탄력근무제	육아 휴직	가정양육수당 지원	출산 휴가	방과후 돌봄	불임부부 지원	자녀 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	(수)
성별									
여성	30.0	50.0	38.0	24.0	22.0	22.0	12.0	2.0	(50)
남성	57.4	29.6	31.5	22.2	20.4	16.7	18.5	3.7	(54)
연령대									
30대	40.8	30.6	38.8	26.5	26.5	26.5	10.2	-	(49)
40대	47.3	47.3	30.9	20.0	16.4	12.7	20.0	5.5	(55)
성연령									
30대 여성	21.7	39.1	43.5	26.1	30.4	26.1	13.0	-	(23)
30대 남성	57.7	23.1	34.6	26.9	23.1	26.9	7.7	-	(26)
40대 여성	37.0	59.3	33.3	22.2	14.8	18.5	11.1	3.7	(27)
40대 남성	57.1	35.7	28.6	17.9	17.9	7.1	28.6	7.1	(28)
거주지역									
대도시	45.7	35.7	37.1	21.4	24.3	18.6	14.3	2.9	(70)
중소도시	40.6	50.0	28.1	25.0	12.5	21.9	18.8	3.1	(32)
읍면동	50.0	-	50.0	50.0	50.0	-	-	-	(2)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85.7	42.9	14.3	14.3	-	14.3	28.6	-	(7)
300-400만 미만	47.4	34.2	31.6	34.2	15.8	18.4	18.4	-	(38)
400-600만 미만	42.1	39.5	44.7	13.2	18.4	28.9	7.9	5.3	(38)
600만 이상	28.6	47.6	28.6	23.8	42.9	4.8	19.0	4.8	(21)
교육수준									
고졸이하	45.0	70.0	30.0	20.0	5.0	10.0	20.0	-	(20)
대학 재학	20.0	60.0	70.0	-	20.0	-	30.0	-	(10)
대학 졸업 이상	47.3	28.4	31.1	27.0	25.7	24.3	12.2	4.1	(74)

3) 안심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 여건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으로 사교육비 경감이 28.8%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23.1%,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조성 15.4% 순이었다.

〈표 V-2-25〉 안심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여건

단위: %(명)

구 분	사교육비 경감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	공교육·보육 강화	가정 내 양성평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확립	계(수)
전체	28.8	23.1	15.4	14.4	11.5	6.7	100.0 (104)

(표 V-2-25 계속)

구 분	사교육비 경감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조성	공교육·보육 강화	가정 내 양성평등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확립	계(수)
성별							
여성	26.0	22.0	16.0	12.0	14.0	10.0	100.0 (50)
남성	31.5	24.1	14.8	16.7	9.3	3.7	100.0 (54)
$\chi^2(df)$				2.8(5)			
연령대							
30대	26.5	30.6	14.3	10.2	6.1	12.2	100.0 (49)
40대	30.9	16.4	16.4	18.2	16.4	1.8	100.0 (55)
$\chi^2(df)$				10.2(5)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	14.3	85.7	100.0 (7)	-	-	100.0 (1)
300~450만 미만	-	-	100.0	100.0 (38)	-	-	100.0 (6)
450~600만 미만	-	-	100.0	100.0 (38)	-	-	100.0 (19)
600만 이상	-	4.8	95.2	100.0 (21)	-	3.4	100.0 (29)
$\chi^2(df)$				8.1(3)*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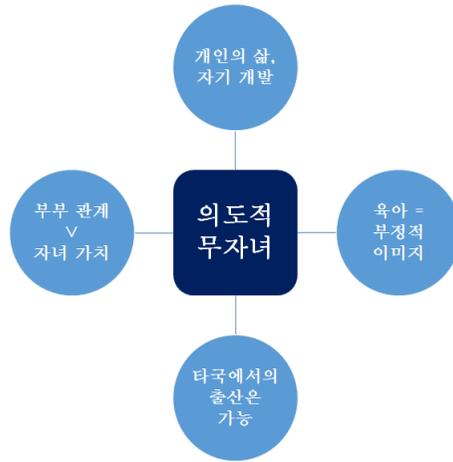
전체 20~50대 집단의 응답과 비교하여 사교육비 경감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은 동일하였고, 상대적으로 공교육·보육에 대한 요구보다 보육·교육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사. 의도적 무자녀 가족: 포커스집단 면담을 중심으로

의도적 무자녀 가정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결혼 후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한 여성 5인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상자의 배경 정보는 <표 I-3-11>과 같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도적 무자녀 가정의 특징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였다(그림 V-2-2 참고).

첫 번째 키워드는 '개인의 삶, 자기개발'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부부에 > 자녀가치', 세 번째 키워드는 '육아 = 부정적 이미지', 마지막 키워드는 '타국에서의 출산은 가능'이다.



[그림 V-2-2] 의도적 무자녀 FGI 키워드

1) 개인의 삶, 자기 개발

심층 면접에 참여한 의도적 무자녀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아이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현재 지위에서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자신의 인생이 아이를 위해서 쓰이고 경제적으로 자녀 때문에 어려워지길 바라지 않았다. 또한,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에서의 성취가 아이로 인해 무너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가 없는 가정을 위해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에 관련하여 개인의 학습, 취미 생활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희망하였다.

2) 부모-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 중요시

의도적 무자녀 가정의 여성들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복한 느낌을 받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이를 돌보느라 부부간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녀 없이 부부중심의 삶을 즐기는 자신의 상황에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의도적 무자녀 면담자 중 일부는 자녀 대신 반려견을 돌보면서 부부 중심의 생활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녀로 인한 다툼 때문에 부부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걱정하여 부부관

계 유지를 위해 무자녀 가정이 되기로 결심하였다. 두 명의 면담자는 부부 간자녀 양육관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양육관 차이 때문에 자녀가 생기면 부부 사이가 멀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자신에게 쏟던 관심이 자녀에게 분산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무자녀를 선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가치보다 부부 관계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의도적 무자녀 면담자들에게 ‘부모’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희생, 헌신, 집착, 전쟁, 무책임과 같이 부정적인 단어들을 이야기하였다.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하는 친구들의 사례, 육아가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공유하였고, 면담자들은 일관되게 육아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고하였다.

4) 타국에서의 출산은 고려 가능

육아에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의도적 무자녀 면담자들은 한국이 아닌 곳, 정책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선진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생각이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해외 다큐멘터리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과 취업모를 위한 직장의 다양한 지원에 대해 칭찬하며, 한국의 직장문화가 취업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연차를 쓰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을 만큼 경직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 소결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본 의도적 무자녀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 특성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도적 무자녀 성인은 기혼 유자녀 성인에 비해 자녀기대가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었다.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거나 없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93.3%에 이르렀고, 부모가 자녀에게 보답을 받아야하는 존재라는 인식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의도적 무자녀 성인들의 무자녀 결정은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인의 행복한 생활 추구,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자신의 일을 강조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개인 중심의 가치관 추구는 부부중심의 생활에 더 초

점을 맞추게 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녀양육 때문에 개인의 삶에서 누리던 혜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셋째, 의도적 무자녀 성인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의도적 무자녀 성인이 기혼 유자녀 성인에 비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평생'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지지한 비율이 높았는데, 자녀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의도적 무자녀 성인의 결정과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자녀 양육 = 돈이 드는 일'이란 인식이 무자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넷째, 의도적 무자녀 성인은 여성에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만큼 개인의 일(직장, 학업 등) 역시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의도적 무자녀 여성들은 특히 직업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던 보수적인 관점에 반대하는 성향이 있었다.

다섯째, 의도적 무자녀 성인은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부부를 위한 개인의 취미생활 지원 혹은 탄력 근무제의 확대에 관심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의도적 무자녀 성인의 가치는 기혼 유자녀 성인의 가치에 비해 개인 중심적 경향이 있고, 원하는 가족의 그림이 부부중심의 삶이라는 데에 기혼 유자녀 성인과 차이가 있었다. 출산을 제고를 위한 지원에 정책적 관심이 몰려있는 가운데, 의도적 무자녀 성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녀 없는 부부의 삶을 지지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자녀와 다자녀 가족: 포커스집단 면담을 중심으로

가. 공통 특성

1) 넘치는 양육정보

그룹 면담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현대사회에서는 양육 정보가 인터넷 상으로 쉽게 공유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무분별한 정보가 신뢰롭지 않아 선택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와도 동일하다.

또한 정보 접근이 개방적이고, 주변 사람과의 비교가 수월한 현재의 환경이 과소비를 조장한다고 이야기 하며, 심지어 어린 자녀들 사이에서도 매체를 통해 크고 넓고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 불필요한 소비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2) 매체, 스마트 기기

면담 어머니들은 가족 간 소통방식과 가정 내 모습을 변화시킨 것으로 '스마트 기기'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집에서 TV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늘고, 이는 가족 간 대화 단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같은 학급 엄마들 사이에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모임이 구성되어 '엄마 문화'에서도 세대차이가 느껴진다고 하였다. 반면,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오히려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보통신을 통한 여가 문화 정착과 도시화로 인해 집 주변에 뛰어놀 공간이 이전보다 줄었음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40~50대에서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으로 '자녀 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 응답 비율이 젊은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서도 시대에 따른 양육 환경에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입시 위주의 환경으로 인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생활의 기회가 줄고, 비전공자 청소년이 수준 높은 취미 활동을 지속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3)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 역할의 변화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녀 미취학 시기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자녀의 초등 취학 이후에는 학습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최소한 남들만큼은 교육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무감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선행학습 및 학업 보조를 위한 사교육 이용이 불가피해지고, 이로 인한 교육비 부담은 자녀 출산을 가로막는 큰 부담이라고 이

야기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부모 역할이 부여됨을 알 수 있었는데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엄마의 정보력과 입시 준비를 돕는 역할은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모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자녀 청소년기에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30대 부모의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과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30대에서 사교육이 경감되어야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유사하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 사춘기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자녀 사춘기에 자녀와 거리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양육태도에 대한 혼란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자녀 청소년기 부모들은 이전과 다른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녀와의 갈등 해결과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부모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자녀 청소년기에 부모들의 부모됨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4) 소통하는 부모(바람직한 부모상)

면담 부모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부모상의 공통 특징은 '소통하는 부모' 이었다. 자녀가 사소한 일까지 부모와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스스로없이 대화를 나누는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는 자신이 부모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기를 희망하는 것은 곧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들은 권위적이지 않고 친구 같은 부모로 인해 가정 분위기가 좋아지고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전한 가족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하였다.

5) 부모교육

부모 교육에 대한 면담 부모들의 공통된 의견은 부모교육의 목표는 단기적인 교육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효과를 위해서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다만, 자녀양육 실재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은 출산을 앞둔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단기적인 부모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으로 귀결된다.

가) step 1: 어린 시절 인성교육이 부모교육의 첫걸음

면담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인 인성이 부모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부모의 성격이나 태도가 곧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가 된 이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인성 형성은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안정된 인성 교육을 받은 아이가 성장하여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부모가 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나) step 2: 부모됨과 관련된 책임감 형성

고등학생 시기에는 출산과 부모됨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좀 더 부모로서 마음가짐이 준비된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수시로 살피지 않으면 소리가 나도록 세팅되어 꾸준한 돌봄이 필요한 아기 인형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자녀 출산에 따라 자신의 삶에 여러 제약과 책임감이 따름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제시하였다.

다) step 3: 실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정보

기본적인 상식에 준하는 수준의 소양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양육 실제에 대한 정보는 예비 부모나 출산 전 성인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양육실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이는 첫 자녀에 대한 시행착오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6) 추가 출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

나 혼자가 아닌 '도움 받는 육아'가 자녀 기르기에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네 사람들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의지하며 자녀 돌봄에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육아의 경험은 육아가 힘들다고 만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위한 새로운 근로 형태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둘 이상의 자녀에게 부부가 시간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우려하여 추가 출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자녀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고, 어머니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

운 근로 형태에 대한 과감한 제시가 필요하다.

나. 한 자녀 부모 특성

1) 자녀의 자존감

주로 어린 연령의 자녀를 기르는 한 자녀 어머니에게는 '내 아이의 자존감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들은 자녀를 무시하거나 속상하게 하는 말투를 자제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을 통해 자녀에게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생활에서 인정받기를 희망하였다.

2) 부모 욕심

자녀가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자녀 한 명에게는 지원을 더 잘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한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또한 부모들은 다른 가치보다 '돈'으로 자녀를 지원 해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여 경제력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더 일을 하면 된다는 헌신적인 생각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다. 세 자녀 이상 부모 특성

1) 터울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들 중에는 추가 출산 의향이 있었으나 바로 임신이 되지 않다가, 기간을 두고 추가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 간 터울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당한 터울은 첫 자녀의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 간 서로 또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에게는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자녀의 성별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길어지는 양육 시기로 인한 육체적·경제적 소진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부모, 특히 어머니는 자녀 양육 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가사와 양육으로 인한 소진을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가사와 양육에 지친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과 가사를 도와주는 가사도우미였다. 다자녀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소진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세 자녀 이상 부모는 어머니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정양육수당보다 영아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자녀수 증가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먼저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 간 학원을 번갈아 다니게 하는 등 교육비 지출에 대한 나름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부모 특성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자녀양육비 지출을 규모 있게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한 자녀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세 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자녀 간 육아용품을 물려주거나 불필요한 사교육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줄이고, 돌잔치 등의 행사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서는 학원이 돌봄의 기능을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주변에 양육 지원자 없이 부모가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원이 돌봄 공백을 메꾸고, 또래 관계를 맺고, 특기를 기르는 1석 2조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VI.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특징

본 장에서는 2016년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특징을 살펴보았다. 1절에는 3장,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특징을 성별, 세대별, 자녀수별로 구분하여 논의하였고, 2절에는 2008년 조사 결과와의 비교 및 자녀양육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질문 내용을 토대로 자녀양육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1. 2016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

가. 성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은 성별에 따라 그 특성이 달리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은 [그림 VI-1-1]과 같다.

1) 남성의 자녀양육관 특징

남성의 자녀양육관 키워드는 '경제적 지원자', '아버지의 주말 양육참여 보편화', '수동적 양육정보 수집자'이다.

첫째, 아버지들은 가장 중심적인 자신의 역할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자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남성은 좋은 부모의 덕목과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로 모두 '경제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녀를 더 낳기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언급하는 등 자녀를 양육하는데 '돈'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좋은 부모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남성은 경제력 뿐 아니라 책임감, 정직성, 근면, 성실함, 건강함 등을 여성보다 강조하였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부족, 세대차이, 권위적 태도 등을 여성에 비해 더 빈번히 언급하였다. 자녀와 친근하게 가까이 지내고자 하나,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부모의 권위적 태도가 자신에게도 남아 있어 좋은 부모가 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말의 아버지 양육참여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는 주중에 자녀에게 집중하여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주말에는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과 비슷한 정도로 아버지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 양육을 강조하고 있는 각종 매체의 영향, 친구 같은 아버지 이미지의 대중화 등이 남성의 양육참여를 독려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016년의 아버지들은 주말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자녀와 함께 놀이하거나 여가를 함께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셋째, 남성은 수동적 양육정보 수집자이다. 남성은 양육정보를 매체나 인터넷 보다는 지인과 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비해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찾아보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였다. 직장 술자리나 친구 모임에서 양육정보를 얻거나, 아내를 통해 전해 듣는 이야기를 통해 자녀양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향이 있다.

2) 여성의 자녀양육관 특징

여성의 자녀양육관 키워드는 ‘인내심’, ‘자녀교육의 매니저’, ‘능동적 양육정보 수집자’, ‘양성평등’이다.

첫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녀양육은 힘들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인식과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는 경향이 강하다. 좋은 부모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인내심’, ‘자녀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실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주중, 주말에 걸쳐 더 오랜 시간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신체적인 부담이 높았다.

둘째,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교육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녀의 학교와 사교육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어머니이며,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이러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자녀를 더 출산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보육교육기관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 역시 교육에 대한 여성의 관심을 반영한다.

셋째, 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능동적 양육정보 수집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은 지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인터넷 정보원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출산을 준비하는 여성은 유아용품에 대한 정보를,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여성들은 아이를 위한 음식, 장난감, 학습지 관련 정보를, 학령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사교육 정보 등을 공유한다.

넷째, 여성에게 가정 내 양성평등을 통한 일 가정양립은 자녀양육에 중요한 요인이다. 전체적으로 여성의 자녀양육참여 시간은 남성에 비해 많고, 일하는 여성들의 양육참여 시간 역시 맞벌이, 외벌이 가정에서 남성의 양육참여 시간보다 더 많았다. 남성은 직장퇴근 후 가정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직장일과는 별도로 가정에서 자녀양육 및 가사에 시간을 보내느라 자기 혼자만의 시간 혹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은 가정 내 양육과 가사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때에 자녀를 더 출산하고자 하였다.

	남성	여성
가치	책임감과 성실성	인내심과 소통,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역할	경제적 지원자	자녀교육의 매니저
어려움	권위적 태도	양육 전담(어머니 역할)
좋은 부모의 덕목 및 결림돌	좋은 부모의 덕목은 경제력 결림돌에 경제력, 자녀와의 시간 부족, 세대차이, 권위적 태도	경제력, 인내심, 자녀와 소통 주변간섭, 인내력
자녀관 및 양육신념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지지를 통해 양육의 기쁨을 느낌	인내하며 자녀양육 자녀양육보다 직장일이 더 쉬움.
양육방식 및 실제	양육정보는 지인과 부모로부터 주말에 자녀와 더 긴 시간 보냄	지인과 인터넷 아버지보다 긴 시간 양육
생애 주기별 자녀양육	출산 전에 가족계획에 관심	출산 전에 부부관계에 관심 청소년기 자녀의 교육지원에 치중
양육 지원 정책	자녀출산 조건은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보육 강화 요구	보육교육기관 질 향상 요구 양성평등(양육과 가사 분담) 요구

[그림 VI-1-1] 성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

나. 세대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을 세대별 공통적인 특징(그림 VI-1-2 참고)과 각 세대별 차별화된 특징(그림 VI-1-3 참고)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1) 공통적인 특징

세대별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 세대를 통틀어 자녀양육에 가장 큰 이슈는 '경제력'이다. 모든 세대에 걸쳐 좋은 부모가 되는 걸림돌 1순위는 경제력이고, 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과 부모로서 역할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부분 역시 경제적 지원의 부족이 가장 높았다.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 역시 보육료 교육비 지원으로 나타나, 비용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경향이 있다. 자녀양육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교육비로 나타났는데, 자녀를 기르는 것이 모두 경제력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 한명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비용부담이 큰 현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모든 세대의 부모는 자녀 영유아기가 부모로서 가장 도전적인 시기이며, 양육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가정 내 역할분담과 일 가정 양립 고민이 가장 큰 영유아기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셋째, 가족의 참 의미, 가족의 원만한 유대관계에 대한 욕구가 크고, 이를 위한 노력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 멀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과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낀다는 결과는 '자녀'가 가족을 유지시키고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존재임을 지지한다.

2) 세대별 특징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성을 각 세대별로 살펴보면, 20대, 30대가 서로 유사한 편이고, 40대와 50대의 성향이 대체적으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가) 20대의 자녀양육관 특징

20대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출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부모 역할에 대한 성취감이 높은 세대이다. 가장 적은 돈을 자녀에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충분히 부모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자녀 양육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20대 부모는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녀와 함께 놀이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며,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에 비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두드러진다.

인터넷에 능통한 젊은 세대들은 다양한 양육정보를 빠르게 흡수하고, 고가의 육아용품을 다른 세대들에 비해 쉽게 구매하는 편이었다.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 검색과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양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행하는 육아용품을 함께 구매하는 등 소비적인 양육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0대 자녀양육에서 중요한 이슈는 일 가정 양립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동등한 입장에서 자녀 양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여성의 역할은 자녀를 돌보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20대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자신의 경력과 관련된 영역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30대의 자녀양육관 특징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소비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30대이다.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기 때문에, 30대가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가장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일관되게 사교육비 경감이 되어야 자녀를 더 출산할 수 있다고 인식하며,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 중 비용지원(보육료 교육비,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자녀와 놀이하면서 대화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며, 20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이 익숙하다. 자녀가 점차 성장해나감에 따라 자신의 양육지식이 부족함을 실감하며 전문적인 도움을 원한다.

다) 40대의 자녀양육관 특징

사교육 소비 규모가 증가하여 부모 역할에서 경제적인 한계를 느끼는 세대가 40대이다.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며, 다른 세대와 비교해볼 때 자신의 부모 역할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다. 양육에 대해

국가적 책임보다는 가정의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50대와 함께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여, 권위적 태도가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을 통해서 양육정보를 얻고, 주로 자녀와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가 가져야할 태도에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른 세대와 비교해볼 때 자녀와 보내야하는 최소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나, 소통에 대한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라) 50대의 자녀양육관 특징

희생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강한 50대는 자녀와 소통하고 싶어 하고, 자녀로부터 얻는 지지에 큰 기쁨을 느낀다. 자녀의 성장과 더불어 세대차이 때문에 자녀와 멀어지는 것을 걱정한다. 40대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통해 육아정보를 얻고, 자녀와 주로 식사하면서 진로와 미래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

여성의 본래 역할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 두드러지고, 젊은 세대의 소비적인 양육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경향이 있다. 자녀가 일찍 결혼한 경우 50대에 조부모로서의 역할이 시작되는데, 직장에 발이 묶여있는 부모를 대신하여 손주를 맡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탄력근무제나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양육친화인프라 증가에 관심이 많다.

세대별 공통 특징	
바람직한 부모상	좋은 부모가 되는 걸림돌은 경제적 부모됨 준비시작의 적정시기는 예비부모
자녀관과 양육신념	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성취감 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양육비용
양육방식 및 실제	자녀와의 대화주제는 일상생활 및 하루지낸 이야기 부모역할 불충분하고 느끼는 원인은 경제적 지원의 부족 자녀양육에 지출 큰 항목 1순위 46.3% 사교육비
양육문화	양육 정보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습득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자녀 연령에 따라 관심사가 변화하고, 자녀 성인기에는 가족유대관계에 관심 상승 자녀 영유아기에는 가정 내 역할분담과 일가정 양립을 고민 자녀 청소년기에는 자녀와의 갈등해결방법과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부모교육 요구 상승
양육 지원정책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1순위는 보육료교육비 지원 가장 효율적인 양육지원 시기는 영유아기

[그림 VI-1-2] 세대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공통 특징

	20대	30대	40대	50대
바람직한 부모상 및 부모교육	양육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부모 역할에 성취감이 높은 시기 기정과 직장에서 양육으로 인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 좋은 부모 터무는 경제력 좋은 부모가 되는 걸림물은 주변 간섭	사교육 시작으로 비용 지출 증가 국가 책임을 크게 인식하는 시기 양육지식과 부모역할에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 부모됨 준비 시점은 예비부모 걸림물은 시간 부족	사교육 본격화로 지출 증가, 경제적인 한계를 느끼는 시기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역할과 태도에 어려움 인식 부모됨 준비 시점은 학생시기 걸림물은 권위적 태도	자녀와의 소통을 원하며, 부모로서 자녀로부터 얻는 지지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시기 희생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강한 세대 좋은 부모 터무는 자녀와의 소통 걸림물은 세대차이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여성 역할은 일보다 양육에 동의의 인함			여성 역할은 일보다 양육
자녀관과 양육신념	양육하며 부모로서 성장 일과 양육 병행 어려움	자녀와 보내는 여가가 양육 기쁨		양육하며 참고만 산다고 인식 자녀의 학업 및 직업 성취에 어려움 보수적 양육태도(엄격한 부모, 자녀의 순종)
양육방식	자녀와 놀이하면서 대화 대화 주제는 자녀의 생활태도 자녀와 보내는 최소 시간 인식 긴 편	자녀와 놀이하면서 대화	자녀와 식사하면서 대화 자녀와 보내는 최소 시간 가장 짧은 편	자녀와 식사하면서 대화 대화 주제는 자녀의 진로, 미래
양육신제	부모로서 역할 충분하다고 인식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인식 낮은 기구소득 대비 양육비 양육비 부담을 가장 낮게 인식 내구재비용이 가장 지출 큰 항목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가 가장 높음 양육비 부담을 가장 크게 인식 양육지식의 부족을 걱정	부모역할의 충분정도 가장 낮게 인식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인식 경제적 지원의 부족을 걱정 사교육비가 가장 지출 큰 항목	
양육문화	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높은 고가의 유아용품 구매의향	인터넷 통한 정보 습득	가족을 통한 정보 습득	가족을 통한 정보 습득 낮은 고가의 유아용품 구매의향
생애주기별 자녀양육	출산 전, 부모관계, 일가정양됨, 가정 내 역할분담에 관심 교육 및 학습지원에 관심			
양육지원정책	가장 필요한 유아지원정책 유아휴직 자녀 출산 위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가정양육수당보다 영아 보육료지원 선호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가장 크게 인식 자녀 출산 위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교육 요구 보육료교육비, 가정양육수당에 가장 만족	양육의 국가 책임을 가장 낮게 인식 자녀 출산 위해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교육 요구	가장 필요한 유아지원정책은 탄력근무제 필요한 정책으로 방과후와 양육친화 인프라 상승 낮은 보육료교육비, 가정양육수당에 만족 비율

[그림 VI-1-3] 세대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성

다. 자녀수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을 자녀수에 따라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1명인 가정과 3명 이상인 가정의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그림 VI-14 참고).

1) 자녀수 1명인 부모의 자녀양육관 특징

1명의 자녀만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부모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양육하는 자녀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에게 상대적으로 긴 여가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첫 자녀를 키우면서 자신의 삶보다는 아이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경험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는 긴 여가시간을 주장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외동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여러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보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양육정보를 얻고 있다. 첫 자녀를 양육할 때는 둘째 혹은 셋째를 양육할 때보다는 미숙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양육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1명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탄력근무제나 육아휴직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가 높은 편이다. 자녀를 어느 정도 양육하고 나서 직장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거나, 현재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정책수요가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2) 자녀수 2명인 부모의 자녀양육관 특징

2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관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 양육비 지출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조사결과). 자녀를 셋 양육하는 집보다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자녀가 셋인 경우 세 자녀 모두에게 고루 교육비를 투자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으므로 선별적으로 사교육을 선택하게 하거나 첫째 자녀 위주로 사교육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두 자녀 양육 시 비용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두 자녀 모두에게 고루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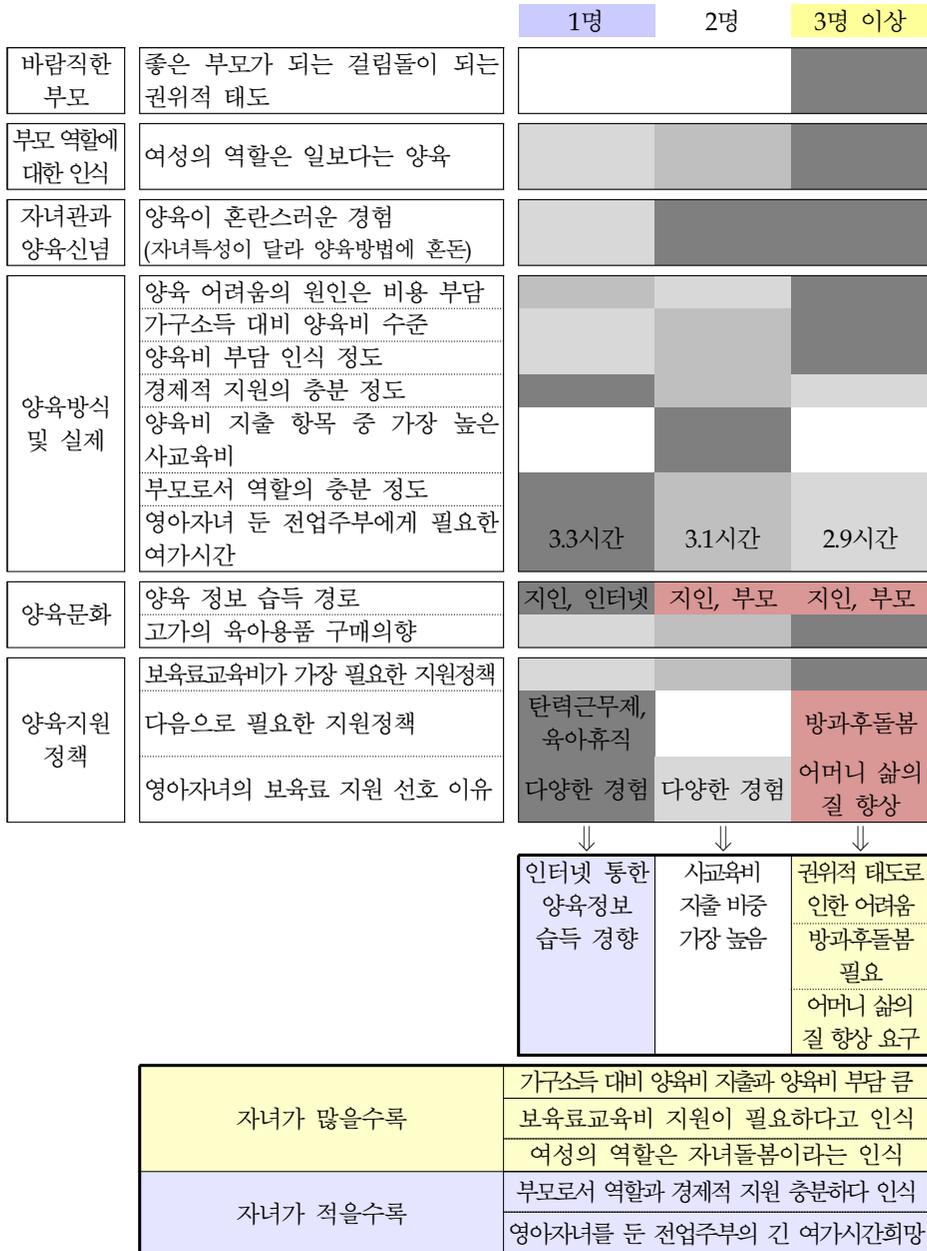
둘째, 양육에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자녀를 하나 양육하는 부모보다 높은 편이었다. 둘째를 낳고 나서 첫째와 다른 자녀의 특성을 경험한다던가, 첫째를 대상으로 사용하던 훈육 혹은 양육 방법이 둘째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때 혼란에 빠지는 것으로 보인다.

3) 자녀수 3명 이상인 부모의 자녀양육관 특징

자녀가 3명 이상인 부모의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은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과 양육비 부담이 큰 점이다. 자녀가 하나 혹은 둘인 경우에 비해 양육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고,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국가의 보육료,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이하게도 고가의 유아용품 구매에 관대한 편이었는데, 한번 사면 여러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으로 추측된다.

자녀를 많이 양육하는 부모일수록 여성의 역할은 자녀 돌봄이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자녀 3명 이상인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권위적 태도를 지적한 경우가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성역할,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가 셋 이상인 경우에 실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자녀가 하나 혹은 둘일 때보다 짧았는데, 이는 형제자매가 가정 내 양육자의 역할을 부모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 간 터울이 클수록, 첫째 및 둘째가 막내의 양육자로서 어머니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VI-1-4] 자녀수 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특징

■ 1순위 ■ 2순위 ■ 3순위 □ 미해당 ■ 다른경향

2. 자녀양육관의 변화

본 절에서는 2008년 실시한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김은설·최혜선, 2008)’와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2008년과 2016년의 한국인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을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2008년과 2016년 한국인의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 비교

1) 자녀에 대한 기대

아들이 뛰어나길 바라는 부분에 대한 2008년과 2016년의 응답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아들이 성격과 태도(책임감, 성실성 등)에서 뛰어나길 바라는 부모가 가장 많았던 2008년(33.5%)의 결과와 달리 2016년에는 사회성(대인관계, 리더십)이 뛰어나길 바라는 부모(37.3%)가 가장 많았다. 또 다른 차이는 학업 능력에서 찾을 수 있는데, 2008년에는 아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기대한 부모가 21.8%였는데 반해, 2016년에는 그 비율이 13%로 줄어들었다. 이와 반대로 예체능적 자질(음악, 미술, 운동 등)이 뛰어나길 바라는 부모가 2008년에 1.8%인데 반해, 2016년에는 4.1%로 증가하였다. 2016년의 부모는 2008년의 부모에 비해 아들이 사회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리더십이 있길 기대하고 있었고, 학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 다른 분야의 능력(예체능적 자질)이 뛰어난 경우 이를 환영하고 그 부분을 더 개발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VI-2-1〉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점: 아들(1순위)

단위: %(명)

구 분	사회성	성격, 태도	학업 능력	신체	예체능적 자질	계(수)
2016년	37.3	32.7	13.0	12.9	4.1	100.0 (912)
2008년	32.4	33.5	21.8	10.5	1.8	100.0 (2,357)

주: 2008년 자료에서는 대인능력(사회성 리더십 등)으로 응답한 값을 사회성과 비교함.

딸이 뛰어나길 바라는 점에 대한 응답에서도 2008년, 2016년 간 차이가 나타났다. 2008년에 딸이 뛰어나길 바라는 점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신체적 조건(용모, 키, 몸매 등)(28.4%)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꼽힌 것이 성격과 태도

(책임감, 성실성 등)(22.9%), 사회성(21.8%)이다. 2016년에는 신체적 조건과 성격 및 태도가 각각 31.3%와 31.2%로 2008년과 비교해볼 때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딸이 예쁜 외모와 몸매, 큰 키 등 우월한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성실성 등 적응력 좋은 성격과 태도를 갖추길 바라는 경향이 이전 보다 강해졌다. 또 다른 변화는 2016년에 학업 능력을 1순위로 꼽은 부모의 비율이 2008년에 비해 6.1% 감소한 점, 딸이 우수한 예체능적 자질을 갖길 바라는 부모의 비율역시 2008년 7.5%에서 2016년 5.1%로 줄어들은 점이다. 아들이 뛰어난 예체능적 자질을 갖길 바라는 비율은 2016년에 2008년보다 증가하였는데, 딸에게는 그 비율이 감소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기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VI-2-2〉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점: 딸(1순위)

구 분	신체					성격, 태도		사회성		학업 능력		예체능적 자질		단위: %(명) 계(수)
	신체	성격, 태도	사회성	학업 능력	예체능적 자질	신체	성격, 태도	사회성	학업 능력	예체능적 자질	신체	성격, 태도		
2016년	31.3	31.2	19.1	13.2	5.1	100.0	(862)							
2008년	28.4	22.9	21.8	19.3	7.5	100.0	(2,093)							

주. 2008년 조사에서는 대인능력(사회성, 리더쉽 등)으로 응답한 값을 사회성과 비교함.

2)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역할

가) 부모주도성

2008년, 2016년 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의 주도적, 능동적 역할보다는 부모의 반응적, 수동적 역할을 더 강조하였다. 즉,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에 70%넘는 응답자들이 동의하였다. 2008년에 비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부모의 반응적, 수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부모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부모 중심'의 양육보다는 '자녀 중심'의 양육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표 VI-2-3〉 부모주도성에 대한 의견

구 분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단위: %(명) 계(수)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2016년	72.9	27.1	72.9	27.1	100.0 (1,013)
2008년	70.1	29.9	70.1	29.9	100.0 (3,747)

나) 자녀 성장을 위한 부모 영향력

자녀의 성장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부모 비율이 2008년에 44.7%, 2016년에 57%로 증가하였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을 포함하여 보면, 2008년에 조사응답자의 95.8%, 2016년 조사응답자의 98.1%가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개인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이지만, 2016년의 부모들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의 성장을 격려하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표 VI-2-4〉 자녀의 성장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구 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계(수)
2016년	0.2	1.8	41.1	57.0	100.0 (1,013)
2008년	0.3	3.8	51.1	44.7	100.0 (3,747)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언제까지 해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부모들의 생각은 8년 사이에 상당히 변화하였다. 2008년에는 ‘대학 입학 전까지’, 혹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3.8%였는데, 2016년에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혹은 ‘취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2.9%로 경제적 지원을 더 오래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였다.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혹은 ‘평생 동안 언제라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2016년에 더 증가하여, 결혼 후에도 원가정의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현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2008년에 비해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초혼 시기가 미루어지면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2016년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 정도가 증가하고 장기화 될 것이라 생각된다.

〈표 VI-2-5〉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시기: 경제적 지지

단위: %(명)

구 분	대학 입학 전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결혼 후 기반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평생 동안 언제라도	계(수)
2016년	9.9	49.3	23.6	12.0	3.0	2.3	100.0 (1,013)
2008년	11.2	62.6	14.7	10.2	0.6	0.6	100.0 (3,747)

주: 2008년 조사에서는 '결혼 10년까지'로 응답한 값을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와 비교함.

다) 부모 역할 수행 평가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2008년에 자신의 역할 수행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35.7%였으나, 2016년에는 26.7%로 감소하였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2008년 19.8%, 2016년에는 23.9%로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2008년 조사의 부모들 보다 2016년 본 연구의 부모들은 자신이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I-2-6〉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단위: %(명)

구 분	매우 부족함	부족한 편임	충분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음	충분한 편임	매우 충분함	계 (수)
2016년	2.4	21.5	49.4	23.5	3.2	100.0 (697)
2008년	1	18.8	44.6	31.8	3.9	100.0 (3,046)

주: 2008년 조사에서는 보통으로 응답한 값을 충분하지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음과 비교함.

부모 역할 중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2008년, 2016년 변함없이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바람직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경제력'이라고 응답한 부모가 가장 많았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표 VI-2-7〉 부모역할이 가장 불충분한 점

단위: %(명)

구 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학업 지도	양육 지식	생활태도 및 습관 지도	기타	계 (수)
2016년	46.1	18.6	12.6	11.4	9.6	1.8	100.0 (167)
2008년	46.4	17.1	13.6	-	21.0	1.9	100.0 (601)

주: 2008년 조사에서는 양육지식 항목이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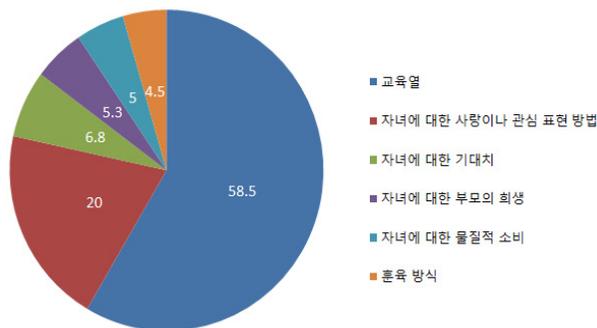
이상의 2008년과 2016년도 연구결과 비교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8년 전과 비교하여 2016년도에는 자녀성장에 있어서의 부모 영향력 정도에 대한 인식은 12.3%p나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녀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증대하였다. 반면, 과거에 비하여 부모역할 수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은 커진 반면, 실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 VI-2-8〉 2008년과 2016년 연구결과 비교 요약

항목	2008	2016
아들에 대한 기대	성격·태도> 사회성> 학업	사회성 > 성격·태도
딸에 대한 기대	외모> 성격·태도> 사회성	외모/ 성격·태도 > 사회성
자녀성장에 대한 부모 영향력	44.7%	57.0%
경제적 지지	대학졸업(62.6%)>취업(14.7%)	대학졸업(49.3%)> 취업(23.6%)
부모역할 수행수준 평가	보통(44.6%)> 충분(31.8%)	보통(49.4%)> 충분(23.5%)> 부족(21.5%)
불충분한 부모역할	경제적 지원(46.4%)> 생활태도 및 습관지도(21.0%)	경제적 지원(46.1%)> 정서적 지지 (18.6%)

나. 자녀양육문화 변화에 대한 인식

2016년 현재의 양육문화와 과거 10년 전 또는 부모님 세대의 양육 문화를 비교했을 때 변화하지 않은 점으로 응답자의 58.5%가 '교육열'을 꼽았다. 예나 지금이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열정은 양육 문화 안에 깊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양육문화에서 변하지 않은 점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표현 방법(20%), 부모의 희생(5.3%)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자식에 대해 헌신적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은 변하지 않은 본질적인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VI-2-1] 과거와 현재의 양육문화 간 변하지 않은 점

<표 VI-2-9> 과거와 현재의 양육문화 비교: 변화 없는 점

단위: %(명)

구 분	교육열	훈육 방식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표현방법	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	자녀에 대한 기대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	계(수)
전체	58.5	4.5	20.0	5.0	6.8	5.3	100.0 (400)
성별							
여성	60.4	3.6	20.9	1.8	7.6	5.8	100.0 (225)
남성	56.0	5.7	18.9	9.1	5.7	4.6	100.0 (175)
$\chi^2(df)$			13(5)*				
연령대							
20대	66.7	-	8.3	16.7	8.3	-	100.0 (12)
30대	54.0	8.0	24.1	4.6	3.4	5.7	100.0 (87)
40대	60.9	3.0	20.7	4.1	5.9	5.3	100.0 (169)
50대	57.6	4.5	17.4	5.3	9.8	5.3	100.0 (132)
$\chi^2(df)$			14.3(15)				
자녀수							
1명	57.3	5.2	18.8	8.3	3.1	7.3	100.0 (96)
2명	58.7	4.2	20.1	4.2	7.6	5.3	100.0 (264)
3명 이상	60.0	5.0	22.5	2.5	10.0	-	100.0 (40)
$\chi^2(df)$			9.1(10)				
거주지역							
대도시	69.3	6.6	13.3	1.2	6.0	3.6	100.0 (166)
중소도시	53.5	1.6	21.4	8.0	8.0	7.5	100.0 (187)
읍면동	40.4	8.5	38.3	6.4	4.3	2.1	100.0 (47)
$\chi^2(df)$			38.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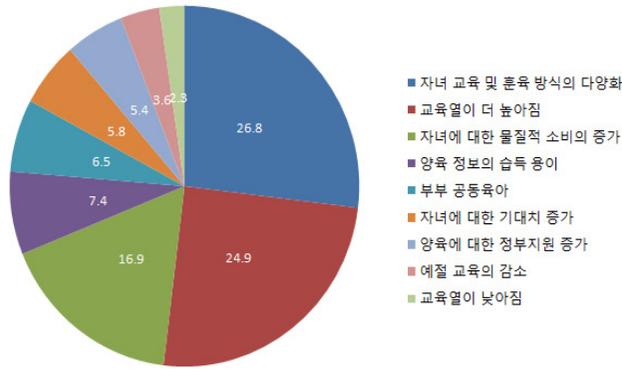
(표 VI-2-9 계속)

구 분	교육열	훈육 방식	자녀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표현방법	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	자녀에 대한 기대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희생	계(수)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52.3	7.7	16.9	9.2	7.7	6.2	100.0 (65)
300~450만 미만	58.9	3.2	23.8	4.9	5.4	3.8	100.0 (185)
450~600만 미만	64.6	2.0	18.2	4.0	6.1	5.1	100.0 (99)
600만 이상	52.9	9.8	13.7	2.0	11.8	9.8	100.0 (51)
$\chi^2(df)$			19.7(15)				

* $p < .05$, *** $p < .001$

반면, 2016년 양육문화와 과거 10년 전 혹은 부모시대의 양육문화 간 달라진 점으로는 자녀 교육 및 훈육 방식의 다양화(26.8%)와 더욱 과열된 교육열(24.9%)을 언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매체의 발달을 통해 손쉽게 양육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7.4%),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과 훈육에 대한 지식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또래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사교육을 제공하여 선행학습을 하거나, 특목고 진학을 위해 어린 시절부터 미리 준비시키는 등 과도한 교육열 양상은 현대 사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교육열’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 ‘자녀에 대한 기대’는 변하지 않은 양육문화 뿐만 아니라 변화한 양육문화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였다. 과거에도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자녀에게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자 노력하였으며, 교육적인 지지를 지속해 왔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한 응답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를 위해 고가의 육아용품을 구매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과거와 비교해볼 때 더욱 강화된 양육문화로 볼 수 있다(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 증가=16.9%). 새롭게 등장한 변화로는 부부 공동육아(6.5%)를 꼽을 수 있는데, 2016년의 양육문화가 과거 보수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VI-2-2] 과거와 현재의 양육문화 간 변화한 점

<표 VI-2-10> 과거와 현재의 양육문화 비교: 변화한 점

단위: %(명)

구 분	교육열 이 더 높아짐	자녀 교육 및 훈육 방식의 다양화	예절 교육의 감소	교육열 이 낮아짐	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의 증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 증가	양육에 대한 정부지 원 증가	부부 공동육 아	양육 정보의 습득 용이	기타	계(수)
전체	24.9	26.8	3.6	2.3	16.9	5.8	5.4	6.5	7.4	0.4	100.0 (555)
성별											
여성	25.4	26.8	3.4	1.4	18.2	6.2	4.8	7.6	5.8	0.3	100.0 (291)
남성	24.2	26.9	3.8	3.4	15.5	5.3	6.1	5.3	9.1	0.4	100.0 (264)
$\chi^2(df)$					6.8(9)						
연령대											
20대	20.0	20.0	-	-	20.0	13.3	-	20.0	6.7	-	100.0 (15)
30대	22.5	20.8	2.5	3.3	17.5	7.5	8.3	5.8	11.7	-	100.0 (120)
40대	30.8	30.8	2.9	1.4	13.9	5.3	4.3	4.3	6.3	-	100.0 (208)
50대	20.8	26.9	5.2	2.8	19.3	4.7	5.2	8.0	6.1	0.9	100.0 (212)
$\chi^2(df)$					33.7(27)						
자녀수											
1명	23.3	23.3	3.8	1.5	11.3	10.5	7.5	8.3	10.5	-	100.0 (133)
2명	25.3	26.9	3.6	2.8	18.3	4.2	5.3	5.8	7.2	0.6	100.0 (360)
3명 이상	25.8	33.9	3.2	1.6	21.0	4.8	1.6	6.5	1.6	-	100.0 (62)
$\chi^2(df)$					22.6(18)						

(표 VI-2-10 계속)

구 분	교육열 이 더 높아짐	자녀 교육 및 훈육 방식의 다양화	예절 교육의 감소	교육열 이 낮아짐	자녀에 대한 물질적 소비의 증가	자녀에 대한 기대치 증가	양육에 대한 정부지 원 증가	부부 공동육 아	양육 정보의 습득 용이	기타	계(수)
월 가구소득											
300만 미만	26.4	29.9	1.1	3.4	16.1	3.4	5.7	6.9	6.9	-	100.0 (87)
300-450만 미만	27.5	25.5	2.8	2.0	15.5	7.2	5.6	7.2	6.0	0.8	100.0 (251)
450-600만 미만	23.4	24.1	3.6	3.6	21.2	5.1	5.1	6.6	7.3	-	100.0 (137)
600만 이상	17.5	32.5	8.8	-	15.0	5.0	5.0	3.8	12.5	-	100.0 (80)
$\chi^2(df)$						19(18)					

요컨대,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한국 양육문화의 핵심에는 여전히 '교육열'이 자리잡고 있으며 더욱 과열된 양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양육문화가 변화된 점으로는 자녀교육과 훈육 방식이 과거에 비하여 다양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양육문화가 그만큼 복잡다단해진 현재 한국사회와 다양해진 가족 형태와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자녀교육과 훈육이 이루어지던 과거에 비하여 단일한 또는 특정 방식을 고수하거나 적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2016년 현재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에 대한 제반 가치관을 성별, 세대별, 자녀 유무와 자녀수, 지역규모,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주요한 특징을 추출하였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2008년도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연구(김은설, 최혜선, 2008) 결과와 비교하여 자녀양육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조사에 응답한 한국인의 64.5%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나, 여성의 경우 없어도 된다(없어도 상관없거나,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비중이 약 20%에 육박하며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43.3%) 때문이다.

둘째, 대체적으로 부모됨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나 경제적, 심리정서적 준비가 필요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부모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자녀가 영유아기에는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양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초등자녀부터는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고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

넷째,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보다 경제력을 가장 우선시하며, 그 다음이 자녀와의 소통,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역시 경제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자녀에게 부모로서 가르치고 싶은 가치로는 개인의 행복한 삶 추구,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 일에 대한 성취이며, 반면 가족을 위한 희생 및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 등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경향이다.

여섯째, 부모가 어느 정도 엄격하게 훈육하고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조하거나 관대히 봐주어서는 안된다고 인식한다. 이는 부모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유자녀,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엄격한 훈육과 부모에의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적 성향이 강하다.

일곱째, 자녀 성장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과거(2008년)에 비하여 훨씬 더 크게 인식하나, 부모역할 수행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자녀가 대학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로 더 긴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여긴다.

여덟째,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보내는 시간은 주중보다 주말이 2배이상으로 많으며 특히 아버지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주중 1일 평균 0.58시간, 주말 1일 평균 1.85시간).

아홉째, 자녀양육을 위한 지출은 총 가구소득 대비 약 25% 수준이며, 상당부분은 사교육비로 소요된다. 응답한 부모들의 약 60%가 비용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열 번째, TV 육아프로그램과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부모는 쉽게 필요한 육아정보를 습득하며, 반면 과소비 문화를 조장하거나 넘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비전문적 육아지식이 전달되는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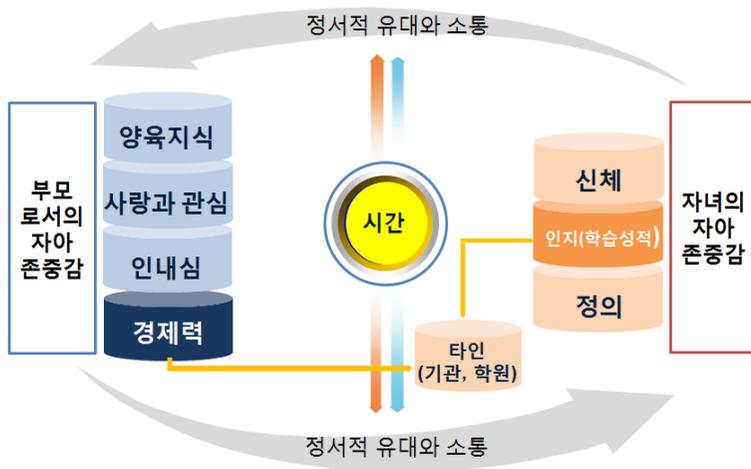
이상의 주요결과들을 종합하여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부모는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점이다. 좋은 부모의 우선적인 조건과 좋은 부모가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부모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서 모두 '경제력'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사교육비 투자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며, 자녀의 자존감이 위축되지 않도록 좋은 성적을 위한 학습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부모 자신이 자녀의 학습을 직접 도와주기보다는 타인(학원 등)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녀교육 비용지원을 위하여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에 필요한 시간을 일에 투자하게 되므로 자녀와의 관계 및 소통이 약화되고 자녀 역시 제공된 비용으로 더 학업성취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부모와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구조로 악순환한다. 복잡다단한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과 시간과 경제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간의 관계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 VII-1-1]와 같다.

경제력이외도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경제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는 듯하다. 영국의 유명한 종단연구인 EPPE(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and

Primary School Education)(Sylva, et. al, 2007)에서는 아동의 발달과 학습은 부모가 누구인가(Who you are)보다는 부모가 자녀와 무엇을 하느냐(What you do)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함께 시간보내기 등의 자녀와의 활동, 부모참여가 더 결정적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모로서의 자아 형성, 자아영역, 역할구조 등을 재조명하고 부모로서의 자아 존중감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현재 한국부모는 자녀의 학습능력 이외에 예체능 및 자녀가 잘 할 수 있는, 자녀 재능과 꿈을 살려주고자 하며, 이는 부모가 부모역할을 학습지원에 주력하지 않고 더 다양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VII-1-1]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와의 유대 및 소통

둘째, 한국부모는 젊은 세대일수록 양육과 가사에 대한 부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으나, 부모역할, 특히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하다는 점이다. 한국부모는 자녀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지원을, 평생 동안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자녀가 영유아기에는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이후 자녀성장에 따라 시간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선호하며, 이혼 시에도 어머니를 적합한 양육자로 인식하고 있다.

현실적 및 이념적 차원에서 맞벌이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유자녀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과 인식의 간극을 개별 가족 내의 여성이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버지의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의 기업과 사회의 제도적 지원이 남녀 모두가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아버지 부모교육이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부모 가족 및 의도적 무자녀 부부의 증가는 표준적인 부모됨과 자녀 양육관을 탈피하여 다양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요구에 부응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의도적 무자녀 부부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보다는 부부관계를 중시하며 부모됨의 의미에 대한 교육을 선호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부모로서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므로 함께 보내는 양질의 시간과 자녀와의 심리적 유대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정책 제언

V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년 전 과거와 비교하여 한국부모가 인식하는 양육문화에서 교육열은 여전히, 오히려 더 과열된 양상으로 가장 강력한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즉, 한국부모의 자녀양육관은 자녀의 학교성적, 상급학교 진학, 진로 선택과 취업을 떠나서 논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을 고려하여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육아지원정책의 수용도와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 어젠다를 설정함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상급학교 교육현장과의 연계를 강조한 부모교육과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부모의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과 불충분함을 완화시키고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며 올바른 양육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정책

의 방향성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1) 범국민의 좋은 부모되기 1,000일 캠페인 실시

비록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내재적인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과 가정, 사회적 풍토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최근 육아 관련하여 범부처간 합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공동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범국민의 좋은 부모되기 프로젝트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1,000일 동안 각계각층의 의지와 추진체계를 결집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및 산하의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기업체, 다학문분야(의료, 경제, 노동, 교육, 여성 등)가 참여하여 구체적인 캠페인을 기획하고 추진 과정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2) 첫 임신 및 첫 출산 지원 강화

가족과 사회적 지원없이 첫 임신과 첫 출산을 힘들게 경험한 여성과 가족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정서로 인하여 추가 출산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게 된다. 따라서 첫 임신과 출산과정을 누구나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system의 임신출산과 초기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 사회와 이웃의 유경험자를 활용하여 공동육아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유니세프의 ‘Lead Mother’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출산 유경험자를 교육하여 이웃의 임신, 출산 코치로 활용할 수 있다.

3) 부모특성별 및 가족형태별 지원 방안 다양화

가) 아버지 양육지원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아버지는 주로 주말에 자녀와 시간을 보낼 여유가 생기므로 아버지와 자녀를 위한 주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여가시간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다. 특히 일반가정 아버지와 편부가정이 함께 어울려서 자녀와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요구조사에 기초하여 주말 부모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나) 어머니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생시기부터 특히 중고등학생인 경우 바람직한

부모의 경제활동 참여형태로 어머니의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낮은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취학 전 교육보육 서비스 및 초등학교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전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함으로써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자녀양육할 수 있는 시간 및 경제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사회변화나 기업의 환경 및 가계 재무구조로 볼 때

다) 3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 정교화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부모 특히 전업주부는 길어진 양육기간으로 혼자만의 시간적 여유를 가장 원하므로 단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육기관은 종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간제 서비스의 시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통상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주어지는 각종 할인혜택(예: 입장료, 기차운임비 등)을 3인 이상 다자녀가구의 가족 구성원 수(즉, 5~6인 이상)를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 중 경제활동이 없으므로, 특히 비정규직인 경우 생활고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일정기준에 의하여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한부모 가족은 부모로서의 심리정서적 준비와 자녀와의 소통 및 함께 보내는 시간 확보를 우선시하므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유관기관에서는 주말 여가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주변의 편견과 간섭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소 심리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비친인척 지원체제, 개별상담 및 한부모 자조모임을 활성화한다.

4) 매체 활용을 통한 육아지원서비스 홍보 극대화 및 문화인프라 확충

가) 미디어 활용을 통한 공신력있는 육아정보 제공 및 공공기관의 육아 지원 서비스 홍보 극대화

젊은 세대, 여성, 한자녀 부모, 한부모는 특히 미디어(TV 육아프로그램과 인

터네스 스마트폰 등) 활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육아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므로, 인터넷 사이트에 공신력 있는 육아정보와 최신 정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육아 지식과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부모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양방향의 환류체제를 갖추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제공된 정보의 유용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한 TV 예능 및 시사 프로그램(예: '유자식 상팔자', '아빠와 놀러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각종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저명인사, 연예인들이 자녀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립도서관 등의 육아지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다둥이 카드 등 현존하는 지원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방송을 통하여 제대로 알린다. 또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육아지원 자원지도(resource map)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문화인프라 및 놀이공간 확충

자녀의 생활을 학습에 국한하지 않고 취미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 및 영유아 및 초등자녀를 위한 놀이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자녀의 생활의 폭이 좁아지지 않도록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존의 문화센터, 구청의 관련 프로그램을 충분히 홍보하여 활용기회를 제공한다.

5) 생애주기별 및 실천중심 부모교육의 지속적 실시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의 필요성, 나아가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하여 대다수의 응답자(70% 이상)가 찬성하였으며, 부모교육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의 차이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유아와 초등학생 시기에는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부모교육의 첫 걸음을 시작하고(1단계),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됨과 관련된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2단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예비부모나 출산 전 성인을 대상으로 양육 실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교육의 실효성을 도모하도록 한다(3단계). 자녀를 출생 신고할 때 부모 모두가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한 정보 안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이미 부모가 된 성인의 경우에

도 직장, 자녀 재원 교육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실천 중심의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부모교육을 받고나서 각성하여 실천이 중요하나 작심삼일의 형태가 되므로 보다 효과적이 되려면 지속적, 주기적으로 부모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강의식을 지양하고 토론과 상담, 역할극 등 다양한 방식과 영유아/초/중/고등 학생을 둔 부모에게 차별화된 내용을 구성한다. 본 연구의 포커스집단 면담에 의하면, 부모교육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보다 심도있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1절만 반복'하는 교육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교육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1) 동일연령대 자녀를 둔 세대별 자녀양육관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관을 파악함에 있어서 동일한 자녀를 둔 다양한 연령대 부모의 자녀양육관을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즉, 부모 세대별 자녀양육관이 자녀의 성장시기에 따른 양육관을 반영하므로, 세대별 양육관의 진정한 차이를 보다 풍부하고 충실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동일연령층의 자녀를 둔 세대별 부모 표집설계가 요구된다.

2)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에 대한 회고적 사례연구

대부분의 자녀양육관 연구는 대규모의 인식 및 실태조사로 수행된다. 본 연구도 예외는 아니며,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포커스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좋은 부모됨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양육문화의 변화 등과 같이 연구 참여자의 관점과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인 사례연구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자녀를 다 키운 50-60대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회고적 심층사례 연구를 통하여 부모로서의 성장과정, 자녀양육 가치관의 변화 및 변화를 가져온 계기, 부모의 삶, 부모로서의 평생 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부모교육에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3) 국제비교 연구

‘한국인’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은 다른 국가와 문화적 배경에 있는 부모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비교함으로써 한국부모의 고유한 특징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해될 수 있다.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 및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주요 아시아국가는 물론, 서구국가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을 비교하여 자녀양육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롯하여 주요 이슈와 쟁점 등을 파악한다면, 한국인의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에 영향을 미친 사회문화적 요인과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가 요구하는 좋은 부모됨과 자녀양육관을 정립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과 가치를 주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과거부터 지속되는 또는 현재 새로이 부각된 관련 이슈를 논의하고 육아지원에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우리 사회에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해석을 제공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05).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보완판.
- 관계부처합동(200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요약본).
- 관계부처합동(2010a).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2015 가족행복 더하기」.
- 관계부처합동(2010b).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11~15)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
- 관계부처합동(2016).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 권영인(2014). 미혼 및 기혼 무자녀 남성과 여성의 출산 의사 고찰과 미래 예상 출산 자녀수 관련 변인 탐색. 한국생활과학회지, 23(2), 251-268.
- 김난도·이준영·전미영·김서영(2012). 트렌드 코리아 2013. 미래의창.
- 김두섭·창승은·송유진·천희란·김정석(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예·송영숙(2012). 대학생의 결혼, 성역할, 자녀 가치관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2), 303-311.
-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중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이가은·윤아름(2012a).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박중서·김유경·김연우·최영준·손창균·윤아름(2012b).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전광희·김민자·이연주·김유경·서문희·조애저(2005). 인구전환기의 한국 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신정·김계숙·김영희(2007).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1), 3-12.
- 김영희·김신정(2000). 여대생의 자녀 양육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2), 269-290.
- 김영희·김신정(2008).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이용한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4(1), 79-89.

- 김은설·최혜선(2008).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은지·장혜경·황정임·최인희·김소영·정수연·성경(2015).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의철·박영신·권용은(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109-142.
- 김정미·양성은(2013).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79-95.
- 김한곤(2014). 무자녀율 변화 추세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1990~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959-972.
- 김혜영·김상돈·박선애(2012). 가족관련 가치 및 의식의 변화와 가족의 미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정은(2013). 젊은 세대의 양육과 관련된 가치관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2), 441-460.
- 남정은·정정희(2012).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양육관에 대한 내용 분석 - 2000년~2010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1), 109-124.
- 노희연(2008). 영아기 자녀 양육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아시아아동복지연구, 6(4), 1-20.
- 대한민국정부(2009).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2010).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201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2014).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2015a).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2015b).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문무경·장혜진·김혜원(2011). 재외동포 영유아 양육 가치관 및 실태 연구: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문성희·이대균(2011).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313-335.
- 박선영·윤덕경·박복순·김혜경(2008).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 제 정비연구(II)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정(2014). 영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행위에 관한 내용분석.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 39-48.
- 박선정·강경아·김신정(2013).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 행위 유형: Q-방법론적 접근. *Journal of Korean Acad Nurse*, 43(4), 486-496.
- 박성연·박응임·한세영(2009). 아동양육방식. *아동학회지*, 30(6), 15-28.
- 박영애·나종혜(2003).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관련 신념 및 부모 효능감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3), 287-301.
- 박현정·이기연·정익중(2013). 이혼한 한부모 아버지의 양육경험-가정이라는 밀림 속으로 들어간 남자. *한국가족복지학*, 41, 199-224.
- 보건복지부(2008). 2009년 업무보고.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 정책.
- 보건복지부(2009).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2010a). 201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보건복지부(2010b). 아이사랑플랜 2010년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업무계획. 주요정책 추진방향.
- 보건복지부(2013a). 2013년 업무계획.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 복지 주요정책 추진 방향.
- 보건복지부(2013b).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성미애·최연실·이재림(2014). 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II. 가족과 문화, 26, 72-101.
- 신운정·기재량·우석진·윤자영(2014).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효영·방은령(2007). 미혼과 기혼 남녀의 결혼관 및 자녀관 비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94-295.
- 안지성·신세니(2013). [행복한 우리가족] 에 나타난 현대 부모의 양육관 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255-278.
- 여성가족부(2012).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 우남희·김영심·이은정·김현신(2009). 저 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미래유아교육연구, 16(3), 297-325.
- 이문옥·심미영(2011). 예비부모의 자녀출산 및 양육관, 예비부모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261-286.
- 이삼식·김안나·도세록·윤홍식·이윤석·신인철·김필숙·김정연·임주연(2006).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2006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평등 가치관 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삼식·정운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석호·이주연(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련변인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2, 111-130.
- 이수현(2012).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2(3), 43-88.
- 이윤정(2015).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 부모됨 인식, 부모역할 자신감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92, 1-18.
- 이정림·김길숙·송신영·이예진·김진미·김소아·김신경(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육아정책연구소.
- 이종욱·최한희·박병기(2012). 부모양육방식과 자녀발달특성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아동교육, 21(4), 275-296.
- 제남주·최소영(2014). 30 세 이상 미혼여성의 결혼관, 자녀관 및 고위험 임신지식에 관한 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8(2), 250-263.
- 최연실(2015). 한국가족의 변화: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 최연실·고선주·권희경·남영주·배희분·성미애·송명숙·양현아·이경희·이소영·이

- 재림·장주영·정정기·조은숙·진미정·최새은(2015). 한국가족을 말한다. 현상과 쟁점. 도서출판 하우.
- 최연실·성미애·이재림(2014). 한국 무자녀 부부의 초상 I. 가족과 문화, 26, 40-71.
- 최인희·김은지·이상림·정다운(2015).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현경·이성희(2014). 대학생의 자녀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4), 587-595.
- 홍승아·이인선(201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ouchard, G. (2014). The quality of the parenting alliance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46(1), 20.
- Halpenny, A. M., Nixon, E., & Watson, D. (2010). *Parents' perspectives on parenting styles and disciplining children*. Dublin: Office of the Minister for Children and Youth Affairs.
- Holland, J. A., & Keizer, R. (2015). Family Attitudes and Fertility Timing in Swede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1(3), 259-285.
- Lawrence, E., Rothman, A. D., Cobb, R. J., Rothman, M. T., & Bradbury, T. N. (2008). Marital satisfaction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41.
- Schaffer, H. R. (2006). *Key concept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Sage.
- Volling, B. L., Oh, W., Gonzalez, R., Kuo, P. X., & Yu, T. (2015). Patterns of marital relationship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from one child to two. *Couple and Family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3), 177.
-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 한부모 가구 비율
- 국가통계포털 사이트(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8&conn_path=I3).
- 네이버지식백과 웹사이트(<http://terms.naver.com>)

Abstract

Perspectives and Values of Koreans on Becoming a Parent and Child-Rearing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investigate Koreans' perspectives and values on becoming a parent and child-rearing, to identify and explain changes in parental values over the year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research.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1,000 adults sampled nation-wide by gender and age through 20s to 50s regarding their values on children and child-rearing. In addition, single parents and voluntary childless couples were surveyed and a total of 8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order to supplement surveys. In particular, survey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study undertaken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in 2008.

Major features of Koreans' values on becoming a parent and child-rearing were shown different in terms of gender, age, and the number of children of respondents. Koreans perceived that child-rearing as a serious financial burden and parental financial capability was considered most important requirement to be a good parent. Compared to the past, Koreans value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less and social competence and personality more. It is posited that parental self-esteem of Koreans needs to be restored by demystifying underlying values beyond financial capability. Based on the findings, a range of policy strategies and topics for further research were suggested.

부 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1. 설문지

 기혼
 유자녀

2016년도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6년 기본과제로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가치관과 자녀양육 실태를 알아보고,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하신 내용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 조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김 정 민 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최 광 선 차장 (02)3014-0099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취업여부	① 취업 ② 휴직 ③ 미취업
		맞벌이 여부	① 맞벌이임 ② 아님
자녀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자녀 수 및 연령	총 _____명 ①만 _____세 ②만 _____세 ③만 _____세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읍/면/동	월 평균 가구 근로소득	_____만원
교육수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4년제 대학 재학 ③ 전문대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조사담당자		조사표작성일	2016년 월 일



1. 자녀 가치와 부모됨

1. 귀하께서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 ③ 없어도 상관없다 **☞ 질문 1-1로**
- ④ 없는 것이 더 좋다 **☞ 질문 1-1로**

1-1. (문항 1에서 ③, ④번 응답한 경우) 왜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가 안되어
- ② 자녀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 ③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 ④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 ⑤ 부모가 될 정서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잘 기를 자신/확신이 없어서 등)
- ⑥ 기타(무엇: _____)

2. 귀하의 자녀는 현재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이상 **☞ 2-1로**

2-1. (문항 2에서 ③번 응답한 경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

- ① 자녀들에게 다양한 형제관계 경험을 갖게 하고 싶어서
- ② 아이가 예쁘고 아이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 ③ 자녀가 많은 가족이 더 화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④ 원하는 성별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 ⑤ 배우자 혹은 다른 가족들이 원해서
- ⑥ (의도치 않게)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 ⑦ 기타(무엇: _____ 예: 노후에 덜 외로울 것 같아서)

3.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질 생각이십니까?

- ① 그렇다 **☞ 3-1로**
- ② 아니다 **☞ 3-2로**

3-1. 자녀를 더 가지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

- ① 형제끼리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으므로
- ② 자녀의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
- ③ 원하는 성별의 자녀를 낳기 위하여
- ④ 아이가 예쁘고 아이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 ⑤ 배우자 혹은 다른 가족들이 원해서
- ⑥ 기타(_____)

3-2. 자녀를 더 갖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선택)

- ① 현재의 자녀수에 만족하므로
- ② 나의 성취와 경력 유지/향상을 위해
- ③ 육체적으로 더 이상의 양육이 힘들어서
- ④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 ⑤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 ⑥ 아이를 더 출산하기에 부모 연령이 너무 많아서
- ⑦ 자녀에게 충분한 개별적인 관심이나 지원을 줄 수 없어서
- ⑧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불임, 질병 등)
- ⑨ 기타()

4. 자녀의 가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 해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5. 자녀의 형제·자매에 대한 다음의 문항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 해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형제·자매는 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				
2)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의 사회성이 더 좋다				
3) 맞벌이 가정의 경우 특히 형제·자매가 더 필요하다				
4) 형제·자매가 있으면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분산된다				
5) 형제·자매를 키우는 것보다 외동을 키우는 것이 더 쉽다				

9. 주어진 두 개의 문장 중 귀하의 솔직한 생각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표 해 주십시오.

9-1. 부모주도성	<input type="checkbox"/> 1)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input type="checkbox"/> 2)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9-2. 자녀보담	<input type="checkbox"/> 1)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2)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 없다

10. 자녀의 성장에 부모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④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11. 부모로서 언제까지 자녀에게 정서·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 ① 대학 입학 전까지 ② 대학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결혼할 때까지
 ⑤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⑥ 평생 동안 언제라도

12.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합니까?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래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영유아 자녀	초등 자녀	중·고등 자녀	성인 자녀

- ①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함
 ② 어머니만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함
 ③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④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⑤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부모 동등하게 가사와 양육을 분담함

13. 부부의 육아와 가사 분담 적정 비율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부부 사이에 자녀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13-1. 현재 실제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14. 자녀가 영유아 시기에 부모가 이혼을 한다면, 누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부모 공동
- ④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
- ⑤ 부모가 아닌 혈연자(조부모 등)
- ⑥ 비혈연자
- ⑦ 자녀의 선택에 따름
- ⑧ 기타(무엇:)



II. 자녀 양육 가치, 태도, 정서, 문화 등

1. 다음은 자녀양육에서 강조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귀하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의 중요도를 각각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 다소 중요함	④ 매우 중요함
1)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2)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의 추구				
3)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				
4)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				
5) 타인에 대한 봉사 정신				
6) 자기 일에 대한 성취				

2.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2)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3)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4)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편이다				
5)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하라고 한다				
6)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3.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자녀 양육을 어떻게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2)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3) 자녀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4)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질 때가 많다				
5) 자녀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				
6)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7)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8)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든다				

4. 다음 중 부모로서 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측면을 고르십시오. (1가지만 선택)

- ①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 ②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 ③ 자녀 돌봄과 지도
- ④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 ⑤ 기타(무엇: _____)

5. 다음 중 부모로서 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측면을 고르십시오. (1가지만 선택)

- ①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 ②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 ③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 ④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 ⑤ 자녀의 심리적 안정
- ⑥ 자녀의 신체적 건강
- ⑦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 ⑧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 ⑨ 기타(무엇: _____)

6. 귀하의 양육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의 행동을 하였는지 각각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① 없음	② 드물게	③ 자주	④ 항상
1)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말로 타이른다				
2)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3) 자녀가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해보게 한다				
4) 자녀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몇 번이라도 설명해준다				
5) 자녀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준다 (예: 잘했어, 잘하고 있어. 등)				
6) 자녀가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주장을 할 때, 자녀의 뜻을 꺾기 위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겁을 준다				
7)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자녀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낸다				

7. 귀하는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원활하지 않다
- ②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 ③ 원활한 편이다
- ④ 매우 원활하다

7-1. 귀하는 자녀와 주로 언제 대화하십니까?

- ① 식사(외식)하면서
- ② 자녀를 데려다 주는 등 이동 시간에
- ③ 하교·퇴근 후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 ④ 가사일(요리, 청소) 중에
- ⑤ 자녀와 놀이(학습지도)시간을 가지면서 하여
- ⑥ 따로 둘만의 대화 시간을 마련
- ⑦ 기타(무엇: _____)

7-2. 귀하가 자녀(높은 연령 자녀 기준)와 대화할 때 가장 빈번하게 나누는 대화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골라 번호를 적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계획, 스케줄 공유
- ② 학업 및 학습
- ③ 생활 태도, 습관
- ④ 장래 진로, 미래 계획
- ⑤ 대인/교우 관계, 사회생활
- ⑥ 개인의 심리·정서 상태
- ⑦ 일상생활, 하루 지낸 이야기
- ⑧ 기타(무엇: _____)

7-3. 자녀가 대화를 원치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 ① 대화를 중단하고 회피함
- ② 동일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고자 함
- ③ 주제를 바꿔 대화를 시도함
- ④ 자녀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함
- ⑤ 나중에 자녀가 원할 때 대화하자고 제안함
- ⑥ 기타(무엇: _____)

8. 지난 일주일동안 주중과 주말에 귀하와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자녀에게 집중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없는 경우 “0” 로 기입)

기간	어머니	아버지
주중	시간 분	시간 분
주말	시간 분	시간 분

8-1. 지난 일주일동안 귀하와 배우자가 자녀를 위해 참여한(자녀에게 집중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양육활동의 총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없는 경우 “0” 로 기입)

자녀 양육 활동	어머니	아버지
1) 일상생활(식사, 목욕 등)	시간 분	시간 분
2) 학습 지도/진로 상담	시간 분	시간 분
3) 놀아 주기/여가시간 함께 보내기	시간 분	시간 분
4) 교육/보육 기관 및 학교 등학교 도움	시간 분	시간 분
5) 기타(무엇: _____)	시간 분	시간 분

18. TV 육아프로그램과 인터넷 육아정보(블로그, 카페 등)가 부모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귀하가 가장 동의하는 의견 각각 1가지를 기입해주시시오.

TV 육아프로그램		인터넷 육아정보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① 긍정적인 영향 없음	① 부정적인 영향 없음
② 쉽게 양육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② 비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
③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③ 간접광고 등의 영향으로 과소비 문화를 조장함
④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물건, 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음	④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함
⑤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⑤ 무분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움
⑥ 기타(무엇:)	⑥ 기타(무엇:)

19. 귀하는 자녀를 위해서 고가의 육아용품(예: 150만원 이상 유모차)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구매의사 없음
- ② 고려해 볼 만함
- ③ 아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함
- ④ 모르겠음

20. 2016년 현재의 양육문화(자녀교육, 소비, 훈육 등)는 과거 10년 전 또는 부모시대의 양육 문화와 비교하여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변함이 없는지, 또는 변화하였는지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양육 문화
변함없는 점	
변화한 점	

21. 전업 주부도 자녀 양육 이외에 다른 활동(가사일, 은행업무, 장보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0-2세 영아 자녀를 둔 전업 주부에게 하루에 어느 정도 다른 사 람이 자녀 돌봄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0" 기입)

1일 약 _____시간

22. 노르웨이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일 일정시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부모로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0" 기입)

1일 약 _____시간 _____분

23.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격증(운전면허증) 취득이 필요하듯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① 찬성
- ② 반대



Ⅲ. 자녀 양육 지원

1. 귀하가 부모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졌던) 양육관련 이슈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경험한 부모 생애주기 단계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예: 첫째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1), 2), 3)번까지 응답)

부모 생애 주기	주요관심 양육이슈	
1) 결혼 후 무자녀 시기	1순위()	2순위()
2) 임신, 출산기	1순위()	2순위()
3) 자녀 영유아기	1순위()	2순위()
4) 자녀 아동기 (초등)	1순위()	2순위()
5) 자녀 청소년기 (중고등)	1순위()	2순위()
6) 성인 자녀 및 중년기	1순위()	2순위()

- | | |
|------------------|---------------------|
| ① 부모됨의 의미 | ② 가족계획 |
| ③ 부부 관계 | ④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 분담 |
| ⑤ 일-가정 양립 | ⑥ 자녀 돌봄 |
| ⑦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 ⑧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
| ⑨ 자녀의 대인관계 | ⑩ 자녀의 심리적 자립 |
| ⑪ 자녀의 취업 | ⑫ 자녀의 결혼 |
| ⑬ 은퇴 계획, 준비 | ⑭ 가족 유대관계 증진 |
| ⑮ 기타 (무엇: _____) | |

2. 귀하는 바람직한(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가 응답을 어려워 하는 경우 면접원이 추가 예시를 설명해 줍니다.
(예: 인내 및 자제력, 경제적 능력, 부모의 체력, 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학교생활지원 능력, 다양한 정보 습득 능력 등)

3. 귀하가 바람직한(좋은) 부모가 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응답자가 응답을 어려워 하는 경우 면접원이 추가 예시를 설명해 줍니다.
(예: 권위적인 생각, 주변의 간섭, 자녀세대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 또는 수용도 등)

4.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경험한 생애주기 단계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예: 첫째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1), 2), 3)번까지 응답)

부모 생애 주기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1) 결혼 후 무자녀 시기	1순위()	2순위()
2) 임신, 출산기	1순위()	2순위()
3) 자녀 영유아기	1순위()	2순위()
4) 자녀 아동기 (초등)	1순위()	2순위()
5) 자녀 청소년기(중고등)	1순위()	2순위()
6) 성인 자녀 및 중년기	1순위()	2순위()

- | | |
|-----------------------|-------------------------|
| ① 부모됨의 의미 | ② 부부 관계 개선 방안 |
| ③ 자녀의 발달 특성 | ④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분담 전략 |
| ⑤ 일·가정 양립 전략 | ⑥ 양육 기술 및 방법 |
| ⑦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방법 | ⑧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 방안 |
| ⑨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 | ⑩ 자녀의 독립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
| ⑪ 자녀 독립 후 가족관계 재정립 전략 | ⑫ 기타 (무엇: _____) |

5.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 ② 그렇지 않음 |
| ③ 그러함 | ④ 매우 그러함 |

6. 귀하는 교육을 통해 부모됨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로 언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부모교육이 어린 시기부터 모든 사람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자는 현재 부모가 아닌 사람은 부모됨에 대한 현실감이 낮기 때문에 예비부모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 | | |
|------------------|--------------|-------------|
| ① 초등학교 | ② 중·고등학교 | ③ 대학생 |
| ④ 예비부모 | ⑤ 자녀 영유아기 가족 | ⑥ 자녀 학령기 가족 |
| ⑦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 | |

7. 부모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자녀 연령 시기에 이루어지는 양육 지원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영유아기(취학전)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생 |
| ④ 고등학교 | ⑤ 대학생 | ⑥ 대학졸업 이후 성인 |

8. 귀하는 가정과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정 7: 국가 3, 가정 5: 국가 5, 가정 3: 국가 7 등)

가정	국가

9. 귀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교육·보육 강화(공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②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 ③ 사교육비 경감
- ④ 가정 내 양성평등(남편과 아내의 가사분담)
- ⑤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육아휴직 및 탄력근무, 복직 보장 등)
- ⑥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학교 폭력, 성폭행 등으로부터 안전)
- ⑦ 기타(무엇: _____)

10. 귀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지원 정책 수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 본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수혜 경험	만족도	불만족 이유
	① 현재 받음 ② 과거 받음 ③ 받은 적 없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만족도 ③, ④ 응답자만 작성
1) 불임부부 지원			
2) 출산 휴가			
3) 육아휴직			
4) 탄력근무제(시간제, 시차 출퇴근)			
5) 보육료·교육비 지원			
6)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대상)			
7) 방과후돌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서비스 모두 포함)			
8) 기타 (무엇: _____)			

11. 부모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수혜 경험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기입)

1순위	2순위

- ① 불임부부 지원
- ② 출산 휴가
- ③ 육아휴직
- ④ 탄력근무제(시간제, 시차 출퇴근)
- ⑤ 보육료·교육비 지원
- ⑥ 가정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대상)
- ⑦ 방과후돌봄(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서비스 모두 포함)
- ⑧ 자녀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

기혼
무자녀

2016년도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6년 기본과제로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가치관과 자녀양육 실태를 알아보고,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하신 내용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 조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김 정 민 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최 광 신 차장 (02)3014-0099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취업여부	① 취업 ② 휴직 ③ 미취업
		맞벌이 여부	① 맞벌이임 ② 아님
자녀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월 평균 가구 근로소득	_____만원
거주지역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읍/면/동		
교육수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4년제 대학 재학 ③ 전문대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조사담당자		조사표작성일	2016년 월 일



I. 자녀 가치와 부모됨

1. 귀하께서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 ③ 없어도 상관없다 **※ 질문 1-1로**
- ④ 없는 것이 더 좋다 **※ 질문 1-1로**

1-1. (문항 1에서 ③, ④번 응답한 경우) 왜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가 안되어
- ② 자녀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 ③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 ④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 ⑤ 부모가 될 정서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잘 기를 자신/확신이 없어서 등)
- ⑥ 기타(무엇:)

2. 귀하는 향후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질문 3으로**
- ② 없다 **※ 질문 4로**
- ③ 첫째아이 임신 중 **※ 질문 3로**

3. 총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계획이십니까? (임신 중인 자녀 포함)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이상

4. 자녀의 가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 해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8. 부모됨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동반하는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다				
2)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3)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심리·정서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				
4)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5) 자녀를 낳으면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이다				
6) 자녀가 영유아(초등 이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자녀양육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가 꼭 양육을 전담할 필요는 없다				
8)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이 크므로 어머니가 주된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				
9) 자녀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10)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이다				
11)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9. 주어진 두 개의 문장 중 귀하의 솔직한 생각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표 해 주십시오.

9-1. 부모주도성	<input type="checkbox"/> 1)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input type="checkbox"/> 2)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9-2. 자녀보담	<input type="checkbox"/> 1)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2)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이에 대해 부담가질 필요 없다

10. 자녀의 성장에 부모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④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11. 부모로서 언제까지 자녀에게 정서·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 ① 대학 입학 전까지 ② 대학 졸업할 때까지
 ③ 취업할 때까지 ④ 결혼할 때까지
 ⑤ 결혼 후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될 때까지 ⑥ 평생 동안 언제라도

12.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합니까?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래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영유아 자녀	초등 자녀	중고등 자녀	성인 자녀

- ①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함
- ② 어머니만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함
- ③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 ④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 ⑤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부모 동등하게 가사와 양육을 분담함

13. 부부의 육아와 가사 분담 적정 비율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부부 사이에 자녀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이 10 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14. 자녀가 영유아 시기에 부모가 이혼을 한다면, 누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부모 공동
- ④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
- ⑤ 부모가 아닌 혈연자(조부모 등)
- ⑥ 비혈연자
- ⑦ 자녀의 선택에 따름
- ⑧ 기타(무엇:)

 II. 자녀 양육 가치, 태도, 정서, 문화 등

1. 다음은 자녀양육에서 강조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귀하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의 중요도를 각각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 다소 중요함	④ 매우 중요함
1)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2)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의 추구				
3)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				
4)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				
5) 타인에 대한 봉사 정신				
6) 자기 일에 대한 성취				

2.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2)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3)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4)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편이다				
5)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하라고 한다				
6)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3.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 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2) 취업모는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3)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쉽다				

4. 자녀에게 한글, 외국어, 수리, 예능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항목	① 만2세 이전	② 만2세	③ 만3세	④ 만4세	⑤ 만5세	⑥ 초등학교 이후
1) 한글						
2) 외국어(영어 등)						
3) 수리(수학적 개념, 연산 등)						
4)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등)						

5. 취학 전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에 ✓표 해주십시오.

- ① 조기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
- ②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③ 기본적 소양과 취미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 ④ 장차 학교성적이나 내신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 ⑤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 ⑥ 아이 인성, 창의성 등 전인발달에 필요하다
- ⑦ 기타



Ⅲ. 자녀 양육 지원

1. 귀하는 바람직한(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가 응답을 어려워하는 경우 면접원이 추가 예시를 설명해 줍니다.

(예: 인내 및 자제력, 경제적 능력, 부모의 체력, 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학교생활지원 능력, 다양한 정보 습득 능력 등)

2.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녀가 없는 경우 1)번만 응답, 첫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 1), 2)번까지 응답

부모 생애 주기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1) 결혼 후 무자녀 시기	1순위()	2순위()
2) 임신, 출산기	1순위()	2순위()

- | | |
|-----------------------|-------------------------|
| ① 부모됨의 의미 | ② 부부 관계 개선 방안 |
| ③ 자녀의 발달 특성 | ④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분담 전략 |
| ⑤ 일·가정 양립 전략 | ⑥ 양육 기술 및 방법 |
| ⑦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방법 | ⑧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 방안 |
| ⑨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 | ⑩ 자녀의 독립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
| ⑪ 자녀 독립 후 가족관계 재정립 전략 | ⑫ 기타 (무엇: _____) |

3.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4. 귀하는 교육을 통해 부모됨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로 언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부모교육이 어린 시기부터 모든 사람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자는 현재 부모가 아닌 사람은 부모됨에 대한 현실감이 낮기 때문에 예비부모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① 초등학생 ② 중·고등학생 ③ 대학생
④ 예비부모 ⑤ 자녀 영유아기 가족 ⑥ 자녀 학령기 가족
⑦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5. 부모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자녀 연령 시기에 이루어지는 양육 지원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기(취학전)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⑤ 대학생 ⑥ 대학졸업 이후 성인

6. 귀하는 가정과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정 7: 국가 3, 가정 5: 국가 5, 가정 3: 국가 7 등)

가정	국가

7. 귀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교육·보육 강화(공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②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 ③ 사교육비 경감
- ④ 가정 내 양성평등(남편과 아내의 가사분담)
- ⑤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육아휴직 및 탄력근무, 복직 보장 등)
- ⑥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학교 폭력, 성폭행 등으로부터 안전)
- ⑦ 기타(무엇: _____)

8. 귀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지원 정책 수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 본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수혜 경험	만족도	불만족 이유
	① 현재 받음 ② 과거 받음 ③ 받은 적 없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만족도 ③, ④ 응답자만 작성
1) 불임부부 지원			
2) 출산 휴가			
3) 탄력근무제(시간제, 시차 출퇴근)			
4) 기타 (무엇: _____)			

9. 부모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수혜 경험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기입)

1순위	2순위

- ① 불임부부 지원
- ② 출산 휴가
- ③ 육아휴직
- ④ 탄력근무제(시간제, 시차 출퇴근)
- ⑤ 보육료·교육비 지원
- ⑥ 가정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대상)
- ⑦ 방과후돌봄(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서비스 모두 포함)
- ⑧ 자녀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

설문에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혼

2016년도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6년 기본과제로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가치관과 자녀양육 실태를 알아보고,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하신 내용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 조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김 정 민 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최 광 선 차장 (02)3014-0099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결혼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 별거	취업여부	① 취업 ② 휴직 ③ 미취업
거주지역	____시/도 ____구/시/군 ____읍/면/동	월 평균 가구 근로소득	_____만원
교육수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4년제 대학 재학 ③ 전문대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조사담당자		조사표작성일	2016년 ____월 ____일



I. 자녀 가치와 부모됨

1. 귀하는 앞으로 결혼하실 생각입니까?

- ① 할 생각이다 **☞ 질문 2로**
- ② 하지 않을 것이다 **☞ 질문 1-1로**

1-1.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력 유지 및 향상 등 개인의 삶을 위해
- ② 경제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 ③ 일 하면서 결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 ④ 결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 ⑤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 ⑥ 결혼을 하면 자녀나 시댁, 처가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 ⑦ 기타()

2. 귀하께서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 ③ 없어도 상관없다 **☞ 질문 2-1로**
- ④ 없는 것이 더 좋다 **☞ 질문 2-1로**

2-1. 왜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가 안되어
- ② 자녀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 ③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 ④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 ⑤ 부모가 될 정서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잘 기를 자신/확신이 없어서 등)
- ⑥ 기타(무엇:)

3. 자녀의 가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 해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11.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는 어떠합니까?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래에서 해당하는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영유아 자녀	초등 자녀	중고등 자녀	성인 자녀

- ①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함
- ② 어머니만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함
- ③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는 시간제로 근무함
- ④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아버지는 시간제로 근무함
- ⑤ 부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부모 동등하게 가사와 양육을 분담함

12. 부부의 육아와 가사 분담 적정 비율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부부 사이에 자녀양육과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이 10 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8: 아버지 2, 어머니 5: 아버지 5, 어머니 2: 아버지 8)

양육	가사
어머니 vs 아버지 (:)	어머니 vs 아버지 (:)

13. 자녀가 영유아 시기에 부모가 이혼을 한다면, 누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버지
- ② 어머니
- ③ 부모 공동
- ④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모
- ⑤ 부모가 아닌 혈연자(조부모 등)
- ⑥ 비혈연자
- ⑦ 자녀의 선택에 따름
- ⑧ 기타(무엇:)



II. 자녀 양육

1. 다음은 자녀양육에서 강조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귀하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의 중요도를 각각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별로 중요하지 않음	③ 다소 중요함	④ 매우 중요함
1)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2)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의 추구				
3)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				
4)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				
5) 타인에 대한 봉사 정신				
6) 자기 일에 대한 성취				

2.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부모가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				
2)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3) 자녀가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4) 자녀의 행동이나 자녀가 성취해낸 일에 늘 관심을 갖는 편이다				
5) 자녀가 할 수 있다면 안쓰럽지만 힘든 일도 혼자서 하라고 한다				
6)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자녀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다				

3. 취업모의 자녀양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어머니로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일 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2) 취업모는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3)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쉽다				

4. 취학 전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에 표 해주십시오.

- ① 조기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
- ②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③ 기본적 소양과 취미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 ④ 장차 학교성적이나 내신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 ⑤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 ⑥ 아이 인성, 창의성 등 전인발달에 필요하다
- ⑦ 기타



Ⅲ. 자녀 양육 지원

1. 귀하는 바람직한(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가 응답을 어려워하는 경우 면접원이 추가 예시를 설명해 줍니다.

(예: 인내 및 자제력, 경제적 능력, 부모의 체력, 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학교생활지원 능력, 다양한 정보 습득 능력 등)

2.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 ② 그렇지 않음
- ③ 그러함
- ④ 매우 그러함

3. 귀하는 교육을 통해 부모됨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로 언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부모교육이 어린 시기부터 모든 사람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자는 현재 부모가 아닌 사람은 부모됨에 대한 현실감이 낮기 때문에 예비부모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① 초등학생
- ② 중고등학생
- ③ 대학생
- ④ 예비부모
- ⑤ 자녀 영유아기 가족
- ⑥ 자녀 학령기 가족
- ⑦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4. 부모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자녀 연령 시기에 이루어지는 양육 지원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기(취학전)
- ② 초등학생
- ③ 중학생
- ④ 고등학생
- ⑤ 대학생
- ⑥ 대학졸업 이후 성인

5. 귀하는 가정과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정 7: 국가 3, 가정 5: 국가 5, 가정 3: 국가 7 등)

가정	국가

6. 귀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교육·보육 강화(공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②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 ③ 사교육비 경감
- ④ 가정 내 양성평등(남편과 아내의 가사분담)

- ⑤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육아휴직 및 탄력근무, 복직 보장 등)
- ⑥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학교 폭력, 성폭행 등으로부터 안전)
- ⑦ 기타(무엇: _____)

**7. 부모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육아지원정책은 무엇입니까?
(수혜 경험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기입)**

1순위	2순위

- ① 불임부부 지원
- ② 출산 휴가
- ③ 육아휴직
- ④ 탄력근무제(시간제, 시차 출퇴근)
- ⑤ 보육료·교육비 지원
- ⑥ 가정양육수당 지원(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대상)
- ⑦ 방과후놀봄(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놀봄 서비스 모두 포함)
- ⑧ 자녀양육 친화적 인프라 확충(박물관, 도서관, 공원 등)

설문에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부모

2016년도 한국인의 부모됨 의식과 자녀양육관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6년 기본과제로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가치관과 자녀양육 실태를 알아보고, 부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하신 내용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 조사주관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김 정 민 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최 광 선 차장 (02)3014-0099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연령대	① 30대 ② 40대
한부모가 된 시기의 자녀 연령 (첫자녀 기준)	첫 자녀 연령 만 ____세	한부모로서 양육 기간	____년 ____개월
자녀 수 및 연령 및 성별	총 ____명 ①만 ____세 (남/여) ②만 ____세 (남/여) ③만 ____세 (남/여)	취업여부	① 취업 ② 휴직 ③ 미취업
		취업형태	① 정규직 종일제 ② 정규직 시간제 ③ 비정규직 종일제 ④ 비정규직 시간제
		평균 근무일수와 시간	주당 총 ()일/ 총 ()시간
거주지역	____시/도 ____구/시/군 ____읍/면/동	월 평균 가구 근로소득	_____만원
교육수준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4년제 대학 재학 ③ 전문대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조사담당자		조사표작성일	2016년 ____월 ____일



1. 자녀 가치와 부모됨

1. 귀하께서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꼭 있어야 한다
- ②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 ③ 없어도 상관없다 **☞ 질문 1-1로**
- ④ 없는 것이 더 좋다 **☞ 질문 1-1로**

1-1. (문항 1에서 ③, ④번 응답한 경우)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지만 선택)

- ① 경제적인 부담 및 준비가 안되어
- ② 자녀로 인해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 ③ 부부간에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 ④ 본인이 아이를 싫어해서
- ⑤ 부모가 될 정서 심리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잘 기를 자신/확신이 없어서 등)
- ⑥ 기타(무엇: _____)

2. 귀하의 자녀는 현재 모두 몇 명입니까?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이상 **☞ 2-1로**

2-1. (문항 2에서 ③번 응답한 경우)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지만 선택)

- ① 자녀들에게 다양한 형제관계 경험을 갖게 하고 싶어서
- ② 아이가 예쁘고 아이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 ③ 자녀가 많은 가족이 더 화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④ 원하는 성별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 ⑤ 배우자 혹은 다른 가족들이 원해서
- ⑥ (의도치 않게) 자녀가 생겼기 때문에
- ⑦ 기타(무엇: _____ 예: 노후에 널 외로울 것 같아서)

3. 자녀의 가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 해주십시오.

구분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3.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시하십시오.

항목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대체로 동의함	④ 전적으로 동의함
1) 자녀 양육을 어떻게하면 좋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2)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3) 자녀를 키우면서 참고만 사는 것 같다				
4)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싶어질 때가 많다				
5) 자녀가 장래에 잘 성장할지 걱정된다				
6)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신도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7)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8) 자녀에게 남들만큼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든다				

4. 다음 중 부모로서 양육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측면을 고르십시오. (1가지만 선택)

- ①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 ②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 ③ 자녀 돌봄과 지도
- ④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 ⑤ 기타(무엇: _____)

5. 다음 중 부모로서 양육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측면을 고르십시오. (1가지만 선택)

- ①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 ② 양육 비용에 대한 부담
- ③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 ④ 자녀의 학업/직업적 성취
- ⑤ 자녀의 심리적 안정
- ⑥ 자녀의 신체적 건강
- ⑦ 나의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
- ⑧ 배우자의 무관심, 부재
- ⑨ 자녀가 아프거나 긴급 상황에 양육지원자 없음
- ⑩ 기타(무엇: _____)

6. 귀하의 양육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가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의 행동을 하였는지 각각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목	① 없음	② 드물게	③ 자주	④ 항상
1)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말로 타이른다				
2)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3) 자녀가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해보게 한다				
4) 자녀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몇 번이라도 설명해준다				
5) 자녀가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준다 (예: 잘했어, 잘하고 있어, 등)				
6) 자녀가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주장을 할 때, 자녀의 뜻을 꺾기 위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겁을 준다				
7)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자녀에게 소리치거나 화를 낸다				

9. 지난 일주일동안 주중과 주말에 귀하가 자녀를 위해(자녀에게 집중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없는 경우 “0” 로 기입)

기간	시간	
주중	시간	분
주말	시간	분

9-1. 지난 일주일동안 귀하가 자녀를 위해 참여한(자녀에게 집중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양육활동의 총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없는 경우 “0” 로 기입)

자녀 양육 활동	시간	
1) 일상생활(식사, 목욕 등)	시간	분
2) 학습 지도/진로 상담	시간	분
3) 놀아 주기/여가시간 함께 보내기	시간	분
4) 교육/보육 기관 및 학교 등학교 도움	시간	분
5) 기타(무엇:)	시간	분

10.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누구로부터 주로 지원을 받으십니까?

구분	주 양육 지원자
1) 자녀가 아프거나 다치는 긴급한 상황	
2) 예상치 못한 야근, 휴일 근무 등	
3) 부모 출근 후 ~ 자녀 등원 전	
4) 자녀 하원 후~ 부모 퇴근 전	

- ① 조부모 ② 조부모 외 혈연자(형제자매, 친인척 등) ③ 전 배우자
- ④ 이웃이나 자녀 친구 부모 ⑤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등
- ⑥ 학원 ⑦ 초등돌봄,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시간제보육 등 보육서비스
- ⑧ 한부모가 직접 돌봄 ⑨ 그냥 자녀 혼자 보냄
- ⑩ 자녀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등·하교(원) 시간에 맞춰 근무시간을 조정함.
- ⑪ 기타(무엇: ex. 담임교사 등)

10.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까?

- ①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9-1)
- ② 정기적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받음
- ③ 받은 적 없음

10-1.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양육비의 금액은?

매월 약 _____ 원

15-2.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부족한 부모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양육지식을 얻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함
- ②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 노력함
- ③ 자녀의 학업지도를 위해 교육의 기회를 주거나, 직접 자녀 학업을 지도함
- ④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시간제로 추가 근무를 하거나, 일자리를 알아봄
- ⑤ 배우자를 대신하여 성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혈연 및 비혈연 성인과의 만남을 제공함
- ⑥ 기타(무엇: _____)

※ 자녀가 이미 성인인 경우, 과거 자녀의 영유아기에 귀하의 경험을 회상하여 제시해주십시오.

16. 귀하는 주로 양육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 ① 부모, 친인척 등
- ② 친구, 이웃, 부모 등
- ③ 인터넷(블로그, 육아카페)
- ④ TV프로그램(EBS, 육아예능 등)
- ⑤ 부모교육(센터, 병원 등)
- ⑥ 육아 서적
- ⑦ 기타(무엇: _____)

17. 귀하가 (14번에서 응답한 내용)을 통해 얻는 양육 정보가 전문적이고 믿을만한 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 ② 그렇지 않음
- ③ 그러함
- ④ 매우 그러함

18.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양육 정보 제공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 및 친인척 등
- ② 친구, 이웃, 부모 등
- ③ 인터넷(블로그, 육아카페)
- ④ TV프로그램(EBS, 육아예능 등)
- ⑤ 부모교육(센터, 병원 등)
- ⑥ 육아 서적
- ⑦ 기타(무엇: _____)

19. 귀하는 매체나 주변 지인의 영향으로 본인의 양육 가치관이나 양육 행동이 변화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 ② 그렇지 않음
- ③ 그러함 17-1코
- ④ 매우 그러함 17-1

19-1. 어떤 변화를 경험하십니까?

(예, 이전보다 자녀와의 문화생활이 빈번해짐, 특정 유아용품 혹은 음식 등을 구입함 등)

20. TV 육아프로그램과 인터넷 육아정보(블로그, 카페 등)가 부모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귀하가 가장 동의하는 의견 각각 1가지를 기입해주시시오.

TV 육아프로그램		인터넷 육아정보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① 긍정적인 영향 없음	① 부정적인 영향 없음
② 쉽게 양육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음	② 비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전달함
③ TV에 나오는 부모의 양육을 보고 배울 수 있음	③ 간접광고 등의 영향으로 과소비 문화를 조장함
④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경험(물건, 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음	④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함
⑤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던 부모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⑤ 무분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움
⑥ 기타(무엇:)	⑥ 기타(무엇:)

21. 귀하는 자녀를 위해서 고가의 육아용품(예: 150만원 이상 유모차)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구매의사 없음
- ② 고려해 볼 만함
- ③ 아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함
- ④ 모르겠음

22. 2016년 현재의 양육문화(자녀교육, 소비, 훈육 등)는 과거 10년 전 또는 부모시대의 양육 문화와 비교하여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변함이 없는지, 또는 변화하였는지를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양육 문화
변함없는 점	
변화한 점	

23. 전업 주부도 자녀 양육 이외에 다른 활동(가사일, 은행업무, 장보기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0-2세 영아 자녀를 둔 전업 주부에게 하루에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이 자녀 돌봄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0" 기입)

1일 약 _____시간

24. 노르웨이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일 일정시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부모로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자녀와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0" 기입)

1일 약 _____시간 _____분

23.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격증(운전면허증) 취득이 필요하듯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① 찬성
- ② 반대



Ⅲ. 자녀 양육 지원

1. 귀하가 부모로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졌던) 양육관련 이슈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경험한 부모 생애주기 단계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예: 첫째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1), 2), 3)번까지 응답)

부모 생애 주기	주요관심 양육이슈	
1) 결혼 후 무자녀 시기	1순위()	2순위()
2) 임신, 출산기	1순위()	2순위()
3) 자녀 영유아기	1순위()	2순위()
4) 자녀 아동기 (초등)	1순위()	2순위()
5) 자녀 청소년기 (중고등)	1순위()	2순위()
6) 성인 자녀 및 중년기	1순위()	2순위()

- | | |
|------------------|---------------------|
| ① 부모됨의 의미 | ② 가족계획 |
| ③ 부부 관계 | ④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 분담 |
| ⑤ 일-가정 양립 | ⑥ 자녀 돌봄 |
| ⑦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 ⑧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
| ⑨ 자녀의 대인관계 | ⑩ 자녀의 심리적 자립 |
| ⑪ 자녀의 취업 | ⑫ 자녀의 결혼 |
| ⑬ 은퇴 계획, 준비 | ⑭ 가족 유대관계 증진 |
| ⑮ 기타 (무엇: _____) | |

2. 귀하는 바람직한(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가 응답을 어려워 하는 경우 면접원이 추가 예시를 설명해 줍니다.
 (예: 인내 및 자제력, 경제적 능력, 부모의 체력, 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학교생활지원 능력, 다양한 정보 습득 능력 등)

3. 귀하가 바람직한(좋은) 부모가 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응답자가 응답을 어려워 하는 경우 면접원이 추가 예시를 설명해 줍니다.
 (예: 한부모가정에 대한 주변의 편견, 권위적인 생각, 주변의 간섭, 자녀세대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 또는 수용도 등)

4.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경험한 생애주기 단계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예: 첫째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1), 2), 3)번까지 응답)

부모 생애 주기	필요한 부모교육 내용	
1) 결혼 후 무자녀 시기	1순위()	2순위()
2) 임신, 출산기	1순위()	2순위()
3) 자녀 영유아기	1순위()	2순위()
4) 자녀 아동기 (초등)	1순위()	2순위()
5) 자녀 청소년기(중고등)	1순위()	2순위()
6) 성인 자녀 및 중년기	1순위()	2순위()

- | | |
|-----------------------|-------------------------|
| ① 부모됨의 의미 | ② 부부 관계 개선 방안 |
| ③ 자녀의 발달 특성 | ④ 가정 내 가사와 양육 역할분담 전략 |
| ⑤ 일·가정 양립 전략 | ⑥ 양육 기술 및 방법 |
| ⑦ 자녀의 교육, 학습 지원 방법 | ⑧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 개선 방안 |
| ⑨ 자녀와의 갈등 해결 방법 | ⑩ 자녀의 독립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방법 |
| ⑪ 자녀 독립 후 가족관계 재정립 전략 | ⑫ 기타 (무엇: _____) |

5.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됨 및 자녀양육관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 ② 그렇지 않음 |
| ③ 그러함 | ④ 매우 그러함 |

6. 한부모 가정을 위해 어떠한 내용의 부모교육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선택)

1순위_____ 2순위_____

- ① 한부모로서 자녀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방법
- ② 자녀 양육을 전담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와의 소통방법
- ③ 성이 다른 자녀의 양육지원 전략
- ④ 부모 부재로 인한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방안
- ⑤ 한부모로서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극복 방안 지원
- ⑥ 한부모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6. 귀하는 교육을 통해 부모됨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로 언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부모교육이 어린 시기부터 모든 사람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자는 현재 부모가 아닌 사람은 부모됨에 대한 현실감이 낮기 때문에 예비부모나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 | | | |
|------------------|--------------|-------------|
| ① 초등학생 | ② 중고등학생 | ③ 대학생 |
| ④ 예비부모 | ⑤ 자녀 영유아기 가족 | ⑥ 자녀 학령기 가족 |
| ⑦ 성인 자녀 및 중년기 가족 | | |

7. 부모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자녀 연령 시기에 이루어지는 양육 지원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유아기(취학전)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생
- ④ 고등학교
- ⑤ 대학생
- ⑥ 대학졸업 이후 성인

8. 귀하는 가정과 국가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이 10이 되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가정 7: 국가 3, 가정 5: 국가 5, 가정 3: 국가 7 등)

가정	국가

9. 귀하는 자녀를 안심하고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교육·보육 강화(공립유치원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② 보육·교육기관의 질 향상
- ③ 사교육비 경감
- ④ 가정 내 양성평등(남편과 아내의 가사분담)
- ⑤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확립(육아휴직 및 탄력근무, 복직 보장 등)
- ⑥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학교 폭력, 성폭행 등으로부터 안전)
- ⑦ 기타(무엇: _____)

10. 귀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지원 정책 수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아 본적이 있다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수혜 경험	만족도	불만족 이유
	① 현재 받음 ② 과거 받음 ③ 받은 적 없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만족도 ③, ④ 응답자만 작성
1) 불임부부 지원			
2) 출산 휴가			
3) 육아휴직			
4) 탄력근무제(시간제, 시차 출퇴근)			
5) 보육료·교육비 지원			
6)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아동 대상)			
7) 방과후돌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방과후돌봄 서비스 모두 포함)			
8)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8-1)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			
8-2) 자녀 교육비 추가 지원			
8-3) 주거관련 지원			
8-4) 창업자금 및 취업교육 지원			

연구보고 2016-21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발행일 2016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92-9 93330

